

고구려통사 9

고구려 고고  
- 유물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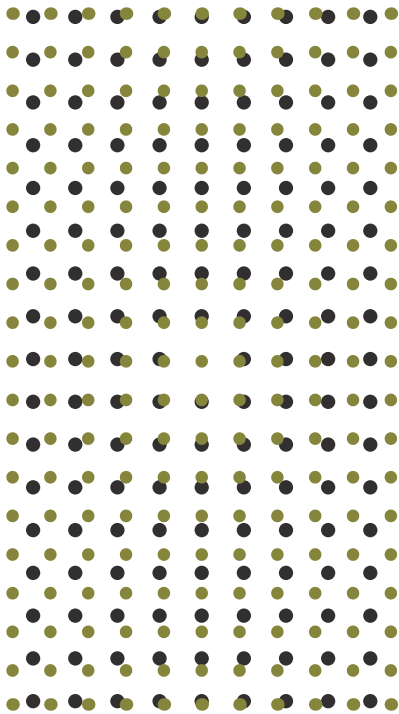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통사 ⑨

# 고구려 고고 - 유물 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고구려통사』의 편찬 목적과 주안점

고구려사는 한국고대사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상을 보였던 분야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의 초기 기사를 적극 활용하여 고구려사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이 새롭게 모색되었으며, 정치사와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연구주제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고고학에서는 북한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개설적인 정리를 시도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중국에 남아 있는 고구려 고고자료가 소개되고 임진강 이남의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가 늘어나면서 고분벽화·고분·토기 등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성과물이 나오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현시점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집약하여 고구려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며, 새로운 연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편찬하였다.

첫째, 축적된 연구성과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다. 현재 학계가 이용하고 있는 고구려사 개설서나 개인 연구자의 연구서들은 발간 당시의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과거

의 이해에 머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범위가 넓어지고 새로운 이해가 더해졌지만, 학문적 성과를 잘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연구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정리가 절실하다.

둘째, 역사상에 부합하는 이해를 제시할 필요성이다. 그동안 고구려사 연구가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재검토가 요청되는 선부른 결론도 보인다. 이 경우 역사상에 부합하는 이해를 제시하여 이제 막 연구자의 길에 들어선 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 학술적으로 타당한 이해를 토대로 고구려사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구려통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획위원회가 가장 고민한 지점은 어떻게 하면 역사상에 충실하며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집필이 가능할 것인가였다. 기획위원으로는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기섭(경기도박물관 관장), 정호섭(고려대학교 교수), 양시은(충북대학교 교수),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가 참여하였다. 『고구려통사』 총서는 시대별 특징과 고고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기사(전 2권), 중기사(전 2권), 후기사(전 3권), 고고자료(전 2권), 그리고 총론(1권)으로 구성하였다.

각 권은 주제와 시기를 달리하지만, 체계와 내용의 주안점에서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일관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가 책임지고 해당 장절을 집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회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편목별 내용구성안과 집필기준에 따라 원고를 작성토록 하였다.

한편, 고구려사 연구가 짧은 시간 내에 이토록 발전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식 연구가 추동한 위기의식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는 고구려사를 핵심과제로 다루었고, 자연스럽게 고구려사를 구성한 제 분야를 섭렵하는 연구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최근에는 유민 묘지(遺民墓誌)나 『한원(翰苑)』 등 1차사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고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논리 개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점에서 『고구려통사』는 세 번째 주안점을 새로운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충실한 소개와 중국 측 논거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종합적 이해의 제시에 두었다.

『고구려통사』 발간은 이러한 고구려사의 연구성과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학계와 일반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 막 입문한 이들에게는 고구려사의 주요 맥락과 과제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라며,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간 알지 못했던 고구려의 새로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기획위원회를 대신하여

김현숙

## 차례

책머리에 / 5

### 1

#### 토기 / 최종택

1. 연구현황 / 15
2. 제작기법 / 24
3. 기종과 기능 / 29
4. 기원과 변천 / 47

### 2

#### 와전 / 백종오

1. 연구 약사 / 70
2. 기와의 종류 / 74
3. 기본기와의 특징 / 81
4. 와당의 형식과 시기 구분 / 91
5. 문자기와의 전돌 / 112
6. 와전을 통한 고구려 문화 / 123

### 3

#### 무기 및 무구 / 양시은

1. 공격용 무기의 종류와 특징 / 147
2. 방어용 무기의 종류와 특징 / 167
3. 고구려 무기체계의 변천 / 177
4. 고구려군의 구성과 편제 / 186

## 4

### 마구와 마갑주 / 강현숙

1. 기승마구 / 199
2. 수레부속구와 기타 마구 / 224
3. 말 갑옷과 투구 / 233
4. 고구려 마구의 변천과 그 의미 / 236

## 5

### 생업도구 및 생활도구 / 김재홍

1. 생업도구 / 253
2. 생활도구 / 284

## 6

### 장신구 / 이한상

1. 장신구의 사례와 특징 / 302
2. 장신구 제작에 구사된 공예기술 / 322

## 7

### 불교조각 / 최성은

1. 초기 불교미술 / 335
2. 평양 천도 이후의 불교미술 / 339

## 8

### 기타 금속기 / 장은정

1. 매장시설 출토 기타 금속기 / 389
2. 생활유적 출토 기타 금속기 / 412
3. 금속기 제작기술 / 416

찾아보기 / 440



# 토기

1. 연구현황
2. 제작기법
3. 기종과 기능
4. 기원과 변천



# 1장 토기

최종택 |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1980년대 이후 고구려 토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구의 부진은 대체로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큰데, 특히 4세기 이전의 고구려 초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 이후 중국 동북 지방의 초기 유적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비교적 자세히 보고되었으며, 남한 지역에서도 5세기 후반 이후의 고구려 토기 자료가 상당히 보고되어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고구려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기종이 평저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호·옹류의 경우에는 목과 구연이 발달한 형태이고, 호·옹류 및 동이류, 시루류 등에 대상과수가 부착된다는 점 등은 백제 및 신라·가



그림1 | 용마산2보루 출토 고구려 토기 각종(©양시은 외, 2009)

야 토기와 구분되는 특징이다(그림1). 고구려 토기의 기종은 30여 개에 달하는데, 관방유적과 생활유적에서는 거의 모든 기종이 출토되지만, 무덤에 부장되는 기종은 구형호류와 심발형토기류, 사이장경옹류, 원통형삼족기류, 부형토기류, 시루류, 완류, 반류, 호자류 등 제한적이다. 특히 사이장경옹류나 원통형삼족기류를 비롯한 고분 출토 토기의 상당수는 시유토기인 점이 특징이다.

고구려 토기 중 완류, 동이류, 이배류, 연통 등은 6세기 중엽 이후 사비기 백제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또, 한강 유역에서 출토되는 통일신라기 토기 중 생활용기는 거의 모두 고구려 토기의 기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일부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멸망 후에는 고구려 토기의 제작 전통이 발해에 그대로 이어졌으며, 고려 및 조선의 생활용기에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의 원형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1. 연구현황

고구려 토기에 대한 관심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토기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는 1980년대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 고구려 토기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崔鍾澤, 1999; 2001; 白井克也, 2005; 孫顯, 2012).<sup>1</sup> 1980년대 이전의 고구려 토기에 대한 연구는 발굴보고서에서 개별 토기에 대한 설명이나 도록 및 개설서 등의 고구려 토기에 대한 개설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격적인 연구논문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구려 토기의 일반적인 특징을 서술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고구려 토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논문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973년 북한의 정찬영은 4세기경까지의 고구려 고분을 편년하는 논문을 통해 고분 출토 토기류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정찬영, 1973). 이 글은 고구려 고분을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편년하고 그에 따라 고분 출토 토기를 편년한 것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경향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1980년대에 들어와 중국에서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토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1984년 경철화와 임지덕은 중국 집안 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변천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고구려 토기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이유를 자료의 부족과 산재에 있다고 보고 1980년대 들어서 집안 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96점의 토기를 중심으로 형식 분류와 편년을 실시하였다

---

1 특히 시라이 가쓰야는 시기별·지역별·주제별 연구성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白井克也,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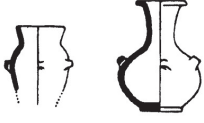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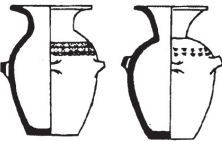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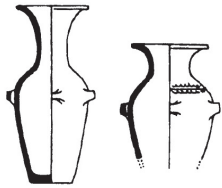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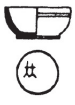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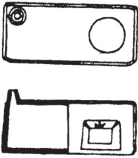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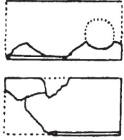
	사이호 (四耳壺)	고복관 (鼓腹罐)	대구관 (大口罐)	쌍이호 (雙耳壺)	발 (鉢)
전기					
중기					
후기					

그림2 | 고구려 토기 편년표 (耿鐵華·林至德, 1984)

(耿鐵華·林至德, 1984). 이들은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를 형태와 태토 등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고분의 편년과 대비하여 3단계의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그림2). 이들의 연구는 고분의 편년관에 따라 토기를 나열하고 각 기종별 특징과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단순한 구조이며 순환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고구려 토기에 대한 본격적인 종합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고구려 토기 연구 초기에서 주목되는 점의 하나는 대표적인 기종인 사이장경옹(四耳長頸甕)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 기종의 형식 분류와 편년이 고구려 토기 편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분 (盆)	개완 (蓋碗)	호자 (虎子)	옹 (瓮)	도침 (陶枕)	창 (倉)	조 (灶)
						
						

는 짐이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중국 위존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이 사이장경옹을 목 형태에 따라 경부에서 구연으로 곧바로 외반되는 형태(I형)와 직립의 경부가 형성된 후 꺾여서 구연부로 외반되는 형태(II형)의 두 형식으로 나누고, I형은 목이 긴 것에서 짧은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II형은 목이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변화되었고, 동체부의 형태는 두 형식 모두 최대경이 어깨로 올라가고 어깨가 발달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魏存成, 1985, 그림3). 이러한 편년관은 이후 일본의 아즈마 우시오(東潮)에 의해 수정이 가해지고 세분화되었다(東潮, 1988). 특히 마구를 비롯한 편년적 위치가 비교적 분명한 자료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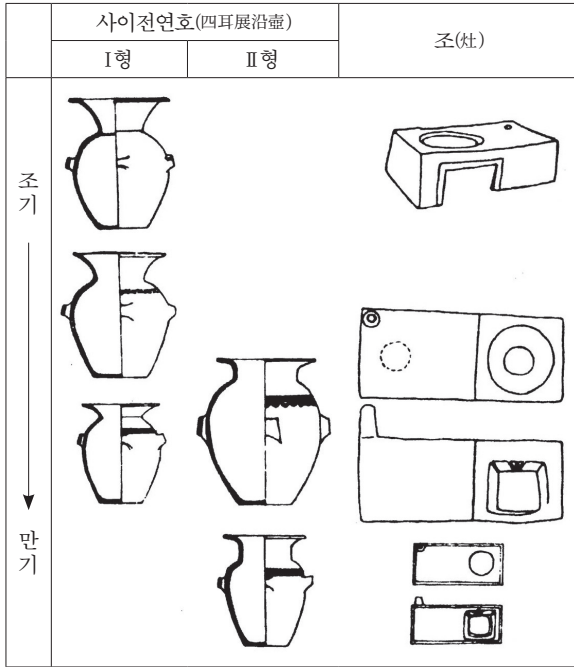


그림3 | 사이장경옹 편년표(魏存成, 1985)

국 동북 지방 출토 토기를 함께 고려한 편년안을 제시하였는데, 당시까지 제시된 편년안 중 가장 정치한 것이다(그림4).

1990년대 북한에서 고구려 토기의 일부 특징적인 속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는데, 리광희는 시유토기와 문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들 논문을 통해 고구려 시유토기가 3세기 이전에 등장하였으며, 고구려 토기 문양의 대부분이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말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리광희, 1991a; 1991b). 이 두 논문은 토기에 대한 설명이나 편년의 논리가 단순하고, 시유토기의 출현 시점을 너무 올려 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법에 관

	고구려·집안 지역	중국·동북 지역	
200	조기		
300	전기		
400	중기		
500	후기		
600	만기		

0 50cm

그림4 | 고구려 토기 편년표(東潮, 1988)

해 관심을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남한에서도 고구려 토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崔鍾澤, 1995). 그동안 고구려 토기에 대한 연구가 주로 고분의 편년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순환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고구려 토기 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과 북한 및 남한 지역에서 출토·보고된 고구려 토기 완형 419개체를 대상으로 제작기술 및 형태적 속성을 분석하여 고구려 토기의 양상과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崔鍾澤, 1999). 그러나 편년의 기준이 되는 자료의 부족으로 고구려 토기 변천 과정의 획기를 고분 편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세부적인 편년을 위한 보완 연구가 요구된다. 같은 해 고구려 토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기원전 200년경의 납납둔유형과 대순자유형에서 보이는 대상파수가 고구려 토기의 초기 형태인 노남리형토기와 같은 특징으로 보고 있다(林淳發, 1999). 이 연구는 혼강-압록강 일대의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문화적 전통을 자세히 검토하고, 고구려 토기의 형성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후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데, 양시은은 한강 유역의 아차산4보루와 시루봉보루, 구의동보루 및 몽촌토성 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법에 대해 고찰하였다(梁時恩, 2003). 고구려 토기 제작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차산4보루 보고서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임효재 외, 2000), 양시은은 실물자료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고구려 토기의 제작과 관련된 전 과정을 정치하게 분석하였으며, 제작기법에서 보이는 차이는 시간적

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임을 시사하였다(梁時恩, 2003). 양시은의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는 5세기 후반 이후 한강 유역 출토 토기류에 대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제작기법을 정치하게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향후 중국과 북한 지역에서도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법에 대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편, 부여 지역 일원에서 출토되는 사비기 백제 토기 중 전 달린 토기를 비롯한 회색 토기, 회흑색 자배기, 연가 등의 기종이 고구려 토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이며, 문헌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金容民, 2002; 朴永民, 2002; 土田純子, 2009; 이재진, 2013).

2004년 남한 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자료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한 편년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최종택, 2004), 한강 유역 고구려 토기의 연대를 세분하여 몽촌토성 출토품은 475~500년 전후, 한강 북안 아차산 일원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500~551년 사이로 수정한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한 지역 고구려 토기 제작기법상의 특징과 형식변천 및 관련된 몇 개의 절대연대 등을 고려하여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토기에 대한 상대 서열을 설정하였다(崔鍾澤, 2006). 그 밖에 2017년 남한 지역 고구려 관방유적에서 출토된 토기편 88점과 흥련봉2보루 토기 태토 5점에 대한 중성자방사화분석(NAA)을 실시하여, 각 유적의 토기가 다른 점토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J. Choi et al., 2017).

2010년 이후 한국에서도 고구려 토기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이 발표되는데, 김한성은 남한 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중 장동호와 장동옹, 광구옹에 대해 새로운 형식 분류를 시도하고 변천 과정을 고찰하

였다(김한성, 2013). 이형호는 연천 호로고루에서 출토된 토기를 출토 유구의 중복관계나 맥락에 따라 3기로 구분하였는데(이형호, 2014), 향 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남한 지역 고구려 토기에 대해 같은 방식의 세분화된 편년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공정길은 고구려의 식생활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토기를 기능에 따라 조리용기, 배식용기, 운반용기, 저장용기로 분류하고, 배식용기의 출토양상 변화에 주목하여 식생활의 변화 과정을 유추하였다(사공정길, 2013). 그 밖에 이승미는 고분에 부장된 토기의 부장양상을 구형호+심발, 반 또는 장경호+부형토기, 시루+부형토기, 사이장경옹+부뚜막형토기 등과 같은 조합으로 구분하고, 부장양상의 변화와 맥락을 고찰하였다(이승미, 2017).

1999년 중국에서도 고구려 토기의 편년에 관한 글이 발표되었다. 교량은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토기가 출토된 고분을 편년하고 이를 근거로 고구려 토기를 9조, 4기로 편년하였는데, 기존 중국 학자들의 편년에 비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喬梁, 1999). 2001년 경철화는 집안 지역에서 출토된 시유토기를 일별하고, 벽화고분 등 귀족무덤에서 주로 출토되는 양상으로 보아 시유토기는 부장용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늦어도 4세기 초에는 시유토기가 등장하였다고 보았다(耿鐵華, 2001).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고구려 토기에 대한 학위논문이 연속적으로 발표되었다. 비림과 왕비봉은 중국 동북 지방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를 고분 출토품과 생활유적 출토품으로 구분하여 형식 분류와 편년을 시도하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 두 논문은 중국 동북 지방 출토 고구려 토기 자료를 종합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

나, 편년은 기존 연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卑琳, 2003; 王飛峰, 2009). 정원철은 중국과 북한 및 남한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를 망라하여 편년을 시도하였는데, 남한 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국에 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鄭元喆, 2005). 2012년 손호의 학위논문은 중국 동북 지방과 북한 및 남한 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자료를 모두 망라하여 종합화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고구려 토기를 집안 지역, 환인 지역, 요하·혼하·태자하 유역, 북한 지역 및 한강 유역 등으로 출토지역을 구분한 후 고분 출토품과 생활유적 출토품으로 구분하여 형식 분류와 편년을 시도하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孫顯, 2012). 이 논문은 중국과 일본, 북한 및 남한의 연구 성과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정치한 분석이 주목되나, 토기의 제작기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상 4편의 학위논문이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연구자별로 기종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생각된다.

한편, 2010년 이후 중국의 연구자들은 토기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구려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등 연구주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손호는 심발류와 구형호류 등의 형태적 유사성을 고구려 토기에 삼연 토기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4~5세기 고구려와 모용선비 사이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설명하였다(孫顯, 2014). 또한 제2송화강 중류지역의 말갈 및 발해 토기를 분석한 후 기본적으로는 고구려 토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말갈의 전통적인 식기인 ‘말갈관(靺鞨罐)’은 고구려 토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해시기까지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孫顯, 2015). 토기를 주제로 한 논문은 아니지만 왕신휘는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관계를 고찰한 학위논문에서 보요장식, 외당과 함께

토기의 상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였으며, 고구려 토기에 보이는 삼연 토기의 요소에 대해 고찰하였다(王晨暉, 2022).

이상에서 1973년 이후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북한 및 남한에서 이루어진 고구려 토기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를 살펴보았다. 고구려 토기에 대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1980년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도 주목되는 연구성과가 있었다. 1990년대에는 북한에서 시유토기와 문양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주로 남한에서의 연구성과가 주목된다. 남한에서의 연구는 분석대상이 시공간상으로 제한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별 토기에 대해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제작기법과 기형에 대해 정직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후 중국에서의 연구에 적지 않은 자극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중국에서 상세한 보고문과 도면 및 사진이 제시된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쓴 여러 편의 학위논문을 통해 자료의 종합화가 이루어졌으며,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는 등 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연구경향은 지속되며, 편년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 2. 제작기법

중국이나 북한에서 출토된 자료의 제작기법에 대한 관찰 결과가 자세히 보고되지 않아 한강 유역을 포함한 남한 지역에서 출토된 자료를 토대로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법을 살펴보겠다. 우선 태토의 측면에서

보면 심발류를 제외한 모든 토기는 기본적으로 잘 정선된 니질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심발류는 고운 사립이 함유된 점토질태토를 사용하고 석면을 보강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니질태토의 토기는 별도의 보강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토기에 산화철( $Fe_2O_3$ ) 성분의 붉은 색 덩어리가 섞여 있는 것이 관찰되며(그림5-1), 의도적으로 섞은 것인지 원료 점토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다른 분석에 따르면 한강 유역의 각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서로 다른 원료 산지에서 점토를 채취한 것으로 생각된다(崔鍾澤, 1995).

고구려 토기는 대체로 경질에 가까우나 백제 토기나 신라·가야 토기에서 보이는 정도의 경질은 아니며, 일부는 표면이 손에 묻어날 정도로 약화되어 있다. 일부 회색조의 토기류는 경도가 상당히 높으나 구연부나 동체부 일부가 찌그러지거나 부풀어 오른 경우가 많아 주된 제작기술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토기류의 표면색은 황색·흑색·회색의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 황색이 가장 많으며, 흑색과 회색은 비슷하다. 그 밖에 토기 표면에 슬립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간혹 있으며, 중국이나 북한 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 중에는 시유토기도 있다.

토기의 성형은 대체로 테쌓기를 한 후 물레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작 과정을 보면 저부에서 구연부 쪽으로 올라오면서 성형하는데, 먼저 납작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점토띠를 쌓아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바닥과 동체부를 접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납작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점토띠를 올려놓고 쌓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납작한 바닥을 만들고 그 주위에 점토띠를 붙여서 쌓는 방식이다(그림5-2, 3). 이 두 가지 방법은 기종과



그림5 | 아차산4보루 출토 고구려 토기의 제작흔 각종(최종택, 2013)

관계없이 혼용되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전자는 대체로 장동호류와 같은 소형 기종에서 많이 관찰된다. 한편, 일부 기종의 바닥에는 얇은 돌대흔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는 토기를 성형할 때 바닥에 받쳤던 판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완류나 접시류의 경우 바닥에 얇은 굽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통굽과 들린굽의 두 형식이 있으며, 들린굽의 경우 굽을 부착하는 방식과 통굽의 내부를 깎아서 만드는 방식이 있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쌓고 아래위를 손으로 눌러서 접합한 후 물레질하여 마감한다. 점토 띠의 폭은 기종에 따라 다르다. 즉, 장동호류와 같은 소형 기종의 경우 점토띠의 폭은 2~3cm에 불과하지만, 옹류와 같은 대형 기종의 경우 점토띠의 폭이 10cm를 넘는 것도 있다. 테쌍

기를 하면서 손으로 눌러서 점토띠를 서로 접합하여 구연부까지 성형한 후 안팎을 물레질하여 깨끗이 마무리하였는데, 장동호류 같이 구연부가 좁은 기종의 경우 안쪽은 물레질을 할 수 없어 점토띠를 눌러 붙일 때 생긴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그림5-6, 7). 동체부나 뚜껑에 손잡이를 붙이는 방법은 손잡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동체부에 대상파수를 부착할 경우 가운데 심을 박고 그 주변에 점토를 덧붙여 마무리하였으며, 뚜껑에 귀손잡이를 부착할 경우에는 파수를 부착할 지점에 먼저 여러 줄의 홈을 낸 후 손잡이를 부착하였다(그림5-8, 9).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토기의 표면은 물레질하여 정면하는데(그림5-12), 단순히 손으로 정면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물레를 사용하여 물손질을 한 후 훑어 내린 경우와 예새를 사용하여 상하로 정면한 후에 물레질한 경우 등이 있다(그림5-10, 11). 많은 토기들은 물레질을 한 후 부분적으로 깎기기법을 사용하여 정면하였는데, 예새를 사용한 횡방향 정면, 예새를 사용한 횡방향 깎기, 예새를 사용한 종방향 깎기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그림5-10). 그 밖에 예새를 이용한 횡방향 정면 후 음각선을 그은 경우와 예새를 이용하여 횡방향 깎기와 종방향 깎기를 병행한 경우 등이 있으며, 표면에 승문이 타날된 경우도 가끔 있다. 토기 내부는 대체로 물레를 이용한 물손질로 마무리하였는데, 장동호류와 같이 구연부가 좁은 기종은 동체 상부 쪽만 물손질을 하였다(그림5-7).

고구려 토기에 문양이 시문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문양의 종류도 단순한 편이다. 이들 문양은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법을 사용하는데, 점렬문과 연속사각문은 압날법을 사용하고, 거치문, 어골문, 격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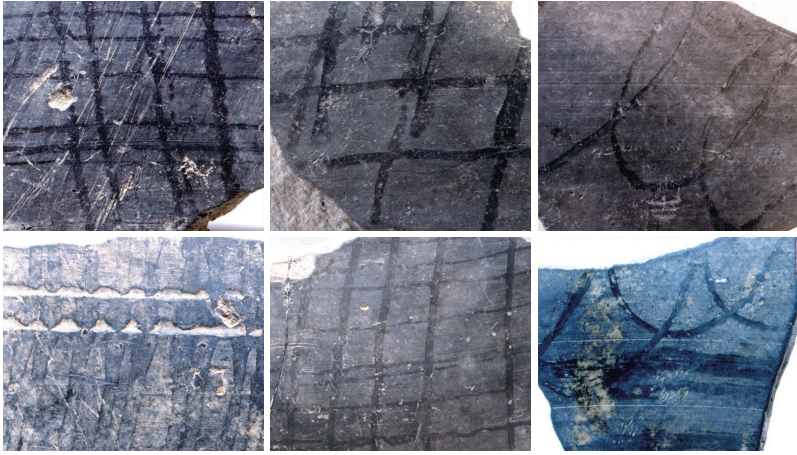


그림6 | 6세기 전반 고구려 토기(아차산보루 출토)의 암문 각종(최종택, 2013)

사격자문, 동심원문, 파상문, 중호문은 음각법에 의해 시문하고 있다. 그 밖에 찰과법에 의한 문양은 흔히 암문(暗文)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불규칙한 사선문이나 격자문, 연속고리문 등이 이 기법에 의해 시문되고 있다(그림6). 특히 암문은 고구려 토기의 특징적인 요소의 하나로 토기 표면을 문질러 시문한 것인데, 단단한 도구로 문질러 정면하는 기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암문은 중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후기를 거쳐 발해 토기에까지 일부 사용된다. 그 밖에 점시류나 완류 등의 바닥에 음각으로 기하학적 기호나 문자를 새기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이는 문양이라기보다는 부호로 보는 것이 옳다.

### 3. 기종과 기능

고구려 토기의 특징은 모든 기종이 평저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며, 호·옹류의 경우에는 목과 구연이 발달되었다는 점과 호·옹류 및 동이류, 시루류 등에 대상파수가 부착된다는 점이다. 고구려 토기는 대략 30여 기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7). 단일 기종으로는 완 및 종지(盞)류, 뚜껑(蓋)류, 구형호류, 접시(皿)류, 심발류, 장동호류, 동이(大鉢)류 등이 비교적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각 기종은 기능에 따라 실제 생활에 사용된 실용기와 비실용기로 크게 나누어진다.

비실용기는 부장용기와 의례용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장용기로 사용된 기종은 사이장경호류와 사이장경옹류, 장경호류, 구형호류(주로 A형), 부형토기류, 창고형토기,<sup>2</sup> (양이)심발류, 직구호류, 소형 시루(甌)류, 반류, 반구병류, 호자류, 이배류, 부뚜막형토기 등이 있다. 이 중 (양이)심발류와 직구호류, 시루류, 반류, 반구병류, 부형토기류 등은 실용기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시루류의 경우는 소형만 고분에 부장되고 중·대형은 생활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소형의 경우도 시간적으로도 5세기 전반경까지만 고분에 부장되고 있어서 동일 기종 내에서 기능에 따른 형태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직구호류나 (양이)심발류, 반류 등은 중기까지 부장용으로 사용되지만 후기에는

2 좁고 긴 원통형 동체부에 심엽형 투공이 뚫린 보주형뚜껑이 부착된 형태의 토기로 중국에서는 창고형토기로 불린다(耿鐵華·林至德, 1984). 그런데 부여 지방의 백제 토기 중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토기가 연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고구려 토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원래 연통으로 기능하던 토기가 부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아차산4보루에서는 좁고 긴 원통형의 굴뚝이 출토된 바 있어 실제 고구려에서 토기로 연통을 만들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임효제 외,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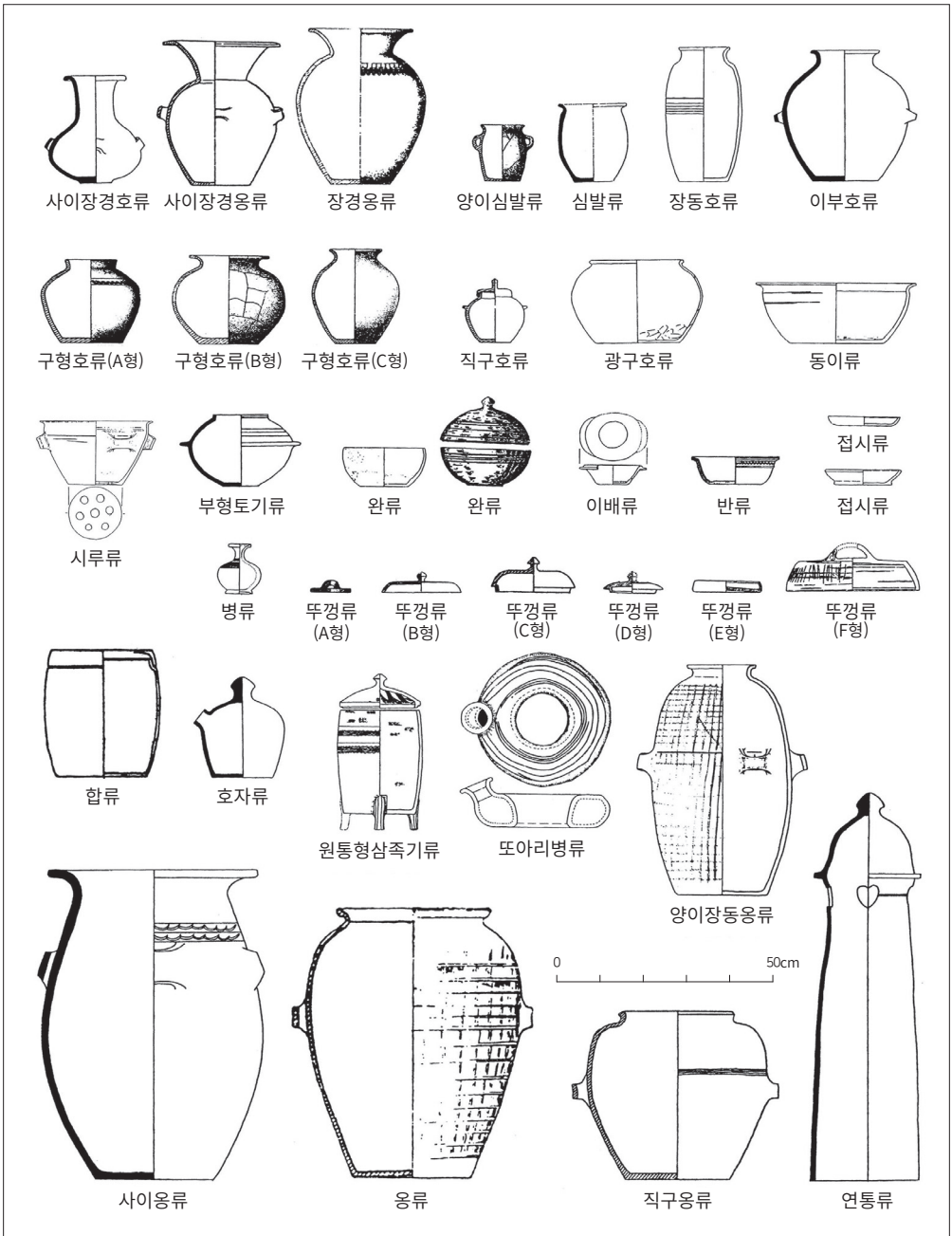


그림7 | 고구려 토기 기종 구성도

실용기로 사용된 예가 증가하며, 실용기의 경우 크기도 커지는 변화를 보인다. 그 밖에 형태상 실용기로 보기 어려운 기종으로 원통형삼족기류와 환상병류 등이 있는데, 이들은 출토 예도 많지 않을뿐더러 형태가 특징적이어서 의례용기로 분류할 수 있다.

실용기는 형태와 크기에 따라 저장용기, 조리용기, 배식기, 운반용기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중 조리용기와 배식기는 형태에 따라 구분이 용이한데, 완류나 접시류, 종지류 등은 크기나 형태에 있어서 배식기로 구분이 가능하며, 시루류는 조리용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심발류는 고분에 부장되는 경우가 많으나 6세기 이후에도 생활유적에서 많이 출토되고, 표면에 그을음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불로 조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이류, 광구호류 및 반류 등은 높이에 비해 구경이 큰 기종들인데, 음식을 조리하거나 조리할 음식물을 준비할 때 사용된 조리용기로 분류된다. 그 밖에 부형토기류는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지만 6세기 전반의 아차산보루에서도 출토되며, 심발류와 같이 태토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서 조리용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장용기와 운반용기의 구분은 쉽지 않으며, 형태가 유사한 호류와 옹류의 기능 파악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류와 옹류는 기종별로 크기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기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에서 부장용으로 사용된 사이장경호류와 사이장경옹류를 제외하면, 장동호류 및 구형호류와 옹류, 그리고 직구호류와 직구옹류들의 크기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실제 내용물을 담는 것과 관련된 용량의 차이

표1 고구려 토기 호·옹류 크기(기종별 평균값, 崔鍾澤, 1999)

구분	사이장경호	사이장경옹	장동호	구형호	옹	직구호	직구옹	광구호
용량(L)	2.0	8.5	2.5	3.8	51.0	5.9	98.3	46.6
구경(cm)	13.6	25.2	11.1	12.6	32.2	14.1	34.2	16.7
높이(cm)	24.8	42.9	26.9	22.0	58.3	18.6	72.0	16.0

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sup>3</sup> 따라서 옹류와 직구옹류는 많은 내용물을 담아 저장하던 용기로 구분할 수 있다. 또, 확인된 예가 적기는 하지만 옹류와 높이가 비슷한 양이부장동옹류도 저장용기로 구분할 수 있다. 옹류나 직구옹류에 비해 크기가 작은 장동호류와 직구호류, 구형호류 등은 높이에 비해 구경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양의 내용물, 특히 음료 등을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교적 큰 기종인 광구호류는 조리용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주요 기종별 형태적 특징과 변화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사이장경호·옹류

고구려 토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종으로는 아가리가 넓고 목이 긴 형태의 사이장경호류, 사이장경옹류, 사이옹류 및 장경호류를 들 수 있다(그림8). 이들은 각각 다른 기종이지만, 나팔처럼 벌어진 구연부와 긴 목, 네 개의 대상과수 등의 속성을 하나 이상 공유하고 있거나 모두

3 사공정길은 남한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를 분석하여 토기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사공정길, 2013).



그림8 | 사이장경호·옹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10)

1. 사이장경호(석호고분군)
2. 장경옹(우산하3105호분)
3. 사이옹(만보정고분군)
4. 사이장경옹(장천2호분)
5. 사이장경옹(통구하구)

가지고 있기도 하여 함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이 네 기종은 거의 모든 개체가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문양이 시문되거나 시유된 예가 많다. 사이장경호류는 네 개의 대상파수가 부착된 편구형 동체부에 좁고 긴 목이 달려있다. 사이장경호류는 상대적으로 소형인데 3세기대에만 사용되었으며, 다른 세 기종이 이 기종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중 사이장경옹류와 장경옹류는 발해시기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세 기종 중에서 사이옹류는 아가리와 목이 넓고 다른 기종에 비해 대형인 특징이 있는데, 실용성이 좋은 형태로 실제 생활유적에서 출토되기도 한다. 장경옹류는 대상파수가 부착되지 않은 점만 빼면 사이장경옹류와 같으며, 형태적인 변화도 궤를 같이 한다.

이 네 기종 중 사이장경옹류는 가장 대표적인 고구려 토기로 인식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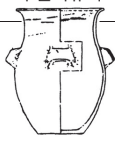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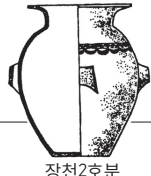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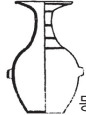

구분	사이장경호류	사이용류	사이장경용류	장경용류
300년	 우산하196호분			
	 국내성			
400년		주월리유적	 산성하332호분	우산하3105호분
		 마선구1호분	 삼실총	
		우산하2325호분	 장전2호분	 칠성산 1196호분
500년			 문촌토성	
			문악리1호분	
600년			토포리대묘	
	 집안채집		 통구하구 채집	
발해			 동경성	 영안유적
	0 50cm			

그림9 | 사이장경용류 편년표

고 있으며, 형태적 변화도 비교적 일정하여 고분의 편년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사이장경옹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구호에 연원을 두는 견해(金元龍·安輝濤, 1993)와 기형상의 특징으로 보아 중국 한대(漢代)의 종(鍾)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4세기 이후 고구려의 독자적인 기형으로 발전된다고 보는 견해(姜敬淑, 1993) 등이 있다. 그러나 3세기에 이미 이 기종의 선행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사이장경호류가 있으며, 장경이나 대상과수 등의 속성은 압록강 중류의 청동기시대 토기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중국 한대 토기의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사이장경옹은 나팔처럼 벌어진 긴 목과 네 개의 대상과수가 특징이다. 이 기종에 대해서 그간 많은 형식 분류와 편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목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가 이루어졌다. 위존성은 목이 꺾이지 않고 곧바로 외반되는 형태(I형)와 목이 한 번 꺾여서 외반되는 형태(II형)의 두 형식으로 나누고, I형은 점차 목이 길어지고 II형은 목이 점차 짧아지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하였다(魏存成, 1985).

그러나 이러한 목의 형태에 따른 위존성의 분류는 모든 개체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특히 이 기종의 특징이 나팔처럼 벌어진 목이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꺾여서 벌어진 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선에서 목의 꺾임 정도를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 동체부의 형태도 구형과 세장형의 변이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점도 형식 분류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사이장경옹류의 구경비(전체 높이에 대한 구경의 비율)와 동체구울(동체의 둥글기 정도) 속성을 비교하면 5개의 형식으로 분류된다(崔鍾澤, 1999). 각 형식별 특징을 보면 I유형과 II유형은 구경비는 비

슷하지만 동체구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목 높이의 차이로 보인다. 즉, II유형이 I유형에 비해 목 높이가 낮은 특징을 가진다. 또, III유형은 II유형과 동체구울은 비슷하지만 구경비가 높는데 이것 역시 목 높이의 차이로 II유형에 비해 III유형의 목 높이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V유형에 속하는 개체는 토포리대묘 출토품 1점뿐인데, 목도 세장하면서 동체부도 세장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구경도 작은 편이다.

이러한 형식 분류에 의하면 사이장경옹류는 동체부가 둥근 형태에서 세장한 형태 순으로 배열된다. 각 유형의 연대에 대해서는, I유형인 마선구1호분 출토품은 고분의 구조상 고구려 전기나 중기(魏存成, 1985), 또는 4세기 후반(東潮, 1997)으로 편년된다. 그리고 II유형인 우산하41호분과 III유형인 장천2호분은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고 있다(魏存成, 1985). 이러한 고분의 편년관에 따르면, 사이장경옹류는 I유형에서 V유형으로의 변화를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동체구울상의 변화로 설명된다. 즉, 사이장경옹류는 동체구울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동체가 둥근 것에서 세장한 형태로 변화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9).

## 2) 심발류

심발류는 아가리가 넓고 목이 거의 없으며 긴 동체부를 특징으로 하는데, 동체부에 파수가 달려있는 경우는 양심발류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기종은 다른 기종과 달리 조질태도가 많으며, 물레나 돌림판을 사용하지 않은 수제품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또, 파수가 부착된 경우 우각형이나 유두형도 있지만 대상파수가 주를 이루며, 대상파수의 경우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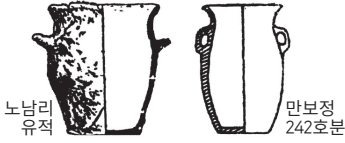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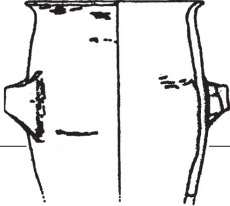


구분	양이심발	심발
300년	 <p>노남리 유적</p> <p>만보정 242호분</p>	 <p>산성하 196호분</p>
	 <p>노남리유적</p>	 <p>우산하 3283호분</p>
		 <p>산성하 152호분</p>
400년		 <p>남파동 163호분</p>
		 <p>칠성산1196호분</p>
500년	 <p>몽촌토성</p>	
	 <p>0 25cm</p>	 <p>구의동보루</p>

그림10 | 심발류 변천도

면이 원형인 것이 주를 이루고, 종위상으로 부착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종위대상과수 또는 고리형과수는 압록강 유역 청동기시대 토기 이래로 보이는 특징이며, 태토가 조질이라는 점과 함께 심발류가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기종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심발류는 크기에 따라 대·중·소의 세 그룹으로 구분되지만 시간적인 의미는 없으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체부의 세장도가 변화한다. 즉, 초기의 심발류는 최대경이나 구경에 비해 기고가 높은 세장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점차 둥근 형태로 변화된다. 또, 심발류보다 양이심발류가 대체로 세장형에 가까우며, 양이심발류가 조금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속성을 기준으로 심발류는 세 형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동체부가 세장하고 전체 높이에 비해서 목 높이가 낮은 형태(I유형), 목이 짧고 동체부가 볼록한 형태(III유형), 그리고 이들의 중간 형태(II유형)로 분류가 가능하다. I유형에 속하는 하활룡촌8호분 출토품의 경우, 고분의 연대가 가장 이른 시기의 적석층으로 편년되고 있어 3세기 이전으로 편년되고 있다(東潮, 1988). 최근 환인 오녀산성 3기문화층에서 출토된 심발류 역시 세장하고 종위대상과수가 부착된 점 등으로 보아 이러한 유형이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구의동유적에서 출토된 심발의 경우 III유형에 속하므로 양이심발류와 심발류는 I유형에서 II, III유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심발류의 경우 동체부가 세장한 형태에서 둥근 형태로 변하며, 동시에 목이 짧고 발달된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10).

### 3) 구형호류

구형호류는 구형의 동체부에 짧게 외반된 목이 달린 것 중에서 동체부에 파수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이다. 구형호류는 구연부를 포함한 목의 형태와 동체부의 형태에 따라 3개의 세부 형식으로 구분된다. A형 구형호는 동체부가 대체로 구형을 이루나 최대경이 어깨 쪽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목과 구연부가 거의 직립에 가까운 것을 특징으로 한다. B형은 동체부가 눌린공모양의 편구형이며, 목은 짧게 직립하다가 밖으로 꺾이는 형태를 하고 있다. C형은 동체부가 대체로 구형을 이루고 있으나 다른 유형에 비해 세장한 형태이고, 목은 외반되어 있으나 B형에 비해 짧은 것이 특징이다(그림11).

A형 구형호류는 주로 우산하고분군의 연접식적석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러한 적석층의 연대는 대략 4~5세기로 편년되고 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토기가 조양 원대자동진벽화묘와 본계 진묘 등에서도 출토되고 있는데, 이들 고분의 연대는 4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다(沈白文, 1984). A형 구형호류의 어깨에는 두 줄의 침선을 횡으로 돌려 문양대를 구성하고 그 내부에 중호문을 시문한 예가 많은데, 고구려 토기의 문양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형태로 생각된다.

B형 구형호류는 구형호류 중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한다. 태토는 조질과 니질이 모두 있으나 니질이 많으며, 문양이 시문된 토기는 1점에 불과해 A형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B형 구형호류 중 발해시기의 민주육대유적 출토품의 경우 목이 짧고 동체부가 납작한 편구형을 이루고 있으며, 고구려 전기로 편년되는 산성하195호분 출토품(耿鐵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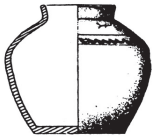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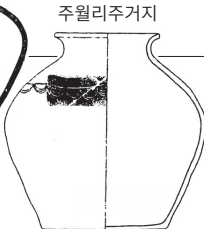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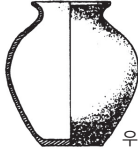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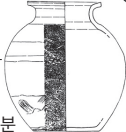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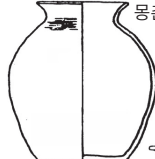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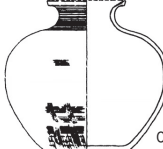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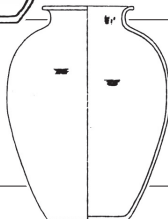



구분	A형 구형호	B형 구형호	C형 구형호
400년	 우산하3161호분	 산성하195호분	 안악3호분  주월리주거지
		 우산하3299호분	 우산하3162호분
	 두정리2호분	 고산동11호분	 몽촌토성
500년		 아차산4보루	 아차산4보루
		 마선구118호분	
발해		 민주육대	 0 25cm

그림11 | 구형호류 변천도

林至德, 1984)의 경우 목이 길고 동체부가 구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B형 구형호류는 동체부가 구형에서 편구형으로, 긴 목에서 짧은 목으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C형 구형호류는 최대경이 어깨에 있으며, 목이 좁은 유형과 최대경이 동체 중앙부나 중상부에 있지만 어깨가 발달하지 않은 유형으로 세분된다. 전자의 경우 안악3호분에서 3점이 출토되었는데, 어깨에 중호문이 시문되어 있다. 또, 임진강 남안의 파주 주월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도 이와 같은 형태이며, 역시 어깨에 중호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안악3호분의 연대로 보아 4세기 중·후반경으로 편년할 수 있다. 구형호류 중 최대경이 동체 중앙부에 있는 것들은 점차 동체부가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구의동이나 아차산 보루에서 출토된 것들은 6세기 대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몽촌토성 출토품은 이보다 약간 이른 5세기 후반경으로 편년할 수 있다.

#### 4) 직구호류와 직구옹류

직구호류와 직구옹류는 짧게 직립하는 목을 특징으로 하며, 두 기종 모두 뚜껑을 덮은 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거나 뚜껑이 함께 확인된 예는 많지 않다. 이 두 기종은 높이 40cm를 경계로 크기에 따라 구분된다. 또, 두 기종 모두 일부 토기에 파수가 부착된 예가 있는데, 실용성이 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직구호류는 동체부가 편구형인 형태로 변화하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직구호는 만보정242호분 출토품으로 3세기대에 해당하며, 발해시기까지 계속 사용된다(그림12). 직구옹류는 출토 예가 많지 않은데,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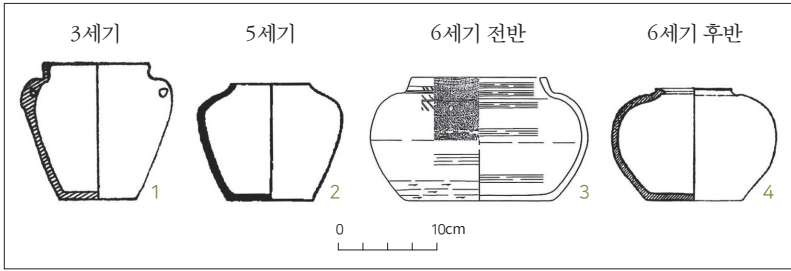


그림12 | 직구호류 변천도

1. 만보정242호분 2. 산성하250호분 3. 아차산3보루 4. 고이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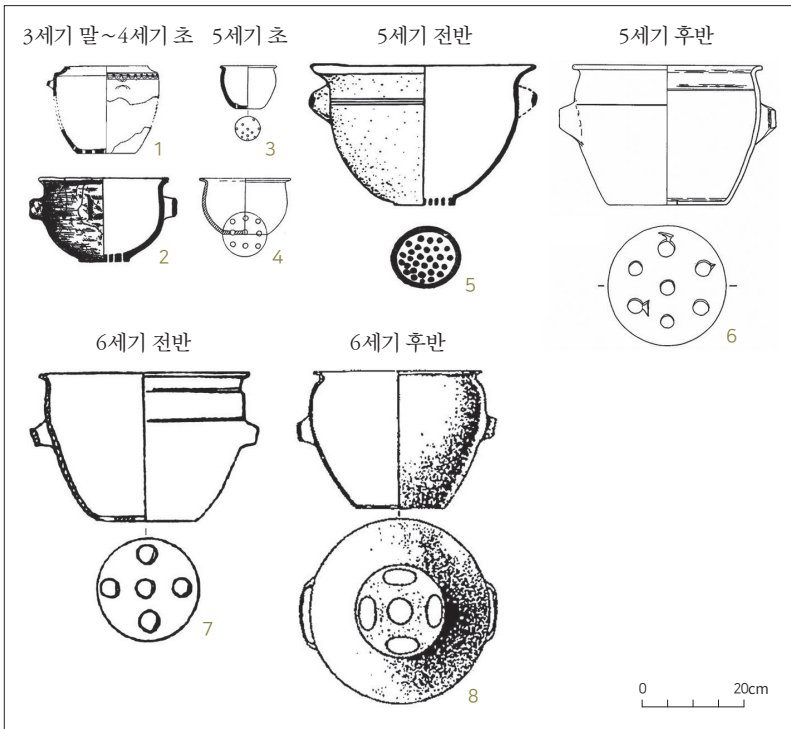


그림13 | 시루류 변천도

1. 상활룡촌2호분 2. 노남리유적 3. 우산하3317호분 4. 우산하1340호분  
5. 지경동1호분 6. 몽촌토성 7. 고이산성 8. 국내성

략 5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5) 시루류

시루(甌)류는 동체부와 바닥 형태에 있어서 넓은 것과 좁은 것의 차이가 있으며, 바닥에 굽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시루류의 시간적인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은 바닥에 뚫린 구멍의 형태이다. 시루류는 바닥에 뚫린 구멍의 형태로 보아 작은 구멍이 조밀하게 뚫린 것과 가운데 하나의 원공을 중심으로 6개 또는 4개의 구멍이 뚫린 것이 있다. 이중 바닥에 구멍이 조밀하게 뚫린 것으로 상활룡촌2호분 출토품의 경우는 구연부가 안으로 내경하고 있고 어깨에는 중호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 시루는 기존의 편년안에 따르면, 2세기 말로 편년되고 있으나(東潮, 1997), 일반적으로 중호문은 고구려 중기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렇게 연대를 올려 보기는 어렵다.

또, 우산하고분군에서 출토된 소형 시루류는 적석총의 하한이 대략 5세기경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東潮, 1997) 4세기 말이나 5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이들 우산하고분군에서 출토된 시루류는 바닥의 구멍이 가운데 원공을 중심으로 8개씩 뚫려 있는데, 상활룡촌2호분 출토품의 경우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형태이므로 이보다 약간 이른 3세기 말이나 4세기 전반경으로 편년할 수 있으며, 노남리집자리에서 출토된 시루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로 생각된다.

중·대형의 시루류는 북창 대평리와 지경동1호분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정제된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한강 유역 출토품은 가운데 원공을 중심으로 구멍이 6개씩 뚫려 있으며, 고이산성과 국내성 출

토품은 가운데 원공을 중심으로 4개씩 구멍이 뚫려 있다. 이 중 국내성 출토품은 원공 주변에 있는 4개의 구멍이 타원형으로 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음식을 조리할 때 더 많은 수증기가 올라오도록 설계한 것이다. 따라서 한강 유역 출토품이 고이산성이나 국내성 출토품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성 출토품의 경우 고구려 만기로 편년하고 있으므로(動蜂, 1993), 고이산성 출토품은 6세기 전반, 국내성 출토품은 6세기 후반, 한강 유역 출토품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경으로 편년할 수 있다(그림13).

## 6) 부형토기류

부형(釜形)토기류는 문자 그대로 솥모양의 토기류로 소형 시루류와 함께 고분에서 출토되는데, 고구려에서 실제 철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형토기는 모두 부장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형토기류는 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며, 굽이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의 변화가 보이는데(그림14), 이는 철부의 변화와도 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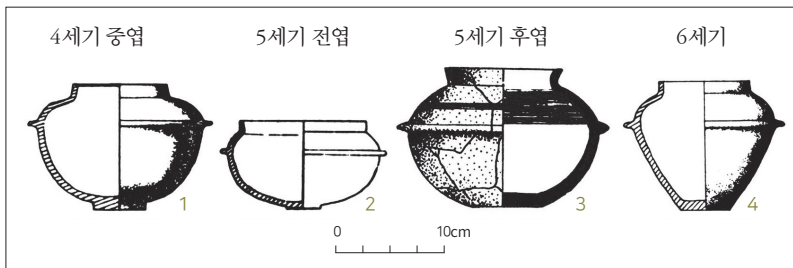


그림14 | 부형토기류 변천도

1. 우산하3105호분 2. 우산하3501호분 3. 대성산고분군 4. 우산하1493호분

같이하는 것이다(趙書勤, 1993). 우산하3105호분 출토품은 시루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대체로 4세기 중엽으로 생각되며, 우산하3501호분 출토품은 이보다 굵이 낮고 동체부가 편구형을 이루고 있어서 5세기 전반경으로 편년할 수 있다. 또, 우산하1897호분, 우산하1815호분 출토품과 지경동1호분 출토품은 굵이 없으며, 지경동1호분 출토 시루와 함께 5세기 중·후반경으로 편년된다. 그 밖에 우산하1493호분 출토품은 굵이 없으며, 어깨가 발달된 형태이고 동체부가 좁고 긴 형태를 하고 있어서 지경동1호분 출토품보다 늦은 6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 7) 동이류

동이(大鉢)류는 구경에 비해 높이가 낮은 자배기모양의 토기를 말하며, 형태상 가장 실용적인 토기이다. 동이류는 구경비, 즉 동체부의 편평도에 따라 세 개의 세부 기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I유형은 구경비가 160 미만인 개체이고, II유형은 구경비가 160 이상 220 미만인 개체, III유형은 구경비가 220 이상인 개체이다.

소형에 속하는 동이류는 I유형과 II유형만 있으나, 대형 동이류는 I, II, III유형이 모두 있다. 또, I유형과 III유형의 동이에는 대소 관계 없이 대상과수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동이류는 이와 같이 크기에 의한 대소 차이나 동체부의 편평도에 따라 여러 세부 기종으로 분류되지만, 발해시기의 동경성 출토품은 소형인 경우 I유형, 대형인 경우 I, III유형에 해당한다. 또, 소형(II유형) 동이가 출토된 우산하3103호분은 5세기를 하한으로 하는 적석총이므로(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 늦어도 5세기에는 동이류가 제작된 것으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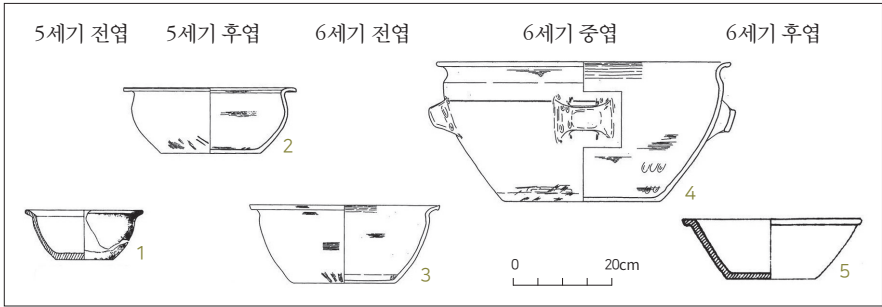


그림 15 | 동이류 변천도

1. 우산하3013호분 2. 몽촌토성 3. 아차산4보루 4. 시루봉보루 5. 고이산성

된다. 따라서 소형 동이류의 경우 동체부가 낮은 형태에서 높은 형태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대형 동이류의 경우 이런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동체부가 낮아지는 형태로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5).

한강 유역 출토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면 동이류는 구연부의 단면 형태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구단부가 둥글게 처리되어 밋밋하게 끝나는 형태(A형)와 구단부가 각져서 직선을 이루는 B형, 구단부가 각져서 직선을 이루며 끝날 뿐만 아니라 구단부 하단이 들려서 홈이 파인 C형, 구단부 끝이 사선으로 기울거나 타원형으로 처리되어 있고 하단이 들린 D형으로 나뉜다(최종택, 1995).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자료는 도면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연부 형태에 따른 분류는 불가능하다. 다만 한강 유역 출토품의 경우를 보면 C형, D형이 대체로 후출하는 형태로 밝혀지고 있다(최종택, 2004).

## 4. 기원과 변천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형편인데, 이는 전적으로 자료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국가 형성을 1세기경으로 보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나, 3세기 이전의 고구려 토기 자료는 매우 영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 시기의 고구려 고분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토기에 대한 연구는 더 부진한 상황이어서 고구려 토기의 기원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고고자료의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주지하듯 고구려의 발상지는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류 유역이므로 이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양상의 고찰을 통하여 고구려 토기의 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혼강-압록강 일대의 청동기문화는 선동검기의 묘후산유형문화와 비파형동검기의 공귀리유형문화로 이해되며, 남납둔유형, 대순자유형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대순자유형은 이 지역의 초기철기문화로 기원전 200년경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중 남납둔유형에는 고구려 토기에서 보이는 대상파수가 보이며, 이는 고구려 토기의 초기 형태인 노남리형토기와 같은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朴淳發, 1999).

노남리형토기는 자강도 시중군 노남리유적의 상층에서 출토된 토기를 표지유물로 하는데(정찬영, 1973), 횡위 또는 중위상의 대상파수를 특징으로 하며, 이를 고구려 토기의 초현형으로 보고 있다. 보고자에 따르면 이들 토기의 태토에는 청동기시대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고운 모래가 섞여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동기시대와 같은 양의 모래를

섞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갈색 간그릇과 검정 간그릇이 주를 이루는데 이 역시 고구려 토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순발은 고구려 토기의 특징을 대상과수와 니질태토, 표면의 마연기법으로 설정하고, 마연기법과 대상과수는 미송리형토기나 공귀리형토기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 지역 고유 전통이나, 니질태토는 전국시대 말~한대 회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林淳發, 1999).

고구려 토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고구려 토기 중 일부는 사립이 섞인 조질태토로 형성된 고구려 토기의 특징을 니질태토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니질화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현재의 자료로 보아 고구려 토기의 기원은 노남리형토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집안 지역 및 압록강 중류 유역의 초기 적석층 출토 자료 및 초기철기시대 토기들과의 비교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중위 또는 횡위상 대상과수를 가진 심발류는 이른 시기의 고구려 토기의 대표적인 형식이고 양적으로도 가장 많다. 최근 상세한 발굴보고서가 간행된 오녀산성 3기문화층에서 출토된 토기류도 대부분 횡위상과수가 부착된 심발류이고, 호류나 동이류, 합류 및 컵형토기류 등 다른 기종은 소량에 불과하며, 토기질은 조질이고, 물레를 사용한 흔적도 없다(양시은, 2005). 이러한 형태의 심발류는 크기와 형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오녀산성 3기문화층에서 출토된 토기류만 보아도 적지 않은 차이를 알 수 있다(그림16). 또한 중위상 대상과수를 제외하면 청동기시대나 초기철기시대의 토기들과는 기형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심발류 외에 초기 고구려 토기의 대표적인 예로 환인 망강루고분군 출토 토기류를 들 수 있다. 망강루고분군은 무기단식적석층으로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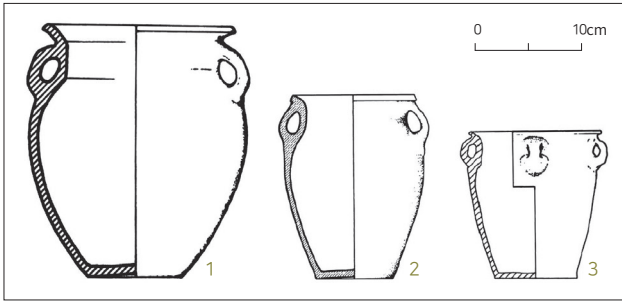


그림16 | 오녀산성 3기문화층 출토 심발류 각종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1. 47호 건물지 2. 57호 건물지 3. 3기층 회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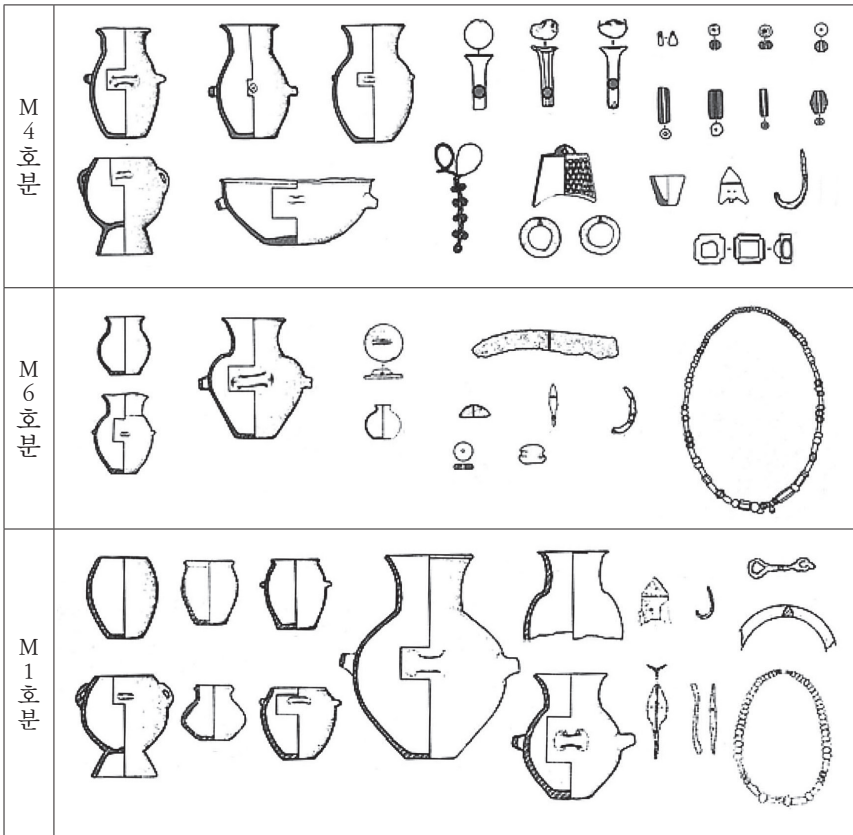


그림17 | 망강루고분군 출토 유물 각종 (孫顯, 2012)

전 1세기 전반 또는 고구려 건국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고 있다(梁志龍·王俊輝, 1994; 李新全, 2005; 여호규, 2011; 孫顯, 2012). 망강루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류를 보면 제작기법의 측면에서는 노남리형토기와 유사하지만 기형 측면에서는 훨씬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그림17). 망강루고분군 토기류는 모두 수제이고 조질태토이며 제작수법이나 기형적인 면에서 서풍 서차구고분 토기류와 유사하다(王綿厚, 2009). 또한 대부사이호와 같은 일부 기종은 유수 노하심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유사하다(孫顯, 2012). 망강루고분군에서 출토된 이식과 장신구들이 노하심고분군과 서차구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이 두 고분군은 부여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초기의 토기에 부여계 토기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고구려 초기 토기의 특징으로 조질태토의 수제(양이)심발류를 주목하였으며, 태토와 성형방법 및 중위상 대상파수 등의 요소가 혼강이나 압록강 유역 청동기시대 이래의 토기 전통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망강루고분군 출토 토기류를 통해 볼 때 고구려 토기의 형성 과정에 재지적 전통 외에도 부여계 토기 등 주변 지역의 영향이 일정 정도 작용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sup>4</sup>

고구려 토기의 변천 과정을 전·중·후 3기로 구분하는 견해(耿鐵華·

4 최근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과 관련하여 대석개묘(大石蓋墓) 및 대석개적석묘(大石蓋積石墓)가 주목되고 있으며(李新全, 2005; 오강원, 2004; 여호규, 2011), 향후 이들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통화 만발발자유적이나 장백 간구자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토기류 역시 고구려 토기의 형성 과정 연구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林至德, 1984)와 조기(200~300년), 전기(300~400년), 중기(400~500년), 후기(500~600년), 만기(600년 이후) 등 5기로 세분하는 견해(東潮, 1988) 등이 있다. 고구려 토기의 변천 과정을 5기로 구분한 아즈마 우시오의 견해는 자세하지만 토기 자료만으로 이처럼 획기를 세분할 만한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200년 이전 고구려 토기 자료는 매우 영성하여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자료상으로는 고구려 토기의 변화 과정을 전기(300년 이전), 중기(300~500년), 후기(500년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안정적이다.<sup>5</sup>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술과 관련된 각 속성의 분포는 <표2>와 같으며, 시기별로 서로 다른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다.<sup>6</sup> 고구려 토기 태토는 크게 조질과 니질로 구분되며, 일부 시유토기가 있다. 이들의 시기별 분포를 보면 전기에는 시유토기가 1점도 없으며, 조질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니질태토는 9%에 불과하다. 중기에는 니질태토가 57%로 증가하고 조질태토는 29%로 감소하며, 시유토기가 14% 가량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후기에는 니질태토가 89%, 시유토기가 8%, 조질태토는 3%의 구성비를 보이는데, 시유토기의 태토도 니질로 추정되므로 거의 모든 토기가 니질태토라고 할 수 있다.

- 
- 5 최근 오녀산성과 망강루고분군, 만발발자유적 등 고구려 초기 유적 조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강루고분군 출토 토기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구려 건국을 전후한 시기의 토기와 같은 제작 전통과 기형을 가진 토기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자료가 증가된다면 100년을 경계로 고구려 초기 토기와 전기 토기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 이하 고구려 토기 제작기술과 관련된 각종 통계치는 필자의 이전 글에서 참조한 것이다(崔鍾澤, 1999).

표 2 고구려 토기 제작기술 관련 속성의 시기별 일람표(崔鍾澤, 1999) (단위: 개체수)

구분		전기	중기	후기	합계	
태토	조질	21	36	4	61	419
	니질	2	70	141	213	
	시유토기	0	17	13	30	
	미확인	14	42	59	115	
성형방법	수제	2	6	2	10	419
	윤제	2	82	123	207	
	미확인	33	77	92	202	
표면색	회색	8	48	52	108	419
	흑색	5	21	44	70	
	황색	10	70	85	165	
	미확인	14	26	36	76	
문양	유문	0	33	35	68	419
	무문	37	132	182	351	
표면 처리	마연	1	13	15	29	419
	마연 안함	36	152	202	390	

이러한 태토별 구성비의 양상을 보면 4세기 이전의 전기에는 조질태 토가 주를 이루다가 점차 니질이 증가하여, 후기에는 심발류와 부형토 기류 등을 제외하면 모든 토기가 니질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또, 고구려 중기에 들어와서 시유기법이 등장하여 후기까지 일정한 비율을 보이며 사용된다. 토기에 시유하는 제작 전통은 당시 백제나 신라·가야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며, 시유토기는 대부분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부장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18). 시유토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3세기 이전으로 보는 견해(리광희, 1990)와 3세기 말로 보는 견해(姜敬淑, 1993), 4세기 초로 보는 견해(耿鐵華, 2001)가 있는데, 고구려 토기에 보이는 시유토기는 저화도 연유도로 중국의 경



그림18 | 고분 출토 시유토기 각종(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10)  
 1. 시유사이장경응(장천4호분) 2. 시유완(삼실총) 3. 시유반(우산하3319호분)  
 4. 시유접시(우산하3319호분) 5. 시유부뚜막(삼실총) 6. 시유이배(삼실총)

우 한대에 제작이 시작되며, 고구려의 경우 3세기 말, 늦어도 4세기 초에는 저화도 녹갈도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성형기법은 수제와 윤제의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돌림판이나 물레를 사용한 윤제토기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바닥판을 만들고 그 위에 테쌓기로 성형한 후 돌림판이나 물레를 사용하여 정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기에는 수제토기가 50%가량을 차지하지만 중기에는 7%로 급격히 감소하며, 후기에는 2%에 불과한 구성비를 보인다. 따라서 고구려토기는 거의 모든 토기를 돌림판이나 물레를 사용하여 성형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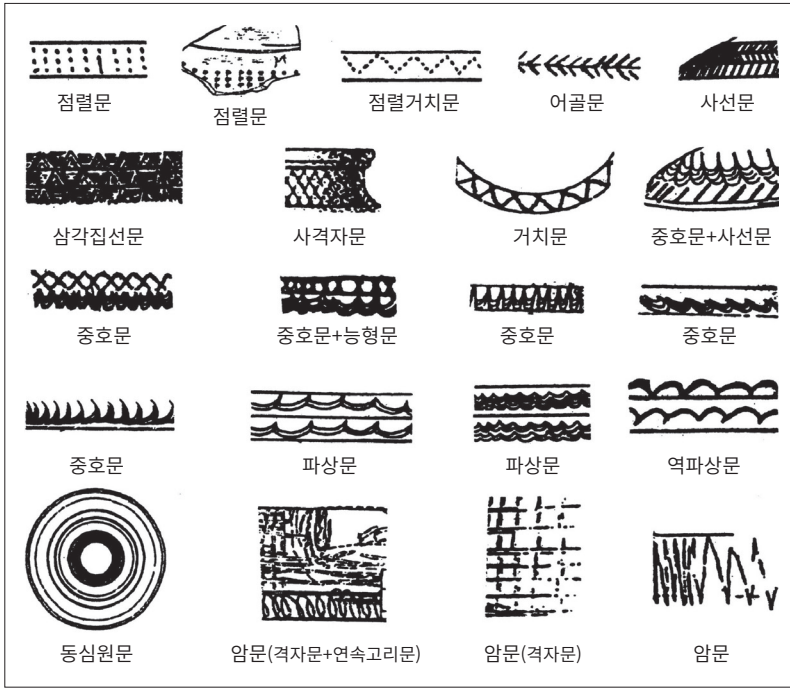


그림19 | 고구려 토기 문양 각종(崔鍾澤, 1999)

며, 전기의 일부 토기만 손으로 빚어 올린 토기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구려 토기의 표면처리방법은 표면을 마연하는 것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표면을 마연한 개체는 고구려 전 시기를 통해 29개체에 불과하며, 전체 자료의 7%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구려 토기의 표면 처리 특징을 마연이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구성비는 시유토기의 구성비와 거의 같은 양으로 마연토기는 고구려 토기의 일부에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직접 관찰이 가능한 한강 유역 출토품의 경우 대부분의 토기는 물레나 돌림판을 사용하여 표면을 정면하였으며, 장동호류와 같은 일부 기종에서 돌림판이나 물레

를 사용하여 표면을 정면한 후 동체 하단부와 저부가 결합되는 부분을 예새로 깎아서 정면하거나 문질러 정면한 예가 있다. 이러한 제작기법은 표면을 마연하는 기법의 연속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는 마연한 것과 같이 약간의 광택을 내는 경우가 있으나, 의도적인 마연과는 다르다. 고구려 토기에는 문양이 거의 시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전기에는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전혀 없으며, 중기와 후기에는 일정한 비율로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사용되고 있다(그림19).

고구려 토기는 기종별로 다양한 형태적 변화를 보이며 발전하는데, 시기별 기종 구성상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우선 기종 구성상의 특징을 보면, 전기에는 아주 일부 기종만 출토되며, 중기 이후가 되어야 모든 기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고구려 전기의 토기는 출토 예가 많지 않은데, 기종별로 보면 사이장경호류, 양이심발류 및 심발류, 이부호류, 직구호류, 시루류, 완류, 반류, 이배류, A형 뚜껑류, 접시류, 합류, 대부사이발류 등이다. 이들 전기 토기의 형태상 특징은 파수가 부착된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의 기종에 대상파수나 꼭지형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또 대상파수의 경우 횡위파수도 있으나, 종위파수가 많다. 토기 질은 조질이 우세하며, 표면이 마연된 것이 많고 아직 시유토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문양이 시문된 토기도 아직 없으며, 대부분 물레나 돌림판을 사용하지 않은 수제토기이다.

중기에는 대부분의 기종이 모두 사용되지만, 대형 옹류와 직구옹류 등은 중기 후반에 들어서야 출토 예가 확인된다. 또, 광구호류는 중기에도 나타나지 않는 기종이다. 한편, 중기에 들어서면 사이옹류와 사이장경옹류, 장경호류 등의 기종이 새로이 나타나는데, 이 기종들은 사이장경호류에서 파생된 기종으로 생각된다. 또한 심발류에 있어서 파수

가 부착된 양이심발류는 출토 예가 감소하는 반면에 심발류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동체가 불룩하고 어깨와 목이 발달하는 형태로 바뀌며, 중기 후반 이후에는 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장동호류도 중기에 새로이 나타나는 기종인데, 심발류에서 변화된 기종으로 어깨가 발달하고 목이 길어지는 형태로 변화된다.

구형호류는 중기에 가장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발전하는데, A형과 C형 구형호는 동체부가 길어지고 어깨가 발달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B형 구형호는 목이 길고 동체부가 구형인 상태에서 목이 짧고 동체부가 편구형인 형태로 변화된다. 시루류는 가운데 원공을 중심으로 8개 뚫은 것에서 6개 뚫은 것으로 바닥의 구멍 수가 줄어들며, 구멍의 크기는 커진다. 전기에 일부 나타나는 시루와 중기 초반까지의 시루는 대부분 부형토기와 함께 부장용으로 사용되고, 중기 중반 이후에 들어와서야 실용적인 대형 시루가 등장한다. 부형토기는 중기에 들어와서 새로이 나타나는 기종으로 시유토기도 있으며, 굽이 달린 형태에서 굽이 없는 형태로 변화된다.

그 밖에 동이류, 완류, 반류, 이배류 등의 출토 예가 증가하며, 뚜껑은 보주형꼭지가 달린 C형과 반형(F형)이 등장한다. C형 뚜껑은 주로 완류나 원통형삼족기류의 뚜껑으로 사용된 것이며, 반형 뚜껑은 대형옹류의 뚜껑으로 사용된 것인데, 이러한 뚜껑의 출현은 완류 및 대형옹류의 출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접시류는 전기의 수제품에서 윤제품으로 바뀌며, 바닥이 넓고 구연이 낮은 납작한 형태로 변하고 낮은 굽이 있는 형태도 등장한다. 또한 중국 육조시대의 반구병과 같은 형태의 병류가 나타나며, 원통형삼족기류와 같은 특이한 기종도 이 시기에 새로이 나타난다.

중기의 토기는 조질태토가 소량 있으나 니질태토가 주를 이루며, 시유토기가 새로이 등장한다. 거의 모든 토기가 물레나 돌림판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테쌓기를 한 경우에도 돌림판이나 물레를 사용하여 표면을 정면하고 있다. 중기 토기의 특징 중 하나는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많은 점인데, 사이장경옹류와 B형 구형호류 등의 어깨 부분에 중호문, 파상문, 점렬문, 거치문, 어골문 등의 문양이 시문되고 있다. 일부 토기에서는 암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암문은 중기 후반에 가서야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는 중기의 모든 기종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호류나 옹류 같은 실용기의 출토 예가 증가한다. 사이장경옹류는 동체부가 세장한 형태로 변하며, 발해시기가 되면 목이 좁고 길어져서 병의 형태로 변한다. 후기에는 직구옹류와 대형 옹류, 동이류 등의 대형 기종이 많이 보이며, 반류와 뚜껑류도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기종 내부의 변화 양상은 실용기로서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후기 토기 중에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많은 것도 이러한 양상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의 토기는 거의 모두 니질태토의 윤제토기이며, 중기에 성행하던 중호문, 점렬문, 파상문 등의 문양은 거의 보이지 않고 암문이 많이 시문된다.

최근 고구려 토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고구려 토기의 기원 및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고구려 초기 유적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며, 토기의 변천과 관련하여 정치한 편년과 세분화가 요구된다. 남한 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이나 중국에서 출토된 토기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연구성과가 없는 것도 고구려 토기 연구에 있어서 큰 걸림돌의 하나이다. 또한 환인과 집안, 평양 등 고구려 중앙의 토기와 지방의 토기에 대한 비교분석 등 토기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삼연이나 흥노 및 백제 등 주변 지역 토기와의 영향 관계도 연구해야 할 주요한 주제이다.

## 참고문헌

- 金元龍·安輝濬, 1993, 『新版韓國美術史』, 서울대학교출판부.
- 양시은·김진경·조가영·이정은·이선복, 2009, 『용마산 제2보루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 임효재·최종택·양성혁·윤상덕·장은정, 2000, 『아차산 제4보루 - 발굴조사 종합 보고서 -』, 서울대학교박물관.
- 최종택, 2013,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출판사.
- 姜敬淑, 1993, 「高句麗 土器의 對中交涉」, 『韓國美術의 對外交渉 I - 高句麗 -』 (제4회 전국미술사학대회 발표자료집).
- 金容民, 2002, 「백제 煙家에 대하여」, 『文化財』 35.
- 김한성, 2013,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토기의 편년 - 장동호와 웅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리광희, 1990, 「고구려무덤을 통하여 본 유약바른 질그릇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4.
- \_\_\_\_\_, 1991a, 「고구려시기 유약바른 질그릇의 변천」, 『조선고고연구』 1991-1.
- \_\_\_\_\_, 1991b, 「고구려시기 질그릇들에 그려진 장식무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3.
- 朴淳發, 1999, 「高句麗土器의 形成에 대하여」, 『百濟研究』 29.
- 朴永民, 2002, 「百濟 泗泚期遺蹟 出土 高句麗系 土器」, 『國立夫餘文化財研究 所年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白井克也, 2005, 「고구려 토기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 사공정길, 2013, 「고구려 식생활 연구」, 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梁時恩, 2003, 「漢江流域 高句麗土器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호규, 2011, 「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 『역사문화연구』 39.
- 오강원, 2004, 「萬發撥子를 통하여 본 通化地域 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 高句麗文化의 形成過程」, 『동북아역사논총』 창간호.
- 이승미, 2017, 「고분 출토 고구려 토기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진, 2013, 「백제 사비기 흑색토기 자배기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형호,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토기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崔鍾澤, 1995, 「漢江流域 高句麗土器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9, 「高句麗土器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1, 「고구려 토기 연구현황과 과제」, 『고구려연구』 12.
- \_\_\_\_\_, 2004, 「남한지역출토 고구려 토기 연구의 몇 가지 문제」, 『白山學報』 69.
- \_\_\_\_\_, 2006, 「南韓地域 高句麗 土器의 編年 研究」, 『先史와 古代』 24.
- 土田純子, 2009, 「泗泚樣式土器에서 보이는 高句麗土器의 影響에 대한 검토」, 『한국고고학보』 72.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吉林省博物院, 2010, 『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1996~1999, 2003年桓仁五女山城調查發掘報告』, 文物出版社.
- 耿鐵華, 2001, 「高句麗釉陶器的類型與分期」, 『考古與文物』 2001-3.
- 耿鐵華·林至德, 1984, 「高句麗陶器的初步研究」, 『文物』 1984-1.
- 僑梁, 1999, 「高句麗陶器的編年與分期」, 『北方文物』 1999-4.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勳蜂, 1993, 「國內城中新發現的遺蹟和遺物」,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卑琳, 2003,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孫顯, 2012,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 2014, 「高句麗與慕容鮮卑關係解讀—以陶器為視角」,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15-6.
- 沈白文, 1984, 「遼寧本溪晉墓」, 『考古』84-8.
-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1994-2.
- 王綿厚, 「試論桓仁“望江樓積石墓”與“卒本夫餘”—兼論高句麗起源和早期文化的內涵與分佈」, 『東北史地』2009-6.
- 王飛峰, 2009, 「中國境內發現的高句麗陶器研究」, 中國社會科學院 碩士學位論文.
- 王晨暉, 2022, 「三燕與高句麗文化交流的考古學研究—以陶器, 搖葉飾品和瓦當為例」,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魏存成, 1985, 「高句麗四耳展沿壺的演變及其有關的幾個問題」, 『文物』1985-5.
- 李新全, 2005, 「五女山山城及其周圍的高句麗早期遺蹟」, 『고구려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 鄭元喆, 2005,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趙書勤, 1993, 「集安出土的高句麗鐵鍋」,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 吉井秀夫, 2001, 「日本 西日本地域の博物館所藏高句麗遺物」, 『고구려연구』12.
- 東潮, 1988, 「高句麗文物に關する編年學的考察」,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10, 吉川弘文館.
- J. Choi & S. Yang & D. Cho, 2017, “Compositional Analysis of Ceramics from Goguryeo Fortified Sites in Central Korea,” *ARCHAOMETRY* vol.59-6.



# 와전

1. 연구 역사
2. 기와의 종류
3. 기본기와의 특징
4. 와당의 형식과 시기 구분
5. 문자기와의와 전돌
6. 와전을 통한 고구려 문화



## 2장 와전

백종오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물관장

기와는 가옥의 지붕을 덮는 건축 부재이다. 양질의 점토를 재료로 제작틀을 사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서 제작한다. 이런 기와를 지붕에 사용하면 내구성과 방화성 등의 유리한 점이 크다. 아울러 건물의 존엄성과 장엄성을 가지게 되며 이는 지배층의 계층적 위계서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처음에 기와는 토기를 만드는 장인이 만들었다(瓦陶兼業). 그러다가 전문화되면서 국가적인 조영사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기와를 알려주는 사료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지(三國志)』, 『구당서(舊唐書)』 등이 있다. 그 기록은 신라에서 먼저 나타난다. 『삼국사기』 지마이사금 11년(122년) “여름 4월에 큰 바람이 동에서 불어와 나무가 꺾어지고 기와가 날렸다”<sup>1)</sup>는 기사가 있으

며, 또 조분이사금 4년(233년)에도 “4월 여름에 큰 바람이 불어와 기와가 날아갔다”<sup>2</sup>는 내용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신라는 늦어도 2세기 초에 이미 기와를 사용하였으며, 기상이변에 의해 기와가 날린 현상에 대해 국가적인 정세변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구려에서는 미천왕 원년(330년)에 “집 앞의 연못에서 개구리가 시끄럽게 울어 기와와 돌을 던져 그 소리를 멈추게 하였다”<sup>3</sup>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 또 안원왕 12년(542년)에는 “봄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라갔다”<sup>4</sup>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서도 기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에서는 고구려가 다소 늦게 나타나지만 중국의 영향이나 국가발전단계를 고려한다면 신라보다 늦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또 중국 사서인 『구당서』 고려전의 “대부분 벃단으로 지붕을 엮었으나, 불교사원과 신묘, 왕궁, 관청 등은 기와를 사용하였다”<sup>5</sup>는 내용이 있다. 이는 당시 기와가 국가와 관련된 권위건축물이자 물질적 상징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고구려는 국가 발생 초기부터 한 군현이나 중국 세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중국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기와나 목조건축술에서도 주변국과는 다른 발전된 양상을 드러냈는데, 예를 들면 『삼국지』 동이전에 “그들의 습속에 음식

---

1 『삼국사기』 권1 지마이사금 11년조, “夏四月 大風東來 折木飛瓦 至夕而止.”  
 2 『삼국사기』 권2 조분이사금 4년조, “夏四月 大風飛屋瓦.”  
 3 『삼국사기』 권17 미천왕 원년조, “其家側草澤 蛙鳴使己弗夜投瓦石某其聲.”  
 4 『삼국사기』 권19 안원왕 12년조, “春三月 大風拔木飛瓦.”  
 5 『구당서』 권199상 동이 고려전, “其所居必依山谷 皆以茅草葺舍 唯佛寺 神廟及王宮 官府 內用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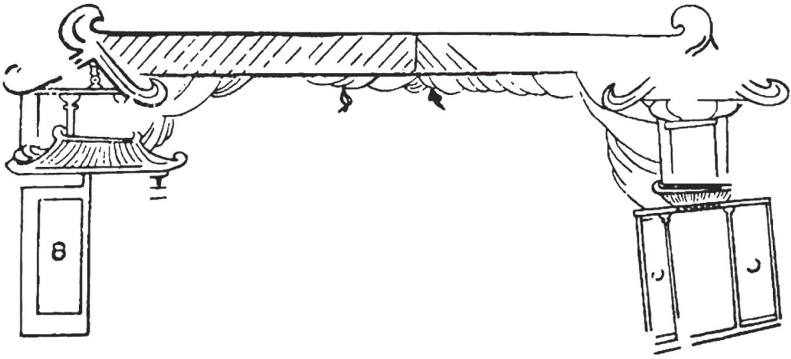


그림1 | 집안 통구12호묘 전각도

은 아껴먹으나 궁실은 잘 지어 치장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고구려의 건축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동명왕 때부터 궁실과 성곽을 조영한 기록이 있어 이때부터 기와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중국 집안의 고구려 고분인 마선구 2378호묘와 2381호묘에서 발견된 기와가 1세기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되고 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c).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 2지구 35호분과 4지구 6호분 등 고구려 초기의 돌각담무덤에서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무렵에 사용된 청회색 암키와가 발굴되었다는 보고도 있다(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한편, 고구려 목조건축물의 의장에 주요한 역할을 했을 와당은 그 기록이 전무하여 인접국의 경우를 통해 유추하거나 고고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전하는 발굴 자료 가운데 가장 빠른 절대편년을 가지는 유물은 집안시 국내성 인민욕지(人民浴池)지점에서 출토되었다는 ‘태녕4년(太寧四年)’명 권운문와당이다. ‘태녕’은 중국 동진 명제의



그림2 국내성 출토  
'태녕4년'명  
권운문와당

연호로 4년은 326년에 해당한다.<sup>6</sup> 이 자료는 고구려가 늦어도 4세기 초엽에 이르면 문양과 명문을 새긴 와당을 생산하는 기술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이다. 또한 1990~2003년에 집중된 집안시 국내성 일대에 대한 발굴 결과, 여러 점의 문자와당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각각 '무술년(戊戌年)', '기축년(己丑年)', '정사(丁巳)', '을묘년(乙卯年)' 등의 간지가 새겨져 있어 그 시기 추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현재 전하는 자료상으로 고구려 와당의 상한은 4세기 초엽이며, 학계에서도 대개 이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고구려 와당의 시원 양식이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원을 4세기 무렵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시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이미 기원전부터 와당을 제작·사용했으며 고구려와 경계를 맞대고 있던 낙랑과 중국 북조 유적에서는 양질의 와당이 출토되고 있어 고구려의 경우도 이들처럼

6 동진의 명제는 태녕 3년 8월에 죽었기 때문에 태녕이 중국의 연호가 아니라 고구려의 독자적인 연호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렇지만 그 뒤를 이은 성제가 함화(咸和)로 건원하는 시기는 2월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태녕 연호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와당이 제작된 시기는 태녕 4년 1월에서 함화 원년 2월 사이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와당을 생산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기와나 토기에 명문을 넣는 기법은 생산기술이 절정에 달한 후에야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와당의 생산 또한 이러한 기술적 수준을 토대로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구려에서 와당의 기원은 고구려에서 기와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세기 무렵부터 ‘태녕4년’명 권운문와당이 제작된 4세기 초엽 사이의 어느 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기와 중에서도 와당은 드림새라고 불리는 점토판을 수키와와 암키와의 한쪽 끝에 붙여 모양을 낸 기와로 처마 끝부분에 놓인다. 드림새는 처마를 비나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의도로 제작되었으나 차츰 목조건물을 장식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의장성이 중요시되었다. 의장성은 드림새의 형태와 새긴 문양을 통해 나타내며 건축물의 존귀함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와당은 중국 와당 제작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나 새긴 문양은 고구려인의 사상체계와 상층 귀족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의 와당은 용도와 형태 면에서 중국 와당의 영향을 받았지만, 표면에 나타난 문양은 중국의 와당 문양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중국의 와당이 중국인들의 사상과 정신세계를 반영한 것이라면 고구려 와당에 나타난 문양은 고구려인들의 고유한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연구 역사

우리나라에서 기와에 대한 관심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수광이나 이익 등의 이용후생적인 경향에서 시작되었다. 이수광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기와의 기원에 대해 “『사기(史記)』에 이르기를 걸왕(桀王)이 기와집을 지었다고 했고, 『박물지(博物志)』에 역시 이르기를 걸이 기와지붕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비추어 본다면 하나라 걸왕 이전에는 궁실에도 대개 띠를 덮은 것이다”<sup>7</sup>라고 고찰하였다. 김정희는 평양에서 권운문와당을 접한 후 『완당집(阮堂集)』에 <한와당(漢瓦堂)>이라는 시문을 남겼다. 특히 “뭉게뭉게 먹구름을 뱉어낸다”든가 “천추만세의 무궁한 계획”이라는 시 구절은 바로 눈앞에서 낙랑의 천추만세(千秋萬歲)명와당과 권운문와당을 보는 듯 생생하다. 김정희의 금석학 연구는 한국 기와 연구에서 최초의 단서를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백종오, 2006a; 2006b).

고구려 와전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소개되었다. 먼저 고종 20년(1883년)에 일본 육군 포병중위인 사가와 가게노부(酒匂景信)는 <광개토왕릉비>의 묵본(墨本)과 태왕릉에서 ‘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이 새겨진 명문전을 수집하였다. 그 다음 해에 아오에 슈(青江秀)와 요코이 다다나오(横井忠直)는 태왕릉의 명문전을 소개하였다(青江秀, 1884; 横井忠直, 1884). 1905년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면서 약간의 고구려 기와를 보고

7 『지봉유설』 권19 궁실부 궁전조.

하였다(鳥居龍藏, 1905).

이후 1913년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집안 지역의 장군총과 태왕릉, 천추총 등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면서 고구려 기와류를 언급하였다(關野貞, 1934). 1928년에는 고구려 와당에 대한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유형별 특징에 따라 형식을 분류하였다. 이른바 태왕릉A형과 장군총형의 복선연화문와당이 평양 토성리와 대동강 건너편 평천리에서 출토되는 이유는 낙랑 멸망 후 고구려인이 먼저 낙랑군 치지 부근인 이곳에 내주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關野貞, 1928).

일제강점기에 고유섭은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고구려 기와에 대한 기본 개설과 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高裕燮, 1932; 1939). 와당의 종류는 암막새와 수막새로 구분하였으며, 문양은 연화문, 인동문, 수면문, 당초문, 복선문, 중권문 등 6종으로 나누고, 평와당은 방격문, 사격문, 망안문, 인동문, 우상문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기하학적 선문, 수면문 등은 한와당(漢瓦當)의 유형이라고 했으며, 나머지는 불교적 문양이라고 하였다. 문양 조각은 외곽이 힘이 있어 굽고 두터우며 내구의 선각은 강인하다고 표현하였다. 와당의 색깔은 적색과 흑색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적색이 가장 고구려적인 특질이라 하였다. 이렇게 예술적 조형 심리와 형태를 통찰하면서 이것이 고구려 와당 조각의 특색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고구려의 초기 와당은 중간의 중방을 중심으로 6엽 내지 8엽의 연화가 배치되는데, 낙랑과 다른 점은 판단의 양 옆에 주문을 배치한다는 점과 와당면을 구분하는 선조가 사라지고 연판, 인동 등의 복합된 판간문양이 등장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고구려 와당의 다종다양하고 강인함을 미학적인 관점에서 백제, 신라와 비교하며 기술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초기에는 고구려 와당을 중심으로 문양의 양식사적 접근에서 시작하였는데 이후 삼국 간의 비교를 통하여 그 영향관계와 제작기법을 설명하였다(김화영, 1967; 유재우, 1980; 김성구, 1992; 2006; 조용중, 1995; 최명식, 2001; 2004; 2005; 조미정, 2004; 김희찬, 2005a; 2005b; 2006; 2011; 백종오, 2006a; 2006b; 강현숙, 2007; 왕비봉, 2013; 주홍규, 2009; 2014; 2015; 2019). 이후 남북의 화해 분위기에 맞추어 군사 분계지역인 임진강 유역의 고고학적 조사가 활발해지며 연구영역이 평기와까지 확대되었다(심광주, 1999; 2005; 백종오, 2001; 2003; 2005). 이 연구들은 평기와의 고유한 속성과 특징을 분석하여 제작방법에 대한 복원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만주 지역 출토품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성자방사화분석, X선회절분석 등 자연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산지추정과 소성온도값 등 구체적인 기술적 속성의 정보를 획득하게 되었다(양동윤·김주용·한창균, 1999; 백종오, 2004). 이처럼 평기와의 비교 분석과 와당 휘기 의례 행위(백종오, 2008; 2011; 2012)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남한의 고고학적 성과이다.

한편, 북한에서의 고구려 기와 연구는 남한보다 몇 년 앞서 시작되었고 연구경향 역시 현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같은 시기 남한의 연구보다 생동감 있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했다(채희국, 1964; 김일성종합대학 편, 1985; 김영진, 2002; 백종오, 2008). 이러한 발굴자료를 통해 기와 문양의 연대 비정과 유적의 시기적인 변천 과정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리광희, 2004; 윤광수, 2004; 주선희, 2005; 김영일, 2014; 2015). 또한 평양 지역의 평기와류와 마루기와(윤광수, 2006; 2009; 2010)만이 아니라 기와의 제작기법(윤광수, 2011; 2016)과 자연

과학적 분석(한명걸·우철, 2014a; 2014b), 집안 지역 출토 와당(김성철, 2015; 정지향, 2016) 등 연구범위가 확대되는 과정 역시 남한 학계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고구려 와당의 형식 분류와 시기 구분을 통해 한사군의 영향으로 고구려 기와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통설은 현재까지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關野貞, 1928). 그리고 고구려의 와전 도록 발간(井內功編, 1976; 1981), 와당의 원류와 영향관계(太田靜六, 1971; 關口廣次, 1977), 와당을 토대로 한 유적의 시기 구분(千田剛道, 1982; 田村晃一, 1983; 1984; 谷豊信, 1989; 1990), 제작기법에서 나타나는 제반 속성, 문양이 갖는 상징적 의미(關口廣次, 1987) 등에 대한 검토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중국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지만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고구려 초기 기와에 대한 다량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더욱 폭넓고 세부적인 연구가 가능하였다(方起東·林至德, 1984; 李殿福, 1984; 林至德·耿鐵華, 1985; 嚴長錄·楊再林, 1988; 魏存成, 1994; 耿鐵華·尹國有, 2014). 그렇지만 제작기법의 특징이라든가 자연과학적 분석이 뒤따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기와 연구도 주로 와당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기와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구려 기와의 생성과 발전을 자국사의 영향으로 풀이하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 기와를 예술품적으로 재인식하려 한다든가 세밀한 형식 분류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李梅, 2002; 宋玉彬, 2020; 任嘉敏, 2022)은 한국이나 일본 학계와 다른 중국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 와전 연구는 처음에는 와당과 명문전을 중심으로 연

구되었으며, 이를 통한 형식과 유형 분류가 분석의 주된 방법이였다. 그리고 고구려 기와의 기원은 중국 한사군의 영향이라는 기존의 통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평기와 의 속성 분석과 자연과학적 분석, 문자 및 도상기와의 해석, 와당의 의례행위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는 지리적 한계로 고고학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남한 학계의 연구자료 부족을 방법론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2. 기와의 종류

고구려 기와가 사용된 건물의 지붕 모습은 고분벽화와 집모양토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지붕 양식은 우진각지붕이나 맞배지붕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팔작지붕이나 팔각지붕도 있었다. 우진각지붕은 고대로 주요 건물에 애용되었으며, 맞배지붕은 남포시 성총 현실 북벽에 보이는데 대체로 각 건물 사이를 연결한 회랑이나 부속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남포시 용강대묘에 그려진 성곽도를 보면 대부분 우진각지붕 건물인데, 일부 팔각지붕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있다(전호태, 2004). 이 외에도 팔각 건물지를 통해 팔각지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집안 지역의 환도산성 궁전지 2·3호, 평양 지역의 청암리사지나 원오리사지 등이 있다.

## 1) 기본기와

지붕을 덮는 기와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며 지붕의 기본구조를 구성하는 기와이다. 지붕의 방수와 보온, 방풍과 방음, 배수 등 기능적인 측면이 가장 강조되는 보편적인 기와가 된다. 여기에는 암·수키와가 해당되며 지붕의 기본구조인 기왓골과 기와등을 형성한다.

암키와는 완만한 호선을 그리는 기와로 오목한 내면이 위쪽을 향하여 이어져 기왓골을 형성하는 부재이다. 여러 장의 암키와들이 서로 잘 겹쳐질 수 있도록 모서리의 각도를 줄여주거나 자르는 귀접이와 단면의 내외면을 얇게 다듬는 깎기조정 등이 나타난다. 귀접이의 경우 주로 평양 지역과 임진강 유역에서 확인된다.

끝암키와는 고구려의 특징적인 요소로 암키와의 단면부를 지두문이나 압인공구로 눌러 문양을 시문한 것이다. 끝암키와는 눌린 문양 표면이 매우 거친데 이것은 기와의 끝에 모이는 물의 표면장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것을 처마기와(檐瓦)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기와는 집안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평양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2세기 중엽 임강묘에서부터 그 흔적이 시작되어 우산하2110호묘, 서대묘, 마선구2100호묘,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에서 출토되었다. 처음에는 임강묘와 우산하2110호묘, 마선구 2100호묘에서 한두 종씩 나타났는데, 서대묘에서 4종, 천추총에서 8종으로 늘어나다가 태왕릉에서 19종으로 갑자기 다양해지며 수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다 장군총에서는 다시 10여 종으로 감소한다. 태왕릉의 끝암키와는 배면 상단부, 배면과 단면이 꺾이는 모서리, 단면

턱 등 시문되는 부위도 여러 곳에 걸쳐 남아있다. 이 기와는 고분 중심으로 출토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끝암기와 중 지두문은 부여 군수리사지 출토 지두문암기와와 발해의 끝암기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수키와는 기와등을 형성하는 기와로 지붕 바닥에 이어진 암키와의 틈을 메우는 기능을 하며 암키와와 더불어 많은 수량이 제작되었다. 수키와는 미구와 언강이라는 턱으로 연결되는 미구기와와 위쪽과 아래쪽의 곡률을 다르게 만들어 연결하는 토수기와로 나뉜다. 임진강이나 한강 유역에서는 토수기와만 확인되는 데 비하여 서대묘, 태왕릉, 임강묘, 우산하2110호묘 등 집안 지역의 고분에서는 토수기와와 미구기와가 모두 출토되었다. 이러한 수키와는 언강부와 미구 등부분에 빗물을 차단하는 절수홈이 관찰되기도 하며 기와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기와 못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다.

## 2) 막새기와

막새기와(이하 와당)는 처마와 추녀 끝에 사용되는 기와로, 주로 암·수키와의 끝에 연결되어 지붕 끝 낙수면에서 빗물이 목조가구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와당의 표면에는 갖가지 문양을 표현하여 단청과 함께 건물을 장식하는 의장적인 기능도 겸하는데 당시 문화와 기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와당은 수키와 끝에 둥근 드립새를 붙여 만든 것으로 기와등이 끝나는 부분에 사용한 부재이다. 기와등은 기와끝에 비해 위로 솟아있고 기와등 내부에 물이 침투하면 기와끝을 형성하고 있는 암키와의 결합이 약해져 물이 새게 되므로 추녀 부분의 목재가 가장 먼저 부식된다. 고

구려 와당은 외구에 막새면과 같이 주연부를 평박하게 두는 권운문와당과 주연부를 돌출시키는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sup>8</sup> 등으로 구분된다. 주연부의 높낮이가 시기적인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형와당은 반원와당, 행인형와당 등이 있다. 반원와당은 수막새를 이등분한 형태이고 행인형와당은 막새면이 하트모양이다. 반원와당은 둘레에 반원형의 주연부가 있고 그 내부에 화염문, 인동문, 두꺼비와 같은 동물문, 용문 등을 새겼다. 이는 평양 지역 고구려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이 있다. 행인형와당(도쿄국립박물관 소장)은 내림새의 형태가 특이한 경우로 인동문이 장식되었는데, 평남 대동군 임원면 양암리에서 출토된 바 있다.

### 3) 마루기와

마루는 기와를 쌓아올리는 시작점이자 종결점이며, 지붕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지붕을 돋보이게 하여 건축미를 높이고 건물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붕의 구성요소이다. 마루는 건물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용마루와 용마루에서 기왓골 방향으로 흐르는 내림마루(합각마루), 처마 끝으로 흐르는 추녀마루(귀마루), 박공마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루 축조용 기와는 착고와 적새 등이 있다. 기와등과 마루를 연결하

---

8 필자는 귀면문의 모티브가 용형면(龍形面)에 사자 형상을 가미한 것에서 온 점(임영주, 1983; 강우방, 2000)과 기와의 상징성 내지는 신성(神聖)의 측면에서 용면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 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귀면문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는 착고를 맨 밑으로 하고 그 위에 완형의 수키와를 세로 방향을 덧대어 부고를 얹은 뒤 적새를 올려 마루의 몸체를 완성한다. 착고는 부고와 기왓골 사이를 막음하는 기와인데 수키와의 양쪽을 기와등에 맞게 잘라 사용하였다. 이는 집안의 천주층에서 발견되었는데 승문과 마포 혼이 시문되어 기본기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또 환도산성 궁전지에서 출토된 설형(舌形)기와 3점 역시 착고로 추정되는데 표면에 격자문, 기하문, 음각된 ‘정(井)’명이 새겨져 있다. 적새는 마루를 쌓는 기와를 뜻하며 대체로 암키와를 사용하지만 미관을 고려하여 암키와를 쌓은 상단에 완형의 수키와를 얹기도 한다. 고구려의 경우 용마루 상단에 ‘^’모양의 합각기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산성하36호묘와 임강묘에서 출토되었다.

마루 장식용 기와는 치미, 곱새기와, 귀면관 등이 있다. 이들 기와는 각 마루의 끝에 세우거나 얹혀 장식적 효과와 길상·벽사적인 의미를 동시에 나타냈다. 고구려의 치미는 4~5세기경에 조성된 고분벽화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평양 정릉사, 연천 호로그루 등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도산성 1호문지와 궁전지에서 출토된 이형기와는 귀면문이 음각되어 있는데, 구부러진 양상이 치미의 등부분으로 추정된다.

마루 끝에 올리는 마루수막새는 등이 휘어 곱새기와라고 하는데, 고구려의 경우 환도산성 궁전지와 평양 대성구역에서 수습되었다. 환도산성 궁전지 출토품은 외당면의 중앙에 귀면이 새겨져 있고 연주문이 나 운문이 돌려져 있어 다른 귀면문와당과 구분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와당이 없는 곱새기와는 평양 정릉사지와 서울 흥련봉1보루에서 출토되었다.



그림3 | 기와의 종류

#### 4) 특수기와

기와는 건물 지붕이 아닌 특정한 장소에 사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크게 기단용 기와, 장식용 기와, 무덤용 기와로 구분된다.

기단용 기와는 건물 기단부나 하부의 구조물을 쌓기 위한 것으로 와적기단이라고도 한다. 평양 정릉사지에서는 온돌과 굴뚝 하부에 기와를 사용하였고, 무순 고이산성에서는 성벽 하부에 기와를 수직하여 보강하였다. 또 흥련봉1보루의 경우 부뚜막 주위에 기와를 적체하기도 하였다.

장식용 기와는 지붕 또는 이외의 특정한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앞서 언급한 마루장식용 기와 등이 해당된다.

무덤용 기와는 무덤 조성 시 관이나 봉분 등에 기와를 사용한 경우이다. 집안 지역의 마선구2378호묘, 마선구2381호묘, 황니강대총, 우산하3319호묘, 우산하2110호묘, 우산하2112호묘, 우산하922호묘, 산성하전창36호묘, 칠성산211호묘, 칠성산871호묘, 서대묘, 마선구2100호묘, 마선구626호묘, 임강묘,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이 있다. 이처럼 무덤에 기와를 사용한 것은 ‘묘상건축’이라는 고구려 풍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분 내부의 바닥에 국한하여 사용한 예는 평양 지역의 심귀리 고분(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과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리 용호등마을에서 출토된 순수 기와만으로 관을 만들어 사용한 외관묘가 있다(사회과학출판사, 2004).

### 3. 기본기와의 특징

#### 1) 문양 구성과 타날방법

삼국시대에는 승문, 격자문, 선문 계열 등이 대표적인 단위문양이다. 백제나 신라에서는 10여 종의 비교적 단순한 문양 구성을 보이는 데 비하여 고구려에서는 20여 종 이상의 다양한 문양 구성이 특징적이다. 그 종류는 승문, 격자문, 석문, 거치문, 선문, 당초문, 능형문, 화염문, 점문, 화뢰문, 수목문, 초화문, 어골문 등이 있다. 이 중 집안 지역에서는 승문과 격자문, 석문, 복합문 그리고 소량의 짧은 사선문이 나타난다.

승문은 삿자리무늬로 새끼줄을 박자에 감아서 타날할 때 생기는 문양이다. 기와가 출토되는 대부분의 고구려 유적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양으로 특히 집안 지역 고분군과 평양 지역의 성곽과 건물지, 임진강 유역 성곽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격자문은 직선을 교차시켜 네모꼴이나 마름모꼴을 이룬 무늬인데 승문과 함께 고구려 기와의 대표적 문양이다. 이 문양은 정격자문과 사격자문으로 분류하고 여기에서 다시 굵기에 따라 세정격자문, 태정격자문, 세사격자문, 태사격자문 등 네 형식으로 세분한다. 이러한 격자문 계열은 집안 지역의 환도산성과 국내성, 동대자유적, 평양 지역의 대성산성과 평양성, 임진강 유역 등의 성곽과 건물지에서 많이 보이는 문양이다.

이 중 환도산성에서 출토된 평기와는 격자문 계열과 석문, 복합문, 소문 등 크게 4종으로 나누어지며 전체 개체수는 2만 1,400여 점에 이른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문양은 격자문 계열(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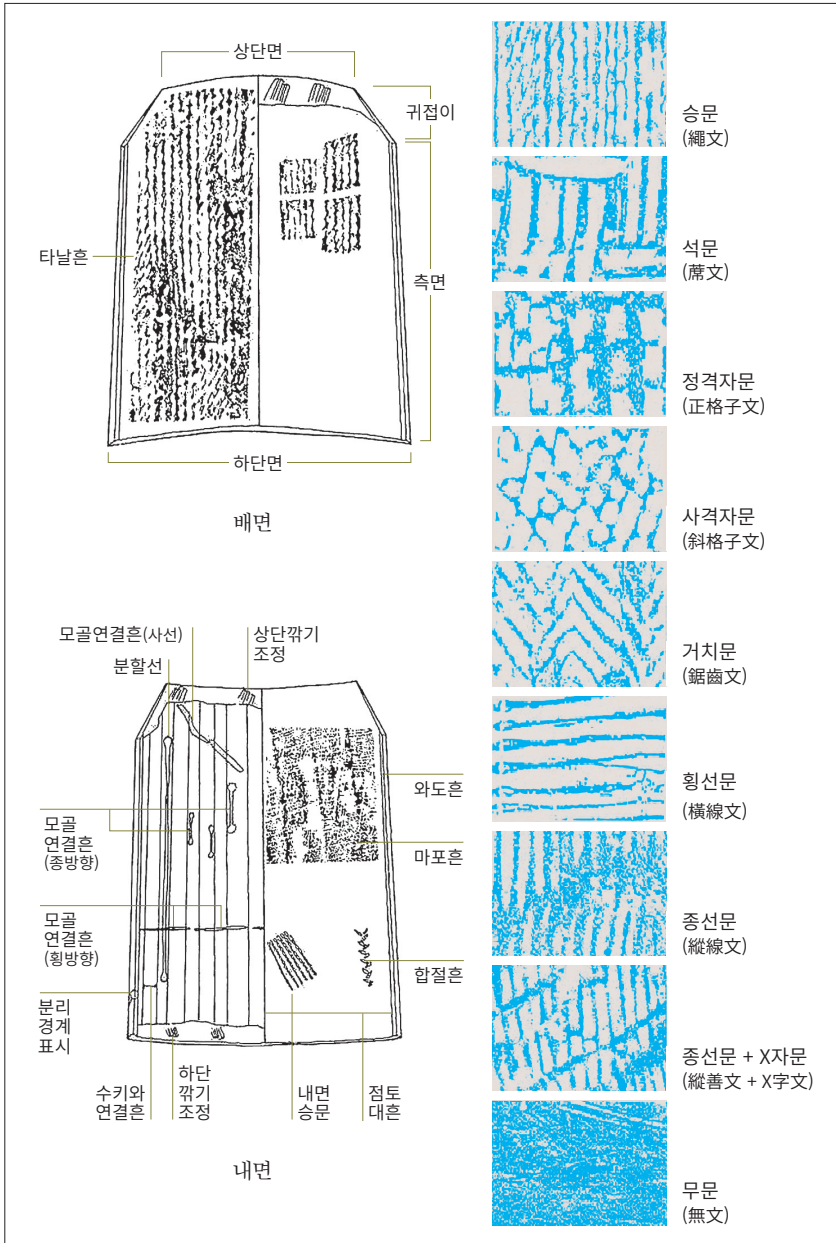


그림4 | 평기와와 명칭 및 문양

과 무문(40.8%), 석문(4.1%), 복합문(0.5%) 순으로 나타난다. 가장 비중이 큰 격자문 계열은 세정격자문, 태정격자문, 태사격자문의 3종으로 세분되는데, 세정격자문(46.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태사격자문(7.1%)과 태정격자문(0.9%)의 순으로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고구려의 주요 문양이라고 할 수 있는 승문은 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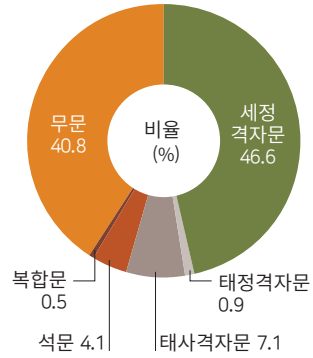


그림5 | 환도산성 출토 평기와의 문양 구성 비율

지역의 고분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환도산성이나 국내성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이 지역에서 소량으로 보이는 승문은 평양성기에 이곳을 경영하면서 새롭게 성곽이나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석문은 돛자리 형태로 평행한 5~9줄 정도의 직선을 직교하게 엮은 설무늬이다. 집안 지역의 환도산성, 국내성과 평양 지역의 대성산성, 평양성, 연천 호로그루 등에서 출토된다. 선문은 가로나 세로, 사선의 직선무늬를 조합하여 여러 문양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중 사선문은 국내성, 종선문은 철령 청룡산성, 횡선문은 연천 호로그루의 사례가 있다.

거치문은 삼각형의 톱니모양으로 평양 장매리와 연천 호로그루에서 확인된다. 당초문은 당초의 줄기와 잎새를 표현한 문양이며 평양성과 연천 아미성에서 나타난다.

그 외 능형문과 화염문, 점문, 화뢰문, 어골문 등은 평양 지역의 대성산성, 평양성, 정릉사지, 금강사지, 안학궁 등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정릉사지에서 15종 이상의 다양한 문양이 확인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능형문은 마름모를 여러 번 겹쳐 시문한 무늬인데, 정릉사지와 금강

사지에서 보인다. 화염문은 불꽃을 형상화한 무늬로, 대성산성과 평양성에서 출토되었다. 점문은 우점문(雨點文)이라고도 하는데, 선문을 직각을 이루며 겹치게 조각하여 네모꼴의 점이 나타나도록 조각한 무늬를 말한다. 화뢰문(花蕾文)은 꽃과 그 안의 봉오리를 배치한 무늬이고, 어골문은 통일신라 이후에 나타나는 가는 선의 어골문과는 달리 굵은 중심뿔을 두고 양 갈래로 가는 가지뿔을 짧게 배치하여 물고기 등뼈를 형상화한 무늬이다. 이들 세 문양은 평양성과 정릉사지, 평천리, 장매리에서 수습된 바 있으며, 화염문은 평양 철도 부근 출토품이 유명한데 하단부에 격자문이 시문된 것이 특이하다.

이외 단위문양을 같은 계열 속에서 혼합한 조합문과 서로 다른 계열을 혼합한 복합문이 있다. 조합문인 세사격자문+태사격자문은 환도산성과 서풍 성자산성 등에서 확인되며, 복합문은 세정격자문+사선문, 세사격자문+석문 등으로 환도산성과 국내성에서 출토되었다. 또 승문+횡선문, 승문+횡선문+격자문 등은 집안 지역의 마선구2378호묘, 칠성산871호묘, 임강묘, 우산하2110호묘 등 초대형 적석총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기와 배면에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음각으로 문자나 부호, 그림 등을 2차적으로 새기는데 대부분 수키와에 많이 시문되며 암키와에서는 소량만 확인된다. 이렇게 2차 시문된 명문이나 문양 등은 집안 지역의 환도산성에서 120여 종, 태왕릉과 장군총에서 10여 종씩, 천추총에서 20여 종이 보고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2004c). 평양 지역에서는 능형문+'十'자문, 능형문+화문, 능형문+4엽화문, 능형문+'田'명문, 사격자문+화형문, 사격자문+'Ω'자문, 선문+'×'자문, 승문+'金'명문, 격자문+원형인각, 석문+화뢰문, 석문+'春'명문 등 다종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무문은 대부분 수키와로 소문양화(素文樣化)가 진행된 것이 많이 관찰된다. 수키와에서 무문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고구려가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날씨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와와 같은 점토 소성품은 기후에 민감한데 특히 겨울철에 눈이 내린 후 추워지면 기와는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동결되어 팽창하게 된다. 이렇게 열고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 기와는 당연히 파손되며 파손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겨울철 동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이 기와에 머무를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시켜 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수키와의 경우 배면에 문양을 시문하지 않거나, 2차 정면으로 문양을 쓸어내어 소문양화시키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고구려 수키와는 승문을 시문한 후 2차 정면으로 쓸어내거나 두드리 문양을 지워버리는 제작기법상의 특성을 보여준다.

박자(拍子)는 기와 성형 시 태토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하여 두드리 는 도구로 타날판이나 고판으로도 불린다. 이 박자에 새끼줄을 감거나 여러 무늬를 새겨 두드리면 기와 배면의 문양이 된다. 이렇게 한 번 두드린 흔적을 통하여 박자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 도구로서의 박자 크기는 소성 시 발생한 10% 내외의 수축률을 감안하면 그 크기의 복원이 가능하다. 승문의 경우 가로 4cm, 세로 6cm 정도이고 정격 자문은 가로 4cm, 세로 5.5cm로 비교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격자문과 거치문은 다양한 크기의 박자를 사용한 것으로 관찰된다. 서풍 성자산성 승문은 너비 4.0~4.5cm이고 태사격자문은 5.5~7.5cm의 너비만 측정되고 있다. 이것은 단판박자를 사용한 결과이며 기존의 단판박자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는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白種伍, 2004).

문양 타날은 기와 성형 과정에서 중복된 타날을 피하며 이를 통해 점토의 밀착을 강하게 해야만 소성 시 갈라짐과 뒤틀어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진강 유역 출토품의 경우 중방향으로 타날하여 시문한 것이 절대 다수(93%)를 차지하지만, 한강 유역 홍련봉1보루와 요원 용수산성, 서풍 성자산성 등에서는 횡방향의 타날을 주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승문 계열과 격자문 계열이라는 문양 차이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오히려 중복 타날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태도의 치밀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보강으로 이들 출토품의 표면에는 모래를 뿌려 타날 후 소성한 방법이 공히 관찰된다.

## 2) 와통의 구조

와통은 기와를 성형하는 형틀을 말하는데, 모골와통과 원통와통, 일매와통의 3종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모골와통의 한 종류로 수키와 제작시 사용한 분해식모골와통이 있다. 서풍 성자산성과 요원 용수산성 암키와는 물손질이나 빗질하여 쓸어 정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골 흔적이 확인된다. 모골 너비는 서풍 성자산성은 2.5~3.5cm, 요원 용수산성은 4.5cm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점차 모골의 너비가 커지는 현상을 말해준다. 또 평균값보다 큰 너비의 모골은 암키와 내면에는 성형 시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손잡이 막대기를 맞대었기 때문에 모골 연결흔이 남아있지 않고, 너비가 5cm와 6.5cm 이상 되는 모골흔을 통하여 그 흔적의 추적이 가능하다.

기와 내면의 마포흔은 제작 시 와통과 태토의 원활한 분리를 위해 와통에 띄우는 통보 때문에 남은 흔적이다. 이 마포흔은 위사와 경사

만이 아니라 통보를 원통형으로 만들기 위한 합철흔(종방향), 짧은 포목을 잇대어 통의 크기에 맞춘 연철흔(횡방향), 포목을 고정시키기 위한 윤철흔 등이 나타난다(崔兌先, 1993). 이 중 고구려의 윤철흔은 너비 5~6mm 정도로 수키와에서 사선 방향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포의 정세도(가로×세로 5cm 범위)는 서풍 성자산성은 위사 34~42을(52.3%), 경사 34~40을(53.8%)이고 요원 용수산성은 위사 38~44을(46.2%), 경사 36~46을(46.3%)을 보이는데, 전자보다 후자의 정세도가 더 높으며 특히 용수산성의 경우 올수가 촘촘한 마포가 넓게 나타나는 점은 시간성을 잘 말해준다.

기와 내면에 새끼줄무늬를 표현한 승문이 남아 있는 것을 내면승문(內面繩文)이라 부른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평기와에 나타나는 독특한 제작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의 내면승문은 내측면을 정면하기 위한 고구려 특유의 방법으로 마포흔과 승문이 함께 나타난다. 승문은 대부분 횡방향으로 찍혀 있다. 그러나 백제는 정면보다는 마포의 대용으로 승문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와 내면 전체에 걸쳐 승문 흔적이 남게 되는 차이가 있다(崔孟植, 1999). 고구려와 백제의 평기와에 남은 내면승문은 서로 다른 제작 과정에서 생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승문은 임진강 유역의 당포성, 무등리보루군, 아미성 등에서 확인된다. 호로그루에서는 보이지 않고 당포성과 무등리보루군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그 분포지역이 임진강과 한탄강 합류지역에 집중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고구려 암키와에는 모골 너비가  $2.4 \pm 0.6$ cm인 와통에 의한 종방향 연결법(縱方向連結法)으로 인해, 기와 내면에 얇고 희미한 세로 방향의 모골연결흔과 볼륨이 심한 조립식굽와흔(組立式葺瓦痕)의 요철(凹凸)현

상 및 모골 사이의 각이 둥그렇게 돌아가는 용기돌출흔(隆起突出痕), 그리고 모골의 손잡이 흔적인 봉흔적(棒痕迹)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같은 특징은 기술적인 면에서 기와 내면에 물이 머물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물의 침습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구력이 강한 기와를 생산하기 위하여 모골와통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세밀한 모골의 연결도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도의 과학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 3) 측면분할과 방법

측면분할은 와통에서 성형된 태토를 2매나 4매로 분할하기 위하여 와도를 사용하여 그은 후 분리한 흔적을 말한다. 분할방법은 부분분할과 완전분할로 나뉘는데, 완전분할은 측면 전체를 와도를 사용하여 말끔하게 분할하는 방법이다. 고구려 평기와의 측면분할방법은 1~6회에 걸쳐 말끔하게 분할하여 깎기조정하는 완전분할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고구려 평기와는 일부에서만 분리 흔적이 확인되는데, 주로 돌기형 물체를 부착한 방법을 위주로 하며 젓가락처럼 긴 막대를 사용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분리 흔적이 적게 관찰되는 이유는 내측면 분할 시 내면까지 깎기조정하는 수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백제의 분리 흔적은 젓가락식을 비롯하여 못고정식과 끈이음식, 끈매듭식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崔孟植, 1999).

기와를 엮을 때 맞대는 암·수키와의 내부곡률과 외부곡률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기와 사이의 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귀집이(未角), 상·하단 깎기조정 등을 사

용하였다. 귀접이는 단면과 측면이 만나는 양측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잘라내는 기법을 말한다. 고구려 귀접이의 상·하 단면은 깎기조정을 하였으며 암키와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다. 집안 지역에서는 그다지 많이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장군총 출토 승문암키와에서 모서리를 없애는 흔적이 확인된다. 수법은 다른 귀접이와 동일하나 약간 동그렇게 돌아가는 차이가 있다. 임진강 유역 호로그루의 경우 귀접이의 상·하 단면을 모두 깎기조정 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만 한강 유역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단면 조정(端面調整)은 암키와 단면의 상단과 하단 모서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깎기한 조정을 말한다. 상단은 즈와할 때 외부곡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하단은 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조정 유무에 따라 상·하단 조정, 상단만 조정, 하단만 조정, 조정 없음 등 4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고구려에서는 양면 조정보다는 낙수 흐름을 중시하는 하단 조정을 선호하였다. 집안 지역 고구려 고분 출토품에서는 배면 상면을 7~8cm 정도 쓸어서 정면한 경우, 상면부를 울퉁불퉁한 단면이 되도록 쓸어서 홈을 낸 경우, 아래쪽이 약하게 처지도록 휘어진 경우, 약간의 아래턱을 둔 경우 등이 관찰된다. 임진강 유역과는 달리 단면부를 적극적으로 다듬거나 처지도록 조정하였다.

#### 4) 색깔과 소성

고구려 평기와의 색깔은 적색 계통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회청색과 황갈색 계통은 아주 적은 양으로 확인된다. 고구려 전기에는 성곽과 건

물지에 적색 계통이 올라가며 고분에는 회청색 계통을 사용한다. 이런 색깔 구분은 당시 고구려 사회의 풍습과 제도를 반영하는데 바로 음양 오행사상이다. 음양오행의 기본색 중에 적색(赤色)은 불과 태양, 왕권, 남방, 재생 등을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흑색(黑色)은 물과 죽음, 북방, 어둠 등을 나타내는 색이다. 이 색은 단군신화와 수로왕신화에 등장하는 곰이나 거북 등과 같이 특정 동물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신격을 갖춘 존재로 한국 토토텐신앙의 잔재로 보기도 한다. 이런 색깔의 차이는 문화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문화적인 요소로 고구려에서 95% 이상의 기와가 적색 계통인 것은 일정한 색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호도로 파악된다. 이런 점은 기와와 공반되는 토기류가 회색 계통임을 감안해볼 때, 지붕의 기와는 양(陽)이고 토기는 음(陰)으로 표현한 현상이라고 짐작되므로 동일한 문화적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작 과정의 기술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있다. 집안 지역 출토 고구려 평기와의 X선회절분석 결과에 의하면, 적색 계통의 기와에는 샤드(shard)가 첨가되어 있다. 이 샤드는 다른 태토보다 철산화물이 많은 재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구려인은 기와에 적색을 내려는 인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또 더 나아가 샤드가 많이 포함된 기와는 기포가 적고 재질이 치밀하기 때문에 고구려인의 기와 제작기술 중 중요한 기법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리고 적철석의 검출 유무로 볼 때, 적색 계통의 기와는 산화 분위기에서, 회청색 계통의 기와는 환원 분위기에서 소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양동윤·김주용·한창균, 1999). 이처럼 소성 분위기가 자체가 기와 제작의 목적과 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색깔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임진강 유역 기와류의 물성 분석을 보면 석영, 백운모, 미사장석, 소다장석, 각섬석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백운모와 석영은 호로그루와 당포성, 무등리보루에서 균일하게 검출되었으며 미사장석은 다른 유적에서는 고루 검출되었으나 호로그루에서는 1점만 확인되었다. 각섬석은 당포성에서 2점, 무등리보루에서 1점만이 나타나고 있어 유적에 따른 태토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극미량 원소 분석에서도 각 유적별 집단 중심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유적별로 기와 제작이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주요 광물의 결정구조가 열원에 의해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성도는 870℃ 내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집안 지역 출토품이 930℃ 이상에서 소성되었다는 결과는 좋은 비교자료가 된다(양동윤·김주용·한창균, 1999). 경도 역시 연질과 경질이 8:2 정도로 연질의 비율이 높다.

한편, 성형 때 사용하는 소지(素地)는 길다란 띠를 감아올리는 점토대와 네모나게 넓적한 판을 덧씌우는 점토판이 있다. 고구려는 점토대와 점토판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거나 신리는 점토대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점토대는 3~5cm 정도의 너비가 일반적이다.

#### 4. 와당의 형식과 시기 구분

고구려 와당은 크게 집안 지역과 평양 지역 그리고 장수왕의 한강 유역 진출 이후 남한 지역에 분포한다. 집안 지역은 국내성, 환도산성, 동대자유적, 이수원자남유적, 승리촌유적, 마선서북중학유적 등 성곽과 건물지 유적이 있으며, 서대묘, 우산하3319호, 우산하992호묘, 마선

구2100호묘,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상활릉5호묘, 장천2호묘 등 고분 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집안 지역은 국내성을 중심으로 압록강 북안을 따라 동북쪽으로는 장천2호묘에 이르고 서남쪽으로는 상·하활릉촌까지 해당되며, 북쪽으로는 환도산성을 포함한다. 이외 봉성 봉황산성, 개주 고려성산성, 무순 고이산성, 요원 용수산성, 서풍 성자산성, 혼춘 온특혁부성 등이 있다. 그리고 평양 지역은 대동강유역의 대성산성, 청암리성, 안학궁, 평양성, 토성리유적, 청암리성, 정릉사지, 금강사지, 경신리1호분 등이 있으며, 남한 지역에서는 연천 호로고루, 서울 흥련봉1보루, 화성 고금산유적, 강릉읍성 확장트렌치 출토품 등이 있다.

## 1) 와당의 형식

### (1) 집안 지역

집안 지역에서 출토된 와당은 문양의 종류에 따라 권운문, 연화문, 인동문, 귀면문 등 4종이다. 이 중 연화문와당은 복선의 유무와 횡판문, 시체문 등 4종이다. 유복선(이하 복선)은 화판 위에 돌출된 용기선의 형태가 3종으로 나타나며, 무복선(이하 단판)은 화판 사이의 삼각형 간판문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연판은 대부분 단판으로 그 수는 6엽과 8엽이 가장 많은 수를 이룬다.

권운문와당은 고사리잎처럼 끝부분이 또아리모양으로 말리거나 구부러진 형태의 문양을 가진다. 와당면은 중방부, 권운부, 주연부 등을 기본구도로 하는데, 명문의 유무에 따라 유문자와 무문자로 나뉜다. 유문자는 ‘태녕4년(太寧四年)’과 ‘태녕(太寧)’ 등의 연호명과 ‘무술년(戊戌年)’, ‘기축년(己丑年)’, ‘을묘년(乙卯年)’, ‘정사(丁巳)’ 등의 간지명, 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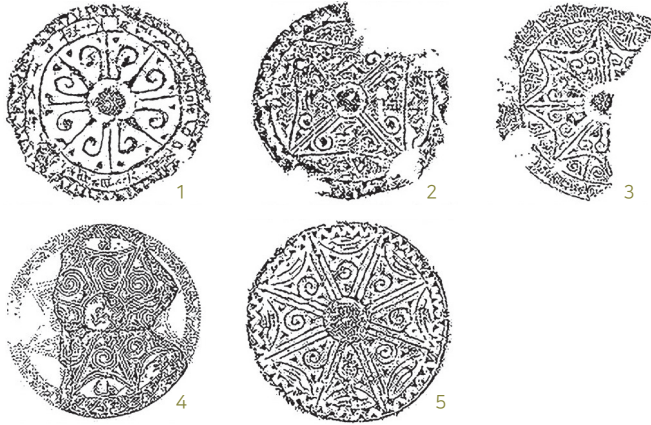


그림6 | 집안 지역 권운문와당

1. I식(인민옥지지점) 2. II식(국내성) 3. III식(서대묘)  
4. III식(우산하3319호묘) 5. IV식(마선구2100호묘)

‘대길(大吉)’, ‘십곡민조(十谷民造)’ 등이 있다.

‘태녕4년’명와당은 가운데 중방을 두고 원권이 주위를 돌아가며 권운부를 4분할 하였으며 주연부와의 사이에는 연호부가 없이 명문을 시문하였다. ‘태녕4년’은 326년으로 편년되며 국내성의 인민옥지지점과 영화관공사장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지름은 12.5cm이다. 또 ‘태녕□년’명와당은 중방의 원권에 붙어 1줄의 구획선으로 권운부를 8분할 하였고 연호부에는 명문을 새겼으며 주연부는 거치문이다. 연호부는 이 와당에서 처음 보인다. 국내성 남문리지점에서 출토되었으며 지름은 14cm이다.

‘기축’명과 ‘무술’명 와당은 앞에서 언급한 ‘태녕□년’명와당과 동일한 구도를 보여준다. 전자는 주연부에 ‘기축년□□우리작(己丑年□□于利作)’, 후자는 중방에 ‘태(泰)’명과 주연부에 ‘무술년조와소기(戊戌年造瓦所記)’ 등 명문 내용만 다르다. 기축은 329년, 무술은 338년으로 이수원자남유적과 서대묘에서 출토되었다. 지름은 14.4cm이다.

‘정사’명와당은 다른 간지명와당과 달리 연호부와 주연부를 다르게 조식하였다. 즉 연호부의 각 칸마다 권운을 1조씩 배치하였고 주연부에는 거치문 대신 명문을 양각한 점이 특이하다. 정사는 357년으로 추정되며 우산하3319호묘에서 출토되었다. 지름은 15.5~16cm이다.

무문자 권운문와당은 연호부에 새무늬를 배치한 마선구2011호묘 출토문과 역시 연호부에 ‘정(井)’자를 양각한 천추총 출토품이 있다. 이러한 연호부의 변화는 구도의 퇴화를 의미하며, 이는 주연부에 시문되었던 거치문이 연호부의 퇴화와 함께 사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복선연화문와당은 연판 사이에 2줄 한 조의 복선이 내구를 구획하는 문양이다. 화판에 용기선이 있는 것은 ‘Y(그림7-1)’, ‘凸(그림7-2)’, ‘凹(그림7-3)’형으로 확인된다. 주로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과 같은 고분에서 출토되며 색깔은 진한 회청색 계통으로 대부분 대형에 속한다. ‘Y’, ‘凸’형에서 연판은 6엽으로 나타나며, ‘凹’형에서는 8엽이다. 화판에 용기선이 없는 것(그림7-4)은 국내성과 동대자유적, 이수원자남유적 등 성곽과 건물지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색깔은 회청색과 회색이며 지름은 18.5cm이고 주연 높이는 2cm 정도의 중형과 대형 와당이다.

단판연화문와당이 사라지고 연판에 돌출된 용기선이 없는 형태로 연판 사이에 삼각추형의 간판문을 보조적으로 장식한 와당이다. 삼각추는 세 변이 모두 남아 있거나 한 변이 주연부로 들어간 형태 두 가지로 확인된다. 세 변이 모두 남은 것(그림8-1)은 동대자유적, 이수원자남유적, 집안 지역에서 많이 출토된다. 자방은 팔각 연호형과 반구형이고 연판은 8엽과 9엽이 대부분이다. 크기는 중형과 대형급이다. 한 변이 주연부로 들어간 형태(그림8-2)는 동대자유적, 이수원자유적, 승리촌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연판은 6엽과 8엽이고 색깔은 회색과 적색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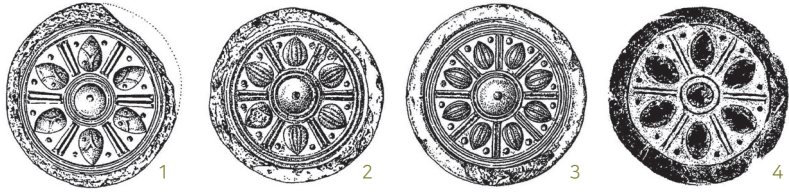


그림7 | 집안 지역 복선연화문와당

1. 태왕릉 2. 천추총 3. 장군총 4. 국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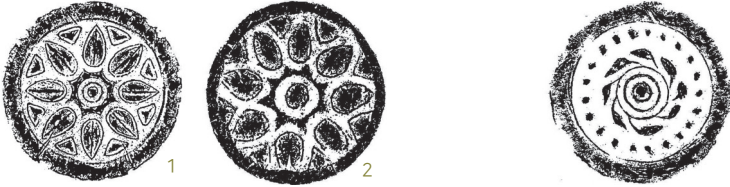


그림8 | 집안 지역 단판연화문와당

1. 삼각추 세 변이 모두 남은 형태(동대자유적)  
2. 삼각추 한 변이 주연부로 들어간 형태(동대자유적)

그림9 | 집안 지역

횡판연화문와당  
(동대자유적)

통으로 중형과 대형 와당에 속한다.

횡판연화문와당은 가운데 자방을 두고 그 주위로 연화문을 횡으로 연결해 놓았으며 주연부와의 사이에 연주문이나 돌기문을 배치하였다(그림9). 환도산성, 동대자유적, 이수원자남유적, 혼춘 온특혁부성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횡판은 8엽을 연결해 놓았다. 색깔은 적색이고 지름은 직경 15.5cm이다.

시체연화문와당은 자방 주위로 4엽의 연판 사이에 감꼭지무늬를 배치한 문양이다. 감꼭지 화판이 가늘고 정교한 것(그림10-1)에서 점차 거친 것(그림10-2)으로 퇴화해 간다. 이수원자남유적, 동대자유적과 환도산성에서 출토되었는데 수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색깔은 적색이고 지름은 15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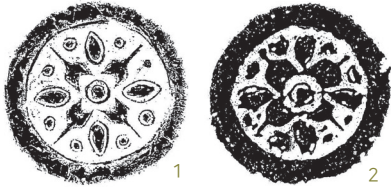


그림10 | 집안 지역 시체연화문와당

1. 감꼭지 화판이 가늘고 정교한 것 (이수원자남유적)
2. 감꼭지 화판이 거친 것 (이수원자남유적)



그림11 | 집안 지역 인동문와당

1. I식(동대자유적) 2. II식(동대자유적) 3. III식(동대자유적)



그림12 | 집안 지역 귀면문와당

1. I식(환도산성) 2. II식(동대자유적) 3. III식(동대자유적)

인동문와당은 6지 혹은 8지의 인동문이 부조를 달리하는 문양이다. 8지의 인동문이 낮은 부조식으로 돌아가는 것(그림11-1)과 높은 부조식으로 시문된 것(그림11-2), 그리고 6지의 인동문이 높은 부조식으로 조성된 것(그림11-3)으로 분류된다. 비교적 높은 부조식이며 수량은 많은 편으로 모두 적색 계통을 이루고 있다. 출토지는 환도산성, 국내성, 이수원자남유적, 동대자유적, 집안 제2초대소 등이다. 지름은 14.7~16cm이다.

귀면문와당의 문양은 주로 눈, 코, 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지름이 큰 대형 와당에 속한다. 태토는 니질에 적색 계통이나 경질 소성품이 많이 나타난다. 이 와당은 입모양이나 치아의 숫자, 혀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진다. 장방형 입모양에 13개 치아인 것(그림12-1)과 장방형에 12개 치아인 것(그림12-2), 혀를 내밀고 10~12개 치아인 것(그림12-3) 등이 있다. 지름은 16~22cm 정도이고 출토지는 환도산성과 국내성, 동대자유적 등이다.

## (2) 평양 지역

평양 지역에서 출토된 와당은 연화문, 인동문, 용면문 등과 만초문, 전지문, 와운문, 보상화문, 기하문과 기타 형식을 합하여 10여 종이다. 연화문은 복선의 유무와 조합문, 복합문, 횡관문 등으로 다섯 가지로 나타나며, 이 중 조합문과 복합문의 유형이 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나타나는데, 그 변화양상 또한 가장 다양하기 때문에 평양성기의 대표적인 연화문으로 볼 수 있다.

복선연화문와당은 연판 사이에 1~3줄 한 조의 복선이 내구를 구획하는 문양으로 4엽, 6엽, 8엽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복선문은 3줄의 직선이 한 조를 이루다가 2줄의 직선이 한 조를 이루는 형태로 변화하고 나중에는 1줄의 복선으로 남는다. 이 중 2줄 한 조는 집안 지역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반면에 1줄과 3줄 한 조 등은 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나타난 형태이다.

3줄 한 조를 이루는 경우(그림13-1)는 6엽이 가장 많고 자방은 반구형이나 중앙에 하나의 연주문을 두고 있다. 다른 일부는 자방에 방사상의 3줄 용기선을 교차시켜 자방을 6분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시 연



그림13 | 평양 지역 복선연화문와당  
1. 토성리 2. 청암리성 3. 안학궁

주문을 1개씩 장식하였다. 화판 사이의 복선은 3줄 한 조를 이루고 있으며 복선의 양 끝이 자방과 주연부에 서로 이어져 있다. 화판의 판단 사이에는 연주문이나 삼각문 등을 간판문으로 장식한 경우가 있다. 대성산성, 토성리유적, 금강사지, 정릉사지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색깔은 회색과 적색 계통이 모두 보인다. 특히 대성산성과 한왕묘 출토품의 경우 자방의 중앙부에서 2줄의 용기선이 출발하여 자방과 주연부를 서로 이어주며 와당면을 여러 등분하고 있다.

2줄 한 조를 이루는 것(그림13-2)은 8엽이 주류를 이룬다. 자방 주위를 2줄의 원권이 돌아가는 경우와 원권 안에 방격이 돌출된 형태의 2종이 있다. 화판은 중간이 돌기되어 있으며 연판 사이의 복선은 그 길이가 짧아 자방과 주연부에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 복선의 양 끝에는 작게 뭉쳐진 꽃술이 형성되어 복선문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청암리성, 토성리유적과 정릉사지 등에서 수습되었다.

1줄 한 조(그림13-3)는 4엽, 6엽, 8엽의 화판이 모두 관찰된다. 자방은 반구상이며 돌기된 화판은 바깥쪽이 뾰족하고 안쪽이 둥글게 만들어져 있다. 화판 사이의 복선은 1줄로 이루어져 있어 변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성산성과 정릉사지, 안학궁 등에서 확인되었다.



그림 14 | 평양 지역 단판연화문와당  
1. 청암리성 2. 안학궁 3. 대성산성

단판연화문와당은 와당면에 복선이 형성되지 않고 대신 연판 사이에 삼각형이나 초형문 그리고 여러 문양을 간판으로 사용한 형태이다. 삼각형을 간판문으로 사용한 것(그림14-1)은 6엽과 8엽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삼각형 세 변이 모두 남은 입체적인 삼각형에서 평면 삼각형으로 변화하다가 후에는 주연부 방향의 평면 삼각형 외변이 넓어지면서 변형된다. 청암리성과 대성산성에서 출토되었다. 초형문이 간판인 것(그림14-2)은 6엽과 8엽에서 많이 보인다. 화판 사이에는 감꼭지무늬와 나뭇가지 등과 유사한 초형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로 안학궁과 평양성에서 수습되었다.

이외에 조각달이나 주문, 연화문 등이 간판문으로 있는 특수한 형태(그림14-3)가 있다. 대성산성에서는 지방 주위에 연주문을 6개 돌리고 6엽의 화판을 배치하였으며 화판은 양 끝이 모두 뾰족한 형태로 판단부에 맞추어 초승달모양의 간판문을 장식하였다. 정릉사지 출토품은 지방의 둘레에 한 줄의 원권을 두고 그 주변으로 중판과 같이 두 줄의 소연판문을 교대로 11엽씩 배치하였다. 바깥쪽의 소연판문과 주연부 사이에는 연주문이 간판문으로 들어가 있다.

조합연화문와당은 연화문이라는 동일 계열의 단위문양을 시문방법

에 따라 부조와 선조를 교대로 하며 배치한 형태이다. 또 선조는 연판을 측면관으로 표현한 것과 평면관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

부조의 연판 사이에 선조의 꽃봉오리형을 측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시문한 형태는 모두 8엽으로 구성되었으며, 4+4엽의 배치를 기본구도로 하고 있다(그림15-1). 자방은 반구형으로 전반적으로 자방이 연판부에 비해 위축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 형식은 꽃봉오리를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과 연꽃에 꽃받침이 달린 것으로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안학궁과 청암리성에서, 후자는 대성산성에서 출토되었다.

부조와 선조를 평면관에서 바라본 형태는 4+4엽의 8엽 배치를 기본구도로 하고 있으며 일부 5+5엽의 10엽과 6+6엽의 12엽도 관찰된다(그림15-2). 부조는 모두 단판이나 선조는 단판인 것과 복판인 것의 두 종류가 있다. 먼저 단판부조+단판선조는 8엽을 기본구도로 10엽과 12엽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연판 수에 있어 가장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중앙의 자방이 반구상인 것, 중심부에 연자 1과를 둔 것, 그리고 1+8과의 연자를 배치한 것 등 여러 형태로 자방이 변화되고 있다. 두 연판에는 화륜권이 형성되었으며 연판 사이에 삼각형이나 주문이 간판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다음으로 부조단판+선조복판은 8엽만이 확인되었다(그림13-3). 중앙의 자방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 반구상의 자방에 연자나 원권을 두른 형태에서 자방을 방사상의 용기선으로 구획하는 다양화된 표현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연판 사이에는 삼각형이나 주문이 간판문으로 장식되었는데, 자방의 변화가 다양한 형태에는 주문의 간판문이 주로 시문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들 형식은 평양 지역의 유적에서 고루 출토되고 있다.



그림15 | 평양 지역 조합연화문와당  
1. 대성산성 2. 평양성 3. 평양성

복합연화문와당은 부조의 연화문 사이에 다른 계열의 단위문양을 배치한 형태로, 연화문 사이에는 인동문이나 귀면문, 인면문 등을 시문하였다.

먼저, 연화문 + 인동문은 4+4엽의 8엽을 구도로 하며 6+6엽의 12엽, 8+8엽의 16엽도 나타난다. 복합문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그림16-1). 지방은 다양한 양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조의 연판도 화륜권을 두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인동문은 4+4엽의 기본구도일 때는 비교적 정제된 인동을 표현하였으나 6+6엽이나 8+8엽의 경우 중심 줄기에서 4엽을 양쪽으로 짧게 펼치는 변형 인동을 시문한다. 판단부 사이에는 주문이 있으며 8엽과 12엽의 외구에서는 연주문대가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

연화문 + 귀면문은 4+4엽의 구도 안에서 선각으로 귀면문을 시문하였다(그림16-2). 지방은 1조의 원권을 돌리며 연화문은 화륜권이 있는 단판 양식이고 귀면문은 간략화된 선각으로 표현하였다. 외구에는 사선문대를 돌려 장식하였으며 평양성에서 출토되었다.

마지막으로 연화문 + 인면문이 있는데, 4+4엽의 구도 안에서 연화문과 인면문을 교대로 배치하였다(그림16-3). 반구상의 지방 밖으로



그림16 평양 지역 복합연화문와당  
1. 대성산성 2. 평양성 3. 대동 장수원리

그림17 평양 지역  
횡판연화문와당  
(평양성)

원권과 연주문이 돌아간다. 연화문은 화륜권이 있는 복판 양식이고 인면은 상하와 좌우가 서로 다른 얼굴모양을 하고 있는데 부조와 선조를 적절하게 섞으며 표현되었다. 간판은 초화문을 선조로 장식하였으며 평안남도 대동군 장수원리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복합문은 평양성기에 들어서면서 발전한 독특한 양식이다.

횡판연화문와당은 평양성 출토품으로 지방의 중앙에 연자를 표시하였으며 지방 둘레에 1~2줄의 원권을 돌리고 있다. 연판은 9엽을 가로 방향으로 돌려 하나의 커다란 꽃띠를 이룬 것 같이 머리와 꼬리 부분이 앞뒤로 이어지도록 배치하였다. 연판부의 안과 밖으로는 쉼표모양의 운문 같은 돌기문과 연주문을 시문하였다(그림17).

인동문와당은 높은 부조식으로 굵은 선의 6지가 좌측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평양성 출토품이다. 이 와당은 집안 지역 인동문 III식(그림 11-3)과 같은 형식이다

귀면문와당은 눈과 코가 돌출되었으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넓게 표현되어 역사다리꼴을 하고 있다(그림19). 집안 지역 귀면문과 입모양이 대조적이다. 표정은 활짝 웃는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근육의 움직임이 아주 섬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주연부가



그림18 | 평양 지역  
인동문와당  
(평양성)



그림19 | 평양 지역  
귀면문와당  
(정릉사지)



그림20 | 평양 지역  
보상화문와당  
(토성리)



그림21 | 평양 지역  
만초문와당  
(정릉사지)



그림22 | 평양 지역 전지문와당  
1. I식(정릉사지) 2. II식(평양성)



그림23 | 평양 지역  
악운문와당  
(평양성)



그림24 | 평양 지역  
차륜문와당  
(평양성)



그림25 | 평양 지역  
기하문와당  
(정릉사지)

고부조이고 색깔은 적색 계통이며 지름은 18cm 정도이다. 정릉사지와 금강사지에서 수습되었다.

보상화문와당은 4엽과 6엽으로 구분되는데 화판이나 자방에 따라 여러 형태가 나타난다. 4엽은 토성리유적 출토품으로 자방은 1줄의 원 권을 두른 후 그 주변에 보상화문을 화려하게 배치했으며, 그 사이에는

간략화된 간판문을 시문했다.

만초문와당은 자방 주위로 1~2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그 주변을 굽은 덩쿨무늬가 채우고 있다. 이 덩쿨은 10회 정도 돌아가며 단위문양을 이루는데 마치 연판과 간판을 표현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정릉사지 출토품이 유일하며 지름은 14cm이다.

전지문와당은 자방 주위로 5~6회의 얽힌 가지가 규칙적으로 배열되는데, 그 가지가 중복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진다. 평양성과 정릉사지에서 출토되었다.

그 외 자방 외측과 외구에 연주문대를 돌리고 그 사이에 횡으로 8줄의 와운문을 배치한 와운문와당, 조밀한 구획선을 방사상으로 뻗어나가게 형상화한 차륜문와당, 와당면을 여러 조의 권선으로 돌려가며 그 사이를 비워 두거나 거치문을 기하학적으로 시문한 기하문와당 등은 평양성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 2) 시기 구분

와당은 시대적 양식의 변화양상을 살피기에 좋은 자료이다. 와당에 새겨진 연호를 통해 절대연대가 확인되며 문양의 형식 분류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와당 문양은 427년 평양 천도를 기점으로 주요 문양의 변화가 확인된다. 또한 국내성기와 평양성기 사이에도 문양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양의 변화는 당시 고구려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내성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권운문와당은 문양 구성에 있어 토착신앙과 도교적인 세계관이 결합된 형태이며 이후 등장하는 연화문은 불교의 전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화문은 불교의 융성과 함께 와당의 주문양으로 자리 잡아 평양 천도 이후까지 성행한다. 그리고 고구려 후기 도교가 다시 유행하면서 불교적 색채와 도교적 색채가 융합하여 문양의 종류와 구성이 다양해진다.

### (1) 집안 지역

1기는 4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로 권운문와당이 유행한 시기이다. 4세기 전반 권운문와당은 국내성과 이수원자남유적 같은 건물지 유적에서 많이 출토된다. 그 시점은 326년으로 편년되는 ‘태녕4년’명이 된다. 이 와당은 중국의 권운문와당과 기본적인 구도만 비슷하게 나타날 뿐 세부양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즉 중방부의 원권은 권운문과 연결되지 않으며, 권운부는 1줄 구획선으로 막새면을 4분할하고 있다. 주연부는 중국의 경우 돌출하여 조성하는 것과 달리 고구려는 평박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태녕4년’명은 거치문의 삼각 꼭지점이 주연부나 운문부를 향하지 않고 지그재그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와당문화를 수용한 후 짧은 시간 안에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권운문와당 양식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기축’명(329년), ‘무진’명(338년), ‘정사’명(357년) 등 간지명 권운문와당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변천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이들 편년은 329년부터 357년으로 4세기 전반과 중반을 포함하는 시기이다. 막새면 중방부의 원권을 돌리는 형태는 그대로 이어지고 이곳에서 권운부의 구획선이 1줄 8분할로 세분되며 권운도 1.5~2.5회 또아리를 이루게 된다. 이후 구획선은 2~4줄 1조를 4분할 하거나 8분할 하며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변화상에 맞추어 연호부에는 명문이나 권운문, 새무늬 등을 시문하게 된다. 연호부에 새무늬가 시문되

면서 권운문와당에서 간지명 등의 문자는 사라진다. 이러한 새무늬가 나타나는 유적은 4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마선구2100호묘부터이다.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새무늬를 시문하였다가 이후 4세기 후반의 천추총 출토품부터는 새무늬와 함께 다른 문양도 추가된다. 이때부터 연호부는 이중선으로 표현되었다가 권운부와 구분 모호해지게 되는데 이와 함께 주연부에 시문되었던 거치문도 사라진다. 거치문과 연호부가 사라지는 시기는 천추총 출토품에서 확인되며, 이후 권운문와당은 연화문와당으로 전환된다.

2기는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중반까지로 복선연화문와당이 출현한 시기이다. 유적은 천추총과 태왕릉, 장군총, 상활릉5호묘, 장천2호묘, 국내성, 이수원자남유적 등이 있다. 먼저 4세기 후반의 태왕릉 출토품은 'Y'형의 용기선을 두고 그 좌우에 한 개씩의 주문을 둔 형태가 확인된다. 주문은 연판부와 복선의 좌우에도 1개씩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은 고분벽화 중 안악3호분, 무용총, 각저총, 통구12호묘, 장천1호묘 등의 연화문과 좋은 비교 편년자료가 된다(전호태, 1999). 연판 위에 '凸'형의 용기선을 둔 형태는 천추총과 태왕릉에서 출토되었는데 지방부와 연판부에는 와당면을 반으로 가르거나 3분의 1 정도를 궁형으로 가르듯한 와범의 접합흔이 띠를 이루며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판 위에 '凹'형 용기선을 둔 형태는 장군총에서 출토되어 장군총형이라고도 불린다. 연판은 기존 형식이 6엽인 데 비하여 8엽으로 증가하며, 출토지도 태왕릉, 상활릉5호묘, 장천2호묘 등 여러 구간으로 넓어지고 있다. 장천2호묘에서는 많은 불교자료가 출현하는데 그중 장군총과 같은 복선연화문이 출토되었다.

'凹'형 용기선이 없는 단판 형태는 국내성과 이수원자남유적, 태왕릉

에서 출토되었다. 자방의 원권이 2조에서 1조로 줄어들면서 연판과 주연부의 너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선은 현저히 위축되는 구도 변화를 가져오며, 이 단계에서 복선이 사라지면서 점차 단판연화문으로 변화되어 간다. 즉, 용기선이 없는 단판 형태는 고분 중심의 복선연화문와당에서 성곽과 건물지 중심의 단판연화문와당으로 변천되는 과도기 형태라 할 수 있다. 편년은 5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백종오, 2006a; 2006b).

3기는 5세기 후반부터 7세기 후반까지이다. 이 시기 복선연화문와당은 완전히 사라지고 단판연화문와당이 주종을 이루며, 인동문와당과 귀면문와당 등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와 함께 단판연화문와당만이 아니라 횡판연화문와당과 시체연화문와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양식의 문양구도가 나타난다. 이들 와당의 출현은 이전 시기까지의 획일적 문양 배치와 전혀 상반되는 양식의 성립을 의미하며, 아울러 고구려 와당 발전사의 정점이 된다. 국내성, 집안 제2초대소, 이수원자남유적, 동대자유적, 승리촌유적, 환도산성 등에서 출토된 와당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단판연화문와당은 연판이 6엽에서 9엽으로 연판 사이에 삼각추형의 간판문이 배치된다. 이 삼각추형은 세 변이 모두 남은 형태에서 한 변이 주연부로 들어간 형태로 변화해 간다.

연판문 계열 중 횡판문과 시체문은 횡판의 가운데 자방을 두고, 주위로 연화의 머리와 꼬리를 서로 연결하여 돌리는 문양으로 기존의 자방 중심의 중방향에서 횡방향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양식이 성립되었다. 집안 지역의 시체문은 자방을 중심으로 4엽의 연판 사이에 감꼭지무늬를 배치한 것으로 평양성기에 4+4엽을 기본구도로 하는 조합연화문, 복합연화문 등과 공식적인 발전 과정을 견게 된다. 인동문은 높은 부조에

서 얇은 부조로, 귀면문은 이빨의 수가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새로운 양식인 횡판연화문와당과 시체연화문와당은 고구려 와당 발전에 있어 계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보인다.

## (2) 평양 지역

1기는 4세기 말부터 6세기 전반까지로 집안 지역의 복선연화문와당의 전통이 함께 이어지다 퇴화되는 시기이다. 토성리유적, 경신리1호분, 대성산성, 금강사지, 정릉사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복선연화문와당은 그 복선의 수가 집안 지역에서는 2줄 한 조가 기본적으로 유지된 것에 비해 평양 지역에서는 3줄→2줄→1줄 한 조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복선의 모티브만 유지되는 후행적인 요소로 이해된다. 지방부와 주연부라도 서로 연결되었다가 떨어지는 양식상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는 복선연화문의 퇴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기는 6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로 연화문와당이 주종을 이루는 시기이다. 그리고 조합연화문과 복합연화문이 나타나 유행하는데 횡판연화문, 인동문, 귀면문, 보상화문 등 가장 많은 종류의 와당이 생산되었다. 대성산성과 안학궁, 정릉사지, 평양성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조합연화문와당은 부조와 연판 사이에 선조의 꽃봉오리를 측면에서 본 모습으로 시문한 것과 부조의 연판과 선조의 연판을 모두 평면에서 시문한 것이 있다. 전자는 4+4엽의 기본구도를 가지며 지방 중앙부에 1과의 연자를 두고 주위로 1조의 원권을 돌리는데 전반적으로 지방부가 연판부에 비해 위축된다. 후자는 기본구도에 5+5엽과 6+6엽으로 연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지방부의 연자도 중앙의 1과에서 벗어나 1+8과 등 여러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단판 부조와

복판 선조는 자방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된다. 연자나 원권을 두른 상태에서 방사상의 용기선으로 자방 안을 구획하고 있으며 그 안에 다시 원권을 두르거나 연자를 넣어 시문하는 등 다양한 표현방식이 보인다.

복합연화문와당은 연화문에 인동문이 4+4엽을 기본구도로 하며 6+6엽, 8+8엽으로 나타나고 있다. 4+4엽의 경우 인동문은 정제되고 섬세하게 표현되었으나 그 외 12엽과 16엽의 경우 중심 줄기의 좌우로 짧게 4줄 벌어진 변형 인동문이 자리하게 된다. 자방 역시 조합연화문와당처럼 다양하게 변화하고 주연부와 연판부 사이에 연주문대가 돌아가는 새로운 양식이 출현한다. 이러한 연주문대는 8엽과 12엽에서 나타나는데 12엽 중에는 횡으로 회전하는 모양의 변형된 연주문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또 연화문과 귀면문 또는 인면문이 4+4엽 구도 안에서 교대로 배치되었으나 그 수량이 극히 적은 특수양식으로 분류된다. 이외 인동문이나 귀면문의 경우 집안 지역과 기본구도는 유사하다. 인동문은 높은 부조식으로 6엽이 좌측으로 회전하는데 선이 두껍고 거칠게 표현된 집안 지역의 인동문과 같다. 귀면문은 집안 지역 보다 좀 더 볼륨감이 있고 여유롭게 웃는 표정이 멋지게 표현되었다.

이 시기의 와당은 종류가 다양해지고 문양 자체가 정교하게 제작되는데, 주요 문양과 보조 문양, 기타 문양 등으로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3기는 7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이다. 복합연화문이 성행하며 전지문, 만초문, 와운문, 차륜문 등의 기하문 계열이 발달하는 시기로 평양성과 정릉사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복합연화문은 이전 시기에 비해 연판부가 축소되고 간판이 넓어지거나 연판부 주위로 권운문와당에서 보인 연호부가 도식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26 집안 출토 수막새

1~3. 서대묘, 마선구2100호묘 4·7~10. 천추총 5. 태왕릉 6. 장군총  
 11~15·17·18. 집안 출토(경기도박물관) 16·19·20. 집안 출토(유금와당박물관)



그림27 | 평양 출토 수막새(유금와당박물관)

전반적으로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부의 문양은 지방부나 연판부에 기하문을 기본구도로 하며 외곽에 일부 연호부가 채용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복합연화문 중에는 6엽의 연화문 사이로 나뭇가지문을 간판문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데 주연부와의 사이에 연주문대를 빼곡하게 형성한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집안 지역 3기에서 보인 횡판연화문은 평양 지역 3기에도 나타난다. 집안 지역보다 장식성이 돋보이는 형태로 중앙의 지방부에 원권을 두르고 그 외측으로 연주문이나 쉼표형 돌기문을 돌리고 있다. 연판부는 9엽을 가로 방향으로 돌려 머리와 꼬리 부분이 하나의 커다란 띠로 연이어지도록 배치하였다. 주연부와의 사이에도 연판의 연결부마다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만초문은 지방 주위로 1~2조의 원권이 돌아가고 그 주변을 굽은녕쿨무늬가 10회 정도 돌아가는 문양으로 마치 연판과 간판을 기하학적으로 형상화하여 교대로 배치한 것처럼 보인다. 전지문 역시 가지가 얽혀있는 형태로 지방 주위로 5~6회에 걸쳐 얽혀있는 가지가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이외 지방 주위와 외구에 연주문대를 돌리고 그 사이에 8줄의 와운문을 횡으로 배치한 와운문와당, 조밀한 구획선을 방사상으로 형상화한 차륜문와당, 여러 조의 권선을 와당면에 전체적으로 돌리는 기하문와당 등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 5. 문자기와와 전돌

고구려의 문자기와는 주로 와당이나 평기와, 벽돌을 중심으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문자는 추상적인 내용의 그림을 담고 있거나 마멸과 훼손이 심해 쉽게 판독해 내거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들 문자자료의 시문방법은 음각, 양각, 음양각 등 세 종류로 분류된다. 음각에는 침선과 말압(抹壓), 양각에는 타출(打出), 음양각에는 인각(印刻), 인장(印章), 모인(摸印)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고구려에서는 음각 침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시문 내용은 글씨, 부호나 기호, 그림 등으로 암키와보다는 대부분 수키와 배면에 많이 새겨져 있다. 시문 부위는 수키와의 하단부인 미구나 언강 쪽에 치우친 점이 특징적이다. 이곳은 즘와(葺瓦) 때 수키와끼리 포개지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 측면으로 치우치게 문자나 그림 등을 새기고 있다. 이는 수키와 배면에 물이 머무르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암키와의 경우도 배면에 새기기 때문에 지붕에 얹으면 안쪽으로 놓이게 된다. 역시 기와 표면으로 물이 침습하여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기술적 배려이다(백종오, 2004).

## 1) 문자기와

문자기와는 집안 지역의 국내성과 환도산성의 출토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외 요원 용수산성과 연천 호로고루 등의 사례가 있다.

집안 지역 출토 문자기와는 권운문와당에 시문된 경우가 많다. 권운문와당은 명문의 유무에 따라 유문자와 무문자로 나누어지며 와당면은 중방부, 권운부, 연호부, 주연부를 기본구도로 한다. 이들 와당은 국내성, 이수원자남유적, 천추총, 서대묘, 우산하992호묘, 우산하3319호묘, 마선구2100호묘 등에서 출토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b; 2004c). 집안 지역에서 출토된 유문자 권운문와당은 다음과 같다(백종오, 2004; 박찬규, 2005; 여호규, 2010).

① ‘태녕4년(太寧四年)’명와당은 가운데 중방을 두고 주위를 원권이 돌아가며 권운부를 8분할 하였다. 연호부는 따로 두지 않고 권운문과 주연부 사이에 ‘태녕사년태세□□윤월육일기사조길보자의손(太寧四年太歲□□閏月六日己巳造吉保子宜孫)’이라고 시문하였다. 여기에서 ‘태녕4년’은 326년으로 편년되며 국내성 인민육지지점과 영화관공사장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지름은 12.5cm이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그림28-1).

② ‘태녕□년(太寧□年)’명와당은 연호부와 주연부 사이에 ‘태녕□년사월조작(太寧□年四月造作)’이라는 명문을 새겨 놓았다. 국내성 남문리지점에서 출토되었으며, 지름은 14cm이다(耿鐵華·尹國有, 2001)(그림28-2).

③ ‘무술년(戊戌年)’명와당은 ‘태녕□년’명와당과 동일한 구도이다. 중방에는 ‘태(泰)’명과 주연부에는 ‘□□년조와고기세(□□年造瓦故記歲)’, ‘무술년조와고기세(戊戌年造瓦故記歲)’라는 명문이 시문되어 있다. ‘무술년’은 338년으로 추정되며(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c), 지름은 14.4~15cm이다. 국내성 체육장지점, 이수원자남유적과 우산하 992호묘에서 출토되었다(그림28-4).

④ ‘을묘년(乙卯年)’명와당은 ‘십곡민조(十谷民造)’명와당과 마찬가지로 권운부 칸 사이와 연호부에 명문을 양각하였는데 연호부에는 355년으로 추정되는 ‘을묘년계유(乙卯年癸酉)’명이 남아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5). 국내성과 우산하3319호묘 출토품으로 지

름은 16cm 정도이다(그림28-5).

⑤ ‘정사(丁巳)’명와당은 주연부에 거치문 대신 명문을 양각한 점이 특이하다. 내용은 ‘태세제정사오월이십일위중랑급부인조개묘와우작민사천체□□용영시흥예득형만세(太歲在丁巳五月廿日爲中郎及夫人造蓋墓瓦又作民四千饑□□用盈時興詣得亨萬世)’이다. 여기에서 ‘丁巳’는 357년으로 추정된다. 지름은 15.5~16cm이다(吉林省文物志編委員會, 1983)(그림28-6) .

⑥ ‘대세□□년조와구(大歲□□年造瓦九)’명와당은, 중방에는 ‘대길(大吉)’을, 연호부에는 ‘대세□□년조와구’명을 시문하였다. 국내성 시제2소학교지점에서 2점이 출토되었고, 지름은 12cm이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b).

⑦ ‘십곡민조(十谷民造)’명와당은 권운문 사이에 ‘부일(夫一)’명을, 연호부에는 ‘십곡민조(十谷民造)’명을 시문하였다. 이수원자남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지름은 15cm이다(吉林省文物志編委員會, 1983)(그림28-7).

이상과 같이 집안 지역에서는 모두 7종의 유문자 권운문와당이 출토되었다. 이들 와당에 새겨진 명문 내용은 길상구, 와당의 조성시기, 제작자나 제작집단 등 세 가지로 대별된다. 모두 4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 유행하였다.

4세기 전반 권운문와당은 국내성과 이수원자남유적 같은 건물지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그 시점이 326년경으로 편년되는 ‘태

녕4년'명과 '태녕□년'명 와당이 그 예이다. 이 와당은 중국의 권운문 와당과 중방부, 권운부, 주연부 등 기본적인 구도만 비슷하게 나타날 뿐 세부양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즉 중방부의 원권은 권운문과 연결되지 않으며 권운부는 1줄 구획선으로 막새면을 8분할 하고 있다. '태녕4년'명와당은 연호부를 따로 조성하지 않고 명문을 시문하였으나 '태녕□년'명와당에서는 연호부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주연부에 있다. 중국의 경우 주연부를 돌출되 게 조성하는 것과 달리 고구려는 평면구도에서 표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그 내부엔 거치문이 주로 시문된다. 이는 그만큼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를 짧은 시간 안에 고구려의 독자적인 양식으로 변화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후 고분과 건물지 출토 '기축년'(329년), '무술년'(338년), '을묘년'(355년), '정사'(357년) 등 간지명 권운문와당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이들 편년은 329년부터 357년으로 4세기 전반과 중반을 포함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연호명 권운문와당은 국내성의 건물지에서 4세기 전반(1/4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간지명 권운문와당은 국내성과 이수원자남유적, 서대묘, 우산하992호묘, 우산하3319호묘 등과 같이 건물지와 고분에서 4세기 중반(2/4~3/4분기)에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후 4세기 후반(3/4~4/4분기) 연호부에서 이들 명문이 사라지고 새무늬로 대체되는 마선구2100호묘, 새무늬와 '井'자로 대체되는 천추총부터는 무문자 권운문와당이 고분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이외 인각명문와는 도장에 명문을 새겨서 찍은 기와를 말한다. 정릉 사지에서는 원형과 방형의 테두리 안에 '사(寺)', '천(泉)', '정(定)'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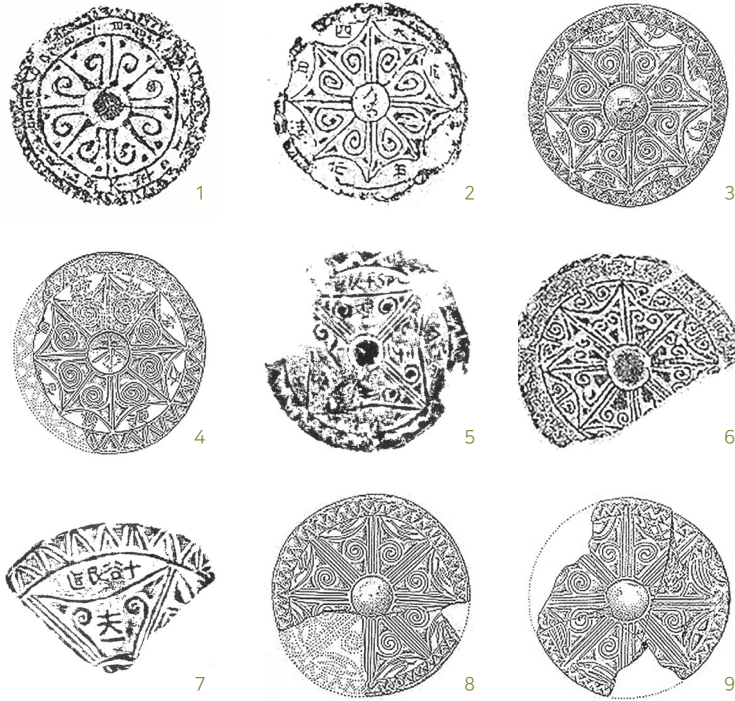


그림28 | 집안 지역 출토 권운문와당

- 1. 국내성 인민옥지지점 2. 국내성 남문리지점 3. 서대묘
- 4. 우산하992호묘 5. 국내성 6. 우산하3319호묘
- 7. 이수원자남유적 8. 마선구2100호묘 9. 천추총

양각된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평양 장매리 출토품은 ‘사(寺)’자를 수키와 내면에 새겨놓았다. 이런 기법을 통해 집안 지역의 전통이 평양 지역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도산성에서는 ‘소형(小兄)’, ‘하천창(下天倉)’, ‘대(?) (大甩)’, ‘공(工)’, ‘범(凡)’, ‘천(天)’, ‘조(鳥)’, ‘정(井)’ 등이 새겨진 기와가 나타난다. 이 중 ‘소형’명기와는 고구려 환도산성 궁전지의 수·개축에 소형이 약 100여 명의 인부를 관리·감독하는 실무책임자로 관여한 사실을 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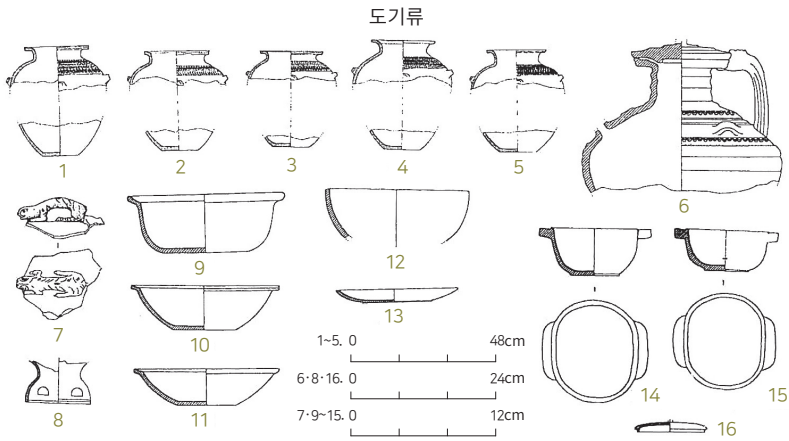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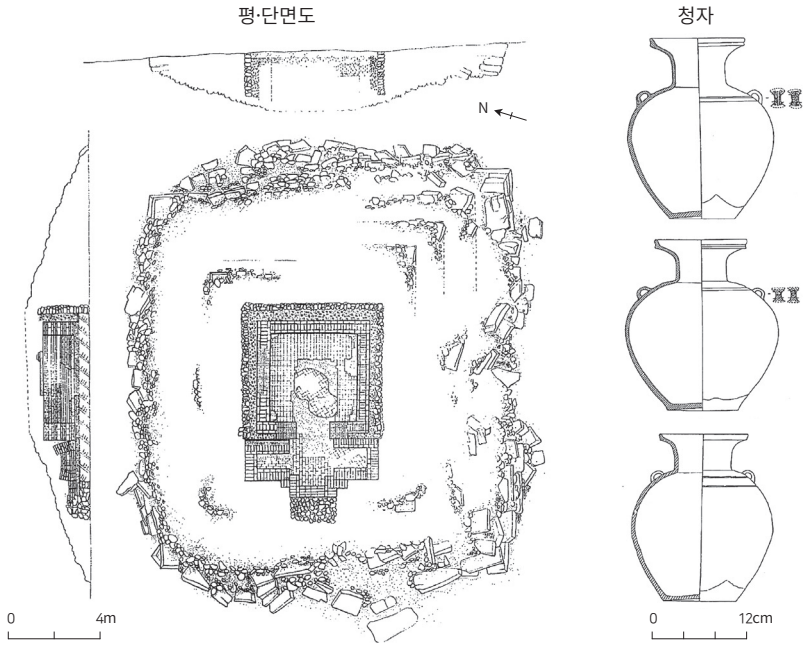


그림29 | 우산하3319호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준다. 즉, 환도산성 궁전지와 같은 고구려의 궁궐에는 ‘소형’이 주관하여 생산한 기와가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궁궐 등 국가적인 조영사업에 사용되는 기와를 제작하던 집단이었다.

천추총에서는 ‘영락(永樂)’, ‘조장군(趙將軍)’, ‘장안(長安)’, ‘왕(王)’, ‘전(前)’, ‘후(後)’, ‘상(上)’, ‘하(下)’ ‘왕(王)’ 등 연호와 직위, 지명, 방위 등 다양한 명문이 나타난다. 태왕릉에서는 ‘서인(西人)’, ‘주(州)’, ‘사(四)’, ‘오(五)’, ‘만(萬)’ 등 지방인(평양 사람)과 숫자 등이 새겨져 있다. 그 외 장군총에서는 ‘대(大)’, ‘소(小)’, ‘신(申)’, ‘조(鳥)’ 등 한 글자 위주의 명문과 함께 새머리무늬가 1점 남아있으며 ‘제삼(第三)’과 같은 명문이 기와 내면에 새겨진 경우도 있다(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우산하992호묘에서는 ‘부(富)’자가 새겨진 기와가, 서대묘에서는 ‘와(瓦)’, ‘음(音)’, ‘료(了)’, ‘작(爵)’자가 쓰여진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음’과 ‘작’은 기와 내면에 시문되었다. 천추총이나 태왕릉, 장군총, 서대묘 등 고분군에서는 단일 문자와 부호가 중심이 된다.

중국 요원 용수산성에서는 1990년을 전후하여 요원시 문물관리소의 수차례 발굴 결과, 북쪽 연못 남벽 문화층에서 ‘사(土)’명 수키와 1점, 지표에서 ‘왕(王)’, ‘대(大)’자 등 명문과 부호를 새긴 수키와편 14점이 채집되었다(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1988; 遼源市文物管理所, 1997). 그리고 연천 호로고루에서는 ‘□소와칠백십대와□백팔십용대사백삼십합천(□小瓦七百十大瓦□百八十用大四百卅合千)’명, ‘이십육일(廿六日)’명, ‘관일(官一)’명, ‘X’명, ‘Y’명 수키와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소와칠백십대와□백팔십용대사백삼십합천’명은 모두 17자의 명문이 확인되었다. 그 내용은 ‘□ 소와 710개, 대와 □80개 중에 대와 430개를 사용하고 남은 것의 합이 천□□개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용도는

장인이 기와의 제작 수량과 남은 수량을 기록해 놓은 산판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소와’와 ‘대와’는 수키와와 암키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심광주, 2009).

## 2) 전돌

전 혹은 전돌은 예전에 왕궁, 사찰, 왕릉 따위의 벽이나 바닥을 장식하는 데 쓰던 벽돌을 말한다. 기와와 같은 건축용 자재로 점토를 틀에 넣어 찍은 후 건조하거나 소성하여 만든 것이다. 전은 그 형태에 따라 방전, 조전(반방전), 삼각전, 제전, 공심전 등으로 나뉘고 용처별로 부전, 벽전, 묘전, 탑전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문양이나 문자 등의 유무에 따라 문양전, 문자전, 무문전 등으로도 구분한다.

고구려의 전돌은 집안 지역의 국내성, 환도산성, 민주유적, 천추총, 태왕릉, 우산하3319호묘 등과 평양 지역의 평양성, 정릉사지, 원오리사지, 장매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외 무순 고이산성, 서울 구의동보루, 연천 호로고루 등에서도 수습되었다.

국내성과 민주유적 출토 조전에는 용문, 능형문 등이 측면에 시문된 경우와 상면에 승문을 타날한 사례가 있다. 이들 측면 문양전은 벽체를 구성하는 벽전으로 추정되며 승문전이나 무문전은 바닥을 까는 부전의 용도로 파악된다. 태왕릉 출토 조전 역시 측면에 능형문이 시문되어 있기에 묘실을 구성하는 묘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태왕릉과 천추총에서는 많은 문자전이 출토되었는데 방전, 조전 등이 대부분이다. 긴 측면은 곱을 둔 후 명문을 양각했으며 짧은 측면은 빗각으로 깎기조정한 점이 특이하다. 천추총에서는 ‘천추만세영고(千秋萬歲永固)’, ‘보



그림30

전돌

1. 집안 우산하3319호묘 2~4. 집안 천추총 5. 평양 정릉사지

고건곤상필(保固乾坤相畢)’이라는 길상구가 새겨져 있다. 태왕릉에서는 ‘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原太王陵安如山固如岳)’이라는 길상구가 남아 있다. 우산하3319호묘에서는 무문전과 함께 ‘을묘년(乙卯年)’과 ‘정사(丁巳)’명 권운문와당이 출토된 바 있는데, 각각 355년과 357년으로 추정된다. 이로 볼때 4세기 중엽까지 무문전을 묘실에 사용하였다는 점과 무덤 상부에는 권운문와당을 덮었다(造蓋墓瓦)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1936~1937년에 평남 대동군 임원면의 고산리 3호분과 7호분 발굴 시 능형문전, 방곽 내 삼각추문전 등이 소량이지만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정릉사지는 1975~1975년에 걸쳐 사역 전체를 발굴하였는데 이때 전돌을 사용한 각종 시설과 구조가 주목된다. 먼저 사역의 제일 동쪽 구역 북단에 있는 동서 16m, 남북 11.8m의 건물터는 침전(寢殿)으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전돌을 포개 쌓아 만든 두 줄의 ㄱ자형 구들 시설이 있고, 침전과 주변 회랑 사이 바닥에는 부전을 깔았다. 그리고 서구와 동구의 남쪽에 대칭되게 전돌로 만든 원형 구조물이 있으며 우물 주변의 바닥에도 원형으로 부전을 깔아 놓았다. 전돌은 대체로 청회색이며, 문양은 크게 능형문, 사선문, 타래문, 이깔나뭇잎무늬 등 네 종류로 구분된다. 이처럼 전돌을 이용한 다양한 유구가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평양 원오리사지에서는 연화문과 무문전이, 대동군 장매리와 부벽루에서는 연속 능형문전, 화문전 등이 남아있다. 평양 평천리 출토 특수전은 장방형의 조전으로 한쪽이 약간 흰 부채꼴로 장축면에 당초문과 기하문이 시문되었는데 그 용처는 원형시설이나 우물의 바닥을 까는 부전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 연천 호로고루와 서울 구의동보루 등에서도 무문전이 확인되었다.

## 6. 와전을 통한 고구려 문화

### 1) 기와에 그려진 시조전승, 동명신화

집안 지역에서는 많은 문자기와와 도상기와가 출토되어 당시 사회의 면모를 나타내는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환도산성 출토 기와류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고 그 안에 문자나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고구려인의 사유체계를 접근하는 데 좋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와의 종류와 수량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에서 보듯이 환도산성 내 명문기와 수량은 확인된 것만 922점으로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 출토되었다. 이들 명문과 문양을 종류별로 보면 환도산성 궁전지 70여 종, 2호문지 30여 종, 요망대 20여 종 등 모두 120여 종류의 문자와 그림, 부호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이에 비해 천추총은 문자 중심의 명문 20여 종, 태왕릉은 문자보다는 간단한 부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10여 종이 출토되었다. 장군총은 천추총과 같이 한 문자 위주의

표1 환도산성 출토 문자 및 도상기와 현황

출토지	종류	문자	부호	그림	합계
궁전지		小兒, 大甩, 九, 鳥, 中, 天 등 56점	井, X, Y 등 478점	鳥頭文 등 163점	697점
2호문지		下天倉, 九, 天, 与, 大, 手, 君 등 24점	井, X, Y 등 170점	鳥頭文, 蓮花文 등 29점	223점
요망대		弗, 夫 등 2점	井, X, 工 등 (?)	鳥頭文 등 (?)	2점
합계		82점	648점	192점	922점

\* 요망대 출토 부호, 그림은 합산하지 않음.

명문 10여 종이 파악되는데 이들 고분 출토 문자자료는 환도산성 출토 품과 좋은 비교자료가 된다.

환도산성 출토품에는 새머리와 새발자국, 날아가는 새, 연화, 꽃, 나무, 사람, 뱀 등 다양한 주제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새 그림이다. 약식화된 부호 역시 ‘조(鳥)’자나 새를 간략화하여 그리기도 하고(그림31-1, 2), 새의 발자국 등으로 부호화하였다. 궁전지에서 출토된 ‘与’자모양(그림31-3) 역시 ‘조’자의 약식으로 추정되며, 한쪽으로 기운 연화문 봉우리와 그 위로 뻗은 나무문을 향해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그림31-6)하여 회화성이 돋보인다. ‘与’자문 아래로는 ‘卍’자문이 그려져 있는데 ‘八’자 밑에 그려진 경우(그림31-5)와 새머리의 몸통 안에 그려진 예(그림31-4)가 있다.

이들 문자 및 도상은 새와 새머리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는 하늘(天)과 이어주는 조류 숭배사상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문자나 그림도 대부분은 하늘과 양(陽)을 상징하는 ‘천(天)’, ‘정(井)’, ‘조(鳥)’, ‘☆’ 등을 기본문양으로 하였으며 땅(地)과 음(陰)을 상징하는 뱀문도 일부 관찰된다. 암키와에도 격자문 계통이 타날된 배면에 ‘십(十)’, ‘정(井)’, ‘천(天)’, ‘울(兀)’ 등의 문자나 부호를 새긴다. 모두 하단 부분에 치우쳐서 시문되는 점이 특징이다.

수키와에 다양한 글씨, 그림, 부호 등이 들어가는 데 반해 암키와에는 격자문과 석문이 일부 시문되고 있다. 주로 한 글자나 부호를 약식화하여 시문하는 점이 암키와와 수키와의 차이점이다. 암키와에 시문되는 부위도 중앙보다는 상·하 단면이나 측면에 치우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키와 시문방식에 대한 기술적 습성이 그대로 암키와에도 옮겨가고 있다. 수키와 배면에 ‘천(天)’, ‘정(井)’, ‘조(鳥)’ 등의 문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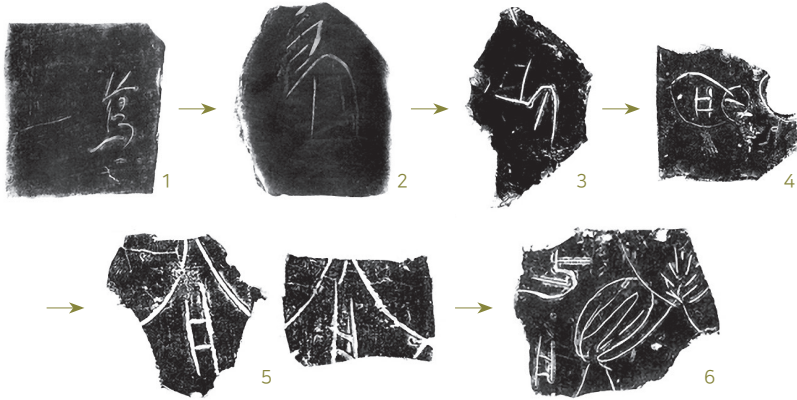


그림31 | 환도산성 출토 '조(鳥)'명 약식 기와  
1·2. 공전지 3~6. 2호문지

관련 그림을 새기는 것은 이들 문자나 그림이 하늘을 향하게 함으로써 늘 하늘과 연결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건물의 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음을 상징하는 암키와보다는 양을 상징하는 수키와에 절대 다수의 글자나 그림이 새겨지는 것이다.

고구려의 기록 중 새와 관련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시조전승인 동명신화이다. 이 동명신화는 고구려 왕실의 천손의식과 세계관을 담고 있는 자료로 고구려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시 말해 고구려 사람들이 기와 표면에 새긴 새모양은 고구려 건국신화와 관련되어 고구려인들의 정신 속에 면면히 흐르던 고구려인의 시조전승과 왕권의 상징과 조력자로서의 새가 함께 융합되어 표현된 것이다. 이는 새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남다른 애착과 천손으로서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백종오, 2006a; 2006b; 이은진, 2022). 집안 일대 고구려 유적에서 발굴된 새 관련 그림을 통해 고

구려인들의 새에 대한 관념과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살아있는 집권자의 통치공간이자 국난 극복의 상징물인 환도산성에 사용된 기와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맥을 같이하는 새 그림이 그려져 왕권의 권위와 국운의 안정을 비는 데 사용되었고, 망자의 공간인 장군총에는 왕의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할 새의 모습이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묘사되어 고구려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의 다양성을 알려준다.

## 2) 와당 속의 율희, 휘기와당

휘기와당(毀棄瓦當)은 수막새의 주연부를 의도적으로 타결한 후 매납한 막새기와를 말한다(백종오, 2011; 2012). 이 와당은 삼국시대 유적에서 공히 출토되는데, 고구려의 경우 집안 지역의 국내성과 환도산성,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과 평양 지역의 청암리성, 대성산성, 정릉사지, 안학궁 등의 사례가 있다. 남한 지역에서는 연천 호로고루와 서울 흥련봉1보루에서 발굴된 바 있다(표2).

### (1) 휘기와당의 출토 사례

〈표2〉에서 보듯이 14개소 유적에서 모두 33점이 확인되었다. 이 중 출토 맥락을 알 수 있는 사례는 천추총과 태왕릉 그리고 연천 호로고루가 있다. 적석총의 경우 적석부에서 출토되는데, 적석총의 상면이나 각 층단의 상면에 직접 덮은 형태로 노출되었다. 이는 적석총 상부 건물, 즉 묘상건축에 올려졌던 기와를 후대 고분의 보수 시 적석부 안에 덮었으며 일부 수막새는 주연부를 휘기한 후 의도적으로 매납하였다는 출

표2 고구려 훼손기와당 출토 현황(2022년 10월 현재 33점)

번호	유적명	성격	와당 종류 및 수량	시기	출전
1	집안 천추총	고분	6엽 복선연화문와당 5	4세기 후반~ 5세기 전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a
2	집안 태왕릉	고분	6엽 복선연화문와당 6 8엽 복선연화문와당 2	4세기 후반~ 5세기 전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a
3	집안 장군총	고분	9엽 복선연화문와당 1	4세기 후반~ 5세기 전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a
4	집안 국내성	성곽	9엽 단편연화문와당 1 인동문 1 용면문 1	5세기 후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b
5	집안 환도산성	성곽	9엽 단편연화문와당 1 용면문 4	5세기 후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c
6	평양 청암리성	성곽	4+4엽 조합연화문와당 1	5세기 전반~ 6세기 전반	朝鮮總督府, 1929
7	평양 대성산성	성곽	6엽 복선연화문와당 1 복합연화문와당 1	5세기 전반~ 6세기 전반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민속학강좌, 1973
8	평양 안학궁	건물지	복합연화문와당 1	6세기~	조선유물도감편찬위원 회, 1989
9	평양 정릉사지	사찰	4+4엽 조합연화문와당 1	6세기~	조선유물도감편찬위원 회, 1989
10	평양 원오리사지	사찰	4+4엽 조합연화문와당 1	6세기~	朝鮮總督府, 1937
11	평양 토성리	미상	6엽 복선연화문와당 1 조합연화문와당 1	5세기 전반~ 6세기 전반	朝鮮總督府, 1929
12	평양 평천리	미상	6엽 복선연화문와당 1	5세기 전반~ 6세기 전반	朝鮮總督府, 1929
13	연천 호로고루	성곽	6엽 단편연화문와당 1	6세기 초반~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7
14	서울 홍련봉 1보루	성곽	4+4엽 조합연화문와당 1	6세기 전반~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2007

토 정황을 말해준다. 만약 건물 지붕에 올려진 수막새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떨어졌다면, 주연부만 탈락하고 막새면이 그대로 노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백종오,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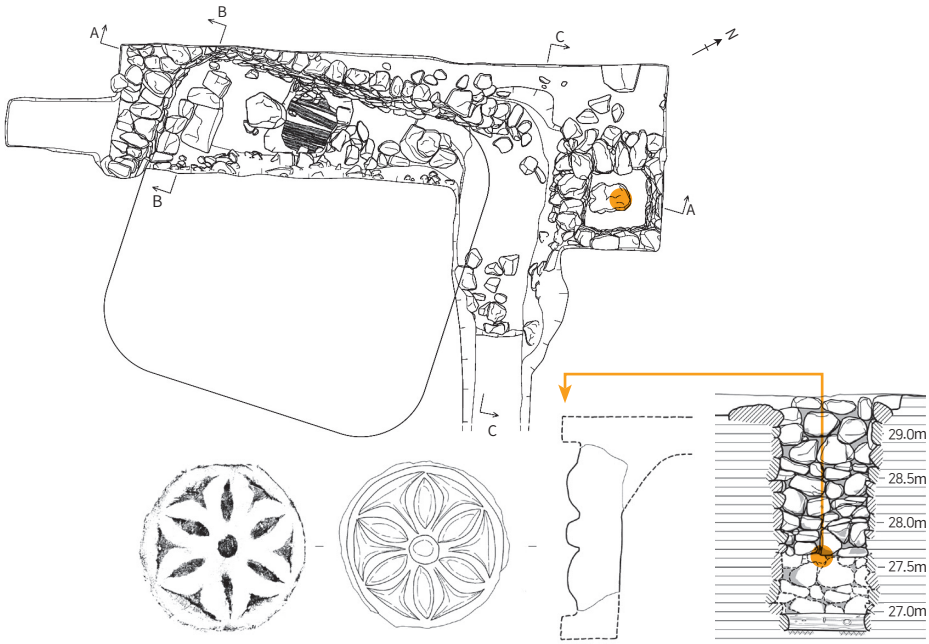


그림32 | 연천 호로그루 우물과 휘기와당 출토 위치(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7 재편집)

연천 호로그루의 경우 우물지에서 주연부가 결실된 연화문와당이 수습되었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7) 우물지는 동벽 내 중앙부에 위치하는데 평면은 방형이고 규모는 동서 105cm, 남북 120cm, 깊이 263cm 정도이다. 바닥은 통나무를 사각으로 짠 후 그 위로 현무암 석재를 사용하여 13단 정도 축조하였다. 내부 지표하 160cm 깊이에서 연화문와당과 바닥에서 흑색 마연단경호 등의 각종 토기류와 함께 다량의 동물뼈가 수습되었다. 여기에서 수습된 연화문와당은 중앙에는 반구형의 지방이 돌출되었고 6엽의 단판연화문과 간판이 고부조로 볼륨감 있게 표현되었다. 잔존 지름은 13cm이고 두께는 3.5cm이다. 휘기상태는 주연부에 인위적인 타격을 가해서 주연부만을 조심스럽게 떼

어낸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있다. 때낸 방향은 와당의 앞면과 뒷면의 양쪽에서 관찰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 흥륜봉1보루 출토품이 있다(고려대학교 고환경연구소, 2007). 이 유적에서는 와당이 모두 7점이 수습되었는데 동일범(同一範)을 사용하여 4+4엽의 조합연화문을 배치하였다. 막새면은 점토관 두 매를 앞뒤 판으로 사용하였으며 주연부를 따로 접합하였다. 주연부는 막새면보다 높게 조성하였는데, 지름은 17~19cm, 두께는 2cm 내외이다. 특히 S4E3피트 출토품은 막새면의 주연부를 인위적으로 탈락시켜 2차 가공한 타결흔(打缺痕)이 뚜렷하다. 때어낸 방향도 앞서 언급한 호로고루 출토품과 같이 양쪽에서 관찰된다(백종오, 2008). 흥륜봉2보루에서 520년에 해당하는 ‘경자(庚子)’명토기가 출토되어 1보루 역시 6세기 전반경으로 편년하고 있다.

## (2) 화기와와당의 의미

화기와당은 고분, 성곽, 사찰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다. 이들 입지는 강이나 하천 등에 가까우며 유구 역시 연못, 우물, 집수지 등 모두 물과 관련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 와당의 주요 문양은 연화문이다. 연꽃은 인도의 고대신화에서 우주 창조와 생성의 의미를 지닌 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후 불교에서는 서방정토에 왕생할 때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연화화생(蓮華化生)’의 의미로 이해되어 모든 불·보살의 정토를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년)에 불교가 전래되었다. 당시 인도와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는 대승불교이고, 대승불교에는 윤회를 뜻하는 사겁(四劫)이 형성되어 있었다. 사겁이란 성겁(成劫), 주겁(住劫), 괴겁



그림33 | 집안 삼실총 연화화생도

(壞劫), 공겁(空劫)을 지칭한다. 각 20겁이 있어 모두 80겁 동안에 우주 생성과 소멸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성겁은 이 세계가 성립하기 시작하여 완성될 때까지를 말한다. 주겁은 기세간에서 유지되는 20겁의 시간이다. 괴겁은 주겁이 다한 후에 20겁 동안 이 세계가 파괴되어 가는 시간이다. 공겁은 의미 그대로 20겁 동안의 공허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겁에 대한 내용은 『장아함경(長阿含經)』, 『대루탄경(大樓炭經)』,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 『구사론(俱舍論)』 등 여러 경론 가운데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불교 교리와 와당의 주연부 휘기는 와당의 평면 형태를 보면 쉽게 연상된다. 막새면은 크게 자방부와 연판부, 주연부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연씨를 상징하는 자방은 만물이 생성하는 성겁을 말하며, 화려하게 만개하는 연판은 만물이 성장하는 주겁을 뜻한다. 그리고 연

판 주위에 높직하게 테두리를 형성한 주연은 괴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주연을 획기함으로써 공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교 미술품이나 조각품 등에 연화문을 그리거나 조각할 때는 주연부인 테두리를 표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불교회화나 고분벽화의 연화문, 불·보상이나 탑, 부도, 석등 대좌의 앙련과 복련, 범종의 연화문 당좌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유독 와당에만 주연부를 두고 있다. 물론 빗물의 침습을 막새면에 받지 않게 한다는 기능적인 면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왕릉이나 천추총 출토품과 같은 초기 복선연화문와당에는 필요 이상으로 높게 주연부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구려의 경우 권운문와당 단계에서는 권운부와 주연부가 평면적인 막새면을 보이다가 연화문와당 단계에서는 높직한 주연부를 조성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권운문와당의 평면적인 거치문은 이후 연화문 단계에서는 태왕릉 출토 복선연화문수막새에서 보듯이 주연부 높이가 5cm 정도로 높게 조성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권운문와당 주연부의 거치문은 동경의 문양에서 차용해 왔듯이 태양이 발산하는 형상을 뜻한다. 연화문와당 주연부는 권운문와당 단계에서도 빛(光)을 의미했듯이 윤회의 의미를 내포하는 공겁이라는 개념과 함께 부처의 자비광명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운문와당의 거치문이 연화문와당의 주연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은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원은 태양, 곧 빛을 상징한다. 이것을 거치문으로 표현하여 태양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높직한 주연으로도드라지게 광명을 표현하느냐는 와당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34 | 고구려 휠기연화문와당

- 1~3. 태왕릉 4. 천추총 5. 장군총 6. 국내성 7. 청암리성 8. 대성산성  
 9. 안학궁 10. 정릉사지 11. 원오리사지 12. 토성리 13. 평천리  
 14. 호로그루 15. 흥련봉1보루

그래서 지붕에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할 때는 휘기와당을 물과 관련된 수변유적에 매납 또는 투기하면서 연꽃과 같은 건물의 변성을 기원하고 이에 덧붙여 성, 주, 괴, 공의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를 염원하였다. 결국 연꽃이 자라기 적절한 공간에 윤회의 상징인 연화문와당을 휘기하여 매납함으로써 윤회의 고리를 끊고 나아가 그 물속에서 연화화생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불교적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와당 문양의 변화와 통치이념

고구려 와당의 형식은 문양에 따라 크게 권운문, 연화문, 인동문, 용수문 등 주요 와당과 만초문, 전지문, 기하문 등 기타 와당으로 분류되는데, 집안 지역과 평양 지역의 시기별 변천 과정이 확인된다. 특히 와당의 성립과 관련하여 ‘태녕4년’명 및 유문자와당이 주목된다. 중국 권운문와당과 기본적인 문양 구도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중방부, 권운부, 주연부 등 세부양식의 있어서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들 권운문와당은 유문자에서 무문자로 바뀌고 연호부의 퇴화 등 세부적인 속성이 변천되면서 고구려 양식으로 정립되었다.

고구려의 와당은 초기 도교적인 배경에서 출발하여 불교 수용 이후 연화문이 등장하였고 정치상황이 변모함에 따라 문양의 변화도 함께 수반되었다. 고구려인들은 고대국가 형성기부터 도교적인 사상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동명신화 등에서 도교적인 요소로 나타났고 유적으로는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도교적인 신수(神獸)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인들의 도교에 대한 이해는 점차 심화되어 갔고 그 영향은 거울을 정(正)과 (邪)를 구분하는 지표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고구려인들은 건물로 들어오는 사악한 기운을 막고자 거울을 모방한 권운문와당을 이용하여 처마 끝을 장식하였다.

도교적인 영향을 받아 제작되기 시작한 고구려의 권운문와당은 불교 수용 이후 연화문와당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왕실의 적극적인 불교 장려와도 맥을 같이한다. 연화문와당은 고구려 귀족연립정권 성립기 집권 귀족의 사상적 경향을 반영하여 조합연화문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이는 왕실의 불교 장려와 불교계 내부의 토착신앙 흡수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복판연화문의 유입 등이 와당의 문양 변화에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조합연화문와당은 복합연화문와당과 함께 귀족연립정권기의 특징적인 유물인 것이다. 고구려 후기에 나타나는 기하문와당은 귀족연립정권의 붕괴와 연개소문 정권의 등장, 중국 도교의 유입 등으로 인해 불교계의 기반이 약해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도교의 영향력이 강해진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왕실 원찰인 정릉사에서조차 불교식 와당이 쇠퇴하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 불교계의 쇠퇴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할 수 있게 한다.

##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경기도박물관, 2005, 『우리 곁의 고구려』.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5, 『고구려와당』.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2007, 『紅蓮峰 第1堡壘』.

고려대학교박물관, 2005,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國立中央博物館, 1990, 『井内功寄贈瓦壩圖錄』.

\_\_\_\_\_, 2002, 『유창종 기증 기와·진돌』.

김성구, 1992, 『옛기와』, 대원사.

김영진, 2002, 『고구려유물편』, 사회과학출판사.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 지배 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백종오, 2006c,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

백종오·신영문, 2005, 『高句麗 遺蹟의 寶庫, 京畿道』, 경기도박물관.

서봉수, 2021, 『한강유역의 기와-신라』, 백두문화재단연구원.

유금와당박물관, 2008, 『한국와당, 수집10年, 명품100選』.

유창종, 2009, 『동아시아 와당문화』, 미술문화.

윤용희, 2023, 『백제 기와 연구』, 주류성.

林永周, 1984, 『韓國紋樣史』, 미진사.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_\_\_\_\_,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출판사.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 2·3.

\_\_\_\_\_,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4·5·6.

채희국, 1964,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한국교통대학교 중원학연구소, 2022, 『忠州 高句麗碑 어제와 오늘』, 서경문화사.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7, 『漣川 瓠蘆古壘III』.

강우방, 2000, 「新羅瓦當의 諸問題」,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 교섭』, 국립경주박물관.

강현숙, 2007, 「고구려 고분 출토 와당의 변천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高裕燮, 1932, 「高句麗의 美術 - 朝鮮美術史話」, 『東方評論』.

\_\_\_\_\_, 1939, 「瓦當紋儀로 본 三國의 特色 - 三國美術의 特徵」, 『朝鮮日報』 8월 31일.

吉井秀夫·崔英姬, 2008, 「京都大學綜合博物館所藏山田鈺次郎寄贈 고구려 기와의 검토」, 『일본소재고구려유물 II』, 동북아역사재단.

김광선, 2012, 「서대무덤에서 나온 고구려기와의 제작시기」, 『조선고고연구』 2012-4.

김민성, 2017, 「고구려 귀면문 수막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구, 2005, 「고구려의 기와와 전돌」,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김성철, 2015, 「집안일대 고구려왕릉급돌각담무덤에서 나온 고사리무늬수기와막새의 제작시기」, 『조선고고연구』 2015-4.

김영관, 2014, 「청주 부모산성 출토 성돌 명문에 대한 시론적 고찰」, 『신라사학보』 30.

김영일, 2014, 「기와를 통하여 본 락사터의 년대와 성격」, 『조선고고연구』 2014-3.

\_\_\_\_\_, 2015, 「원오리절터의 년대」, 『조선고고연구』 2015-4.

김진경, 2011, 「고구려 연화문와당 제작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和英, 1967, 「三國時代 蓮花文 研究」, 『역사학보』 34.

김희찬, 2006a,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형식과 변천」, 『고구려연구』 22.

\_\_\_\_\_, 2006b, 「고구려 연화문 복합문와당의 형식과 그 특성」, 『고구려연구』 23.

\_\_\_\_\_, 2006c, 「고구려 와당의 채색과 태토 색조 검토」, 『백산학보』 74.

\_\_\_\_\_, 2011, 「고구려 복합문와당의 출현과 형성 과정」, 『고구려발해연구』 39.

- 박찬규, 2005, 「集安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고구려 문자 자료」, 『고구려연구』 19.
- 백종오, 2003, 「고구려와 신라 기와 비교 연구」, 『백산학보』 67.
- \_\_\_\_\_, 2004, 「임진강유역 고구려 평기와 연구」, 『문화사학』 21.
- \_\_\_\_\_, 2005, 「남한지역 고구려 기와 제작방법 고찰」, 『백산학보』 72.
- \_\_\_\_\_, 2006a, 「고구려 국내성기 평기와 고찰」, 『문화사학』 25.
- \_\_\_\_\_, 2006b, 「고구려 기와의 발생과 형성 배경」, 『선사와 고대』 24.
- \_\_\_\_\_, 2008, 「남한내 고구려 유적 유물의 새로운 이해」, 『선사와 고대』 28.
- \_\_\_\_\_, 2009,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성립과 그 배경」, 『백산학보』 83.
- \_\_\_\_\_, 2011, 「한국고대와당의 휘기양상 검토」, 『한국사학보』 43.
- \_\_\_\_\_, 2012, 「고구려 와당의 휘기와 그 상징적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6.
- \_\_\_\_\_, 2015, 「한일 고대 집수유구 출토유물의 의례성 연구」, 『선사와 고대』 46.
- \_\_\_\_\_, 2022, 「중원지역 고구려 고고학의 성과」, 『忠州 高句麗碑 어제와 오늘』, 서경문화사.
- 심광주, 2009,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 출토 명문자료에 대한 검토」, 『목간과 문자』 4.
- 심수범, 2010, 「1~2세기 고구려 왕릉급 무덤들에서 나온 기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0-4.
- 양동윤·김주용·한창균, 1999, 「고구려 기와의 현미경 관찰과 XRD분석」, 『고구려연구』 7.
- 엄장록, 1995, 「무늬암키와의 출현을 통해 본 연변지구 옛유적의 시대성격」, 『中國 境內高句麗遺蹟研究』, 예하.
- 여호규, 2010, 「1990년 이후 고구려 문자자료 출토현황과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 왕비봉, 2013, 「고구려 와당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재우, 1980, 「고구려 와당문양의 양식적 고찰」, 『홍익공업전문대학논문집』 11.
- 윤광수, 2001, 「고구려 마루기와의 변천」, 『조선고고연구』 2001-1.
- \_\_\_\_\_, 2006, 「고구려암기와등면무늬의 유형과 변천」, 『조선고고연구』 2006-2.
- \_\_\_\_\_, 2009, 「고구려기와무늬의 주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9-1.
- \_\_\_\_\_, 2015, 「고구려의 마루기와」, 『조선고고연구』 2015-4.
- \_\_\_\_\_, 2016, 「고구려기와의 특징」, 『조선고고연구』 2016-1.

- 이도학, 2012, 「중국 길림생 집안의 동대자 유적 재검증」, 『경주사학』 35.
- 이수진, 2006, 「고구려 연화문와당 편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 2022, 「京都府 木津川市 高麗寺蹟 출토 刻書瓦를 통해본 고구려 遺民의 흔적」, 『한국기와학보』 5.
- 전영일, 2010, 「정릉사터에서 발견된 고구려기와의 제작방법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2010-1.
- 정지연, 2012, 「고신라 고구려계 연화문 수막새 연구」, 『영남고고학』 61.
- 정지향, 2016, 「집안고구려왕릉급무덤들에서 발견된 기와의 용도」, 『조선고고연구』 2016-4.
- 정호섭, 2005,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유물의 현황과 과제」, 『북방사논총』 4.
- 조미정, 2004, 「고구려 연화문 와당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용중, 1995, 「蓮花火生에 등장하는 장식문양 고찰」, 『미술자료』 56.
- 주선희, 2005, 「고구려 지붕장식의 특징에 대하여」, 『조선건축』 2005-1, 공업종합출판사.
- 주흥규, 2009, 「集安지역 고구려기와의 제작기법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 66.
- \_\_\_\_\_, 2014, 「고구려 기와의 분류와 특징에 관한 일고찰」, 『선사와 고대』 41.
- \_\_\_\_\_, 2015, 「고구려 구분출토 구획선연화문 수막새의 변천」, 『한국상고사학보』 88.
- \_\_\_\_\_, 2019, 「기와로 본 평양지역 고구려 사원유적의 조영시기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65.
- 최맹식, 2005, 「고구려기와의 특징」,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 최맹식·서길수, 1999, 「高句麗 遺蹟 기와에 관한 調査 研究」, 『고구려연구』 7.
- 한명걸·우철, 2014a, 「고구려기와의 제작기술에 대한 초보적 연구(1)」, 『조선고고연구』 2014-1.
- \_\_\_\_\_, 2014b, 「고구려기와의 제작기술에 대한 초보적 연구(2)」, 『조선고고연구』 2014-3.

『舊唐書』, 『三國志』.

耿鐵華·尹國有, 2001, 『高句麗瓦當研究』, 吉林人民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_\_\_\_\_, 2004b, 『國內城』, 文物出版社.

\_\_\_\_\_, 2004c, 『集安市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1988, 『遼源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集安縣文物志』.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_\_\_\_\_, 2002, 『高句麗遺蹟』, 文物出版社.

耿鐵華, 2006, 「集安新出文字瓦當及解讀」, 『北方文物』4.

\_\_\_\_\_, 2007, 「集安出土卷雲紋瓦當研究」, 『東北史地』4.

方起東, 1982, 「集安東台子高句麗建築遺址的性質和年代」, 『東北考古與歷史信息』1982-1.

方起東·林至德, 1984, 「集安高句麗考古的新收穫」, 『文物』1984-1.

宋玉彬, 2020, 「構圖理念視角下的高句麗和渤海瓦當研究」, 『考古』2020-6.

嚴長錄·楊再林, 1988, 「延邊地區高句麗—渤海時期文飾板瓦初探」, 『博物館研究』1988-2.

遼源市文物管理所, 1997, 「吉林遼源市龍首山城遺址的調查」, 『考古』1997-2.

李梅, 2002, 「高句麗瓦當發現與研究」, 吉林大學碩士論文.

李殿福, 1984, 「集安卷雲紋銘文瓦當考辨」, 『社會科學戰線』4.

任嘉敏, 2022, 「高句麗複合主題紋飾瓦當研究」, 吉林大學碩士論文.

林至德·耿鐵華, 1985, 「集安出土的卷高句麗瓦當及其年代」, 『考古』1985-7.

關野貞, 1928, 『考古學講座第五卷一瓦』, 雄山閣.

\_\_\_\_\_,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金日成綜合大學編, 1985, 『五世紀の高句麗文化』, 雄山閣版.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 三上次男・田村晃一, 1993, 『北關山城－高爾山城:高句麗新城の調査－』, 中央公論美術出版.
- 森鬱夫・金誠龜, 2008, 『日韓の瓦』, 帝塚山大學出版社.
- 田村晃一, 2001,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 井內功, 1976, 『朝鮮瓦磚圖譜Ⅱ－高句麗』, 井內古文化研究室.
- , 1981, 『朝鮮瓦磚圖譜Ⅶ－總說』, 井內古文化研究室.
- 諸岡榮治 編輯, 梅原末治 校, 1935, 『樂浪及高句麗古瓦圖譜』, 便利堂.
- 鳥居龍藏, 1905, 『南滿洲調查報告』, 東京帝國大學.
- 朝鮮古蹟研究會, 1938, 『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查報告』.
- , 1940, 『昭和十三年度 古蹟調查報告』.
-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一)』.
- , 1915, 『朝鮮古蹟圖譜(二)』.
- , 1929, 『高句麗時代之遺蹟』.
- 青江秀, 1884, 『東夫永樂太王碑銘之解』.
- 橫井忠直, 1884, 『高句麗古碑考』.
- 穀豊信, 1989, 「四,五世紀の高句麗の瓦に関する若干の考察」,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02.
- , 1990, 「平壤土城發見の古式の高句麗瓦當につい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12.
- , 2005, 「平壤遷都前後の高句麗瓦に関する覺書」, 『MUSEUM』 596.
- 關口廣次, 1977, 「古代朝鮮における古瓦文様の系譜とその展開」, 『考古學ジャーナル』 136・138.
- , 1987, 「瓦當文様雜考－高句麗の瓦當文様を中心として」, 『考古學ジャーナル』 285.
- 關野貞, 1924,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之遺蹟」(二), 『考古學雜誌』 5-4.
- , 1928, 「高句麗の平壤城及び長安城に就いて」, 『史學雜誌』 39-1.

- , 1928, 「瓦」, 『考古學講座』5, 雄山閣.
- 龜田修一, 1998, 「瓦磚」,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10(高句麗·百濟·新羅·高麗)』, 小學館.
- , 2009, 「朝鮮半島における造瓦技術の變遷」,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造瓦技術の變遷と傳播』, 奈良文化財研究所.
- 桃崎佑輔, 2005, 「高句麗太王陵出土瓦・馬具からみた好太王陵說の評價」, 『海と考古學』, 六一書房.
- 井内潔, 1976, 「高句麗の半瓦當屋瓦」, 『井内古文化研究室』15.
- 千田剛道, 1982, 「從集安出土的瓦看高句麗古都集安」,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1982-1.
- , 2008, 「高句麗瓦編年に關する二、三の問題」, 『奈良文化財研究所紀要』.
- 太田三喜, 2011, 「朝鮮半島の古代瓦 - いわゆる高句麗の半瓦當 -」, 『天理參考館報』24.
- 太田靜六, 1971, 「高句麗系瓦の源流と其影響」, 『考古學雜誌』57-2.



# 무기 및 무구

1. 공격용 무기의 종류와 특징
2. 방어용 무기의 종류와 특징
3. 고구려 무기체계의 변천
4. 고구려군의 구성과 편제



### 3장

## 무기 및 무구

양시은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고구려는 발달된 제철기술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대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력은 고구려의 자연환경에 맞게 잘 정비된 군사조직과 전술체계 그리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무기와 무구, 강력한 중장기병의 운용 등이 바탕이 되었다. 그렇지만 신라나 가야의 고분과는 달리 고구려의 적석총과 석실분에서는 도굴 등으로 인해 무기와 무구의 실물자료가 거의 출토되지 않아 관련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성곽유적에서 철촉, 철모, 철부, 철도 그리고 찰갑 등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고구려 유적에 남아있는 여러 생생한 고분벽화에는 당시 고구려 군대가 사용하였던 무기와 무구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군사편제도 참고할 수 있어 부족한 실물자료를 보완해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과 고분벽화 그리고

표1 『위략』과 『주서』에 보이는 고구려의 무기체계(李廷斌, 2010)

구분		『위략(魏略)』	『주서(周書)』	
공격무기	원사무기		노(弩)	
		궁(弓)[맥궁(緇弓)]	궁(弓)	
			전(箭)	
	근접무기	장병기		극(戟)
				삭(稍)
		단병기	모(矛)	모(矛)
도(刀)			연(鎗)	
방어무기	개갑	개(鎧)	갑(甲)	

문헌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무기와 무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기(武器)는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용어이다. 그리고 무구(武具)의 사전적 정의 역시 무기와 동일하지만, 무기는 공격용 무기를, 무구는 방어용 무기를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활(弓)과 화살, 쇠뇌(弩)와 같은 원거리 무기와 도(刀)·검(劍)·도끼(斧)·창(矛)·꺾창(戈)·극(戟)·낫(鎌) 등의 근거리 무기, 그리고 충차와 포차,<sup>1</sup> 사다리 같은 공성용 무기로 나뉜다. 방어용 무기로는 갑옷(甲)과 투구(冑) 및 방패와 같은 개인용 방어구 외에도 마름쇠, 노포(弩砲)와 포노(砲弩) 등과 같이 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있다.

1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태종 무열왕 8년(661년)에 고구려 장군 뇌음신이 북한산성을 공격하는데 포차(抛車)를 벌여 놓고 돌을 날리자, 그것에 맞은 성가퀴나 건물들이 그대로 부서졌다는 기사가 전한다.

이들 중 공성용 무기와 방패는 아직까지 실물로 발견된 사례가 없다. 다만 고분벽화에서 보병이 착용하고 있는 방패의 기본 형태는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벽화에 그려진 중장기병의 모습에서 말갑옷인 마갑(馬甲)과 투구인 마주(馬冑)의 사용도 확인된다.

## 1. 공격용 무기의 종류와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격용 무기는 원거리 무기와 근거리 무기, 그리고 공성용 무기로 나눌 수 있다. 그렇지만 고구려의 공성용 무기는 그 실체를 추론할 고고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 1) 원거리 무기

#### (1) 활(弓)과 화살촉

활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원거리 무기로, 국가 성립기부터 사용되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명성왕편에 따르면,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朱蒙)은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았으며, 주몽이라는 이름 역시 활을 잘 쏘는 것을 뜻하는 부여의 속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활은 기본적으로 나무 등의 탄력 있는 재료를 휘어서 반달모양의 몸체를 만들고, 몸체의 끝에 활시위(활줄)를 걸고 화살을 줄에 매겨 함께 당겼다 놓으면 그 탄력으로 화살이 발사되게끔 하는 무기이다. 활은 나무나 동물뼈로 뼈대를 삼고, 명주실 내지는 동물의 힘줄을 활줄로 만들기 때문에 유적에서 발견되기 어렵다.

현존 실물자료로는 ‘동리묘(修利墓)’로도 잘 알려진 평양역전 이실분에서 출토된 골제활부속구가 유일하다.<sup>2</sup> ‘영화9년(永和九年)’명벽들을 통해 353년에 조성되었음이 밝혀진 석개천장의 전실묘인 평양역전 이실분 출토 활부속구는 소의 갈비뼈를 얇게 다듬어 활의 뼈대에 덧붙임으로써 탄력성을 높였다. 골제활부속구는 흉노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집안(集安) 무용총의 수렵도에 그려진 활에는 뼈대를 덧댄 부분에 끈을 돌린 마디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 합성궁(合成弓)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나무로 만든 목궁(木弓) 외에도 물소와 같은 동물의 뼈를 이용하여 만든 각궁(角弓)도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고구려왕(산상왕)이 오(吳)의 손권(孫權)에게 각궁을 선물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한편,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에 고구려에는 ‘맥궁(貊弓)’이라는 우수한 활이 생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여러 활이 묘사되어 있는데, 길이 1m가 넘지 않는 단궁(短弓)이 기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궁은 말 위에서 쏘기에 적합한 기마용 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용총이나 덕흥리고분의 수렵도에는 달리는 말에서 몸을 뒤로 돌려 활을 쏘는 소위 ‘파르티안 샷(parthian shot)’을 하는 장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당시 고구려인들이 기마궁술에 능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안악3호분 행렬도에는 궁수(弓手)들이 묘사되어 있다. 보병

2 무덤에서는 활부속구 외에도 세장한 형태의 사두형 철촉 2점과 착두날형 철촉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림1 | 평양역전 이실분 출토 골제활부속구  
(朝鮮總督府, 1933)



그림2 | 무용총 수렵도에 묘사된 활쏘는 장면  
(동북아역사넷)



그림3 | 안악3호분에 묘사된 궁수 행렬(동북아역사넷)

궁수는 조기 형태의 찰갑(札甲)을 착용하고 있으며, 허리춤에는 화살통(盛矢具)을 차고 있다. 이들 화살통의 기본 형태와 구조는 부산 북천동22호분과 경주 계림로14호분이나 호우총 그리고 대구 경산 임당동 고분군 등의 신라 및 가야 무덤 출토품과도 유사하다.

활과 함께 사용된 화살은 무용총 벽화에서 화살촉과 화살대, 깃, 오늬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살대는 화살의 몸체로 가늘고 긴 찌릿대로 만들기 때문에 유적에서는 철제화살촉만 발견된다. 화살은 그 특성상 다발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 유적에서도 다수의 철촉이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철촉은 기본적으로는 촉두(鏃頭), 신부(身部, 頸部), 경부(莖部, 스펀)로 구성된다. 철촉은 그 형태적 특징에 따라 넓은잎모양의 광엽형(廣葉形), 날이 직선인 도끼날형(斧形), 세 갈래 날개가 달린 삼익형(三翼形), 도끼날형 철촉에 비해 촉신이 좁고 긴 형태의 착두형(鑿頭刃形), 단면이 마름모꼴인 능형(菱形), 오각형의 납작한 촉두와 단면 방형의 긴 촉신에 좁고 긴 스펀을 가진 뱀머리 형태의 사두형(蛇頭形)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철촉의 형태는 기능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한 장면에 다양한 철촉이 등장하거나, 유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철촉이 함께 출토되기 때문이다. 특히 앞이 편평한 도끼날형 철촉은 무용총, 장천1호분, 덕흥리고분 등의 수렵도나 마사회(馬射戲)가 그려진 벽화에서 발견되고 있어 사냥이나 연습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무용총의 수렵도에는 호랑이나 사슴을 겨냥한 화살촉 바로 뒤에 명적(鳴鏑)이 끼워져 있음이 확인된다. 명적은 구체에 구멍이 뚫려 있어 날아가는 동안 소리가 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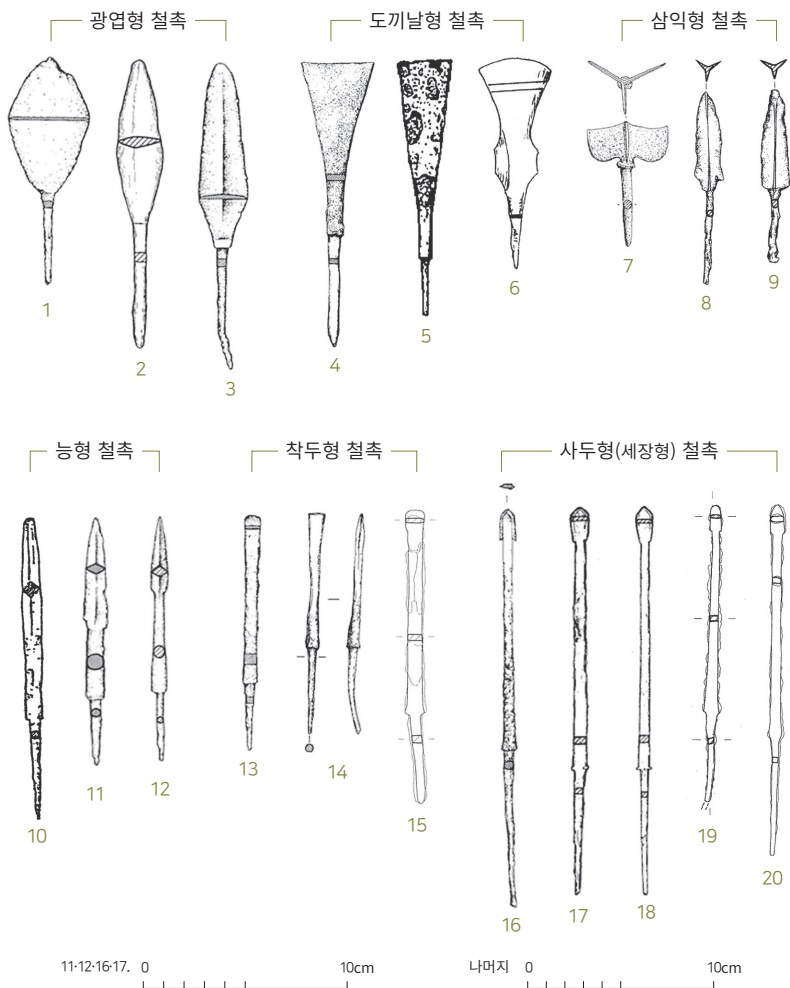


그림4 | 고구려 철촉(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1~3, 11~13, 17~18. 환인 오녀산성 4. 집안 마선구2100호묘 5. 집안 우산하540호묘  
 6. 시중 노남리 남파동104호무덤 7. 집안 태왕릉 8·9. 심양 석대자산성  
 10. 중강 장성리적석무덤 14·16. 집안 환도산성 15. 서울 흥련봉2보루  
 19. 구리 시루봉보루 20. 연천 호로고루

한 것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고구려 전기의 철촉은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다. 대체로 스페를 갖춘 유경식(有莖式)으로,<sup>3</sup> 촉두의 폭은 2~3cm로 비교적 넓은 편이다. 이들 광엽형 철촉은 고구려 초기에 등장하여 고구려 중기까지도 사용되었다. 고구려 초기로 편년되는 북한 자강도 시중군 노남리 주거유적을 비롯하여, 중국 환인(桓仁) 오녀산성(五女山城), 심양(瀋陽) 석대자산성(石台子山城), 집안 우산하(禹山下) 3305호묘와 3560호묘 등의 고구려 중기 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 도끼날형 철촉 역시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날 끝이 직선인 것과 둥그런 것으로 구분된다. 북한 자강도 남파동104호무덤 외에 고구려 중기로 편년되는 집안 마선구2100호묘와 우산하540호묘 등에서 출토되었다.

고구려 중기에는 앞선 시기의 광엽형 철촉 대신 그 이전보다 스페의 길이가 길어지는 세장한 형태의 철촉이 유행하게 된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갑주 등의 방어구가 발전함에 따라 관통력을 높일 수 있도록 머리가 좁고 뾰족하고, 몸체의 길이가 긴 화살촉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김보람, 2013).

이 시기에는 삼익형, 착두형, 능형, 사두형 철촉이 모두 확인된다. 5세기 전반대로 편년되는 집안 우산하3105호 계단적석총에서도 도끼날형, 능형, 사두형 철촉이 모두 출토되고 있어 당시 다양한 형태의 철촉이 용도에 따라 고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북한 자강도 노남리 남파동 1호주거지에서 촉두 아래가 만입된 무경식철촉이 1점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다른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시기도 명확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고구려 후기에 해당하는 남한 지역의 아차산보루군에서도 다수의 철촉이 출토되었다. 특히 한강 유역의 구의동보루에서는 1,300여 점의 철촉이 출토되었는데, 세장한 촉두가 특징이다. 이들은 대부분 오각형의 납작한 사두형 철촉으로 전체 길이는 25cm 내외이다. 아차산4보루에는 이들 사두형 철촉 외에도 삼익형과 착두형 철촉도 소량 출토되었다.

한편, 세장형 철촉은 고구려 후기의 관방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데, 집에서 보병의 장궁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김길식, 2005).

## (2) 쇠뇌(弩)

쇠뇌는 방아쇠를 사용하여 화살을 발사하는 원거리 무기로, 보통의 활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파괴력도 강하다. 쇠뇌는 크게 자루(弩臂)와 활(弩弓) 그리고 방아쇠 장치(弩機)로 구성되는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방아쇠 장치와 쇠뇌에 사용된 화살촉(鐵柄銅鏃)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쇠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춘추전국시대이며, 한(漢)과 흉노(匈奴)의 전쟁 과정에서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조 또한 더욱 정교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쇠뇌는 기본적으로 보병의 병기이다. 강력한 쇠뇌로 무장한 보병부대는 기병들이 보유한 활의 사정거리 밖에서 기병들을 제압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이에 쇠뇌의 보급은 기병들의 장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투구와 갑옷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말에게도 쇠갑옷을 입힌 중무장기병(重武裝騎兵)의 탄생을 재촉하였다고 할 수 있다(김길식,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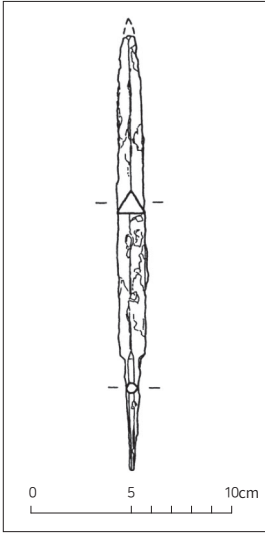


그림5 | 연천 무등리보루 출토 추정 쇠뇌촉 (토지박물관, 2000)

고구려의 쇠뇌는 아직까지 실물로 보고된 바 없다. 그렇지만 408년에 축조된 남포 덕흥리벽화고분의 남벽 묘주출행도에는 말 탄 사람 위에 “계현령이 쇠뇌를 들어 올렸다(薊懸鈴捉軒弩)”라는 묵서(墨書)가 있어 5세기대에 이미 고구려에 쇠뇌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고구려에서 쇠뇌는 6세기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무기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余昊奎, 1999). 이와 관련하여 590년 수의 문제(文帝)가 고구려의 평원왕에게 보낸 새서(璽書)에 고구려가 수에 첩자를 파견해 쇠뇌 기술자를 빼내 간

일을 비난하는 내용<sup>4</sup>이 주목된다. 그리고 612년에 있었던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서 요동성 전투 중에 수나라 장수 염비(閻毗)가 고구려의 활과 쇠뇌(弓弩)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sup>5</sup>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6세기 후반 고구려는 우수한 쇠뇌 제작에 힘을 기울였고, 수와의 전쟁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정동민, 2020).

한편, 한나라의 추형 동촉(銅鏃)이 대부분 쇠뇌의 화살촉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심양 석대자산성에서 출토된 삼각형 혹은 사각형 촉신을 갖추고 있는 추형(錐形) 철촉이나 연천 무등리2보루에서 수

4 『수서(隋書)』 동이열전(東夷列傳) 고려(高麗).

5 『수서』 열전 염비(閻毗).

습된 길이 21cm, 무게 75g에 달하는 철촉을 쇠뇌촉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길식, 2005).

## 2) 근거리 무기

근거리 무기로는 도(刀)·검(劍)·도끼(斧)·창(矛)·꺾창(戈)·극(戟)·낫(鎌) 등이 있는데, 크기에 따라 도(刀)로 대표되는 단병기와 창(矛)으로 대표되는 장병기로 나누기도 한다. 『주서(周書)』에는 고구려의 주요 장병기로 극(戟)<sup>6</sup>을 들고 있으나, 실물로 확인된 사례가 없어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 (1) 도검(刀劍)

도와 검의 구분은 칼날이 한쪽에만 있어서 베는 데 사용하는 것이 도이고, 칼날이 양쪽에 있어서 찌르거나 베는 데 사용하는 것이 검이다. 문헌에는 1세기 전엽까지 고구려가 검을 사용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물로 출토된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역시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장검(長劍)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김성태, 2001).

고구려의 도는 고분벽화에는 모두 손잡이 끝부분에 둥근 고리가 있

---

6 안악3호분 행렬도에 보병이 들고 있는 창에는 아래쪽으로 ‘乙’모양으로 구부러진 가지가 붙어있어 이를 극으로 보기도 하고, 진파리1호 벽화무덤에 그려진 사천왕이 들고 있는 두 갈래의 창을 극으로 보기도 한다(김성태, 2007). 그렇지만 두 벽화에 묘사된 무기는 주변 국가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극과는 차이가 있다.

는 환두도(環頭刀)가 기본이지만, 실제 유적으로는 환두가 없는 무환두도(無環頭刀)도 다수 발견된다. 이들 무환두도 역시 원래는 고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나무자루가 달린 목병도였을 수도 있다(성정용, 2000).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는 4세기 중후반이 되면 목병도가 제작되기 시작하여 4세기 후반에는 실전에서 목병도가 창수와 궁수의 근접전을 위한 강력한 보조무기로 사용되었다고 본 것이다.

환두도는 고리 내부에 장식된 도안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붙이기도 하는데, 삼국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고구려에서는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환인 고령묘자15호묘, 집안 마선구1호묘, 평양 병기창유적에서 세 갈래의 잎이 장식된 삼엽문(三葉文) 계통의 환두도가 출토된 바 있다. 이들 삼엽문 환두도는 가야와 삼국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시 가장 보편적인 장식대도였음을 알 수 있다.

별다른 장식 없이 고리만 달린 소환두도(素環頭刀)는 적석총인 집안 하활릉20호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전체 길이는 32cm이다. 그리고 환인 고령묘자19호묘를 비롯하여 북한의 자강도 심귀리 73호무덤, 92호무덤, 운평리 4-6호무덤, 4-8호무덤, 남과동104호무덤 등 대다수의 적석총에서 둥근 고리 없이 길이가 짧은 철제도가 출토되고 있어, 고구려 전기에 주로 길이가 짧은 철도류가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집안 우산하3296호묘에서 전체 길이 26.8cm의 소환두도가, 마선구2100호묘에서 등은 평평하고 날은 비스듬한 직인(直刃)의 철도가 3점 출토되어 고구려 중기의 도 역시 그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5세기대의 벽화무덤인 집안 통구12호묘(우산하1894호묘, 마조묘)에 그려진 전투도에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갑주



그림6 | 환두대도를 착용한 무사(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1. 통구12호묘 2. 삼실총

무사(甲冑武士)가 적장을 비교적 크기가 작은 도를 이용하여 참살하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고구려 전기 유적에도 작은 크기의 도가 출토된다는 점에서, 이들 소도(小刀)는 대도(大刀)와는 달리 장수들이 전투에서 적을 베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에서 도는 보병과 기병 모두의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고분벽화에 묘사된 바와 같이 중장기병 역시 주력 무기가 장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두도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은 이처럼 근접전에서 사용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반면, 집안 삼실총(三室塚)과 같은 벽화무덤에서는 온몸을 찰갑으로 무장하고 손에 환두대도를 들고 있는 갑주무사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도는 벽화에서 행렬의 호위무사나 무덤의 문을 지키는 문지가 차거나 들고 있어 호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방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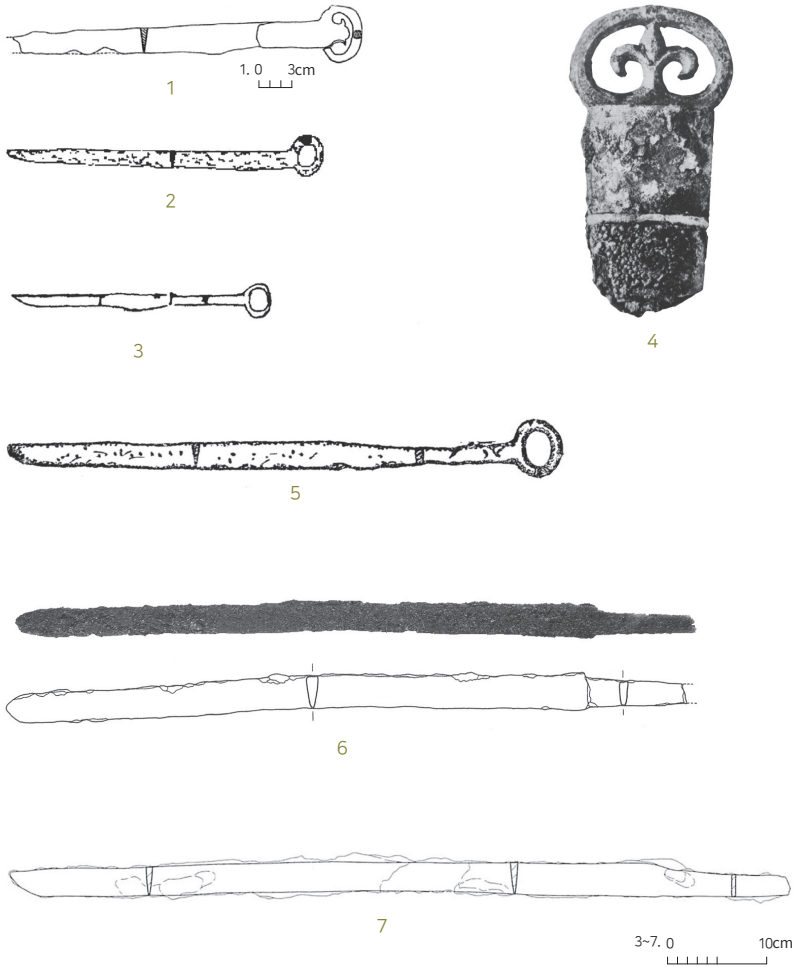


그림7 고구려 대도

1. 환인 고력묘자15호묘(陳大爲, 1960)
2. 집안 하활릉20호묘(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3. 집안 우산하3296호묘(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4. 평양 병기창유적(김성태, 2007)
5. 초산 운평리4-8호무덤(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6. 서울 구의동보루(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7. 서울 흥련봉2보루(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를 들고 있으면서 환두도를 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어, 중대형의 소환두대도는 보병이 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환두도의 둥근 고리에 끈을 매단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는 전투 시 손에서 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무순(撫順) 고이산성(高爾山城)과 한강 유역의 구의동보루를 비롯한 아차산 3·4보루, 흥련봉 1·2보루, 용마산2보루 등에서는 고구려 후기에 해당하는 대도가 출토되었다. 이 중 아차산4보루 출토 대도는 비록 신부와 병부 일부만 남아있었으나, 도 전면에 목질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목제칼집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의 자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부 끝부분에 칼집의 끝부분을 감싸던 타원형의 철제초구금구(鞘口金具)가 끼워진 채로 출토되었다. 미세조직에 대한 분석 결과 아차산4보루 출토 대도는 순철을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여러 번 두드려 만든 단조성형으로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張恩晶, 2002). 이 밖에도 구의동보루에서 2점의 대도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고리가 없는 무환두도로 길이가 70cm에 달한다.

## (2) 전투용 도끼(鬪斧)

전투용 도끼는 도구로 사용되는 보통의 철제도끼(鐵斧)와 마찬가지로 몸체 측면에 자루를 가로로 착장한 횡공부(橫鑿斧)를 말한다. 전투용 도끼를 일컫는 투부(鬪斧)는 중장기병에 대항하기 위한 보병의 무기로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투부는 기본적으로 타격을 위주로 하는 근접 무기로, 철제갑주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 도끼가 무기로 사용되었음은 북한의 안악3호분이나 약



그림8 | 안악3호분 벽화에 묘사된 부월수(동북아역사넷)  
1. 동쪽 회랑 동벽 출행도 2. 전실 동벽 벽화

수리무덤의 고분벽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환인 오녀산성이나 구의 동보루를 비롯한 한강 유역의 아차산보루군에서도 실물자료가 출토된 바 있다. 이들 도끼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단인(單刃)의 횡공부와 양쪽에 날이 있는 양인부(兩刃斧)로 구분이 가능한데, 횡공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날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상인부(上刃斧)와 월형부(月形斧)도 있다.

안악3호분이나 약수리고분의 행렬도에는 평복 차림의 부월수(斧鉞手)가 전투용 도끼를 메고 행진을 하고 있어서, 전투용 도끼가 무기로서의 기능 외에 의장용 기능을 겸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3) 창(槍)

장병기를 대표하는 창은 목제자루에 철로 만든 창끝(鐵鏃)과 창끝에 끼우는 물미인 창고달(鐵鐃)을 착장하여 사용한다. 문헌에서는 창을 길이에 따라 기병용 장창인 삭(稍), 보병용 창인 모(矛), 단창인 연(鎗)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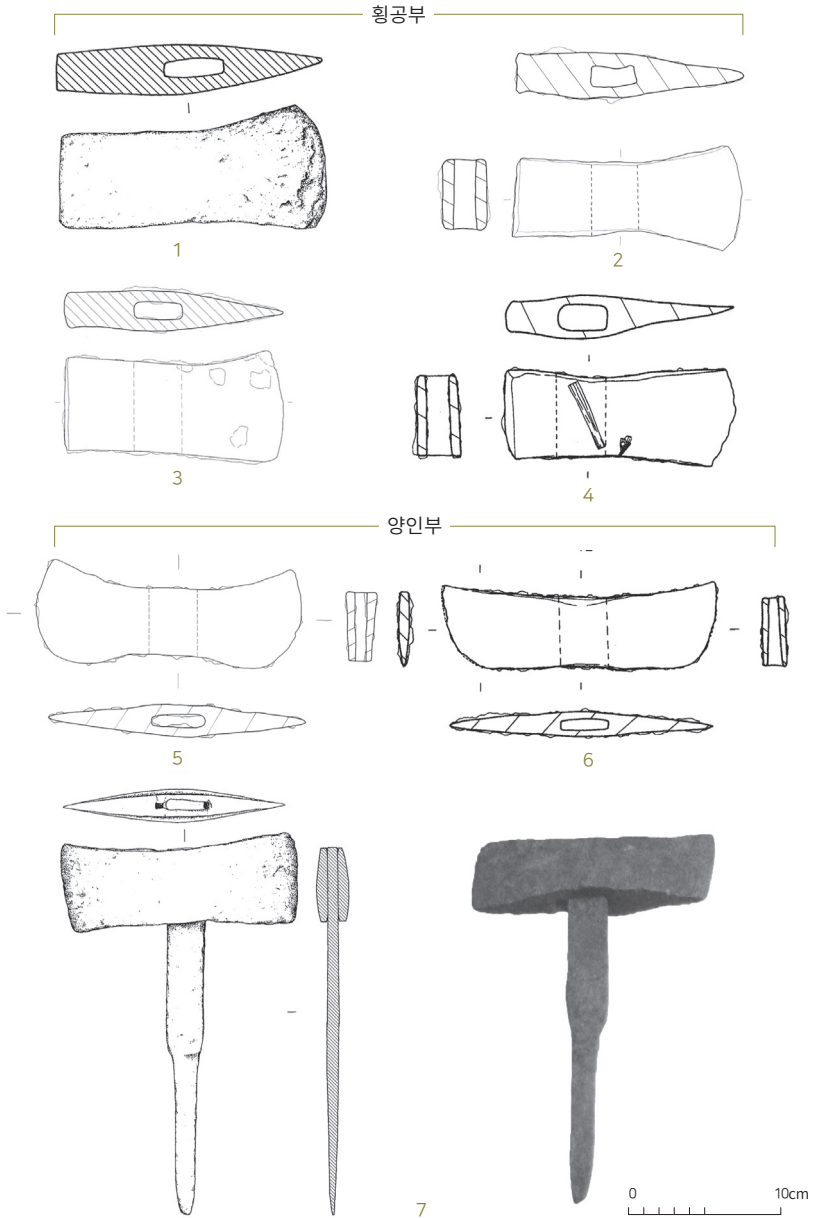


그림9 전투용 도끼 각종(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 1·7. 환인 오녀산성 2. 서울 용마산2보루 3. 서울 홍련봉2보루  
4·6. 구리 아차산4보루 5. 서울 홍련봉1보루

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제 고고자료는 목제자루 없이 철제로 된 창끝과 창고달만 잔존하고 있어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창을 들고 있거나 가지고 전투하는 장면이 많이 묘사되어 있어 창이 고구려의 중요 무기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창은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 등과 같은 벽화고분에 묘사된 행렬도에서 중장기병의 주요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 벽화에서 창은 보병과 기병이 모두 소지하고 있어 병종에 상관없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보병이 소지하고 있는 창은 병사들의 키보다 조금 긴 단창(短槍)이고, 기병이 소지하고 있는 창은 길이가 훨씬 더 긴 장창(長槍)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창끝은 소켓 형태의 빈 공간인 공부(鑿部)가 있는 투겁창(鏃)과 끼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없는 모(矛)로 대별된다. 현재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어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은 모두 투겁창에 해당한다(주홍규, 2021).

창끝은 형태에 따라 유관직기형(有關直基形), 무관직기형(無關直基形), 유관연미형(有關燕尾形)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투겁과 창날 부분을 경계 짓는 관부(關部)의 형성 여부와 함께 끝부분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관직기형이 연미형에 비해 먼저 출현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관직기형은 출토 사례가 많지 않다.

이 밖에도 봉부 형태에 따라 광봉형(廣鋒形)과 협봉형(狹鋒形)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광봉형은 고구려 전기에 주로 출토되고 있을 뿐이며, 중기 이후에는 대체로 협봉형이다. 그리고 봉부의 길이에 따라 장봉(長鋒)과 단봉(短鋒)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단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환인 고력묘자19호묘나 북한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4-8호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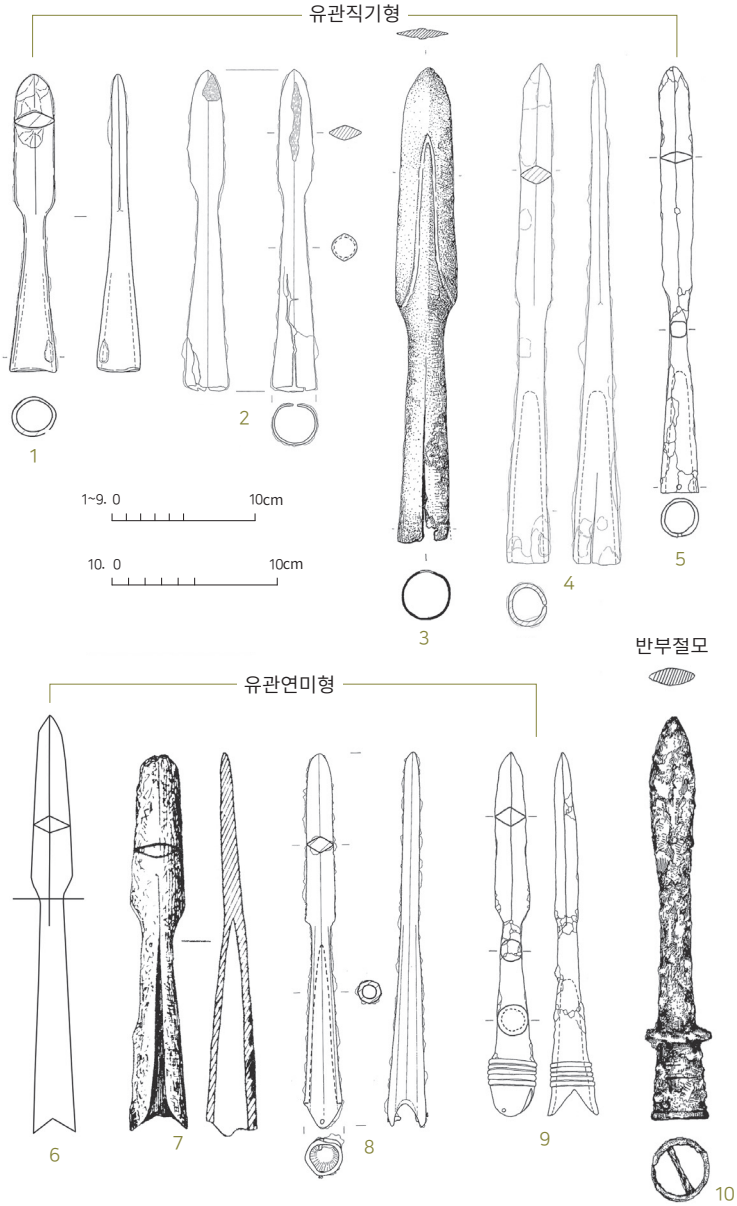


그림10 | 안악3호분 행렬도에 그려진 창병(동북아역사넷)  
1. 보병 2. 기병

덤, 시중군 풍청리33호무덤 등과 같은 적석총에서는 직기형에 관부가 뚜렷이 형성되어 있는 광봉형 철모(鐵鉢)가 주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광봉의 유관직기형 철모가 적석총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고구려 전기에는 창이 찌르는 것 외에 베는 기능도 중시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구려 중기가 되면 연미형 철모가 새롭게 등장하지만 직기형 철모도 여전히 발견된다. 연미형 철모는 집안의 집석공로(集錫公路) 적석총 무덤군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 시기의 철모는 그 길이가 30cm 전후로, 신부가 좁아져서 단면은 능형을 이루는 협봉형이 주를 이룬다.

한편, 집안 지역 출토 철모 중에는 봉부에 홈이 파여 있는 것도 있



**그림 11** | 고구려 창끝(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1·4. 서울 흥련봉2보루 2·8. 구리 시루봉보루 3. 집안 마선구2100호묘  
 5·9. 서울 구의동보루 6. 집안 우산하3296호묘 7. 시중 풍청리33호무덤  
 10. 집안 국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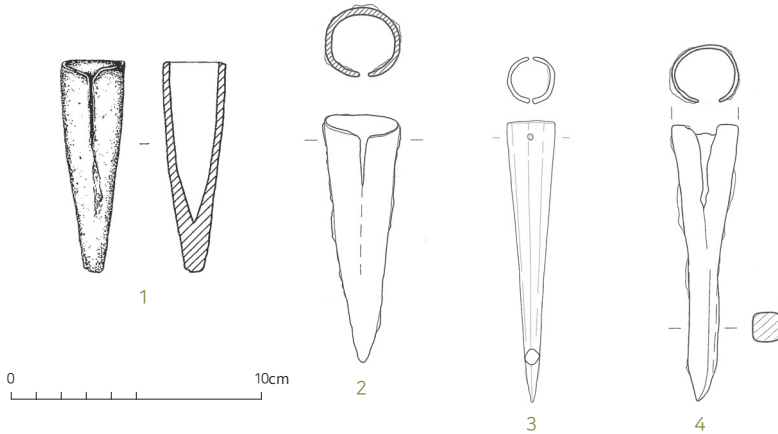


그림12 | 고구려 창고달이(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1. 환인 오녀산성 2. 연천 무등리2보루 3. 연천 호로그루 4. 구리 시루봉보루

는데, 이는 도검류에서 보이는 혈구(血溝)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병부에 반부(盤附: 고리)가 설치된 것도 발견된다(최종택, 2020).

철모는 고구려 중장기병의 중요한 무기로, 앞선 시기의 베는 기능까지 겸한 광봉형 철모가 아니라 찌르기 전용의 협봉형 철모로의 변화는 고구려 중기 중장기병의 등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견고한 방어구인 철제갑주의 등장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개발된 것인데, 철모의 투검이 연미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일직선으로 된 기존의 직기형에 비해 접지면을 넓힘으로써 찌를 때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시켜 자루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김길식, 2005).

한편, 쌍영총 벽화에는 장창을 든 개마무사가 묘사되어 있는데, 창끝 아래에는 깃발을 달고 창대 끝에는 고달을 부착하였다. 앞서 언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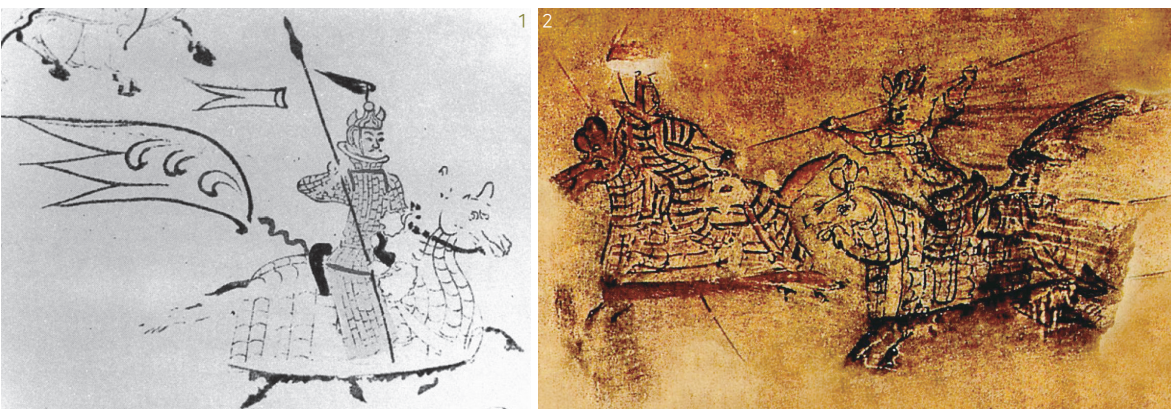


그림13 | 창을 든 개마무사(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1. 쌍영총 벽화 2. 삼실총 벽화

바와 같이 고분벽화에는 보병과 기병이 모두 창을 소지하고 있는데, 보병의 것에 비해 길이가 길게 묘사된 중장기병의 장창을 삭(稍)으로 보기도 한다. 고분벽화에는 이들 중장기병의 창에 깃발이 걸려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창에 걸린 깃발은 부대를 나타내는 상징 내지는 장식일 수도 있겠으나 접전할 때 깃발로 적을 현혹시키는 등의 효과를 위해 달았을 가능성도 있다. 고구려 중기 이후에 등장하는 투겁 부분에 고리(盤)가 있는 반부철모(盤附鐵鉏)는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장창에 깃발을 매달기 위해 개량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구려 후기에도 창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무순 고이산성이나 서울 구의동보루를 비롯한 한강 유역의 아차산보루군에서도 다수의 철모가 확인된다. 다만 한강 유역에서는 직기형 철모가 다수인 반면에, 연미형 철모는 소량 확인된다. 이 시기의 철모 역시 찌르는 기능이 강조된 협봉형이다.

#### (4) 기타

이상에서 다룬 도, 전투용 도끼, 창 외에도 고구려에서는 갈고리창이나 삼지창과 같은 다지창(多枝槍), 그리고 낫(鎌) 등도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2. 방어용 무기의 종류와 특징

방어용 무기(무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구와 갑옷으로 대표된다. 고구려의 갑주는 작은 철판을 이어 붙여 활동성과 방어력을 높인 찰갑(札甲)을 기본으로 한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온몸을 갑옷으로 중무장한 중장기병이 묘사되어 있어, 전신 찰갑은 주로 기마용 갑옷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어용 무기로는 방패를 들 수 있으나 아직까지 실물로 발견된 사례는 없으며 고분벽화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안악3호분의 행렬도에는 창병이 하트모양과 길쭉한 모양의 방패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갑옷

삼국시대의 갑옷은 기본적으로 비늘갑옷인 소찰(小札)을 이어 만든 찰갑(札甲)과 철판을 이어 붙여 만든 판갑(板甲)으로 구분된다. 찰갑은 철판을 이어 만든 것이 대부분이지만, 서울 몽촌토성에서는 뼈로 만든 골제찰갑이, 공주 공산성에서는 가죽으로 제작한 찰갑이 출토되기

도 하였다. 판갑은 가야, 신라, 왜, 백제 등에서 주로 확인되지만 아직까지 고구려 유적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고 고분벽화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구려는 찰갑을 주로 제작하여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찰갑의 완전한 형태는 연천 무등리2보루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평안남도의 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 감신총, 평양의 개마총, 그리고 중국 집안의 통구12호묘, 삼실총 등과 같은 고분벽화에서 갑주의 형태가 잘 묘사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갑옷이 횡선과 사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가죽갑옷일 가능성이 있는 감신총을 제외한다면, 고분벽화에 묘사된 대부분의 갑옷은 실제 철제찰갑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실총 서벽에 그려진 갑주무사(그림6-2)를 통해 고구려 갑옷의 기본 구성이 경갑(頸甲), 신갑(身甲), 상갑(裳甲), 대퇴갑(大腿甲), 경갑(脛甲), 상박갑(上膊甲), 핑갑(肱甲)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신갑, 상갑, 대퇴갑, 경갑은 소찰(小札)로 표현되어 있으나, 위팔을 보호하는 상박갑은 가죽으로, 팔뚝을 보호하는 핑갑은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갑옷편이 출토된 주요 유적으로는 집안 산성하159호묘, 만보정242호묘, 칠성산871호묘, 칠성산211호묘, 마선구2100호묘, 우산하992호묘, 천추총, 태왕릉, 우산하41호묘, 환인 오녀산성, 무순고이산성, 그리고 남한 지역에서는 한강 유역의 아차산보루군과 연천 무등리2보루 등이 있다.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개별 소찰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상부가 원형을 띠고 하부는 방형(上圓下方)인 철판이다. 개별 소찰에는 작은 구멍 여러 개가 뚫려 있는데, 경주 쪽샘지구 C10호분에서 마갑과

함께 출토된 찰갑의 소찰에 가죽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개별 소찰을 가죽끈으로 연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천 무등리2보루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보병용 찰갑 1개체가 그대로 주저앉은 채로 발견되었다. 동체부를 구성하는 소찰은 대체로 장방형계로, 하단은 양쪽의 모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종횡 비율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식(그림16-1, 2, 3)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전체 수량은 343편 이상이다. 첫 번째 형식의 소찰은 종횡 비율이 1.5:1로 상대적으로 소형의 찰편이다. 평면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좁아져 역사다리꼴을 이룬다. 두 번째 형식은 종횡 비율이 2.5:1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세 번째 형식은 종횡 비율이 약 3.5:1 이상으로, 장변의 폭이 중간에 약간 축약된다.

견갑은 2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면 형태는 상단과 하단이 길고 아래로 갈수록 너비가 좁아지는 역사다리꼴이다. 상단부는 내만한 호형을 이루는데 끝단이 살짝 외반한다. 이 밖에도 U자형 부속갑과 두 견갑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다리형 찰갑편도 확인되었다.

한편, 집안 마선구2100호묘, 천추총, 태왕릉 등과 같이 왕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적석총에서는 금동제찰갑편도 소량 발견되었다. 금동제소찰은 수량이 많지 않아 왕과 같은 최상위층이 본인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화려한 금동제찰갑을 제작하여 착용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부장을 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복판  
 견갑 및 견갑 관련편  
 U자형 부속갑

투구 소찰 A형
  투구 소찰 B형
  동체 소찰 A형
  동체 소찰 B형
  동체 소찰 C형
  기타 이형 (투구소찰 C형 등)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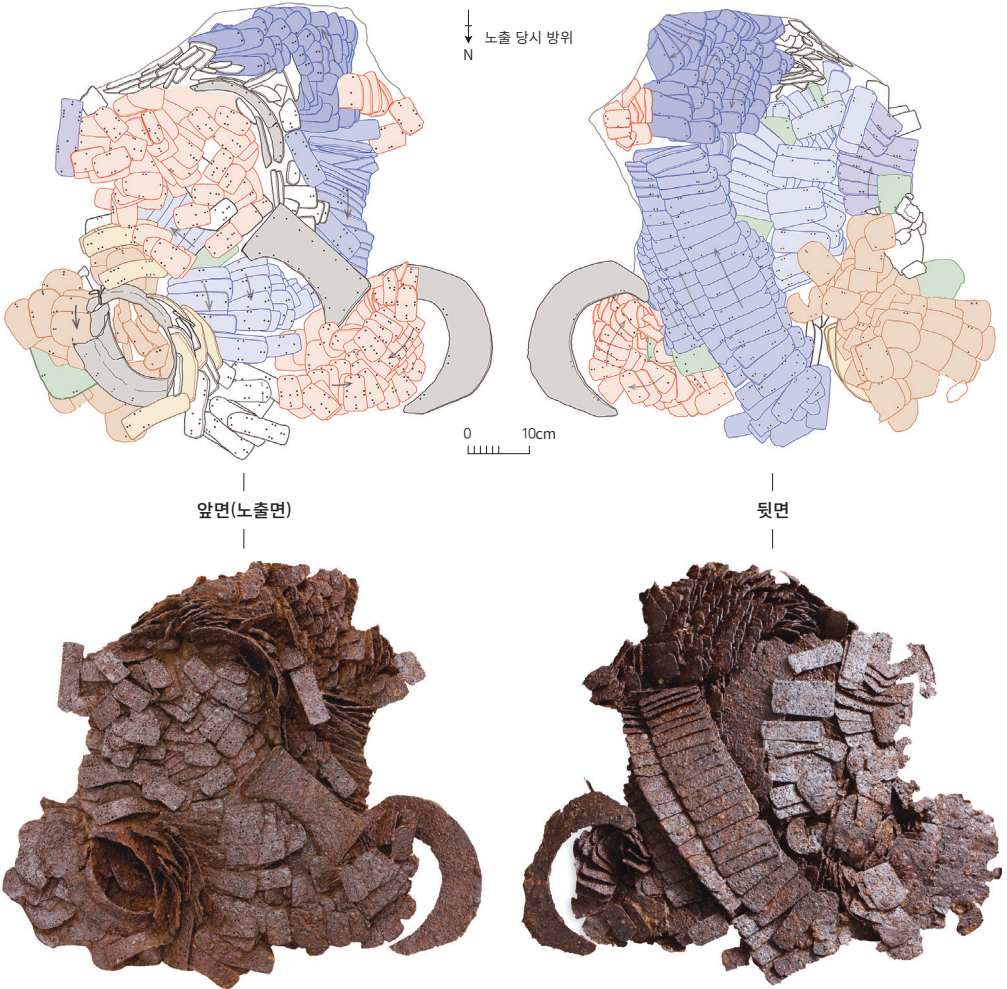


그림 14 | 연천 무등리2보루 출토 찰갑(서울대학교박물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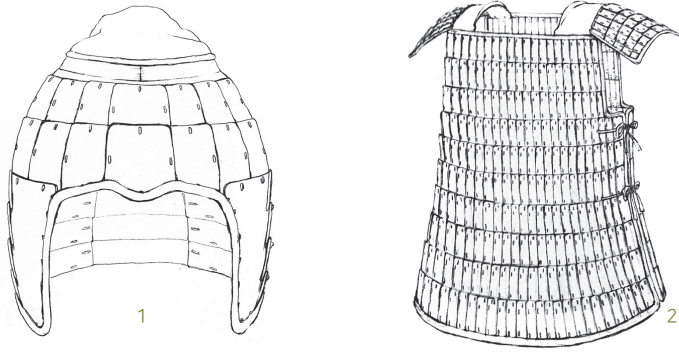


그림15 | 연천 무등리2보루 투구와 찰갑 복원도(©박상미)

1. 투구 2. 찰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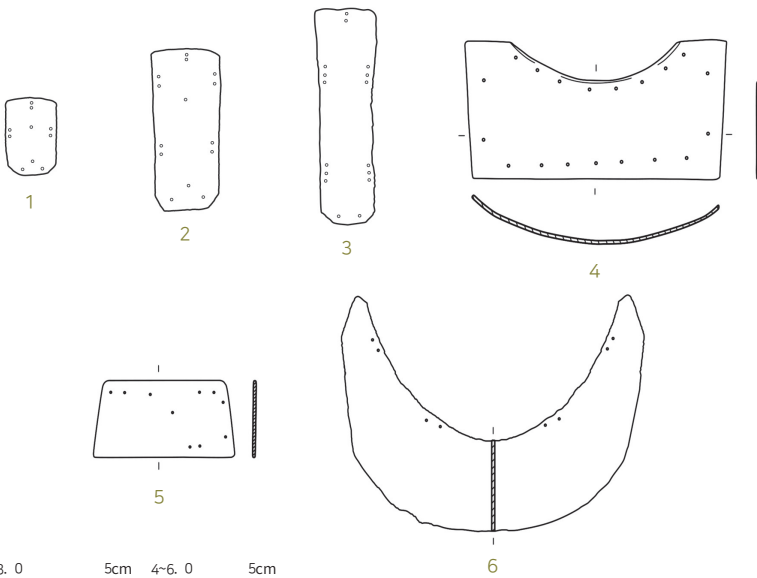


그림16 | 연천 무등리2보루 찰갑편 분류(서울대학교박물관, 2015)

1. 동체소찰 A형 2. 동체소찰 B형 3. 동체소찰 C형  
4. 견갑 추정편 5. 견갑 관련편 6. U자형 부속갑

## 2) 투구

갑옷과 함께 세트를 이루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구이다. 가늘고 긴 철판을 횡으로 연결하여 만든 투구인 종장판주(縱長板冑)와 작은 철판을 이어 붙여 만든 소찰주(小札冑)가 대표적이다. 종장판주는 투구 꼭대기에 정수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반원형의 복발(覆鉢)에 소찰을 붙였다고 하여 몽고발형주(蒙古鉢形冑)라고도 한다. 간혹 복발이 없는 채로 확인된 투구의 경우 정수리 부분에 유기질로 된 막음장치가 있었을 것이며, 이마가 닿는 투구 하단의 외연은 가죽으로 감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투구가 확인된다. 우선 북한 황해도의 안악 2호분과 3호분, 평안남도 남포의 감신총(龕神塚)과 강서군의 약수리(藥水里)벽화분 등에서는 종장판주가 묘사되어 있다. 이들 종장판주는 기본적으로 정수리 부분에 복발을 씌우고, 그 아래에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약간 넓은 장방형 철판을 여러 개 이어 만든 것이다. 집안 삼실총 2실 서벽의 무사나 통구12호묘의 무사는 오각형이나 사각형의 작은 철판을 이어 붙여 만든 소찰주가 묘사되어 있다. 고분벽화에 그려진 투구 중에는 깃털로 장식을 하거나 뿔을 부착하여 장식한 것도 있다.

투구와 관련한 실물자료는 중국의 환인 오녀산성과 무순 고이산성, 북한 평안북도 태천군의 농오리산성, 남한의 구리 아차산4보루, 연천 무등리2보루, 양주 태봉산보루 등과 같은 관방유적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이 중 종장판주는 고이산성과 농오리산성에서, 소찰주는 아차산4보루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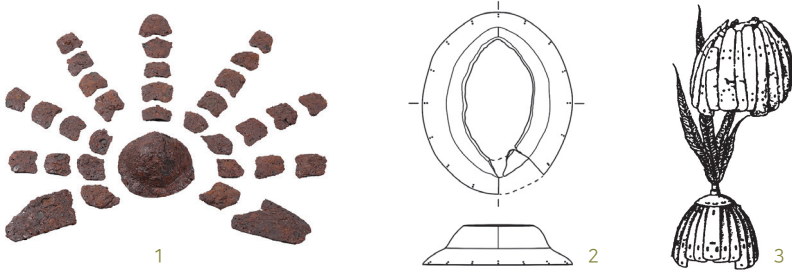


그림17 고구려 투구

1. 구리 아차산4보루(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2. 연천 무등리2보루(서울대학교박물관, 2015)
3. 무순 고이산성(徐家園·孫力, 1987)

우선 무등리2보루에서 출토된 투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아몬드 형태의 복판과 세 가지 형식의 소찰로 구성된다. 복판의 단면은 사다리꼴에 가까운데, 상단부 2cm 지점에서 확 꺾어지면서 외반하며 넓어진다. 복판의 하단부에는 상하 2공을 1조로 하여 수결공이 약 3.5cm 단위로 배치되는 반면, 상단부에서는 연결공이 확인되지 않아 아차산4보루나 태봉산보루에서 확인된 철제복발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투구부의 소찰은 상방하원식 소찰이 47매로 가장 많으며, 우상향 횡결과 최소 3단의 상하 배치가 확인된다. 그다음으로는 길이가 12cm에 달하는 세장방향의 소찰이 11매 이상 확인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소찰이 환인 오녀산성과 한강 유역의 아차산4보루와 용마산2보루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 밖에도 불가리개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크고 편평한 소찰편도 발견되었다.

아차산4보루 출토 투구는 몽고발형의 복발 1개와 52매의 소찰로 이루어져 있다. 복발의 평면은 타원형에 가까운 말각삼각형으로, 전면이 좀더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다. 복발의 하단부는 마치 차양처럼 짧게 벌

어져 있고, 여기에 작은 구멍이 2개씩 뚫려 있어 다른 소찰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차산4보루 출토 소찰 역시 세 가지 형식이 확인된다. 첫 번째 형식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외형과 구멍 배치 면에서 비교적 일관된 정형성을 보인다. 대체로 소찰의 상부 V자형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한 개의 구멍이 있고 다른 모서리에는 2개씩 구멍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추가로 구멍을 더 뚫은 것도 있다. 두 번째 형식은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형태가 매우 독특하고 개별적인데, 복발의 하단부와 연결되는 것이다. 세 번째 형식은 다른 소찰에 비해 넓고 길며, 2점만 출토되었다. 아마도 불가리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3) 마갑주(馬甲冑)

고구려의 마갑주는 고분벽화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왕릉으로 추정되는 집안의 초대형 적석총에서도 그 실물자료가 일부 확인된 바 있다.

마갑주가 출토된 유적은 대부분 4~5세기대로 편년되는 집안의 초대형 적석총으로, 산성하전창1호묘, 우산하992호묘, 마선구2100호묘, 우산하3319호묘, 천추총, 태왕릉 등이다. 이들 마갑은 장방형 또는 사다리꼴의 찰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고분에 묘사된 전연(前燕) 계통의 마갑에서 주로 확인되는 상원하방형 찰편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전연의 마주와 동일한 형태가 그려진 안악3호분과 달리 우산하992호묘에서 출토된 마주의 챙은 오히려 늦은 시기에 등장하는 삼엽형 챙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림18 | 덕흥리벽화고분 행렬도에 묘사된 마갑주(동북아역사넷)

고구려에서는 4세기부터 전연 계통의 마갑과 함께 고구려만의 특징적인 마갑을 함께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신광철, 2020).

특히 이러한 양상은 문헌에 기록된 3세기 중반 고구려의 동천왕이 운영하였던 철기(鐵騎)의 전통과 전연을 통해 전해진 중장기병 문화가 4세기대에 이르러 혼재되어 나타났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확인된 고고자료에 따르면 전연의 마구가 고구려에 비해 보다 이른 시기에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중장기병술 역시 전연에서 먼저 도입되고 발전하여 고구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5호16국시대가 개막되기 이전부터 이미 중국에서는 중장기병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던 터라, 북중국이 혼란기에 접어들자 고구려와 전연이 각각 별도로 중장기병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한다(전호태, 2017). 후자의 입장은 고분에서 출토되는 고구

려와 전연의 중장기병 관련 유물이 유사하면서도 세부기법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시차 없이 두 국가 모두 독자적으로 중장기병술을 도입 및 발전시켰을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고구려 마구의 변화양상은 삼연(三燕) 내지는 동북아시아에서 유행하였던 마구의 변화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양시은, 2022).

#### 4) 마름쇠(疾藜)

마름쇠는 말의 발에 상처를 입혀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장애물이다. 뾰족한 끝이 네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세 갈래가 바닥을 지지하고 한 갈래가 위로 솟아있어 장애물 역할을 한다. 연천 호로그루에서 3점의 마름쇠가 출토된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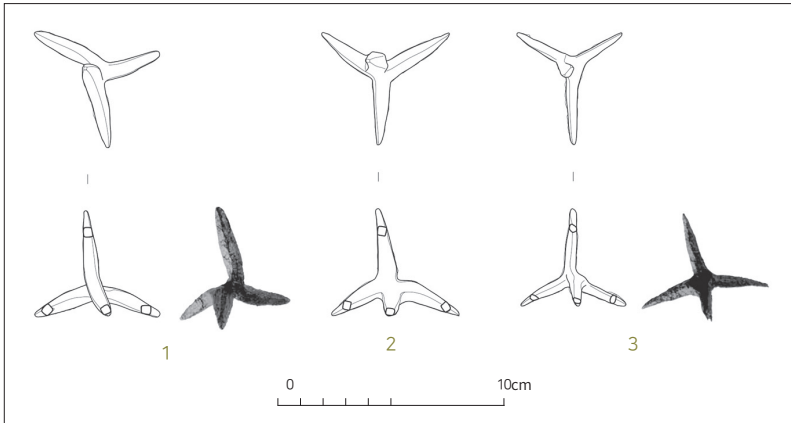


그림19 | 고구려 마름쇠(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1~3. 연천 호로그루

### 3. 고구려 무기체계의 변천

고구려는 국가 발전 과정에서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지속적인 무기 개발과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무기의 구성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무기체계의 확립과 변화 과정은 군대조직이나 무장 및 전술체계의 변화와 서로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고고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구려 무기의 구성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당시까지 보고된 유물을 토대로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의 군사조직, 병력동원체계, 전쟁양상 및 군사방어체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구려 무기체계의 변화양상을 5기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가 있다(김길식, 2005). 이 연구에서 제1기(1세기~2세기)는 한대 무기의 영향과 고구려 무기의 성립, 제2기(2세기~3세기 중엽)는 고구려 독자적 무기체계의 형성, 제3기(3세기 후반~4세기 중후엽)는 고구려 무기체계의 확립, 제4기(4세기 중후반~5세기 중엽)는 첨단무기로의 기능 확대, 제5기(5세기 후반~6세기 후반)는 전투양상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무기의 발달로 특징지었다. 그렇지만 고고자료가 거의 없는 고구려 전기를 이처럼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고구려와 수·당 전쟁이 있었던 7세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고구려 무기체계의 변화양상은 고구려 토기 내지는 고구려의 국가발전단계와 마찬가지로 대략 300년과 500년경을 기점으로 하여 4세기 이전(전기), 4~5세기(중기), 6세기 이후(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 1) 고구려 전기

우선 『위략』과 그간의 고고자료를 종합해 보면, 4세기 이전 고구려 전기의 무기체계는 활, 도, 창(모)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 원거리 공격무기로는 활이 대표적이지만, 실물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3세기대까지의 여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고구려에서는 “좋은 활이 생산되는데, 이른바 맥궁(緇弓)이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참고가 된다. 그리고 활과 세트관계를 이루는 철촉은 적석총과 초기 취락유적에서 다수가 확인된다. 이 시기의 철촉은 대체로 스펀지가 있는 유경식으로 촉두가 넓적한 광엽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철제갑주와 같은 견고한 방어구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3세기 이후가 되면 고구려의 대표적인 철촉 형태로 알려진 착두형 철촉이 남파동104호 적석총을 시작으로 등장하며 점차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

이 시기 근거리 공격무기로는 도와 창(모)이 대표적이다. 2~3세기에 해당하는 적석총에는 주로 둥근 고리만 있는 길이 30~40cm가량의 환두대도와 짧은 철제단도, 직기형 철모가 출토되었다. 철제단도와 직기형 철모의 유행은 광엽형 철촉과 마찬가지로 철제갑주와 같은 방어구의 미발달로 근접전에서 베는 기능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헌에 따르면 고구려 전기에는 병력 동원의 규모가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전쟁이 벌어진 지역 역시 환인을 위시한 고구려 도성이나 현도군(玄菟郡), 요동군(遼東郡)과 같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3세기 중반 이전까지 고구려의 병력은 일부 한정된 계층만 전쟁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출

표2 2~5세기 고구려의 병력 규모와 병종 구성(李廷斌, 2010)

연도	병력 규모	주요 내용	전거
121년(태조왕 69)	마한·선비 1만 기	현도성(玄兔城) 공격	『후한서』
172년(신대왕 8)	수천 기	한군(漢軍) 추격[좌원(坐原)]	『삼국사기』
246년(동천왕 20)	보기(步騎) 2만 (정기 5,000)	위군(魏軍) 방어 [비류수(沸流水)]	『삼국지』, 『삼국사기』
259년(중천왕 12)	정기(精騎) 5,000	위군 방어[양맥곡(梁狹谷)]	『삼국사기』
293년(봉상왕 2)	기병(騎兵) 500	모용괴(慕容暋) 요격 [곡림(鵠林)]	『삼국사기』
393년(광개토왕 3)	보기 50,000	백제 방어	『삼국사기』
400년(광개토왕 10)	보기 50,000	신라 구원	〈광개토왕릉비〉
407년(광개토왕 17)	보기 50,000	후연(後燕) 공격	〈광개토왕릉비〉
436년(장수왕 24)	보기 20,000	북연왕(北燕王) 구출	『위서』

토유물로 보면, 3세기 중반 이전 고구려의 무장은 활과 창, 도가 중심이었다.

〈표2〉는 2~5세기 고구려의 전쟁 관련 기사 중에서 병종과 병력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3세기까지 고구려는 기병을 주로 동원하여 전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고구려 역시 일찍부터 보병도 운영했을 테지만 문헌기록상 3세기까지도 그 전술적인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활을 쏘는 기병이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환인 고령묘자 15호묘, 19호묘나 자강도 법동리 하구비무덤, 서해리2-1호무덤, 집안 만보정 242-1호묘 등의 여러 적석총에서 재갈 등의 마구가 출토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 유적에서 철제 등자나 마갑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 시기 고구려에서는 아직까지 중장 기병은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고구려 중기

고구려 중기인 4~5세기대에는 그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활, 도, 창  
의 기본 무기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끼류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 시기 원거리 무기인 활의 경우, 평양역전 이실분에서 출토된 활부  
속구와 고분벽화에 묘사된 활을 통해 볼 때 길이가 짧은 단궁이 기본이  
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철촉의 경우에는 그 이전 시기보다 스펀지가 길어  
지는 세장한 형태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평엽형 철촉은 더이상 보  
이지 않으며, 삼익형, 착두형, 유연형, 능형 등의 철촉이 일반화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고구려에 중장기병의 등장과 함께 기병용 장창인  
삭(鏑)이 유행한다. 그 이전 시기에는 직기형 철모가 중심이었으나, 신  
부가 좁아지고 단면은 능형으로 찌르기 전용의 협봉형 철모로 변화하  
면서, 철제갑주에 대응하기 위한 연미형 철모가 새롭게 출현한다. 그리  
고 고분벽화에서 다수 확인되는 깃발을 매달기 위해 투겁창에 고리가  
달린 반부철모 역시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다.

전투용 도끼 역시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  
등에서 부월수가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고구려 중기에 새롭게 등장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전투용 도끼는 농공구로 사용된 도끼와 달  
리 몸통에 옆으로 구멍을 뚫어 자루를 끼워 사용하는 횡공부로, 철제찰  
갑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병의 중요 무기로 활용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들 도끼는 행렬도와 같은 고분벽화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전뿐만 아니라 의전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으로 이해  
된다.

한편, 고구려 중기에는 등자의 출현과 함께 방어용 무기인 갑주 사용

이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기병전에 적합한 찰갑이 기본이 되었다. 이들 찰갑은 가죽으로 된 것도 있었다고 추정되나, 주로 작은 철제찰편으로 이루어진 철제갑옷이 주를 이루었다. 활동성이 강조된 고구려의 찰갑은 본래 기마용 갑옷으로 등장했다고 여겨진다. 고분벽화에서 보병은 상반신 갑옷을, 기병은 경갑을 갖추고, 소매가 손목까지 오는 상반신 갑옷에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갑옷바지를 입고 있다. 이 시기의 투구는 종장관주 내지는 소찰주가 기본이었으며, 고분벽화에서는 깃털이나 뿔로 장식한 투구도 확인된다.

한편, 당시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는 갑옷으로 중무장한 장수들이 다리를 제외한 온몸에 갑옷을 입힌 개마(鎧馬)를 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문헌에서는 동천왕 대부터 철기(鐵騎)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마갑주와 관련한 유물은 4~5세기대로 편년되는 집안 지역 초대형 적석총에서 일부 출토되고 있어서 실제로 개마무사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갑주무사의 생생한 모습은 삼실총의 공성(攻城)하는 전투장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삼실총 서벽에 그려진 갑주무사의 경우에는 못이 달린 신발을 신고 있는데, 전투용 신발인 철정리(鐵釘履)는 집안 환도산성(丸都山城)에서 실제로 출토된 바 있다.

이처럼 병력의 동원 규모가 5만 명으로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구려 중기에는 전투양상 또한 그 이전처럼 도성이나 중원의 세력과 맞닿아 있는 경계 지역이 아니라 도성으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에 있는 산성과 그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기체계 역시 중장기병 전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 등과 같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벽화고분의 행렬도에는 행렬의 좌우에 기병이 배치되고, 그 안에 보병이 열을 짓고 있으며, 보병의 수가 기병보다 많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행렬도의 대형을 그대로 전투 시의 상황으로 치환하면 기병과 보병의 합동작전으로 전투를 수행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장창 밀집대형을 갖춘 중장기병이 일차적으로 돌진하여 치명타를 가하여 적진을 교란한 다음 보병이 진격하여 접전을 벌이는 형태의 전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병력의 수는 보병이 많았더라도 전투의 주력은 기병이었을 것이다. 이는 벽화의 전투장면에 중장기병의 전투장면이 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고구려의 군사적 우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은 무장한 중장기병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김길식, 2005).

4~5세기 단계에 갑주로 무장한 중장기병을 핵심으로 갑주로 무장한 보병을 배합한 고구려군은 활, 창, 도끼, 도, 쇠뇌 등을 사용하는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무기 중 창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장창기병(長槍騎兵)의 수가 다른 병종에 비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쇠뇌를 제외한 병력을 제외하면 일반 보병은 무기별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李仁哲, 1996).

4세기 이후 한반도 중서부에서는 환두도의 환두부가 없어지고 손잡이 부분을 실용적인 나무손잡이로 만든 ‘목병철도(木柄鐵刀)’가 보급되면서 보편적인 개인 무기로 보급되는 반면에, 환두도는 손잡이 부분을 금은 등으로 장식한 장식대도로 변화하면서 오히려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의 성격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기능적 분화가 일어난다. 이는 고구려와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철모의 경우에는 신부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두께는 두꺼워지고, 신부와 공부 사이의 경계 역할을 하였던 관부가 점차 사라져 이른바 무관연미형 철모가 등장하여 사용된다. 이 철모는 베는 기능은 거의 없는 대신 찌르는 기능이 극대화된 것으로서, 철제갑주 등의 방어구가 발달한 것과 관련이 깊다. 결국 장병기인 철모는 찌르는 기능으로, 단병기인 철도는 근접전에서 베는 기능으로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무기 형태의 변화는 무기체계의 변화는 물론이고 당시 전투양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무기는 고대국가 사이의 빈번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게 변화하기 마련이다. 철촉 또한 이에 맞추어 유경식의 경부가 길어져 비행거리가 늘어나고 살상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된다(성정용, 2019).

### 3) 고구려 후기

고구려 후기가 되면 그 이전 시기의 무기체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관방유적에서의 전투를 위한 무기체제가 더욱 발전해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 중기에는 중장기병의 발전이 두드러졌던 것에 비해, 6세기 중반 이후에는 중국 쇄녕의 발전으로 중장기병의 효용이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이에 고구려에서도 중장기병 중심의 기존 전술을 수정하고 관방유적을 활용한 전술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후기에는 원거리 무기로 기병용 단궁 외에 성곽 등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보병용 장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의동보루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철촉은 길이가 23~25cm 달하는 세장경촉으로 장궁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보통의 활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파괴력도 강한 쇄녕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쇠뇌는 장궁과 함께 주로 보병의 무기로, 기병들이 보유한 단궁의 사정거리 밖에서 기병들을 제압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6세기 말 고구려가 수에 침자를 파견해 쇠뇌 기술자를 빼낸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구려 후기의 단거리 무기체계는 중기 이후에 확립된 도, 전투용 도끼, 창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월수로 대표되는 전투용 도끼가 남한 지역의 관방유적을 비롯하여 여러 관방유적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어, 이 시기에 보병의 주 무기로 적극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투용 도끼는 강력한 타격으로 철제갑옷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로 근접전이나 공성을 방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문헌기록에는 월(鉞)이 실전 외에 의장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군사의례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창의 경우에는 남한 지역의 관방유적을 중심으로 연미형 철모 외에 폭이 좁고 단면이 두꺼운 직기형 철모도 다수 출토되고 있어, 세장형의 화살촉과 마찬가지로 창에서도 철제갑옷에 타격을 줄 수 있도록 찌르는 기능이 극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에는 갈고리창과 다지창 등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장병기가 다양화되는 양상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동 시기 다른 여러 나라와의 무기체계를 비교하여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에서는 장병기의 분화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가 있다(이정빈, 2010). 문헌기록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矛)만 발견되고 있는데, 고구려에서는 장병기인 창이 극(戟)·삭(劊)·모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장병기의 분화는 4세기 이후 중장기병의 출현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들 장병기는 보병의 주력 무기이기도 하다. 6세기 중반 이후 쇠뇌의 본격적인 보급과 함께 비

슷한 시기에 고구려의 활 역시 파괴력이 증가되고 사정거리가 확장된 장궁이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6세기 중반 이후 쇠뇌와 아울러 장궁이 개발되고 보급되었다는 것은 보병의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전투에서의 기술적 비중도 높아진 변화를 반영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고구려와 전쟁을 치르었던 수는 북주(北周)의 군제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중장기병을 그대로 활용하여 기병의 주력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로서는 수의 중장기병에 대해서도 대비해야만 했다. 심양 석대자산성에서 출토된 두꺼운 화살촉은 수군의 갑주를 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통 상처를 크게 내어 보다 치명적인 상처를 내기 위해서라고 여겨지는데, 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장기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의 중장기병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한 쇠뇌 도입은 필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정동민, 2020).

고구려와 수의 대대적인 전쟁에서 쇠뇌가 대거 활용되고 부각됨에 따라, 이후 중장기병을 활용한 전술이 쇠퇴하였을 것이고, 이는 보병의 비중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쇠뇌와 장궁을 비롯하여 관방유적 방어를 기본으로 하는 전술의 채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여전히 방어용 갑주가 꾸준히 이용되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보장왕 4년(645년)에 당이 고구려 안시성을 공략하던 중 고연수와 고희진이 군사 3만 6,800명을 거느리고 항복을 청하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고구려군에게 획득한 말이 5만 필, 소가 5만 두, 명광개(明光鎧) 1만 벌 등이었다고 한다. 명광개는 표면에 황칠을 하여 햇빛에 빛나도록 만든 화려한 갑옷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고구려군이 위압적인 광채를 발하는 갑주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문헌에는 고구려 후기에 기존의 무기체계에 더하여 포차(抛車)와 같은 공성무기도 사용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출토유물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4. 고구려군의 구성과 편제

### 1) 고구려군의 병종 구성

문헌에 기록된 내용과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 등과 같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행렬도는 고구려군의 병종 구성을 추론해보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고구려 군사의 병종은 크게 육군과 수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육군은 다시 보병과 기병으로 나눌 수 있다. 보병은 무장 상태에 따라 갑주를 착용한 중장보병과 착용하지 않은 경장보병으로 나뉘는데, 벽화의 내용을 보면 경장보병의 비율이 우세하다. 중장보병은 갑주가 보편화된 고구려 중기 이후에 체제를 갖게 되는데, 조기 형태의 상의와 투구만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병 역시 병사와 말이 갑옷과 투구 등 장구를 모두 갖춘 중장기병과 병사만 무장한 갑주기병, 병사와 말 모두 무장하지 않은 경장기병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기병의 갑주는 투구와 함께 목과 상의, 팔, 다리 등 모든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갑옷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분

벽화에서 보이는 갑주기병은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중장기병과 경장기병의 비율은 비슷하다. 또한 보병이나 기병 모두 갑주를 착용한 비율이 높지 않으나 기병이 보병에 비해 무장 비율이 높은 편이다(최종택, 2022).

기병은 문헌기록에 보이는 장창인 삭과 활을 주요 무기로 사용하고, 작은 크기의 도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보병은 도, 창(모), 창(극), 활(궁), 쇠뇌(노) 등 다양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물론 무기에 따라 출현 시기에 차이가 있다. 『위략』에 따르면, 고구려 전기의 무기체계는 원거리 무기인 활, 근접 무기 중 장병기인 모, 단병기인 도가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지만 『주서』에 따르면, 고구려 후기의 무기체계는 훨씬 다양해져서 원거리 무기는 쇠뇌, 활, 전(箭), 근접 무기 중 장병기는 극, 삭, 모, 단병기는 연(鎧)으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고분벽화를 보면, 병종별로 사용하는 무기에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이들 고분벽화는 고구려 중기에 해당하는데, 병종별 무기 구성을 보면 보병은 도끼(부), 창(모), 도, 활+도, 활+창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병은 활, 창(모), 도 등의 순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고구려 중기에 보병의 주력 무기는 전투용 도끼(부)와 창(모), 도이며, 기병은 활과 장창(모)을 주력 무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余昊奎, 1999). 그렇지만 이는 벽화에 나타난 모든 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고, 전투와 관련된 장면만을 놓고 볼 때는 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 중기에는 창이 가장 중요한 무기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 중장기병의 출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보병의 경우에는 소지한 무기에 따라 궁수와 창수, 부월수와 환도수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투 시 이들 병종별 구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문헌에 의하면 3세기까지는 주로 기병을 활용한 전투가, 4~5세기에는 기병과 보병을 함께 활용한 전투가 주를 이룬다. 이 시기에 조성된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행렬도에는 행렬의 좌우에 기병이 서고 그 안으로 보병이 열을 짓고 있고, 보병의 수가 기병보다 많다. 즉, 고구려 전기에는 기병이 중심 전력이었으나, 중장기병이 등장하는 4세기 이후부터는 전투에서 기병은 물론이고 보병도 중요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수적으로 보병이 우세 하더라도 전투의 주력은 기병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무기체계 또한 중장기병에 맞춰 변화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중장기병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갑옷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전투용 도끼나 협봉형 창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한편,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전쟁 관련 기사를 검토해보면, 고구려 군대의 병력 규모는 시기별로 차이가 크다(표2). 고구려 전기인 1~3세기에는 대체로 수천에서 2만 전후로 나타나는데, 도성 인근지역이나 중원의 군대와 맞닿아 있는 경계지역에서 주로 전투가 이루어진다. 병종 구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병이 중심이 된다. 고구려 중기인 4세기 이후에는 국가지배체제의 확립과 함께 왕권이 강화되면서 병력 동원 역시 5만 명 내외로 그 수가 확연히 증가한다. 이 시기의 병종은 기병과 보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대의 수가 많아진 만큼 전투 역시 교통로를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양상은 4세기 이후 왕권에 의한 집권력이 강화되고 국가 차원의 병력동원체제가 마련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林起煥, 1996).

## 2) 고구려군의 편제

고구려 후기의 군사조직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앙의 군사조직은 5부(部)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의 최고위 무관직은 위두대형(位頭大兄) 이상의 관등이 임명되는 대모달(大模達) 혹은 대당주(大幢主)로, 당의 위장군(衛將軍)에 비견되는 것으로 보아 궁중 숙위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아래에는 대형(大兄) 이상 관등의 말객(末客)이 있어 군사 1,000명을 통솔하였다. 그리고 말객의 아래에는 다시 당주(幢主)가 있었는데, 군사 100명을 거느렸다.

지방의 군사조직은 행정구역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었는데, 즉 지방관이 해당 지역의 지방군까지 통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원(翰苑)』 고려기(高麗記)에 따르면 고구려 지방통치의 중심지인 대성(大城)에는 최고 지방관인 육살(褥薩)이 파견되는데, 이는 당의 지방관인 도독(都督)에 해당한다. 그 하위의 지방관으로는 말객의 다른 이름인 군두(郡頭)가 있다. 그리고 최하위 지방관인 누초(婁肖)와 백두(百頭) 역시 무관직인 당주와 대응시켜 볼 수 있다(林起煥, 1996).

한편,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군에서는 다수의 무구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화재로 폐기된 한강변의 구의동보루에서는 다른 아차산보루와는 달리 아궁이에 철술이 얹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토기와 철기를 비롯한 고구려 완형 유물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고구려 군사조직 중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초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들 고고자료를 통해 6세기 전반경 고구려군의 편제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의동보루에서 출토된 무기류는 대도 2점, 창(矛) 10점, 전투용 도끼(부) 4점, 철촉 1,300여 점이다. 이 중 대도는 지휘용으로 겸장하였으며, 전투용 도끼는 근접전에서 부대원이 공용으로 사용한 무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4세기 이후부터는 고구려군의 주력 무기가 창으로 일원화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구의동보루에서는 10명의 병사가 주둔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당서(新唐書)』에는 당의 군대조직을 “병사(士)는 300인이 단(團)을 이루고, 단에는 교위(校尉)가 있다. 50인은 대(隊)를 이루고, 대에는 정(正)이 있다. 10인이 화(火)를 이루고, 화에는 장(長)이 있다”라고 전한다. 즉, 구의동보루에 주둔하였던 병력은 당의 화(火) 조직과 비교가 가능하다(최종택, 2009).

반면 『진서』에는 “5인이 오(伍)가 되고, 5오는 양(兩)이 되며, 3양은 졸(卒)이 되고, 5졸은 여(旅)가 되고, 5여는 사(師)가 되고, 5사는 군(軍)이 된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로 인해 오(伍)의 2개 단위가 구의동보루에 주둔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성태, 2005).

이 밖에도 아차산4보루에는 구의동보루와 유사한 면적의 온돌 단위가 10개 확인되므로 100여 명의 병사가 주둔하였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에 아차산 일원에서 확인된 보루를 모두 합하면 6세기 전반 아차산 일원에는 약 2,000여 명의 고구려군이 주둔하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상의 추론이 타당하다면 아차산4보루와 같은 대형급 보루에는 누초 또는 백두에 해당하는 지휘관을 상정해볼 수 있으며, 나머지 아차산과 용마산의 개별 보루에는 말객 또는 군두에 해당하는 지휘관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최종택, 2009).

##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고구려의 철기』.
- 동북아역사재단, 2009,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2 - 고분과 유물 -』.
- 북천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2012, 『고구려, 한반도를 품다』.
-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아차산 제4보루 -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
- \_\_\_\_\_, 2015, 『연천 무등리 2보루』.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6.
- 崔鍾澤·張恩晶·朴長植, 2001, 『三國時代 鐵器 研究 - 微細組織分析을 통해 본 鐵器 製作技術體系』, 서울대학교박물관.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강인욱, 2006, 「고구려 鎧子の 發生과 유라시아 초원지대로의 전파에 대하여」, 『北方史論叢』 12.
- 金基雄, 1985, 「武器와 馬具(高句麗)」, 『韓國史論』 15(韓國의 考古學 III), 국사편찬위원회.
- 김길식, 2005, 「고구려의 무기체계의 변화」,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 고구려 -』, 고려대학교박물관.
- 김보람, 2013, 「高句麗 鐵鏃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性泰, 1993, 「고구려의 무기(1) - 도검(刀劍)과 궁시(弓矢) -」, 『文化財』 26.
- \_\_\_\_\_, 1994, 「고구려의 무기(2) - 철모(鐵帽), 극(戟), 노(弩), 도끼 -」, 『文化財』 27.
- \_\_\_\_\_, 1995, 「고구려의 무기(3)」, 『文化財』 28.
- \_\_\_\_\_, 2001, 「高句麗 兵器에 대한 研究」, 『高句麗研究』 12.
- \_\_\_\_\_, 2005, 「최근 보고된 고구려 무기의 검토」, 『高句麗研究』 20.

- \_\_\_\_\_, 2007, 「고구려의 무기, 무장, 마구」,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 박진욱, 1991, 「무기와 마구」, 『조선고고학전서-중세편(고구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성정용, 2000, 「중서부지방 3~5세기 철제무기」, 『한국고고학보』 42.
- \_\_\_\_\_, 2019, 「쇠를 두드리다: 우리 역사를 바꾼 혁신적인 이기, 철」, 『한국 금속문명사: 주먹도끼에서 금관까지』, 들녘.
- 송계현, 2005, 「환인과 집안의 고구려 갑주」, 『北方史論叢』 3.
- 신광철, 2020, 「삼국시대 고구려 馬甲冑 검토」, 『삼국시대 말 갑옷 비교 연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 공동학술세미나자료집).
- 양시은, 2022, 「고분과 유물을 통해 본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문화교류 양상」, 『고고학』 21-2.
- 余昊奎, 1999, 「高句麗 中期의 武器體系와 兵種構成」, 『韓國軍事史研究』 2.
- 李有京, 2010, 「高句麗 札甲에 對한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仁哲, 1996, 「4~5세기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重裝騎兵」, 『軍史』 33.
- 李廷斌, 2010, 「6~7세기 高句麗의 쇠뇌 운용과 군사적 변화」, 『軍史』 77.
- 林起煥, 1996, 「지방·군사제도」,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 장은정, 2002, 「5~6世紀 高句麗 鐵器製作技法에 對한 一考察: 漢江下流域 資料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주농, 1958, 「고구려시기의 무기와 무장」, 『문화유산』 58-5.
- \_\_\_\_\_, 1959, 「고구려시기의 무기와 무장」, 『문화유산』 59-1.
- 전호태, 2017, 「고구려(高句麗)와 모용선비(慕容鮮卑) 삼연(三燕)의 고분문화」, 『東北亞歷史論叢』 57.
- 정동민, 2008, 「高句麗 重裝騎兵의 特徵과 運用形態의 變化 - 古墳壁畫 資料를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52.
- \_\_\_\_\_, 2020, 「612년 高句麗 - 隋 전쟁의 전개 양상」, 『한국고대사탐구』 34.
- 趙晟允, 2011, 「漢江流域 高句麗 武器體系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홍규, 2021, 「무기와 무구」, 『동북아시아 고고학 개설Ⅱ-역사시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 崔鍾澤, 1999,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8.
- \_\_\_\_\_, 2009, 「벽화와 유물을 통해 본 고구려의 군사체계」, 『제33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2, 「고구려유물」,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國內城, 2000-2003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 文物出版社.
- \_\_\_\_\_, 2004b,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 \_\_\_\_\_, 2004c,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吉林省博物院, 2010, 『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 徐家國·孫力, 1987, 『遼寧撫順古爾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87-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1996~1999, 2003年桓仁五女山城調查發掘報告』, 文物出版社.
- 陳大爲, 1960, 「桓仁縣考古發掘簡報」, 『考古』 1960-1.
- 朝鮮總督府, 1933, 『昭和七年度古蹟調查報告 第一冊-永和九年在銘博出土古墳調查報告』.



# 마구와 마갑주

1. 기승마구
2. 수레부속구와 기타 마구
3. 말 갑옷과 투구
4. 고구려 마구의 변천과 그 의미



## 4장

# 마구와 마갑주

강현숙 |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고고자료에 의하면, 고구려에서 말은 수레를 끌거나 사람을 태워서 이동하였고, 중무장한 병사가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였다. 이처럼 말을 부리거나 꾸밀 때 사용하는 모든 기물을 통틀어 마구(馬具)라고 부르거나 말갖춤이라고도 한다.

마구는 그 용도에 따라서 말을 부리는 제어용, 말을 타고 앉는 데 필요한 기승용과 안정용 그리고 말띠를 꾸미는 장식용으로 이루어진다. 제어용 마구로는 재갈과 굴레, 고삐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말을 타는 데 필요한 기승용 마구로는 발걸이(鎧子)가 있고, 말에 타서 안정적으로 앉는 데 필요한 기물로는 안장(鞍裝)과 흠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다래(障泥) 등이 있다. 그리고 말을 꾸미는 띠장식구로는 띠꾸미개(雲珠)와 띠뜨리개(杏葉), 각종 방울 등과 사행상(蛇行狀) 기꽃이와 기생(寄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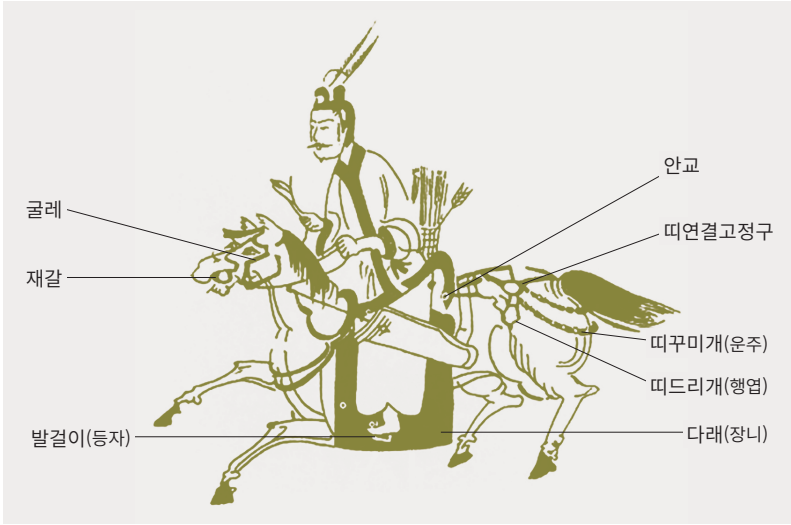


그림1 | 마구 구성품(쌍영총 연도 서벽 기마인물도)

등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마구 구성품을 서로 연결해주는 끈은 굴레와 가슴걸이, 엉덩이 부분의 후걸이로 나눌 수 있다.

말갑옷은 말을 보호하는 한편, 재질을 달리하면서 말을 꾸미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고구려의 말갑옷이나 말얼굴가리개는 출토 예가 많지 않고 재질과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다. 우산하992호분에서 철로 만든 말얼굴가리개가 출토된 바 있고, 통구분지의 일부 적석총에서 말얼굴가리개와 말갑옷편으로 생각되는 철편이 출토되었다. 이에 비해 안약3호분, 덕흥리벽화분, 삼실총 등의 벽화고분에 표현된 갑옷을 입은 말은 행렬이나 전쟁 장면에 등장한다. 이외에도 말의 발을 보호하기 위한 편자나 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족쇄도 있다.

고구려에서 마구는 그 역할에 따라 수레를 끄는 차마구와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기승마구로 대별된다. 고구려 마구는 4세기에

출현한 신문물로 중장기병과 관련하여 해석하지만, 이는 기승마구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승마구 이전에 이미 제어용 마구인 재갈이 사용되었다. 특히 이른 시기 적석총에서 수레부속구의 하나인 차축이나 차할(車轄) 등과 재갈이 출토되어서 기승마구에 앞서서 수레용 차마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차마구나 기승마구는 전체 고구려 유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서 고구려 유물 연구에서 마구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마구 연구는 주로 기승용인 등자나 행엽, 운주 등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마구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기승마구의 등장을 중국 동북지역의 모용선비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의 기승마구는 신라, 가야로 확산되었고, 신라와 가야의 마구는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1. 기승마구

기승마구는 수레를 끄는 차마구와 달리 사람이 직접 말을 타고 부리는 데 필요한 각종 기물을 말한다. 고구려에서는 4세기에 출현하는 신문물로서, 주로 4, 5세기의 무덤에 부장된다. 부장된 기승마구는 철, 청동, 금동과 금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서 무덤 주인공의 사회적 위상을 보여준다. 특히 벽화분에 기승마구가 잘 표현된 말은 출행이나 행렬, 수렵 및 전쟁 장면에 등장하므로 기승마구가 고구려에서 보편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에서 유행한 기승마구와 형태적으로 유사한 마구가 신라와 가야 유적에서 출토되었고, 신라와 가야의 마구 일부는

일본 고분시대 유적에서도 출토되어서 기승마구를 통하여 북아시아와 고구려, 그리고 신라, 가야를 거쳐 일본과의 교류를 살필 수 있다.

## 1) 재갈

제어용 마구는 재갈과 굴레, 고삐로 이루어졌다. 굴레와 고삐는 가죽 등 유기질로 만들어서 남아있지 않지만, 재갈은 금속으로 만들어서 남아있는 예가 적지 않다.

재갈은 재갈쇠와 재갈멈치, 고삐이음쇠 등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자어로 비(轡)라고 한다. 재갈쇠는 말의 입에 물려서 말을 제어하는 것으로, 함(銜)으로도 불려서 넓은 의미의 재갈과 구분한다. 재갈쇠는 말의 앞니와 송곳니 사이 벌어진 틈에 끼워서 재갈쇠의 움직임이 말의 혀를 자극하여 말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동북아시아에서 청동기 시대 이래 재갈쇠는 청동을 주조한 것으로 세 가닥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고구려의 재갈쇠는 철로 만들었고 두 가닥으로 이루어졌다. 각 가닥은 철봉을 접어서 만들거나 꼬아서 만들며 양 끝에는 둥근 고리가 있다. 양쪽의 둥근 고리는 한쪽은 작고 다른 한쪽은 조금 크며, 작은 쪽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두 가닥이 된다. 가운데 연결된 둥근 고리가 말의 혀를 자극하며, 바깥쪽의 조금 큰 고리에 고삐이음쇠가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재갈멈치가 있다. 현재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재갈쇠는 환인 망강루1호 적석총에서 출토된 것으로, 철재갈쇠 한 가닥만 남아 있고, 망강루4호 적석총에서는 차축두(車軸頭)가 출토되어서 차마구용 재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갈멈치는 재갈쇠가 안정적으로 말에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뿔

이나 나무 외에 금속으로도 만들었으며, 형태에 따라서 막대형과 판형으로 나뉜다. 막대형 재갈멈치는 표(鑢)라고 부르며, 대개 뿔이나 나무 등 유기질로 만들어서 남아있는 예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재갈멈치 없이 재갈쇠만 잔존하는 경우 표비(鑢轡)로 추정되며, 차마구에 사용된 재갈의 다수가 표비이다. 판형 재갈멈치는 금속으로 만든 평편한 판으로 만들었으며, 판의 형태에 따라 원형, 타원형, f자형 등 여러 형태가 있다. 판형 재갈멈치는 경판(鏡板)으로 부르기도 하며, 판형 재갈멈치를 가진 재갈을 경판비(鏡板轡) 혹은 판비(板轡)라고 하여 막대형 재갈멈치 재갈과 구별한다. 이외에도 철봉을 구부려 만든 고리형 재갈멈치가 있어서 이를 원환비(圓環轡) 혹은 환비(環轡)라고 부른다. 판형이나 고리형 재갈멈치는 재갈쇠의 바깥쪽 고리와 연결된 고삐이음쇠 사이에 끼어서 재갈쇠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며, 한쪽에 굴레와 연결되도록 연결부속구나 고리가 있어서 재갈이 안정적으로 말에 장착되도록 하였다.

고삐는 남아있지 않고, 고삐와 연결되는 고삐이음쇠만 남아있다. 고삐이음쇠는 재갈쇠와 고삐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여러 형태이다. 철봉한 줄을 구부려서 타원형으로 만들기도 하고(집안 만보정242-1호분), 철봉의 접어서 양쪽에 둥근 고리를 만들기도 하고(평성 지경동1호분), 고삐와 연결되는 부분을 직선으로 만들어서 원형과 삼각형이 결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집안 우산하3241호분), 삼자루모양도 있다(집안 칠성산1096호). 고삐이음쇠 바깥쪽 고리의 여러 가지 모양은 고삐와 잘 연결되도록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고구려 유물 중 금속제 재갈쇠와 고삐이음쇠만 잔존하는 경우 유기질로 만든 막대형 재갈멈치가 잔존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표비로 보고 있다. 고구려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여 유적인 중국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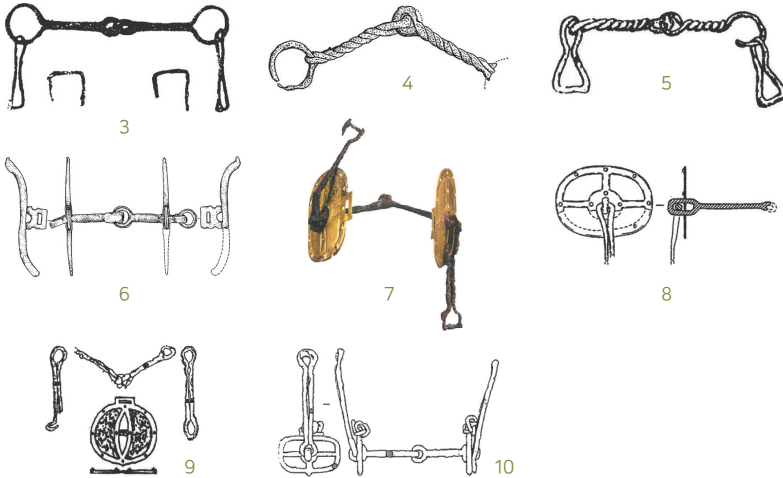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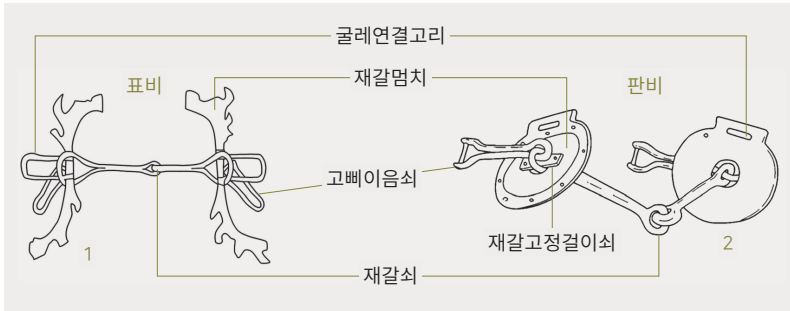


그림2 재갈

- 1. 만보정242-1호분 2. 칠성산1096호분
- 3. 서해리2지구 1호분 4. 임강총 5. 우산하3241호분 6. 석대자산성 서문지
- 7. 장전4호분 8. 만보정1078호분 9. 지경동1호분 10. 오녀산성 철기저장구덩이

수헌 노하심 중층 3호무덤에서 사슴뿔로 만든 재갈머치가 출토되었고, 김해 대성동유적에서는 사슴뿔을 이용한 막대형의 재갈머치가 출토되어서 고구려에서도 뿔이나 나무로도 재갈머치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세기 전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표비는 기슴마구와 공반되지 않아서 차마구의 하나였을 것이다.

고분에서 출토된 표비는 재갈멈치가 남아있는 예는 매우 드물며, 대개는 두 가닥을 이은 이련식(二連式)재갈쇠만 남아있다. 재갈쇠는 주조한 철봉을 이용하거나 철봉을 꼬아서 만들었다. 환인 망강루1호분, 법동리하구비 적석총, 서해리2지구 1호분, 임강총, 집안 우산하3241호분, 심양 석대자산성 서문지에서 출토되었다. 가장 이른 것은 망강루1호분에서 출토된 재갈쇠로, 주조한 것으로 보이는 재갈쇠 한쪽만 출토되었다. 재갈멈치가 잘 남아있는 것은 만보정242-1호분과 석대자산성 서문지에서 출토되었다. 만보정242-1호분 표비는 재갈쇠와 재갈멈치, 고삐이음쇠를 모두 갖추었다. 재갈쇠는 철봉의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 연결하였는데, 바깥쪽 고리는 크고 삼각형에 가깝다. 바깥쪽 고리에 재갈멈치와 고삐이음쇠를 끼었다. 재갈멈치는 f자 형태로 굽은뿔벼슬모양이며, 중간의 구멍 2개에 장방형 고리를 만들어 굴레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고삐이음쇠는 중간이 살짝 들어간 타원형 고리 형태이다. 석대자산성 서문지에서 출토된 표비는 재갈쇠는 주조하여 만든 것으로 재갈멈치는 f자 형태로 굽은 막대형이며, 중간에 굴레와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고구려에서 표비는 이른 시기의 적석총인 망강루1호분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망강루4호 적석총에서 출토된 차축두 등을 고려해볼 때 고구려에서 먼저 출현한 표비는 차마구였을 것이다. 한편, 만보정242-1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태의 재갈멈치는 노하심 중층 11호무덤에서 출토되었고, 고삐이음쇠는 노하심 중층 56호무덤에서 출토되어서 고구려에서 차마구로 재갈을 부장한 것은 부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임강총이나 우산하2100호분에서 출토된 수레부속구인 사람얼굴형상의 차할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금속제 경판비는 주로 4세기 이후의 무덤에서 기승마구와 함께 출토되어서 기승마구와 함께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칠성산1096호분의 재갈은 전체 길이 40.6cm이고, 재갈쇠는 11cm 길이의 막대를 붙여 만들었고, 재갈멈치는 원형 철판에 금동판을 덧대고 원형의 가장가리를 돌아가며 테두리를 덧대어 못으로 고정하였다. 둥근 판의 작은 구멍으로 재갈쇠와 고삐이음쇠의 안쪽 고리를 연결시키고, 이를 고정시키는 가로로 된 고정쇠는 못을 이용하여 판에 고정시켰다. 재갈멈치의 위쪽으로 가로로 긴 장방형 구멍을 내어 굴레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고삐이음쇠는 두 줄을 붙여 만든 것으로, 한쪽 둥근 고리는 재갈쇠와 연결되고, 다른 쪽 둥근 고리는 고삐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와 유사한 재갈이 중국 요령성 조양에 있는 전연시기의 원대자벽화분에서 출토된 바 있고, 경주 월성로가-13호분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서, 4세기 중엽 중국 동북지역과 고구려, 신라 간 교류를 시사한다.

만보정1078호분에서는 재갈 2점이 출토되었다. 1점은 재갈쇠가 남아있지 않고 재갈멈치와 연결된 고삐이음쇠 일부가 남아있다. 재갈멈치는 청동으로 만든 가로로 긴 타원형 판이며, 그 판의 테두리와 연결 구멍 주위에 십자상의 금동테를 덧대었다. 굴레와 연결되는 고리는 없다. 다른 1점은 자세히 보고되지 않았지만, 재갈멈치 테두리를 돌아가며 권운문을 짐작하였고, 굴레와 연결되는 장방형 구멍이 있다.

평성 지경동1호분은 벽화가 없는 유사두칸구조의 석실봉토분으로, 재갈은 각 부품이 분리된 채 출토되었다. 재갈쇠는 이런식이며, 고삐이음쇠는 철봉을 구부려 양쪽에 둥근 고리를 만들고 중간부분은 서로 붙였다. 재갈멈치는 심엽형 판으로 철판에 테두리를 덧대고, 재갈쇠와 고삐이음쇠를 연결시키는 구멍은 양 끝이 뾰족한 타원형이며 중간에 가

로로 고정쇠가 있다.

고구려에서는 표비가 먼저 출현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기승마구의 하나로 판비가 출현하면서 4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표비와 판비가 병존한다. 판비는 칠성산1096호분, 만보정1078호분과 지경동1호분, 그리고 오녀산성과 아차산4보루가 시간적 선후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칠성산1096호분의 재갈은 4세기 중엽, 만보정1078호분과 지경동1호분의 재갈은 5세기 초중엽, 그리고 오녀산성과 아차산4보루의 재갈은 6세기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해볼 때 4~5세기에는 금동제로 장식성이 강한 재갈이 제작되기도 하였으며, 고뼀이음쇠는 여러 형태에서 차츰 양쪽 고리형으로 고뼀이음쇠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외에도 오녀산성과 아차산4보루에서 재갈이 출토되었다. 아차산4보루에서 출토된 재갈은 이련식재갈쇠이며, 재갈머치는 말각장방형 판에 십자형 테두리를 덧대고 상부에 좁은 굴레고리가 있다. 고뼀이음쇠는 철봉을 연결한 것으로 양쪽에 둥근 고리가 있다. 오녀산성의 4기문화층에 해당되는 철기저장구덩이에서 등자와 함께 출토된 재갈은 2점으로, 재갈쇠는 모두 자루 2개를 연결한 이련식이다. 1점은 네모난 고리형 재갈머치이고 다른 하나는 말각장방형 판비이다. 네모난 고리형 재갈머치는 주조한 것으로, 고리 안에 작은 원을 중심으로 한 십자상 구획이 되어있고, 중앙은 작은 원 안으로 재갈쇠의 한쪽이 들어와서 고뼀이음쇠와 연결된다. 고리 위에는 굴레와 연결되는 장방형 구멍이 있다. 장방형 판비는 중앙에 고뼀이음쇠를 연결시키는 고정쇠가 있으며, 굴레와 연결되는 장방형 구멍이 있다.

## 2) 발걸이(등자)

발걸이는 말을 탈 때 발을 딛고 말을 달릴 때 발을 올려놓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말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기승구로, 등자라고 한다. 발걸이는 크게 안장에 연결되는 자루(柄部)와 발을 딛고 오르고 발을 받칠 수 있는 발받침부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발받침부의 형태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뉜다. 발받침부가 둥근 바퀴의 테모양으로 된 것을 윤등(輪鐙)이라고 하고, 신발의 앞축처럼 생겨서 발의 일부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호등(壺鐙)이라고 한다.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는 등자는 윤등이 다수이며, 오녀산성과 아차산<sup>4</sup>보루에서 출토된 것은 호등일 가능성도 있다.

윤등은 만든 재질에 따라서 목심(木芯)등자와 철제등자로 나뉜다. 목심등자는 나뭇가지를 구부려서 발걸이 모양을 만든 후 그 위에 금속판을 덧댄 것으로, 대개는 철판을 덧대는데 금동판을 덧대어서 장식 효과를 크게 한 것도 있다. 칠성산1096호분의 등자는 금동판을 덧대고 둥근 못을 촘촘히 막아서 고정하는 동시에 장식 효과를 내기도 하였으며, 태왕릉의 등자는 금동판을 덧대고 그 위에 투조판을 덧대어 높은 장식 효과를 냈다. 철을 주조해서 만든 철제발걸이는 무덤뿐만 아니라 생활유적에서도 출토되어서 고구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등자는 대개 자루가 긴 형태이지만,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것은 자루가 짧거나 없이 바로 띠와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발걸이의 재질은 시간에 따라서 목심에 금속판을 덧댄 것에서 차츰 철제발걸이로 변화하고, 발받침부의 형태는 하트모양에서 가로로 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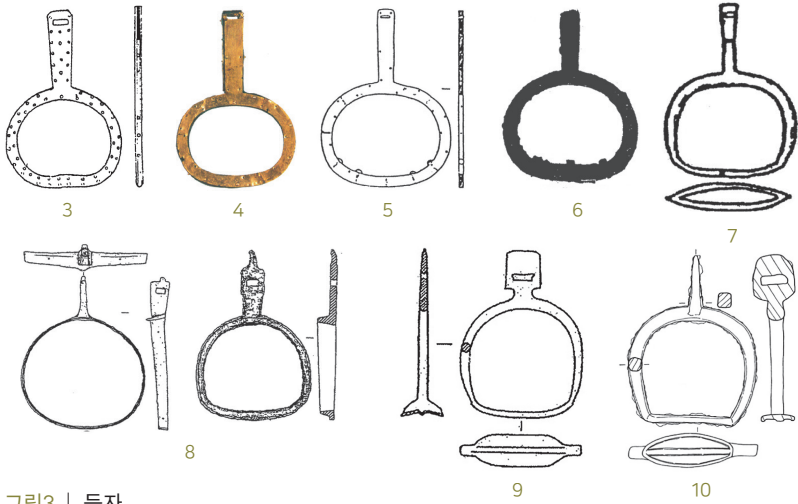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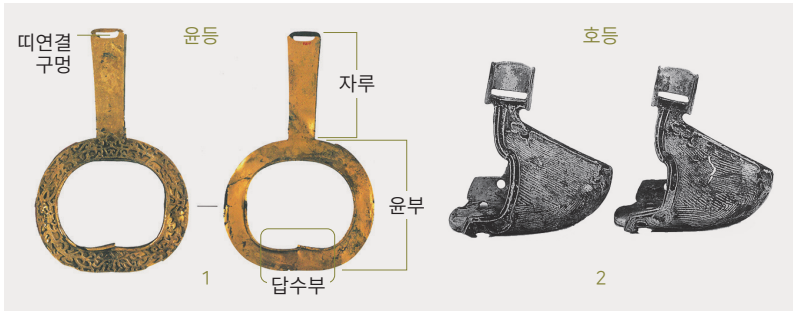


그림3 등자

1. 태왕릉 2. 경주 황오동
3. 칠성산1096호분 4. 장천4호분 5. 만보정1078호분 6. 지경동1호분
7. 하해방대대 8. 오녀산성 9. 고이산성 10. 아차산4보루

원형으로 바뀌고, 말을 받치는 답부는 일자형에서 여러 갈래형으로, 일자형은 못이 없는 것에서 못이 튀어나온 것으로 변화하여 안정적으로 말을 받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등자는 칠성산1096호분에서 출토된 것이며, 장식성이 가장 큰 것은 태왕릉의 등자이다. 발

을 닫는 답수부에 못을 만들어 기능을 향상시킨 금동제등자는 만보정1078호분에서 출토되었고, 지경동1호분의 등자는 철로 만든 것으로 발받침에 못이 5개 있다.

철성산1096호분은 묘실 3기가 있는 다장의 적석총으로, 가운데 있는 묘실의 입구 부근에서 재갈, 안고, 행엽, 운주 등 기승마구 일습이 출토되었다. 등자는 목심금동판피(木芯金銅板被) 윤등 2점이 출토되었다. 나무로 등자의 형태를 만든 후 금동판을 덧씌우고 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금동못을 박았다. 발을 닫는 윤부와, 안장과 연결되는 자루의 길이가 비슷하다. 윤부는 바닥 가운데가 살짝 위로 올라온 하트모양이다. 자루는 바깥쪽으로 가면서 약간 벌어졌고, 자루 끝부분에 끈이 연결되도록 가로로 긴 장방형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을 통해 띠가 안장과 연결된다.

태왕릉의 등자는 출토 위치는 알 수 없으며, 목심금동판피 윤등 1점이 출토되었다. 윤부는 심엽형으로, 가로 길이 13.2cm, 높이 10.8cm이고, 테두리는 폭 2.5~2.7cm, 두께 1.1cm이다. 자루는 길이 13cm, 너비 3.4~4cm로 끝으로 가면서 조금 넓어졌다. 자루 끝에는 끈이 연결되도록 길이 2.5cm 크기의 가로로 긴 구멍이 있다. 나무로 등자의 형태를 만든 후 그 위를 금동으로 감싸고 윤부에는 다시 투조된 금동판을 덧대었다. 투조된 무늬는 사신으로, 좌우 대칭이다. 윤부의 상부에서 자루로 이어지는 부분까지는 용이, 용의 꼬리와 연결되는 윤부의 아랫부분에는 백호가 이어지고, 발 닫는 부분의 아래에는 주작이 머리를 교차하는 모습이다. 윤부에서 자루로 이어지는 상부에는 현무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남아있지 않다. 투조된 사신의 가장자리에는 가는 선을 선각하였고, 몸체에는 빗금무늬를 선각하여 운동감과 생동

감을 더하였다. 투조된 장식판을 고정하는 금동못은 남아있지 않으며, 발 딛는 부분의 테두리 안쪽으로 고정판의 못이 튀어나와 있고, 바깥쪽을 고정시키는 고정판은 남아있지 않다. 태왕릉 출토 등자의 전체 형태는 칠성산1096호분 등자와 유사하며, 현존하는 유일한 투조 장식된 금동의 장식등자이다.

장천4호분은 벽화가 있는 석실봉토분으로, 하나의 분구 안에 석실 2기가 남북으로 나란하게 있는 무덤이다. 등자는 북쪽 석실에서 출토되었다. 나무로 형태를 만든 후 얇은 금동판을 씌우고 금동못으로 고정된 목심금동판피 윤행이다. 윤행은 가로가 조금 긴 원형으로 길이는 13.2cm, 높이는 9.1cm이다. 자루는 길이 11.1cm, 너비 2.5cm이고, 자루 끝의 장방형 구멍은 길이 1.7cm이다. 전체 형태는 만보정1078호분 등자와 비슷하지만, 발 딛는 부분에 못이 없다는 점에서 칠성산1096호분이나 태왕릉 등자와 공통된다.

만보정1078호분은 계단적석총으로 매장부 입구로 추정되는 곳에서 기승마구 일습이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등자는 묘도로 추정되는 앞부분에서 2점씩 두 쌍이 출토되어서 총 4점이 출토되었다. 4점 모두 목심의 금동판을 씌어 금동못으로 고정시킨 목심금동판피 윤행이다. 윤행은 타원형이며, 발을 딛는 부분에 금동못 5개를 박아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자루 끝부분에 가로로 긴 장방형 구멍을 통해서 끈이 안장과 연결된다. 등자의 전체 길이는 24cm이고, 윤행의 길이는 18cm이다.

지경동 1호분과 2호분은 30m 간격으로 자리하는데, 등자는 1호분과 2호분 모두에서 출토되었다. 1호분의 등자는 연도의 서쪽에 있는 벽감 앞에서 한 쌍이 출토되었다. 철제윤행으로, 윤행은 길이 15cm,

높이 11.5cm로 타원형에 가까운 원형이며, 발 딛는 부분에 못을 박았다. 못은 3개로 추정된다. 2호분에서는 연도에서 철제윤등 한 쌍이 출토되었다. 등자의 전체 형태는 1호분 등자와 같으며, 윤부의 길이 16cm, 높이 15cm, 자루 길이 11cm로 1호분 등자에 비해 윤부가 커졌다.

오녀산성 4기문화층 철기저장구덩이에서는 철제등자 2점이 출토되었다. 1점은 윤등이고, 다른 1점은 자루의 방향으로 미루어 호등으로 추정된다. 호등으로 추정되는 것은 전체 길이 24.7cm, 답부의 길이 17cm이며, 답부는 남아있지 않으나 답부와 연결되는 부분에 못이 있다. 자루는 나무에 철판을 덧댄 것으로, 중간에 횡장방형의 구멍이 있어서 안장과 연결된다. 윤등은 목심에 철판을 덧댄 것으로 윤부의 바깥쪽 테두리에만 철판을 덧대었다. 전체 길이 23.3cm, 윤부 길이 18.6cm이다. 42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철제등자는 발을 딛는 부분이 평평해졌고, 자루는 짧은 편이며, 자루의 끝부분에 있는 작은 네모난 구멍을 통해 안장과 연결된다. 전체 길이는 26.2cm, 윤부의 너비는 17.5cm이다.

고이산성 동성 내 서쪽 구릉 소나무 아래에서 출토된 등자는 철제윤등으로, 전체 높이는 17.5cm, 발걸이 부분은 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발 딛는 부분의 길이는 10.5cm이고, 발 딛는 부분의 폭은 4cm로 넓어진 형태이다. 자루 부분이 없이 윤부와 연결되는 네모난 부분에 가로로 긴 네모난 구멍이 있어서 띠와 연결된다.

아차산4보루에서 출토된 철제등자는 주조된 것으로 윤부는 상원하방형이고, 병부는 짧고 띠연결구멍과 윤부의 방향이 직교하여서 호등일 가능성도 있다. 발 딛는 부분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은 고이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하다.

고분과 성곽 내에서 출토된 등자를 비교해보면, 성곽 내에서 출토된 등자의 경우 병부가 짧고, 발을 올려놓고 딛는 부분의 폭이 넓어지는 등 형태 차이가 관찰된다. 이러한 차이는 등자의 형태가 시간에 따라 발을 올려놓고 딛기 편한 방향으로 발전해갔음을 고려해볼 때 시간적 선후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 안교

사람이 말을 탈 때 편하게 하도록 말 등에 얹는 것을 안장(鞍裝)이라 하며, 안장은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성품이 모두 보존되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안장의 구성품 중 고고자료로 남아있는 것은 안교(鞍橋)와 그에 부속된 부품이다. 안교는 말을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안장의 앞뒤에 세운 다리모양의 물건이다. 앞뒤 가리개가 한 세트이며, 앞가리개보다는 뒷가리개가 조금 크다. 안교의 부속품으로는 안교의 테두리와 앉는 부분(座木)을 장식하는 좌목선구(座木先具), 그리고 여기에서 가슴걸이와 뒤걸이를 연결시켜 주는 띠고리(座木先鉸具) 등이 있다. 안교에 남아있는 작은 못구멍과 좌목선구를 통해 안장의 기본틀은 나무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 안교는 주로 고분 부장품에서 확인된다. 칠성산1096호분과 장천4호분, 만보정1078호분과 지경동 1호분과 2호분에서는 기승마구와 함께 안교가 출토되었고, 마선구1호분에서는 좌목선구와 안교가, 우산하152호분에서는 안교 테두리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안교로 미루어 칠성산1096호분처럼 좌목선구가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것과 좌목선구가 일체형인 것이 있는데, 칠성산1096호분과 마선구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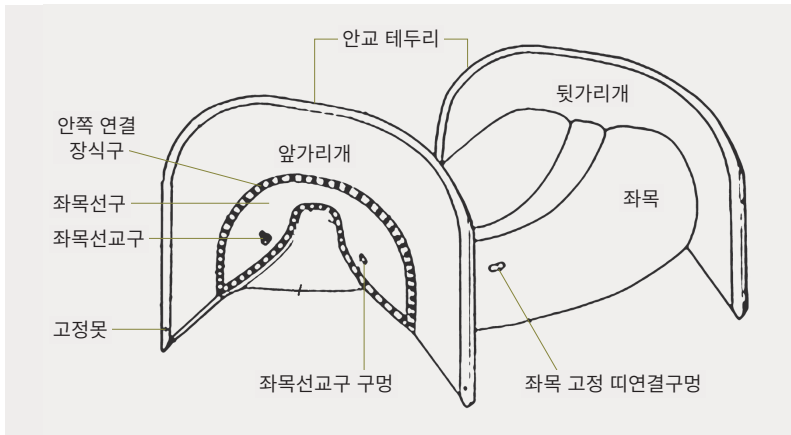


그림4 안교와 부속구

1. 칠성산1096호분 2. 만보정1078호분 3. 우산하41호분 4. 우산하2891호분  
5. 우산하540호분 6. 마선구1호분 7. 지경동1호분 8. 장천4호분

분, 지경동1호분이 전자에 해당되며, 장천4호분과 만보정1078호분은 후자에 해당된다.

칠성산1096호분 2호묘실의 입구에서 출토된 안교는 금동제로 앞가리개와 뒷가리개에 덧댄다리모양의 금동판과 가장자리 테두리가 함께 출토되었다. 앞가리개가 조금 작고 뒷가리개가 조금 크다. 덧댄 금동판은 두께 0.05cm의 얇은 판으로, 금동판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면 폭 3.2cm의 테두리가 있고, 바깥 테두리의 양쪽 끝에 작은 못이 각각 하나씩 있다. 안쪽 테두리에는 각각 금동못 41매가 박혀 있어서, 나무로 된 앞뒤 가리개를 고정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좌목의 앞을 장식하는 좌목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좌목선교구는 1점이 보고되었는데, 반구형의 덮개 위로 D자형 교구가 있다.

마선구1호분의 안교 테두리와 좌목선구는 금동제이다. 안교 장식판은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고, 안교 테두리는 너비 2cm이고, 양 다리 사이의 거리는 15.4cm이다. 안교 테두리로 보고되었으나, 잔존 상태만으로는 형태를 가늠하기 어렵다. 좌목선구는 좌우 각각 1점씩 한 세트가 출토되었고, 그 중간에 좌목선교구와 연결되는 장방형 구멍이 있다. 구멍의 길이는 15cm, 너비 8.5cm이다.

만보정1078호분에서는 안교 4점이 출토되어서 2세트가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 한 세트는 안교 장식판에 말린구름무늬(卷雲文)가 투조되었고, 바깥쪽과 안쪽으로 돌아가는 테두리에는 나무에 고정시켰던 못 구멍이 있다. 전체 길이는 42.5cm이고, 높이는 27.5cm이다. 다른 한 세트는 문양 없는 금동판을 덧댄 것이다. 좌목선교구는 4점이 출토되었으며, 원형 평면의 납작한 방대형으로 고리는 D자형이며, 걸쇠는 ㄱ형이다.

장천4호분 복실에서는 안교의 앞뒤 가리개 한 쌍이 출토되었다. 안교 장식판은 확인되지 않고 안교의 안쪽 테두리와 연결된 금동으로 만든 좌목선구가 확인되었다. 앞가리개의 좌목선구는 일체형으로 가장 자리를 돌아가면서 못으로 고정되었고, 양쪽에 각 하나씩 좌목선교구가 있었던 횡장방형 구멍이 있다. 전체 길이는 32.8cm이고, 높이는 15.2cm이다. 뒷가리개는 안교 바깥쪽 테두리와 안쪽 테두리에 고정된 좌목선구가 출토되었고, 전체 길이는 44cm, 높이는 24.3cm이며, 좌목선교구가 있었던 흔적이 좌우 양쪽으로 2개씩 총 4개가 있어서, 후걸이는 4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 띠장식구

띠장식구는 말을 타거나 부리는 데 필요한 재갈이나 등자, 안장 등을 말에 고정시키거나 연결시키는 데 사용하는 띠를 장식하는 것이다. 서북한의 낙랑무덤에서는 차마구로서 재갈과 함께 행엽이 출토되기도 하지만, 고구려 유적에서 띠장식구는 기슴마구와 함께 출토된다.

띠는 재갈과 말머리를 연결시키는 굴레나, 안장 앞부분에서 끈이 나와 말 가슴 앞쪽으로 늘어지는 앞걸이, 안장을 넘어 가슴에 고정시키는 가슴걸이, 그리고 안장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후걸이로 나뉜다. 앞걸이에는 방울이 주로 매달리며, 가슴걸이에는 등자와 다래가 달리고, 후걸이에는 여러 종류의 장식이 있다. 띠에 매달아 늘어뜨리는 행엽, 띠에 직접 붙이는 운주, 그리고 여러 띠를 서로 연결하고 고정시키는 띠연결 고정구 등이 후걸이 장식구이다. 이외에도 벽화분에서는 사행상 기둥이와 기생이 관찰된다.

## (1) 운주

운주는 띠에 부착하는 장식구로, 띠에 매다는 장식구인 행엽과 구별된다. 운주는 용도에 따라 단순히 띠에 부착하여 장식하는 것과 여러 갈래의 후걸이를 연결하고 고정시키는 띠연결고정금구로 나뉘기도 하는데, 통상 띠에 부착하여 장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운주는 꽃모양이나 반구형의 띠장식판 중앙에 구멍을 뚫고, 금실을 반으로 접고, 접힌 부분에 영락을 끼우고 띠장식판 중앙 구멍에 금실을 넣어서, 양 갈래 금실을 나누어 띠에 고정시킨다. 운주는 띠장식판의 모양과, 띠장식판과 영락 사이에 세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며, 세움식이 없는 꽃모양장식판의 운주는 서대총과 우산하992호분에서 출토된 바 있고, 반구형장식판은 산성하전창1호분에서 출토된 바 있다. 세움식이 있는 꽃모양장식판은 마선구2100호분, 천추총, 우산하540호분에서 확인되며, 반구형장식판의 세움식 있는 운주는 만보정1078호분, 우산하41호분, 장천2호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시간에 따른 고분의 구조 변화를 고려해볼 때 처음에는 세움식이 없는 꽃모양장식판과 반구형장식판이 사용되다가 차츰 반구형의 장식판 세움식이 더해져 반구형의 세움식 있는 운주가 중심이 된다.

꽃모양장식판 운주는 서대총과 우산하992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서대총 운주는 10장 꽃잎장식 운주로 지름 2.3cm이며 영락은 남아있지 않으며, 우산하992호분 운주는 8장과 10장 꽃잎의 장식판 운주로, 8장 꽃잎 운주는 지름 4.2cm로 큰 편에 속한다.

세움식이 있는 꽃모양장식판 운주는 천추총에서 출토되었는데, 꽃잎은 10장이며, 꽃모양장식판 지름은 1.8cm, 장식판 높이는 0.9cm이고, 세움식 높이는 0.6cm로 높지 않다. 장타원형 영락 하나가 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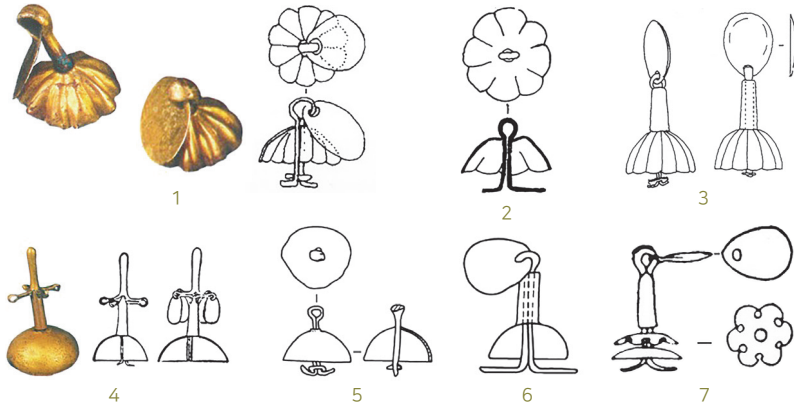


그림5 | 운주

1. 우산하3319호분 2. 우산하3241호분 3. 우산하540호분  
4. 만보정1078호분 5. 산성하전창1호분 6. 우산하3105호분 7. 우산하1041호분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운주는 태왕릉에서도 출토되었다. 태왕릉의 운주는 꽃모양장식판에 세움식이 있으며, 영락이 하나 달린 것과 네 가닥으로 나누어 영락을 단 것이 있다. 네 가닥으로 영락이 달린 장식판은 남아있지 않지만 전체 길이는 6cm로 높은 편이다.

반구형장식판에 세움식이 있는 운주는 마선구1호분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반구형장식판에 금실을 접어 두 가닥이 되도록 하고, 접힌 부분에 십엽형 영락을 단 후에 두 가닥이 원형형 세움식을 통과하여 반구형장식판 위에 구멍에 넣어 두 가닥을 양쪽으로 벌려서 띠에 고정시켰다. 만보정1078호분 운주도 반구형장식판에 세움식이 있는 것으로 34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금동체로 영락 장식의 수에 따라서 하나 달린 것과 셋 달린 것, 그리고 넷 달린 것 세 종류가 있다. 영락이 여러 개 달린 것은 세움식 위에 세 가닥 또는 네 가닥으로 나뉜 원통관을 연결시키고, 가닥마다 영락을 달아서 장식성이 증가되었다. 만보정1078호

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것은 세 가닥 영락이 달린 것이다.

우산하1041호분에서는 금동제로 세움식 운주가 3점 출토되었는데, 2중 장식판이 특징이다. 납작해진 반구형 위에 꽃잎 6장의 화관형 장식 이 올라가고 그 위에 세움식이 있는데, 영락은 원형으로 하나가 달렸다.

## (2) 행엽

행엽은 띠에 매다는 장식구로, 고구려에서는 심엽형 행엽이 중심이 된다. 띠에 매달리도록 횡장방형의 구멍이 있는 띠장식구로, 주로 후겔이 장식에 사용된다. 행엽은 주로 고분에서 출토되지만, 패왕조산성이 나 서울의 수락산보루 등 관방유적에서 출토되기도 하였다.

패왕조산성에서 출토된 것은 심엽형 철판을 돌아가면서 덧띠를 댄 것이다. 동편(銅片)으로 보고된 덧띠는 금동제로 추정된다. 심엽형 테두리 안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비슷한 간격으로 둥근선모양의 덧띠가 있고, 철판과 덧띠는 작은 못으로 고정시켰다. 심엽형 중간 부분에 횡장방형의 띠연결구멍이 돌출되어 있다. 행엽 전체 길이는 10.7cm, 전체 너비는 10.8cm이다.

고분에서 출토된 행엽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심엽형 철판에 테두리를 돌아가며 덧띠를 대고 못으로 고정시킨 것이고, 둘째는 심엽형 철판의 테두리와 테두리 내부에 십자형으로 투조하여 못으로 고정시킨 것, 셋째는 심엽형 철판에 투조된 장식판을 덧대고 그 위에 테두리를 덧대고 못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첫째는 심엽형 행엽으로, 칠성산1096호분, 우산하2891호분과 지경동 1호분과 2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칠성산1096호분의 행엽은 금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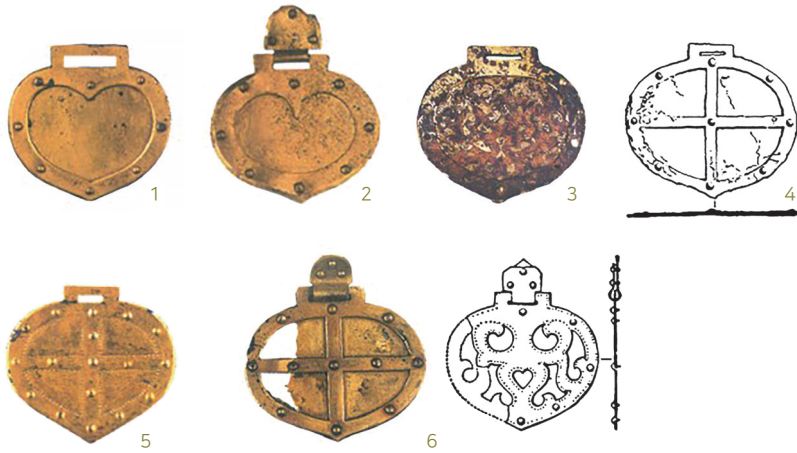


그림6 | 행엽

1. 칠성산1096호분 2. 우산하2891호분 3. 태양릉  
4. 마선구1호분 5. 장천4호분 6. 만보정1078호분

로 9점이 출토되었다. 심엽형 금동판의 테두리에 덧띠를 대고 금동못 8개로 고정시켰고, 상부에는 말띠와 연결되도록 횡장방형 구멍이 있다. 우산하2891호분은 칠성산1096호분과 유사한 구조의 적석총으로, 여기에서 출토된 행엽은 금동판을 겹쳐 만든 것으로 칠성산1096호분 행엽과 유사하다. 상부의 횡장방형 띠연결구멍에는 띠를 고정시켰던 위가 둥글고 바닥이 네모난 띠연결고정구가 있다. 못은 상부에 하나, 아래 양쪽에 1개씩 총 3개로 띠와 고정시켰다. 전체 길이는 7.6cm이고, 너비는 6.5cm이다. 지경동2호분의 행엽은 길이 9.5cm, 너비 8cm이다.

둘째는 십자형 덧띠를 대고 못으로 고정시킨 심엽형 행엽으로, 우산하3105호분, 만보정1078호분, 산성하332호분과 장천2호분, 장천4호분, 마선구1호분, 산성하동대과217호분 등 고구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형태이다. 장천4호분의 행엽은 철제지판에 금동판을 덧댄 것으

로, 점각으로 테두리와 내부에 十자모양을 만들었고, 테두리와 십자를 따라서 16개의 못으로 고정시켰다. 상부에는 띠와 연결되는 횡장방향 구멍이 있다. 길이 9.1cm, 너비 9.8cm이다. 장천2호분 행엽은 금동제로, 길이 8cm, 너비 8cm이다. 동편을 두들겨 중앙에 십자를 투조한 것으로, 상부에 횡장방향 구멍이 있어 띠와 고정시키는 상원하방향 고정구가 있다. 산성하332호분, 마선구1호분과 만보정1078호분의 행엽이 이와 유사하다.

셋째는 테두리 내부에 문양이 투조된 것으로, 태왕릉과 만보정1078호분에서 출토되었다. 태왕릉의 것은 동판 3매를 겹쳐 만든 것으로, 길이 7.2cm, 너비 7.8cm이다. 심엽형 동판 위에 호랑이가 마주하는 투조판을 덧대고 테두리를 더해서 못으로 고정시켰다. 만보정1078호분에서 출토된 장식판은 권운문을 투조한 것으로 권운문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점각을 하였다.

무덤의 연대와 공반유물과의 관계를 볼 때 심엽형 내부에 장식 요소가 없는 것은 십자형이나 장식 투조가 있는 것이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며, 5세기대에는 여러 형식의 행엽이 제작되고 사용되었을 것이다.

### (3) 띠연결고정구

띠연결고정구는 여러 가닥의 띠가 교차되는 곳을 고정시키는 한편, 여러 가닥의 띠를 연결시킨다. 주로 후걸이 고정에 사용되며 재질과 형태에서 장식성을 갖기도 하는데, 고구려에서 출토 예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금동제로 연결되는 띠의 수에 따라서 네 가닥, 다섯 가닥, 여섯 가닥이 있다.

칠성산1096호분에서는 네 가닥과 다섯 가닥을 연결시키는 금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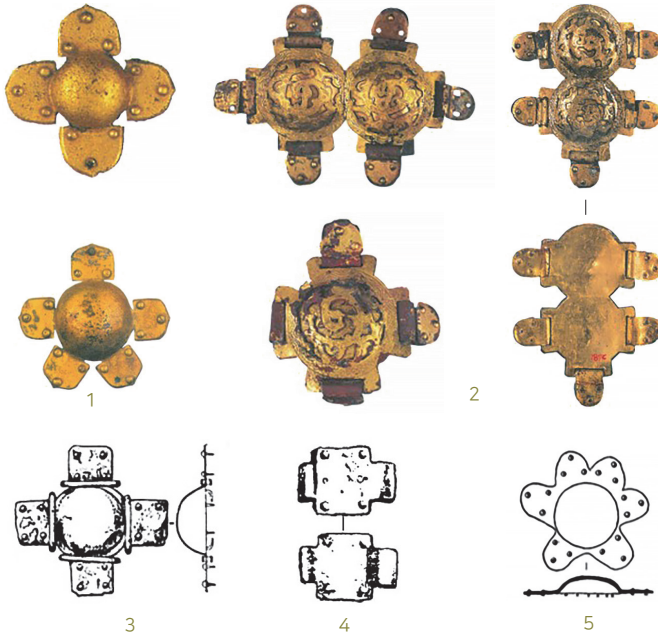


그림7 | 띠연결고정구

- 1. 칠성산1096호분 2. 태왕릉 3. 우산하1041호분
- 4. 마선구1호분 5. 산성하동대파217호

고정구가 출토되었다. 모두 반구형이며, 끝이 뾰족해진 반원형 연결 다리가 4개 달린 것과 5개 달린 것이 있으며, 4개 달린 것은 21점이 출토되었고, 5개 달린 것은 1점이 출토되었다. 연결 다리에는 고정못 3개가 있다.

태왕릉의 띠연결고정구는 네 가닥, 다섯 가닥, 여섯 가닥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금동체로, 반구형에 고리형 고정구가 있다. 이 고정구에 띠가 고정되며, 고정못은 3개다. 반구형은 호랑이 얼굴을 중심으로 둥글게 돌아가며 몸을 투조하고, 띠를 연결시키는 장방형 고리에 띠고정구를 연결시켰는데, 네 가닥은 반구형 중심에 다리를 4개 달았

고, 다섯 가닥과 여섯 가닥은 반구형 2개를 연결시켰다. 반구형 하나의 지름은 5.9cm 내외이며, 2개를 연결한 경우 10cm 정도이다. 높이는 0.9~1cm이며, 고리에 연결된 고정구는 대략 길이 2.2cm, 너비 1.6cm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띠연결고정구 가운데 가장 장식성이 강하다.

우산하1041호분에서 출토된 띠연결고정구는 금동제로 반구형 중심에 방형의 다리가 4개 달렸다. 다리에는 띠를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못이 4개 박혀 있다.

#### (4) 방울

말에 달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울은 금동, 청동, 철로 만들었고, 덮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가 있다.

덮개가 있는 방울은 만보정242-1호분에서 출토되었고, 산성하195호분에서 출토된 것도 덮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보정242-1호분의 덮개방울은 금동제로, 1층 계단 남쪽에서 7점이 출토되었다. 방울은 고리가 달려있는데, 반구형 덮개 중앙의 장방형 구멍에 방울의 고리가 끼워져 끈에 달게 된다. 방울의 전체 높이는 3.1~3.3cm이고, 덮개의 지름은 4.75cm, 방울의 지름은 1.9~2.1cm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방울이 산성하195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산성하195호분에서 덮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울의 전체 높이는 4.4cm로 만보정242-1호분의 방울보다 조금 크다.

청동으로 만든 방울은 우산하540호분, 천추총, 태왕릉에서 출토되었다. 우산하540호분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청동방울 2점이 출토되었다. 몸체는 단면 육각형이며,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형태이다. 방울의 아랫면은 육각형 모서리를 호상으로 연결하였고, 겉면에는 붉은



그림8 | 방울

1. 만보정242-1호분 2. 산성하195호분 3. 천추총 4. 우산하540호분 5. 태왕릉



그림9 | 사행상 기꽃이와 기생

1. 쌍영총 2. 통구12호분 3. 개마총

철이 되어 있다. 상면 중앙에 반원형의 작은 고리가 달려있는데, 이 고리에 철로 만든 고리가 연결되어 끈에 달리게 된다. 방울은 막대모양이며 철로 만들었다. 전체 높이는 4.4cm이다.

천추총의 방울은 청동으로 주조한 것으로 3점이 출토되었다. 전체 형태는 상부가 좁고 아랫면이 넓은 단면 타원형으로, 아래는 약간 만곡된 형태이다. 원래의 형태에서 변형이 있었으며, 2점은 상면의 고리가 남아있으나, 나머지 1점은 상면의 고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전체 높이는 5.1~5.4cm이고, 아래 지름은 2~3.4cm, 상면은 1.8~1.9cm이다.

태왕릉에서는 청동방울 3점이 출토되었고, 각각은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방울의 아랫면이  $\wedge$  형태이며, 위쪽에서 아래로 가면서 넓어져서 종의 횡단면은 타원형이다. 상부 중앙에 뚫린 둥근 구멍에 고리가 연결되었을 것이며, 꼭지의 높이 0.7cm, 구멍 지름 0.2cm이며, 방울의 지름은 2.4~3cm이고, 높이는 5cm이다. 둘째는 방울의 아랫면이 직선인 것으로, 위로 가면서 좁아져서 원추형의 상부가 잘린 형태이다. 방울 아래 지름 2.9cm, 상부 지름 2.5cm이며, 전체 높이 5.2cm이다. 나머지 1점은 상부의 고리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전체 형태는 둘째 방울과 같이 아랫면이 직선적이다. 방울 주위를 돌아가면서 세로로 4행의 글자를 새겼다. 각 행은 3글자로, “辛卯年 好太王 □造鈴 九十六”이란 총 12자가 판독되었고, ‘造’ 앞의 글자는 상부의 ‘一’ 가로획은 분명하지만 그 아래 글자는 판별하기 어렵다.

#### (5) 사행상 기꽃이와 기생

말을 꾸미는 사행상 기꽃이와 기생은 실물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갑옷을 입은 말의 경우 뒷부분에 사행상 기꽃이와 기생이 표현되어 있다.

사행상 기꽃이는 뱀이 기어가는 모양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통구12호분과 쌍영총의 갑옷 입은 말에 표현되어 있다. 통구12호분의 북쪽에 있는 묘실에서는 기마전투 장면에서 창을 찌르는 듯한 자세의 갑옷을 입은 무사가 탄 말의 뒤편에 사행상 기꽃이가 표현되어 있다. 쌍영총에서는 긴 창을 들고 갑옷을 입은 무사가 탄 말도 갑옷을 입고 있고, 안고 뒤편 테두리에서 연결된 사행상 기꽃이는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이다.

기생은 신라의 천마총에서 출토된 예가 있으나 고구려 유적에서 실물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마총의 널방 동쪽 천장 고임부에 묘사된 <묘주출행도>에 묘주 뒤를 따르는 갑옷을 입은 말 뒤편에 여러 색의 깃발로 장식된 기생이 표현되어 있다.

## 2. 수레부속구와 기타 마구

수레가 실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여러 형태의 수레가 등장한다. 통구12호분에 표현된 수레는 두 사람이 끌고, 쌍영총에 표현된 수레는 소가 끈다(그림10). 그렇지만 고분에서 출토된 실물자료 가운데 수레의 차축과 함께 재갈이 출토되고 있어서 차마구로 볼 수 있다. 재갈과 함께 출토되는 수레부속구로는 수레바퀴축이나 수레바퀴축 끝장식과 수레바퀴축 끝장식에 끼워서 수레를 멈추게 하는 것 등이 있다.

고구려에서 수레와 관련지을 수 있는 기물은 성곽에서 출토된 수레바퀴축이 다수이며, 서북한 지역의 낙랑무덤에서 보이는 입형동기, 통형동기, 을자형동기 등 청동제수레부속구나 말머리장식(마면), 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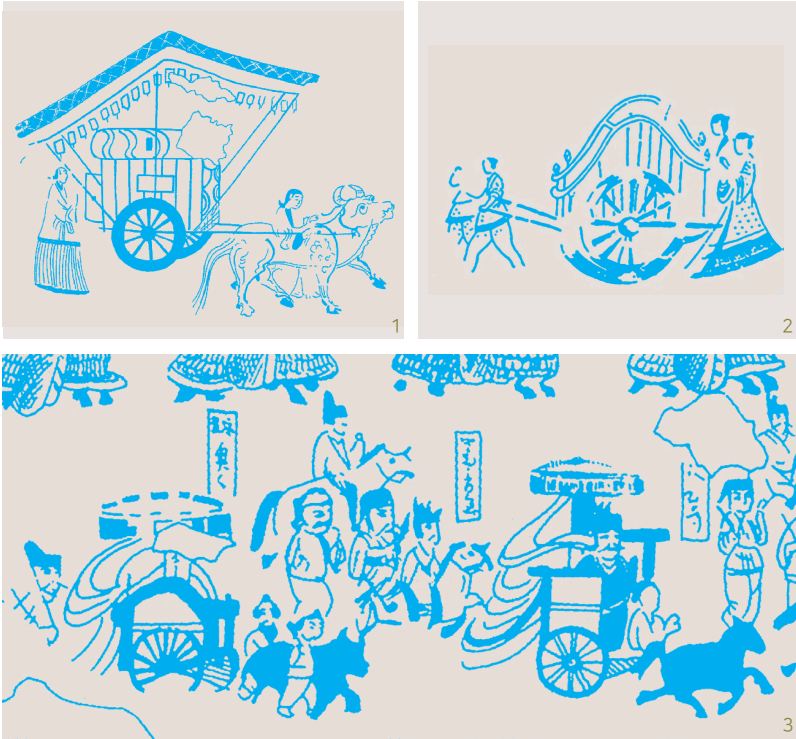


그림10 |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수레  
 1. 쌍영총 2. 통구12호분 3. 덕흥리고분

식인 행엽 등의 장식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른 시기의 초대형 적석총인 환인 망강루 적석총에서는 차축두와 재갈이 출토되었고, 집안 마선구626호분과 임강총, 우산하2110호분에서는 차축두에 끼워서 수레를 멈추게 하는 멈추개가 출토되었고, 우산하540호분이나 산성하725호분에서는 금동제일산대꼭지장식이 출토되어서 고구려에서도 수레의 부장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동안 고구려의 차마구나 수레부속구 자료가 적어서 그다지 관심

을 두지 않았지만, 환인 망강루 적석총의 재갈과 차축두, 집안 마선구626호분, 임강총, 우산하2100호분의 차할로 미루어 기승마구 이전에 차마구가 있었을 것이다. 우산하540호분과 우산하3105호분, 산성하725호분의 금동제일산대꼭지장식 등은 고구려에서 수레가 주요한 교통수단이었음을 시사하며, 안악3호분, 덕흥리벽화분, 통구12호분과 쌍영총에 표현된 수레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고분에 부장된 차축두와 차할, 일산대꼭지의 부장은 저승세계로 나아가는 이동수단으로 부장되었을 것이다.

### 1) 수레바퀴축(차축)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수레부속구는 대부분 수레바퀴와 관련된 것으로, 수레바퀴축 끝장식과 바퀴축 두 종류가 있다.

수레바퀴축 끝장식은 수레바퀴축 끝에 끼우는 것으로 차축두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차관(車輻)으로 부른다.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차축두는 망강루4호 적석총에서 출토된 철제차축두가 있다. 망강루 적석총은 졸본 지역으로 비정되는 환인 지역에서 조사된 이른 시기의 규모가 큰 적석총이며, 특히 4호 적석총은 일렬로 배치된 6기의 무덤 가운데 위치하며, 금을 꼬아서 만든 귀걸이와 유리제이전(耳瑱) 등 귀금속제 장신구가 부장되어서 상위 신분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명왕릉으로 비정하기도 하지만(張福有, 2005), 고고학적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출토상황은 알 수 없지만, 차축두는 한쪽이 좁고 다른 한쪽이 넓은 원통형이며 좁은 쪽은 막혀 있고 뚫려 있는 넓은 쪽을 수레바퀴축에 끼우게 되어있다. 크기는 길이 7.1cm, 너비 4.8~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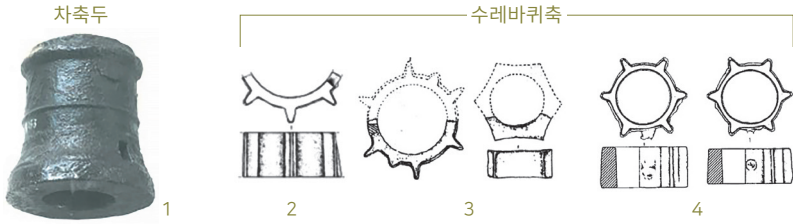


그림11 차축두와 수레바퀴축

1. 망강루4호 적석총 2. 오녀산성 3호건물지 3. 고이산성 4. 오녀산성 서문지

두께 1.7~1.9 cm이다. 넓은 쪽 지름은 성곽에서 출토된 중간 크기의 차축과 비슷하다. 원통의 뚫린 쪽 가까이에 서로 대칭되도록 장방형 구멍이 있어 이곳에 차할을 끼워 수레바퀴를 고정시킬 수 있다.

수레바퀴축에 끼우는 철제차축은 아직 무덤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오녀산성, 폐왕조산성, 고이산성, 석대자산성 등 주로 관방유적에서 출토되었다. 형태는 둥근 고리형에 방사상으로 돌기가 6개 있는 것과 안쪽은 원형 고리이나 바깥쪽은 육각형인 것 두 종류가 있다.

오녀산성의 서문지 근처, 4기문화층에 해당되는 3호건물지, 철기 저장구덩이에서 출토된 차축은 원형 고리에 방사상으로 6개의 돌기가 있는 것으로,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문지 근처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된 것 중 큰 것은 지름 9.5cm, 높이 4.3cm이고 작은 것은 지름 9.1cm, 높이 3.8cm로 2개 모두 큰 편에 해당된다. 3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도 큰 편으로 잔존 지름 10.8cm, 높이 5cm이다. 철기 저장구덩이에서는 같은 형태의 차축 6점이 출토되었다. 큰 것은 지름 10~11.6cm, 길이 4.8~6.2cm이고, 작은 것은 지름 6.9~7cm, 높이 3.5~4.2cm이다. 폐왕조산성에서 출토된 것은 지름 10cm, 길이 5cm 정도로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무순 고이산성에서 출토된 차축은 두 형태이다. 하나는 육각형 차축으로, 서문 바깥 경사면에서 출토되었다. 차축은 원형의 고리 형태이며, 안쪽은 원형이고 바깥쪽은 육각형이다. 지름 5.4cm이고 높이는 4cm로, 고구려에서 출토된 일반적인 차축과 형태가 다르며, 크기도 작은 편이다. 다른 하나는 오녀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태로 고이산성의 동성 내 서쪽 구릉에서 7점이 출토되었다. 주요한 것으로 보이며 원형의 고리 형태로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방사상으로 6개의 돌기가 있다. 지름은 9~10cm이고 높이는 4~5.5cm이며, 차축의 두께는 1~1.2cm이다.

## 2) 차할

차할은 차축두의 구멍에 끼워서 수레바퀴축을 고정시켜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금이나 금동 또는 청동으로 재질을 달리 하거나 여러 형태를 만들어 수레를 꾸미기도 한다. 고구려에서 차할은 관방유적과 중국에서 국내성 시기의 왕릉으로 비정한 바 있는 초대형 적석총에서 출토되었다. 마선구626호분에서는 철제차할이, 임강총과 우산하2110호분에서는 사람얼굴모양의 청동차할이 출토되었다.

마선구626호분의 철제차할은 제대로 추정되는 곳에서 토기 구연부 조각 1점과 같이 출토되었다. 마선구626호분은 계장식으로 축조한 무기단식적석총으로, 중국에서는 1~2세기의 왕릉으로 보고 있는 무덤이다. 차할은 길이 14.8cm, 너비 2cm, 두께 0.8cm의 단면 장방형의 막대를 구부려 만들었다. 막대의 한쪽 끝을 3겹 말아서 차할이 차축두의 구멍에 걸리도록 하였고, 다른 한쪽 끝에는 작은 원형 구멍을 내



그림12 차할

1. 마선구626호분 2. 임강총 3. 우산하2110호분

모아산유적 출토  
차할과 차촉두

었다. 이 작은 구멍에 술을 달아서 수레바퀴축을 장식했을 것이다. 임강총과 우산하2110호분에서는 형태와 크기가 비슷한 청동제차할이 출토되었다. 임강총 청동제차할은 무덤 동쪽으로 13.5m 떨어져 나란히 있는 장방형 제대의 북쪽에서 18m 떨어진 지점에서 서편으로 치우친 돌 틈새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청동제차할의 상부는 삼각고깔모양의 모자를 쓴 사람 형상이며, 두 손을 허리춤에 마주하고 있으며 마주한 두 손까지의 너비는 4.2cm이다. 몸체는 막대형이며, 전체 길이 14cm, 너비 2.1~2.4cm 두께 1cm 크기이다. 막대의 뒷면 손 아래쪽 되는 곳에 X자 부호가 새겨져 있다.

우산하2110호분의 청동제차할은 1983년 조사에서 확인된 2점으로 무덤의 동쪽 중간부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며 현재 집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점은 크기와 형태가 같아서 한 쌍으로 보이며, 전체 길이 18.6cm이고, 너비 2.4cm, 두께 0.9cm 크기의 막대형이다. 상부는 삼각고깔모양의 모자를 쓴 사람 형상이며, 두 팔을 허리춤에 모은 자세이다. 1점은 몸체 하부 막대의 끝부분이 파손되어 구멍의 일부만 남아 있고, 다른 1점은 끝부분이 이등변삼각형처럼 되어 있고, 구멍은 온전

히 남아 있는데, 이 구멍에 술을 달아 장식하였을 것이다.

오녀산성의 고구려 중기에 해당되는 4기문화층의 철기저장구덩이에서 출토된 차할은 길이 11cm, 너비 2.7cm, 두께 1~2cm 크기의 장방체로, 한쪽 면은 평평하고 반대 면은 경사졌으며 경사진 면에 돌기가 있어 차축두 구멍에 걸리게 되어있다. 돌기 아래에 작은 구멍으로 술과 같은 장식을 달아서 수레를 꾸밀 수 있다.

차할이 출토된 마선구626호분, 임강총, 우산하2110호분은 중국에서 국내도성시기의 고구려 왕릉으로 비정하고 있는 초대형 적석총으로, 우산하2110호분을 제외하면 제대로 추정되는 구조물에서 출토되어서 매장과정에서 저승으로 가는 이동수단의 상징으로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강총과 우산하2110호분에서 출토된 사람 형상의 청동차할과 유사한 청동차할은 부여의 왕이나 귀족의 묘역으로 추정되는 길림시 모아산유적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고 있어서 고구려와 부여의 관련을 시사하기도 한다(그림12).

### 3) 일산대꼭지

수레는 고대사회에서 신분을 상징하는 기물의 하나로, 금이나 은, 금동 등 귀금속으로 장식하였는데, 수레에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일산(日傘)도 수레장식 중 하나이다. 일산대꼭지는 일산의 살대 끝에 끼웠던 금속제 장식으로 개궁모(蓋弓帽)로 부른다. 일산대꼭지는 주로 서북한 지역 낙랑무덤에 부장된 수레부속구의 하나로, 처음에는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이 부장되다가 3세기를 경유하면서 차츰 소형으로 명기화된 것이 부장된다. 고구려에서 일산대꼭지장식은 우산



그림 13 | 일산대꼭지  
1. 우산하540호분  
2. 산성하725호분

하540호분과 우산하3105호분, 그리고 산성하725호분에서 출토되었으며 모두 금동제이다. 덕흥리벽화분의 행렬도에 등장하는 두 수레의 일산으로 미루어 실제 고구려에서 일산이 있는 수레가 존재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우산하540호분의 일산대꼭지는 금동으로 만든 것으로, 동쪽 측실에서 청동방울과 운주 등 말장식구와 함께 4점이 출토되었다. 전체 길이는 8.3cm이고, 살짝 굽은 원통형에 일산 천막을 끼울 수 있도록 나뭇가지처럼 고리가 나와 있다. 원통형 내부는 비어있으나, 일부는 일산대 나무 잔편이 남아있다.

우산하3105호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4기의 매장부가 있는 연접된 계단적석총으로, 금동제일산대꼭지의 출토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금동제뿔모양장식의 관(冠)장식구로 추정하여 보고되었다. 일산대꼭지장식은 길이 4cm, 지름 0.9cm의 살짝 굽은 원통형이며, 전체 형태는 우산하540호분의 것과 같고, 크기는 그것보다 작아서 실용기보다는 명기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출토상황은 알 수 없지만, 산성하725호분에서도 금동으로 만든 일산대꼭지장식 4점이 출토되었다. 전체 길이는 8~8.1cm이고, 일산대를 꽂는 구멍의 지름은 1.2~1.5cm이다.

#### 4) 편자와 족쇄

편자는 말의 발굽에 덧대어 말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편자는 고분과 성곽 등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대개 철을 두들겨 만들었다. 전체 형태는 말발굽처럼 U자모양이며, 양쪽이 나뉘어 있는 조합형과 일체형 두 종류가 확인된다.

임강총에서는 편자 1점이 출토되었다. 일체형 U자 형태로 말발굽을 돌아가며 양쪽으로 못을 2개씩 박고 중앙에 못 1개를 박았다. 재갈, 차할과 함께 출토되었으나 기승마구는 확인되지 않아서 수레를 끌었던 말의 발굽에 박았던 편자로 추정된다.

태왕릉에서는 조합형과 일체형 두 가지 모두 출토되었다. 조합형은 초승달형 편 2개를 조합하여 가운데가 빈 공백인 U자형으로, 못을 박았던 구멍이 3개씩 있고, 크기는 길이 8.6~7.5cm, 너비는 2.1~2.8cm이고, 편자의 두께는 0.3~0.4cm이다. 못은 길이 2.8cm로 큰 편이다. U자형으로 연결된 일체형 편자는 양쪽에 못구멍이 2개씩 있다. 편자의 길이는 7.1cm, 편자 사이 너비는 6cm이고, 못은 길이 1.5cm이어서 초승달형 편자보다 작다.

장군총에서 출토된 편자는 일체형으로 U자형 발굽의 양쪽에 작은 못 2개씩 혹은 3개씩 박았다. 크기는 U자형의 양쪽 너비는 10cm이고, 발굽의 폭은 0.4cm이다.

산성하진창145호분에서 출토된 초승달형 편자는 소의 발굽으로 보고된 것인데, 태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가 같다. 크기는 길이 11cm, 발굽의 폭은 1.4~2.2cm이고, 두께는 0.3cm이다.

족쇄는 말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발에 끼우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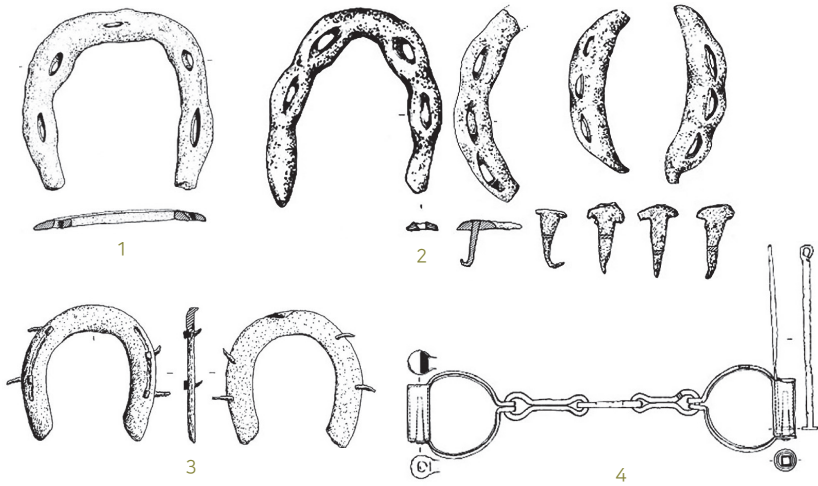


그림14 | 편자와 족쇄  
 1. 임강총 2. 태왕릉 3. 장군총 4. 오녀산성 철기저장구덩이

를 고리로 연결한 것이다. 고분에서 출토되는 예는 확인되지 않으며, 4~5세기에 해당되는 오녀산성 4기문화층의 철기저장구덩이에서 출토되었다. 양발에 끼우는 것은 둥근 고리 형태로 고리의 한쪽에 자물쇠와 열쇠가 설치되어 있다. 자물쇠는 원통모양의 중간에 고정쇠를 끼우고 열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간에는 고리를 3개 연결하였다. 길이는 41cm, 너비는 9.3cm이다.

### 3. 말 갑옷과 투구

마갑주(馬甲冑)는 말갑옷(馬甲)과 말투구(馬冑: 말얼굴가리개)를 함께 부르는 표현이다. 고구려에서 말투구는 우산하992호분에서 출토되었

고, 철제말갑옷편이 단편적으로 출토되어서 말갑옷과 말투구의 구체적인 모습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분, 마선구1호분, 삼실총, 개마총 등의 고구려 벽화고분에 그려진 중무장한 기병의 행렬도나 수렵도, 전쟁장면 등을 통해 말 갑옷과 투구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다.

무덤에서 출토되거나 벽화에 묘사된 말갑옷은 첩판을 이어서 만든 찰갑옷이다. 벽화분에 묘사된 말갑옷은 크게 신체 부위에 따라서 목가리개(頸甲), 가슴가리개(胸甲), 몸통가리개(身甲), 그리고 엉덩이 가리개(尻甲)로 나뉘며, 유적에서 출토된 방형, 장방형, 사다리꼴 등 여러 형태의 첩판을 가죽으로 꿰어서 갑옷을 제작하였을 것이다.

철갑옷편으로 보고된 것 중에 마선구2100호분에서 출토된 잔존 길이 13.8cm, 너비 6.8~8cm 되는 커다란 사다리꼴 판, 중간에 연결구멍이 없는 천추총에서 출토된 길이 9.8cm, 너비 4.6cm의 장방형 판, 태왕릉에서 출토된 갑옷편 중에 길이 11.4~12.2cm, 너비 6.6~6.7cm 되는 장방형 판은 크기로 보아 말갑옷편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우산하3319호분과 산성하전창1호분에서도 말갑옷편으로 추정되는 첩편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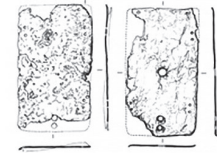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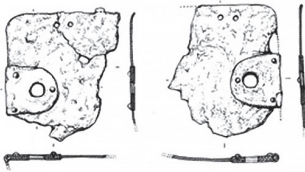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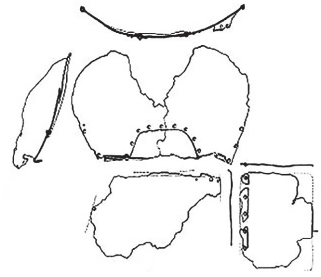
말투구는 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말의 콧잔등에 없어서 장식하는 마면(馬面)과는 구별된다. 고분벽화에 묘사된 말투구는 말의 머리 모양과 크기에 맞추어 첩판을 잘라서 재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의 두 눈 사이에서 콧잔등을 따라 내려오며 말 머리의 상면을 덮는 상판과 머리의 좌우 측면을 덮어 보호하는 얼굴덮개, 얼굴덮개의 좌우에 연결된 말의 볼을 보호하는 볼가리개, 그리고 정수리 부분과 이어지는 귀를 보호하는 챙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산하992호분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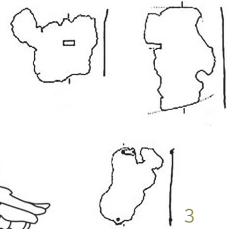
2



4



5



3



6



7



8



9



10



11



12

그림15 말 갑옷과 투구

1·8. 안악3호분 2. 개마총 3. 우산하992호분 4. 태왕릉  
5·12. 마선구1호분 6·9·10. 삼실총 7·11. 쌍영총

서는 얇은 철판으로 제작된 6개 잔편이 출토되었고, 그중에 상부가 둥근 판은 말투구의 쉹에 해당되는 것으로 길이 14cm, 너비 25cm이며, 얼굴가리개는 2개의 판을 못으로 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 형태는 가늠하기 어렵다. 태왕릉 출토 반원형의 연결편이 있는 잔존 길이 6.3cm, 너비 5.3cm 되는 철판은 말투구일 가능성이 있다.

고분벽화에 묘사된 말갑옷은 얼굴덧개와 쉹, 불가리개 등이 분명하게 묘사되었다. 특히 쉹은 반원형과 중앙 반원형 좌우에 반원형이 덧붙여진 두 형태가 있다. 안악3호분이나 약수리벽화분의 말투구가 반원형으로 우산하992호분과 같은 형태로 추정된다. 반면, 덕흥리벽화분, 통구12호분과 마선구1호분, 삼실총, 개마총 등에서는 반원형 좌우에 반원형이 덧붙여진 형태의 말투구가 묘사되었다. 무덤의 구조와 벽화 내용에 따라 볼 때 반원형 쉹이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4. 고구려 마구의 변천과 그 의미

### 1) 마구의 변천

고구려에서 기승마구는 주로 4세기 이후의 고분과 성곽 유적에서 출토되지만, 이른 시기 적석총에서 재갈쇠, 차축이나 차축두, 차할이 부장되기 시작하여서 차마구가 먼저 등장했다고 볼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가장 이른 마구는 환인 망강루1호 적석총에서 출토된 재갈쇠 한 쪽편이고, 망강루4호 적석총에서는 철제차축두가 출토되어 일찍부터 말

이 끄는 수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구 구성품이 고르게 출토되지 않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줄 만큼 다양하지 않지만, 무덤의 구조와 공반되는 유물 등을 결부시켜 볼 때 4~5세기의 고분에 부장된 등자나 운주, 행엽은 여러 형태가 있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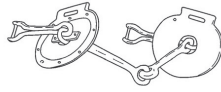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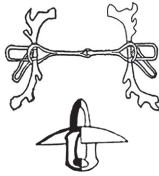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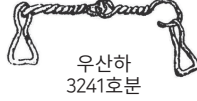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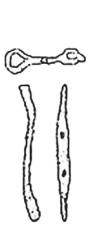
등자는 기승마구의 지표가 되는 마구의 하나로, 고구려에서 가장 이른 등자는 칠성산1096호분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 고분에서는 재갈과 금동제 등자와 안고, 그리고 행엽과 띠연결고정구 등이 출토되어서 기승마구 일습이 부장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와 유사한 부장 양상은 만보정1078호분에서도 확인된다.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만보정1078호분에서는 기승마구가 두 세트분 부장되었고, 그중 한 세트는 투조장식이 된 것이다.

칠성산1096호분과 만보정1078호분은 부장유물에 따라 선후관계가 인정되는 무덤으로, 두 무덤에 부장된 등자는 모두 나무로 형태를 만들고 금동판이나 철판을 덧댄 목심등자이다. 칠성산1096호분 등자는 윤부 형태가 하트형에 가깝고 발 딛는 부분에 못이 없지만, 만보정1078호분 등자의 윤부는 가로가 긴 원형에 가깝고, 발 딛는 부분에 못이 박혀 있어서 칠성산1096호분의 등자보다 기능적으로 발전된 형태이다. 등자의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볼 때 장천4호분의 등자는 목심에 금동판을 덧댄 것으로 가로가 긴 원형 윤부이지만, 발 딛는 부분에 못이 없어서 칠성산1096호분과 만보정1078호분 사이에 위치한다. 한편, 자루가 짧고 발 딛는 부분이 넓어졌지만 두 가닥으로 갈라진 철제 등자는 등자의 기능적 향상을 고려해볼 때 가장 늦은 형태로 주로 성곽 유적에서 출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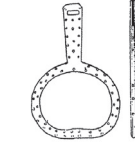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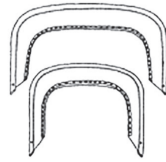
기승마구와 차마구 병행기

1단계 차마구 중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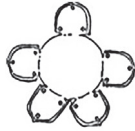
2단계 장식마구 부장 유행기



망강루 적석총



서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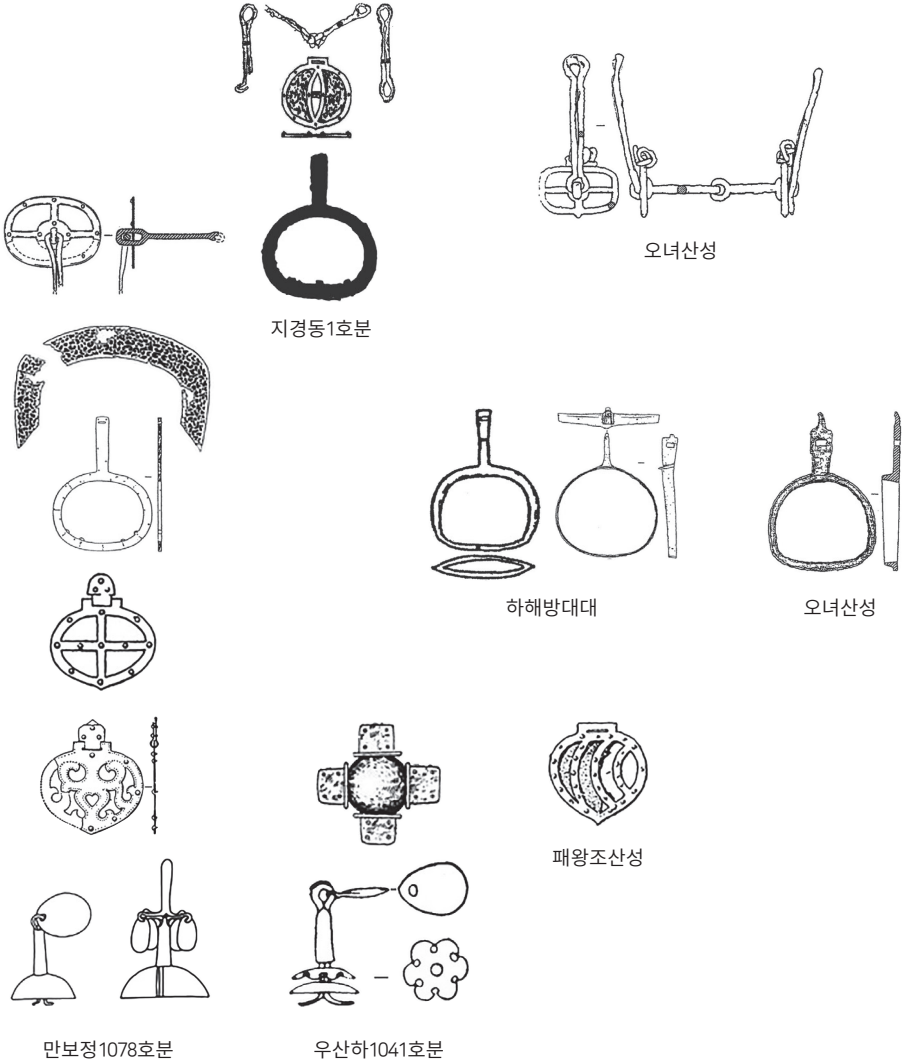


4세기

5세기

그림16 | 고구려 마구의 변천

3단계 실용마구 중심기



6세기

고구려의 행엽은 심엽형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심엽형 내부의 무늬에 따라 무늬가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칠성산1096호분의 행엽은 무늬가 없고, 만보정1078호분의 행엽은 내부에 十구획이 있는 것과 투조무늬판을 덧댄 것 두 형태가 공존한다. 따라서 무늬가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앞서 등장하였고, 내부에 十자 구획이나 투조무늬는 동시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덧판에 점각으로 十자를 만든 장천4호분의 행엽이나 무늬를 투조한 것이 있는 태왕릉의 행엽이 칠성산1096호분이나 만보정1078호분 행엽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운주도 4세기에 들어 부장되기 시작하여 기승마구와 함께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운주는 입식이 없는 것이 앞서고, 장식판은 꽃잎이 있는 것과 반구형이 공존하다가 차츰 반구형에 입식이 있는 것으로 변화한다. 동시에 영락이 달리는 가짓수도 하나에서 여러 개로 변하여 장식성이 강조된다. 대개 5세기 이후의 무덤에서는 입식이 있는 반구형 운주가 유행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른 마구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고구려에서 마구는 세 단계의 변화를 겪는다.

1단계는 차마구가 중심이 되는 3세기까지의 기간으로, 아직 기승마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1세기를 즈음하여 조성된 환인 망강루 1호 적석총의 재갈쇠와 4호 적석총의 차축두, 그리고 출토위치를 알 수 없는 재갈멈치 등으로 미루어 일찍부터 차마구 부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분에서 출토되는 차축두나 차축 혹은 재갈 등의 차마구는 주검이 저승으로 나아가는 이동수단으로서 차마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중원 왕조뿐 아니라 북방민족에서 공통된 사후관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차할은 2세기경에 조성된 초대형 적석총인 마선구626호분에서 출토

되었고, 3세기 말경으로 비정되는 임강총이나 우산하2110호 적석총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의 사람얼굴형상 청동차할이 출토되었다. 차축두는 부여족의 무덤으로 보고 있는 노하심 중층 목곽묘에서도 출토된 바 있고, 부여의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으로 보고 있는 길림시 모아산 목곽묘에서 출토된 사람얼굴형상 청동차할은 임강총이나 우산하2110호분과 유사하여 고구려 차마구 등장을 부여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차마구와 함께 출토되는 철제재갈은 고리 2개를 이어 만든 이련식 재갈쇠와 고삐이음쇠로 구성된 것으로, 재갈멈치는 만보정242-1호분과 고령묘자고분에서 출토된 것이 전하지만 대개는 남아있지 않다. 노하심 중층유적의 목곽묘에서 녹각이나 뿔로 만든 재갈멈치가 출토된 바 있어서 고구려에서도 나무나 뿔 등의 유기질로 재갈멈치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는 기승마구가 출현하여 크게 확산된 4~5세기로, 재갈뿐 아니라 안교와 등자, 말띠를 꾸미는 운주, 행엽, 띠연결고정금구 등이 주로 무덤에 부장된다. 또, 철제 갑옷과 투구와 함께 마갑주 등이 등장하므로 고구려에서 기승마구의 출현은 중장기병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금속제 기승마구가 출현하여 무덤에 부장되기 시작하는 4세기와 장식성이 강조되며 그 수가 늘어나는 5세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 기승마구의 출현에는 중국 동북지역 모용선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금속제 기승마구의 부장은 모용선비 무덤의 커다란 특징으로, 4세기 전연과의 전쟁이 계기가 되어서 고구려에서도 기승마구가 출현하였을 것이다. 4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는 칠성산1096호분에 부장된 경판비와 안교, 등자, 행엽과 띠연결고정구는 중국 조양의 전연 시기에 조성된 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경판비는

조양 요이영자9001호분과 원대자벽화분, 안교와 등지는 조양 12대전 창88M1호분, 안양 효민둔154호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적으로 유사하여 고구려의 기승마구는 중장기병과 함께 전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아마도 차마구를 대신하여 기승마구가 저승으로 인도하는 이동수단으로서 부장되었을 것이다.

4세기 말을 거쳐 5세기에 들어서면 기승마구는 고구려식으로 변용되고 기능이 향상되는 등 발전이 있었다. 장식성이 최고에 달한 기승마구는 태왕릉에서 출토된 등자와 행엽 그리고 띠연결고정금구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기승마구의 복수부장이 행해지기도 한다. 만보정1078호분에는 2세트의 기승마구가 부장되었는데, 한 세트는 투조장식이 없지만, 다른 한 세트는 투조장식이 있는 것이다. 장식성이 부가된 기승마구의 부장은 5세기 후엽의 우산하1041호분에서도 관찰된다. 따라서 이 단계의 기승마구는 재질과 수와 장식에서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상징적 위세품인 한편, 차마구를 대신하여 피장자를 저승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동수단으로 부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마총 벽화의 묘주 뒤를 따르는 장식된 말이 그러한 관념이 잘 보여준다.

3단계는 고분에서 마구의 부장은 확인되지 않고, 주로 성곽을 포함한 생활유적에서 차마구와 함께 기승마구가 출토된다. 6세기 이후의 유적에서 출토된 기승마구나 차마구는 철로 만든 것이어서 2단계에서 보이는 재질과 장식에서 신분을 과시하였던 위신재로서 상징적 기능도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실생활에 사용된 생활마구로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곽 등 생활유적에서는 판비보다는 표비가 다수를 점하며, 등지는 고분에 부장된 등자와 달리 자루가 짧거나 없으며, 윤부도 타원형보다 말각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따라서 이동과 운송 수단으로서

기승마구와 차마구가 계속 사용되었을 것이다. 6세기 이후 벽화분이 생활풍속과 관련된 제제가 사라지는 대신 무덤을 지키는 방위신이자 수호신으로 사신을 주 제재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차마구나 기승마구의 부장이 사라진 것도 죽음을 바라보는 관념의 변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 2) 고구려 마구의 확산과 그 의미

고구려에서 마구는 차마구로서 무덤에 부장되었고, 차마구의 부장은 장송관념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관념은 일찍부터 중국과 북방초원 지대에서 관찰되며, 그 가운데 부여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서 고구려에서 차마구 부장에 대한 장송관념은 부여와 관련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4세기가 되면 차마구 부장이 줄어들면서 금속제 기승마구의 부장이 크게 유행한다. 동시에 철제 갑옷과 투구 그리고 말 갑옷과 투구가 함께 부장되면서 무사와 말이 갑옷으로 중무장한 기병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금속제 기승마구와 갑옷은 철로 만든 것이 다수이지만, 일부 무덤에서는 금동으로 만들거나 형태나 무늬 등 장식성이 강조되면서 기승마구의 부장은 장송관념의 표현이자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한 위세 품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향은 5세기까지 지속되었다.

고구려의 기승마구와 유사한 양상이 영남 각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영남 지역에서 기승마구는 경주 월성로, 부산 복천동, 김해 대성동 등 4세기대 고분에서 판비와 등자, 행엽 등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중 경주 월성로가-13호분의 재갈은 판형 재갈멈치를 가진 판비인데, 고구려의 칠성산1096호분 재갈멈치와 같은 형태로, 신라의 기승마구에 고

구려의 영향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이희준, 1996). 마찬가지로 부산 북천동과 김해 대성동, 경주 황남동, 황오동의 목곽무덤이나 적석목곽 무덤에서 목심등자가 출토되었다. 초창기의 등자는 전면에 철판을 덧대거나 자루와 윤부가 만나는 부분 등에 일부 철판을 덧댄 것으로, 중국 동북지역 전연대 무덤에 부장된 것과 유사하고, 일부는 고구려 무덤에 부장된 것보다도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행엽이나 운주, 띠고정연결구의 형태도 고구려 기승마구와 특징을 같이한다(강현숙, 2012).

이렇듯 영남 지역에서 4세기 이후 출현하는 금속제 기승마구가 고구려의 것과 서로 형태가 유사한 것은 고구려가 신라, 가야로의 마구 확산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영남 지역으로 기승마구가 확산되는 주요 계기는 <광개토왕릉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400년에 고구려의 보병과 기병 5만 명이 신라를 도와서 가야와 왜를 쫓아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광개토왕 군대의 남정(南征)이 중장기병과 함께 금속제 기승마구 확산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5세기 이후가 되면서 신라와 가야 각 정치체에서 높고 큰 분구를 가진 무덤을 조성하고 다량의 부장품을 부장하는데, 그 가운데 금, 금동, 은으로 장식한 장식성이 강조된 기승마구의 부장이 두드러진다(강현숙, 2012). 신라에서 가장 이른 고총인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등자는 고구려 만보정1078호분 등자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며, 황남대총 북분에 부장된 등자는 칠성산1096호분과 태왕릉에서 출토된 등자와 유사하지만, 비교적 낮은 단계로 비정되는 천마총에는 청동제, 철제 등 여러 점의 등자가 부장된다. 그 가운데 황남대총 남분 등자와 유사한 것도 있고, 철제등자는 발 딛는 부분이 두 갈래로 나뉘어 기능적으로 고려된 등자도 있어 고구려 등자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행엽이나 띠연결고정구 중에는 옥층이나 야광패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하는 등 신라식으로 변용이 일어났고, 특히 편원어미형의 행엽은 신라식 행엽이 되어서 신라의 영역 확대에 따라 영남 각지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가야 지역에서도 5세기 후반이 되면서 가야식으로 변용이 일어나는데, 검능형(劍稜形) 행엽이 대표적이다.

금속제 기승마구의 부장은 북방 선비족의 한 갈래인 모용선비가 세운 전연의 무덤에서 두드러지고, 전연과의 관계 속에서 기승마구가 고구려에 유입되었다. 고구려의 기승마구는 재질과 형태에서 장식성이 강조되어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위세품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신라, 가야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기승마구가 확산되면서 금속제 기승마구가 재질과 장식성에서 피장자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위세품으로서 고분에 부장되었다. 4~5세기의 고구려 고분에 기승마구가 부장되었듯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신라와 가야의 기승마구도 중장기병과 함께 고분에 부장되었다. 그리고 기승마구는 중장기병과 함께 영남 각지로 확산되었고,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본 전방후원분의 중요한 부장품이 되었다.

4~6세기 걸쳐 고구려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의 크고 높은 무덤에서 금속제 기승마구 부장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피장자가 저승으로 가는 데 필요한 이동수단의 의미로서 장송관념의 표현이며, 다른 하나는 중장기병과 관련하여 피장자의 정치·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위세품으로서의 상징적 표현이다. 위세품의 하나로 재질과 형태에서 장식성이 강조된 장식마구는 5세기가 되면 무덤의 높고 큰 규모, 나라마다의 특징적 구조와 함께 삼국의 독자적인 기마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 강현숙·양시은·최종택 지음,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 2020, 『말 갑옷을 입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리광희, 2005, 『고구려유물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서 34(고구려유물)』, 진인진.
-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중은·이경미·정동민 엮음, 2020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I: 혼하-요하 중상류』,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0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X: 심양 석대자산성』,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 압록강 중상류 1(환인)』, 동북아역사재단.
- 강현숙, 2012, 「高句麗 古墳과 新羅 積石木槨墳 交叉編年에서의 몇가지 論議」, 『한국상고사학보』 78.
- 孫璐, 2012, 「고대 동북아시아 차마구와 기마구의 변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계현, 2005, 「桓仁과 集安의 고구려 갑주」, 『동북아역사논총』 3.
- 이희준, 1996, 「경주 月城路 가-13호 積石木槨墓의 연대와 의의」, 『碩晤尹容鎮 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9, 『吉林集安高句麗墓葬報告集』, 科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吉林省博物院 編, 2010, 『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石臺子山城』, 文物出版社.

李新全, 2008, 『高句麗早期遺存及其起源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張福有, 2007, 『高句麗王陵通考』, 香港亞洲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集安禹山540號墓清理報告」, 『北方文物』2009-1.



# 생업도구 및 생활도구

1. 생업도구
2. 생활도구



# 생업도구 및 생활도구

김재홍 |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고구려의 생활문화는 주로 고분벽화에 묘사된 일상생활과 건물, 부엌, 창고 등을 통해 밝히는 연구(전호태, 2016)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유적 출토 자료와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에서 고구려 관방유적과 생활유적 등이 조사되면서 실생활과 관련된 유물의 출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관방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무기와 생업 및 생활 도구로 나눌 수 있으며, 무덤유적보다도 생업 및 생활 도구의 출토가 두드러진다. 고구려 관방유적은 성벽과 더불어 주거지와 집수지 등의 조사를 통해 상당한 양의 철제도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생업도구 중에서 농경도구는 고구려 농구의 조합을 통해 농경생활을 유추할 정도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제, 신라, 가야의 농구(천말선,

1994; 홍보식, 2001; 김재홍, 2011)는 주로 무덤유적에서 발견되어 의례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구려 농구(東潮, 1999; 김재홍, 2005; 東潮, 2005; 服部敬史, 2012; 이동건, 2022)는 생활유적에서 출토되어 사용 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구려 농구는 전통시대 농구의 조합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삶기-김매기-걷기 등의 작업을 복원할 정도로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고구려 농구의 형태와 사용방식은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농구의 모범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고구려식 농구로 정의하여 주변 국가나 지역의 농구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어구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고 있으며, 어구 중 세 갈래작살은 창이라는 무기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어구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아직 자료의 출토량은 부족하지만 고구려식 작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어구가 출토되어 그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생업도구에 비해 지금까지 출토된 고구려 유물의 수량이 적고 그 용도가 규명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아직까지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도구라는 범위 자체가 넓기도 하지만 고구려의 생활문화를 기록으로 알기 어려워 연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고분벽화에 보이는 생활도구 그림을 통해 생활상을 추정하기도 하지만 출토유물과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활도구 중에서 조리도구, 건축도구, 운반도구 등은 연구의 첫발을 디디고 있다. 특히 조리도구는 철제부뚜막의 분석을 통해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부뚜막 그림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고구려식 부뚜막이 우리 전통시대 부뚜막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생업도구와 생활도구는 고구려식이라 할 정도로 일정한

규격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백제, 신라, 가야에 영향을 끼쳐 삼국의 생활문화가 유사성을 가지게 하였다. 고구려에서 형성된 생활문화는 삼국 통일 이후에도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고구려의 삼각형쇠보습은 통일신라와 발해-고려-조선을 거치면서 기본형태를 계승하고 있으며, 온돌과 부뚜막도 우리 전통문화에 스며들어 있다.

## 1. 생업도구

### 1) 농구

고구려의 철제농구는 보습, 一자형쇠날·U자형쇠날·괭이 등의 갈이농구, 쇠스랑과 같은 삶기농구, 철서와 같은 김매기농구, 그리고 낫과 같은 걷이농구로 구성되어 있다. 고구려에서는 갈이-삶기-김매기-걷이 작업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갈이농사에 쟁기가 이용되고, 흙을 부수는 작업에 쇠스랑을 이용하는 농작업은 고구려 지역에서 널리 확인되며, 이러한 전통은 조선 후기 김홍도의 풍속화에서도 확인된다(국립중앙박물관 외, 1995).

#### (1) 괭이

괭이는 일반적으로 땅을 일구고 파는 데 사용하는 농구로서 주조괭이, 단조괭이, 철괭(鐵鑿)이라고도 한다. 주조괭이는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경부터 나타나는데, 기원 전후 단조괭이가 보급되면서 거



그림1 고구려의 괭이

1·2. 구리 아차산4보루 3. 환인 미창구장군묘  
4. 집안 환도산성 5·6. 환인 오녀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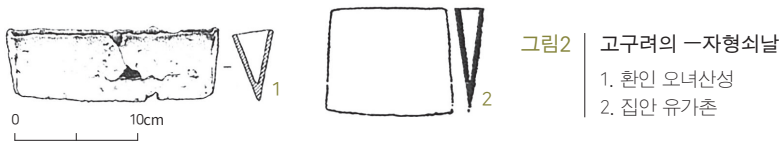
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주조괭이는 연나라 철기의 영향을 받은 연화보-세죽리 철기문화(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편, 1977)의 농구로서 주조로 만든 구멍자루괭이, 원시호미(長柄鋤), 낫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영변 세죽리와 위원 용연동 유적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계 철제농구는 고구려가 국가를 건설하기 이전 단계인 원고구려 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는 고구려 지역에서 한의 철기문화와 관련되는 단조괭이가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이후 널리 보급된다. 단조괭이는 무순 고이산성(高爾山城), 환인 오녀산성(五女山城), 구리 아차산4보루 등의 관방유적뿐만 아니라 미창구(米倉溝)장군묘, 집안 산성하(山城下)M191호묘, 동대파(東大坡)M356호묘, 하활룡촌(下活龍村)M8호 적석총, 태왕릉, 초산 운평리8호 적석총, 시중 풍청리33호 적석총 등의 무덤에서도 출토되었다.

주로 산성과 무덤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단조괭이는 ㄱ자형의 나무자루에 끼워 팽이, 호미, 자귀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크기 13cm 이상은 팽이로, 그 이하는 자귀로 사용하였다. 실례로 창녕 교동3호분에서는 ㄱ자 형태로 구부러진 쇠자루에 고정시킨 철부가 출토되어 자귀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한다. 작은 것은 호미와 같이 김을 매거나 자귀로서 목기를 제작하는 공구였고, 큰 것은 팽이로 이용되어 경작지를 갈았을 것이다(김재홍, 2001). 주목되는 사실은 기원 이후에 고구려에서는 주조괭이가 사용되지 않고 단조괭이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백제·신라·가야 지역에서 단조괭이와 주조괭이가 모두 사용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一자형쇠날

一자형쇠날은 평면형태가 ‘一’자형의 쇠날을 가진 농구로서 나무자루의 착장방법에 따라 삼, 팽이 등으로 사용되었다. U자형쇠날이 나무삽의 날 부분 전체를 감싸는 농구라면, 이것은 경작면에 접촉하는 나무삽의 일정 부분만 철기를 사용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U자형쇠날에 앞서 사용되었으며, 곧 U자형쇠날로 대체되었다. 一자형쇠날은 그 길이와 너비의 비율에 따라 두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I식은 세장방형으로 길이보다 너비가 넓은 형태이며 환인 오녀산성(그림2-1)과 집안 유가촌(劉家村)에서 출토되었고, II식은 정방형으로 길이와 너비가 거의 같은 규격이며 집안 유가촌(그림2-2)의 것이 있다.



한일 일자형쇠날과 그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한 철제농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U자형쇠날에 앞서 3세기 이전에 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발견된 무순 고이산성, 환인 오녀산성, 집안 유가촌 등의 지역은 모두 압록강 이북 지역이다. 이로 보아 일자형쇠날은 고구려 초기에 한대 철기의 영향으로 짧은 기간에 사용되었다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오녀산성 출토품은 3기문화층에서 한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과 함께 발견된 바 있다.

### (3) U자형쇠날

U자형쇠날은 평면형태가 U·凹자형의 쇠날을 가진 농구로서 나무 자루의 착장방법에 따라 따비, 삽, 가래, 화가래로 사용되었다. 고구려의 U자형쇠날은 남부 지역에 비해凹자형이며, 고구려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날과 자루가 평행하게 연결되어 요즈음의 삽날, 따비날, 가래날로 사용하기도 하고, 날과 자루가 직각으로 연결되어 화가래와 같이 땅을 파는 기능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가래의 기능보다 따비나 가래의 역할을 주로 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유물은 무순 고이산성, 단동 호산산성(虎山山城), 집안 동대자(東台子)유적, 동대자 부근의 고묘, 교구(郊區) 승리유적(勝利遺蹟), 중강토성리, 서울 구의동보루, 몽촌토성 88-2호주거지, 구리 아차산4보루, 시루봉보루, 청원 남성골유적 등의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몽촌토성 88-2호주거지는 성벽 정상부에 있는데 방어와 관련된 시설로 보이며, 고구려 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생활유구로 추정된다. U자형쇠날은 낙랑 지역에 해당하는 운성리토성, 운성리 가말퇴2호목곽묘, 양동리5호전실묘에서도 출토되고 남부 지역에서는 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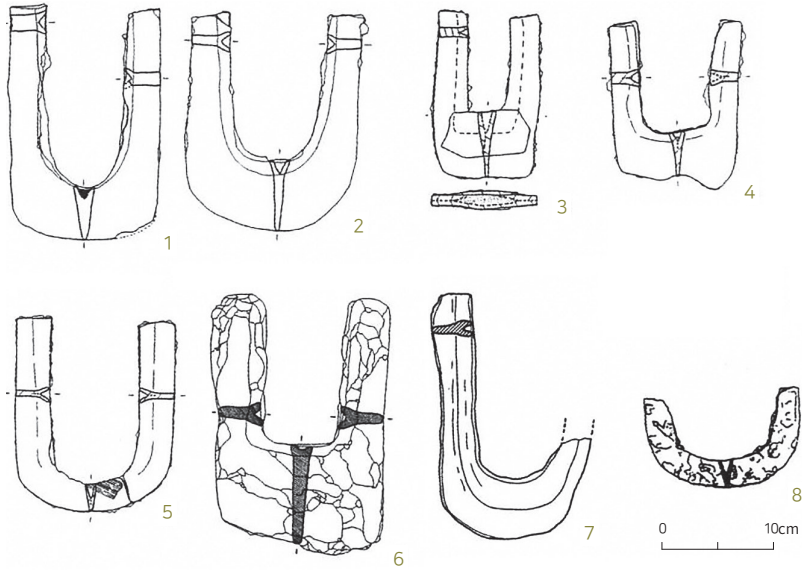


그림3 | 고구려의 U자형쇠낫

- 1·2. 서울 구의동보루 3. 구리 아차산4보루 4·5. 구리 시루봉보루  
6. 서울 몽촌토성 88-2호주거지 7. 무순 고이산성 8. 집안 승리유적

기경 목곽묘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양동리5호에서 출토된 U자형쇠낫은 고구려의 전형적인 것과 동일한 꺾자형으로 이 지형에 맞는 농구로 추정된다.

U자형쇠낫은 그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형식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낫이 벌어지는 각도에 따라 U자형의 I식과 끝이 V자형의 II식으로 나눌 수 있고, I식은 다시 쇠낫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에 따라 너비보다 길이가 짧은 I-a식과 너비보다 길이가 긴 I-b식으로 나눌 수 있다. I-a식은 집안 동대자건축유적과 승리유적(그림3-8)에서 발견되었는데, 사천성 홍가포(洪家包)와 안휘성 흑니(黑泥)에서 출토된 한대의 철삽과 유사한 형태이다(陳文華 편저, 1994). 이것은 一자형쇠낫에서 발전하여 위로 날

이 연장된 것으로 고구려식 U자형쇠날로 정착하기 이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선비족과 관련이 있는 유적인 요령성 라마동(喇嘛洞)M209호(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4)에서 출토된 U자형쇠날(그림9-6)도 날의 길이보다 너비가 넓은 형태를 하고 있어 승리유적의 것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U자형쇠날은 대부분이 I-b식(그림3-1~7)으로 고구려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구려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고구려의 U자형쇠날은 그 평면형태가 뾰족한 형태를 띠면서 위로 길고 곧게 뻗어 길이가 너비보다 2배 이상이 된다. 이에 비해 신라·가야 지역의 U자형쇠날은 U자형을 띠지만 위로 가면서 옆으로 뻗어 마치 V자형을 그리는 II식이 많이 있다. 고구려의 것은 너비에 비해 길이가 길어 깊이 경작할 경우에 유리하였다. 고구려의 U자형쇠날은 삽날 끝과 가장자리의 날 끝이 같은 너비를 유지하고 있어 경작을 할 경우에 처음 경지에 닿는 부분이 넓어지면서 계속 같은 너비로 갈게 된다. 하지만 신라·가야 지역의 U자형쇠날은 삽날 끝보다 가장자리의 날 끝이 더 넓은 너비를 가지고 있어 처음 경지에 닿는 부분은 좁지만 점차 넓은 면적을 갈게 된다. 이는 양 지역이 가진 경지 조건과 관계가 있다. 고구려 지역은 밭이 많은 지역으로 날 면이 넓은 경작이 필요한 지역이고, 신라·가야 지역은 논이 상대적으로 많고 경지도 진흙이 많아 좁고 깊게 들어가는 농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지역에서는 날 끝 면이 넓은 뾰족한 U자형쇠날이 사용되었고, 신라·가야 지역에서는 날 끝이 좁아 진흙에 잘 들어가는 끝이 둥근 V자형쇠날이 적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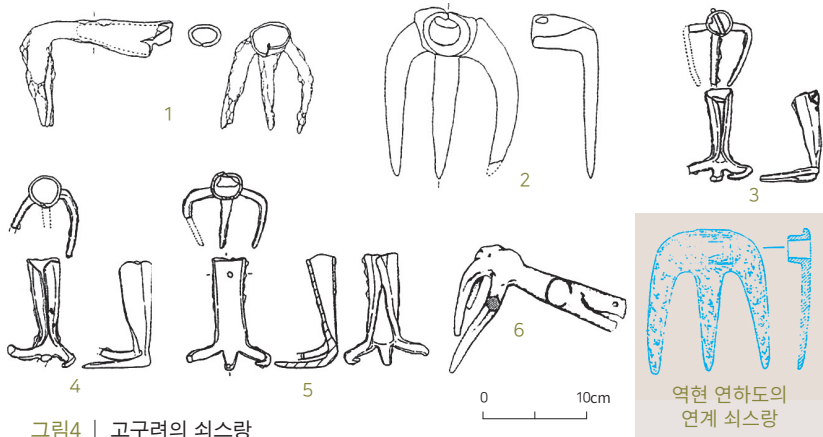


그림4 | 고구려의 쇠스랑

1·2. 서울 구의동보루 3~5. 구리 아차산4보루 6. 환인 오녀산성

#### (4) 쇠스랑

쇠스랑은 3개의 발이 하나의 투겁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철치과(鐵齒擺), 철탑(鐵搭)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농가에서 거름을 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삼국시대 제주도에서는 소가 끄는 우경을 대신하여 쇠스랑으로 땅을 일구었다. 이로 보아 쇠스랑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으며 주로 논과 밭을 막론하고 땅을 정지하는 작업구나 흙을 부수는 농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쇠스랑은 두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I식(그림4-1)은 발이 짧고 발끝이 뾰족하며 투겁이 길게 뻗어 자루와 연결된 것이고, II식(그림4-2)은 발이 길고 발끝이 무디며 투겁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I식은 주로 단단한 흙덩이를 부수고 땅을 파는 데 유리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고구려 지역에서 많이 출토된다. II식은 발이 길어 진흙 땅에 적합하여 주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은하수, 2003). 한국 고대의 쇠스랑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그 형태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기다

란 밭의 상면에 직각으로 네모난 자루구멍을 만들어 자루를 끼우는 역현 연하도(燕下都) 출토의 중국 쇠스랑(陳文華 편저, 1994;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과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 고구려 유적으로는 환인 오녀산성, 서울 구의동보루, 구리 아차산4보루 등에서 출토되었다. 한강 유역의 보루유적에서는 다수 발견되지만,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소수가 확인되고 있다. 이로 보아 쇠스랑은 주로 남쪽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며, 쇠스랑이 논이나 진흙 땅에서 사용된 농구라는 점에서 수궁할 수 있다.

고구려 유적에서는 U자형쇠날과 쇠스랑이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두 농구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U자형쇠날은 쟁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갈이농구이며, 쇠스랑은 갈고 난 흙덩이를 부수는 삶기농구로서 경지에 보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 후기 이방운의 <빈풍칠월도>(국립중앙박물관, 1997)에 U자형쇠날(화가래)과 쇠스랑을 이용한 농작업이 묘사되어 있어 이것이 후대에도 계속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철서

철서(鐵鋤)는 신부의 길이에 비해 짧은 투겁을 가진 것으로 T자형의 자루를 끼워 사용하였는데, 호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철서는 호미와 달리 ‘중경제초(中耕除草)’의 기능보다는 흙을 복돋아주거나 이랑 사이를 긁어 간단히 제초를 하는 기능에 더 가까웠다.

철서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무덤유적에서 대부분이 출토되었으나, 고구려 지역에서는 생활유적에서 주로 출토된다. 주거지나 생활유적에서는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는 철서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 점에서 철서가 실제로 사용된 농구일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에서 출토된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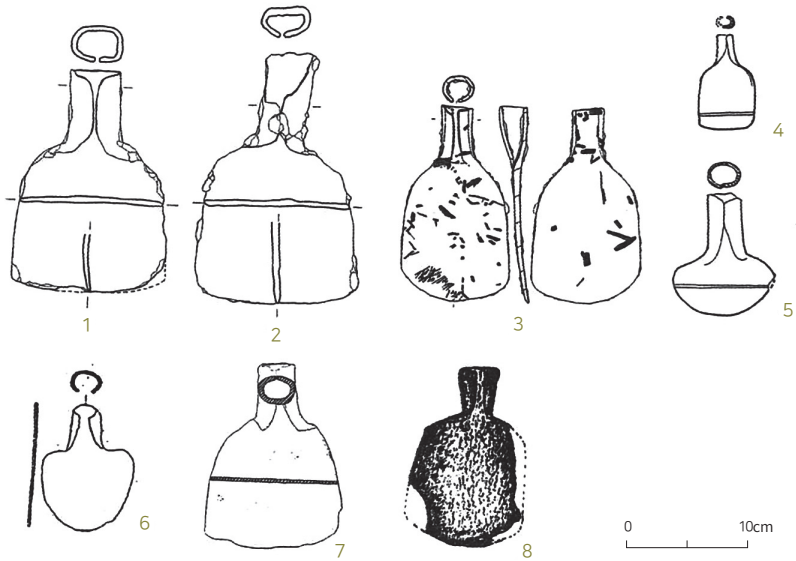


그림5 | 고구려의 철서

- 1·2. 서울 구의동보루 3. 구리 아차산4보루 4·5. 무순 고이산성  
6. 집안 동대자유적 7. 환인 오녀산성 8. 환인 미창구장군묘

서의 형태는 짧은 굽통과 날이 바깥으로 약간 휘어져 있고 날의 양옆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된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다(김재홍, 1997). 한반도 남부 지역 출토 철서의 대부분은 무덤유적에서 발견되어 실용적인 농구 뿐만 아니라 의례농구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고구려에서는 생활유적에서 대부분이 출토되어 처음부터 실용농구로서 기능하였다. 특히 구리 아차산4보루에서는 17점, 구의동보루에서는 7점이나 출토되어 고구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농구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무순 고이산성, 환인 오녀산성, 미창구장군묘, 집안 동대자유적, 청원 남성골유적 등에서도 철서가 출토되었다.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농구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서 만들어 발전시킨 농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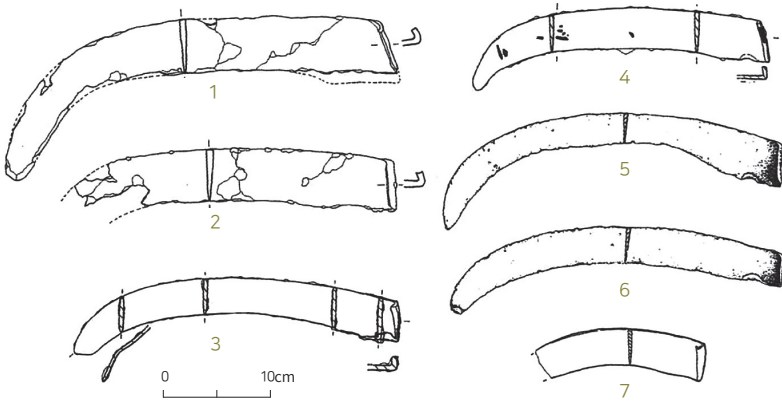


그림6 | 고구려의 낫  
 1·2. 서울 구의동보루 3·4. 구리 아차산4보루 5·6. 환인 오녀산성 7. 무순 고이산성

### (6) 낫

낫(鐵鎌)이 나오기 이전의 건이농구는 주로 반달돌칼이나 반달쇠칼이었다. 반달칼은 이삭 1~2개를 한 손으로 잡고 자르는 데 이용되었으나, 낫이 나타나면서 곡물의 줄기까지 수확할 수 있게 되었고 작업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직인 → 곡인, 날 끝이 직선 → 아래로 굽은 것, 날 끝의 너비가 넓은 것 → 좁고 뾰족한 것, 날의 너비가 넓은 것 → 좁은 것으로 변화하였다(천말선, 1994).

낫은 기원전 3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후 중요한 수확농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철제농구 중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유계층의 폭도 가장 넓게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산성이나 건물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 (7) 철제 보습과 벧

삼국시대 보습(鐵犁)은 신라 유적인 안변 용성리고분에서 나온 끝

이 둥근 U자형의 보습(양익룡, 1953)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구려의 보습이다. 6세기대 용성리고분군도 원래 고구려 지역에 있었던 것이므로 현재 발견된 보습은 대부분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 고구려 보습으로는 무순 고이산성, 청원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 철령 청룡산고성(靑龍山古城), 집안 태왕릉 서측, 지구촌(地溝村), 국내성 부근, M2374호, 동대자유적, 평양시 상원 소구절2호 황혈식석실묘, 서울 구의동보루, 구리아차산4보루 출토 유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철령 청룡산고성, 집안 국내성 부근, M2374호 출토 보습은 구체적인 사진이나 그림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형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집안 동대자유적에서 수습하였다는 보습은 그 형태가 고구려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던 보습과도 달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형태로 볼 때 당이나 요·금대의 보습(陳文華 편저, 1994)과 닮은 점에서 후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 도면이나 자세한 형상이 묘사된 것은 무순 고이산성, 청원 산성자산성, 집안 태왕릉 서측, 지구촌, 평양시 상원 소구절2호 황혈식석실묘, 서울 구의동보루 등에서 출토된 보습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집안 지구촌에서 발견된 주조보습은 한 변의 길이가 19.2cm, 날의 너비가 5.4cm 정도이다. 한의 무덤에서 다수 출토되는 형태로서 그 평면형태가 V자형이며, 삼각형 주조보습인 철화(鐵鑊, 鐵犁)의 날 앞에 덧대는 철관(鐵冠)에 해당한다. 고구려 초기에 한의 영향으로 농경에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태왕릉 서측에서 출토된 한대 대형 주조보습은 평면이 원만한 삼각형으로 양변이 날로 사용되었다. 편평한 면이 아래 바닥면이고, 양쪽 날로부터 가운데 쪽으로 비스듬히 등대가 세워진 윗면이 있고 투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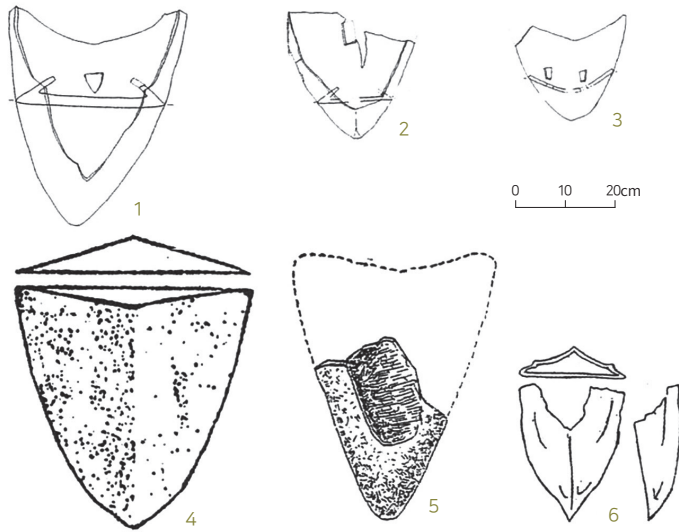


그림7 | 고구려의 보습

1~3. 서울 구의동보루 4. 집안 태왕릉 서측 5. 평양 소구절2호 6. 청원 산성자산성

단면은 삼각형이다. 등대는 갈아서 올라온 흙을 좌우로 가르는 기능을 하였다. 전체 길이가 50.4cm, 삼각형 윗변 너비가 50.4cm에 이르는 거대형 보습이다. 이러한 보습은 한 중기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며, 여러 마리의 소가 끄는 황무지 개간용 또는 수로 굴착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청원 산성자산성에서도 평면형태가 원만한 삼각형을 이루는 철제보습이 출토되었는데, 길이가 27.0cm, 상단 너비가 20.0cm로 중형에 해당하는 보습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보습이 섬서성 농현에서 철관과 함께 출토되었으므로, 한대의 보습으로 판단된다. 이로 보아 산성자산성의 보습은 한의 보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구의동보루에서도 평면형태가 삼각형을 이루는 철제보습이

2점 발견되었다. 완전한 형태의 1점은 길이 44.4cm, 너비 34.4cm인 대형이고(그림7-1), 다른 1점은 상단이 파손되어 남아 있는 길이가 25.5cm, 잔존너비 24.8cm이나(그림7-2) 복원하면 전자와 거의 비슷한 크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형태가 평양시 상원의 보습과 유사하나 완성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완전한 1점은 상단 가장자리에서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며, 윗면 가운데에 목재부속을 고정시키는 구멍이 뚫려 있어 태왕릉 서측 출토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손된 1점은 상단 쪽이 파손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남은 형태로 보아 완전한 것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다른 형태의 보습 2점도 보고되었는데, 하나는 길이 15.4cm, 너비 10.7cm이고, 다른 하나는 길이 20.0cm, 너비 22.3cm(그림7-3)이다. 이것은 반달모양쇠판을 등그스름하게 오므린 형태로 가운데 사각형 구멍이 2개 뚫려 있다. 그 형태나 뚫린 구멍으로 보아 또 다른 형태의 보습이라기보다는 보습의 아랫면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 참조할 수 있는 유물은 4~5세기경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 삼연(전연, 북연, 후연)의 무덤에서 나온 보습이다. 이는 북표 라마동묘지 I-M45호, II-M49, II-M209호, II-M266호(그림9-1·2)에서 발견되었는데, 전체적인 형태가 구의동의 것과 비슷하고 목재부속구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윗면에 1개, 아랫면에 2개 뚫려 있다. 구의동의 보습은 2개로 쪼개져 있으나, 이 둘을 합치면 라마동의 보습과 비슷한 모습을 지닌다. 따라서 구의동보루유적에서 보습은 4점이 아닌 2점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평양 상원군 일대의 고구려 고분군 중 소구절2호 횡혈식석실묘에서 일부가 파손된 보습이 발견되었다. 보습의 남아 있는 형상은 길이가

35.0cm, 중심부 너비가 30.0cm로 전체적인 형태가 구의동 출토 보습과 비슷하다. 추정 복원한 길이는 54.0cm 정도이고, 너비는 40.4cm 정도로 거대형에 속한다. 대부분의 보습이 주로 방어시설이나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과는 달리 개인의 무덤에서 출토되어 철제농구의 개인 소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쇠보습이 신원 아양리토성 1호건물지에서 출토되었는데, 길이 90.0cm, 너비 60.0cm로 고구려 보습 중 최대 크기를 보이고 있다.

무순 고이산성에서 출토된 쟁기(그림8-1, 2)는 보습과 벼을 세트로 가진 완전한 형태로서 삼국시대 쟁기 중에서 유일하게 벼(鐵鏟)을 가지고 있다. 형태는 삼각형이고, 윗면은 편평하고 끝은 반면 뒷면 중앙에 돌기가 있어 삼각형홈을 이루고 있다. 길이 34.5cm, 상단 너비 32.0cm이다. 벼은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까운 편인데, 앞면은 활처럼 휘었고 뒷면은 불룩 튀어나왔으며, 3개의 고리가 있다. 길이 42.0cm, 너비 30.0cm이다. 이곳에서는 파손된 보습과 벼도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모두 2세트의 쟁기가 출토되었는데, 동성 내 서쪽 구릉 소나무 아래에서 출토되었다. 고이산성에서 출토된 보습과 동일한 형태는 석대자산성에서도 2점 출토되었다. 고이산성에서 보습과 함께 출토된 등자는 주로 발해유적에서 출토된 등자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등자는 요 진국공주묘에서도 출토되므로 발해부터 요까지 넓은 시기 폭을 보이고 있다(服部敬史, 2012). 그렇다고 고이산성의 쟁기를 발해 이후로 볼 수만은 없다.

고이산성에서 출토된 쟁기는 고구려가 멸망하기 직전이나 그 직후인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함께 출토된 단병형등자는 병부가 장방형으로 짧고 윤부가 넓은 것으로 선비의 등자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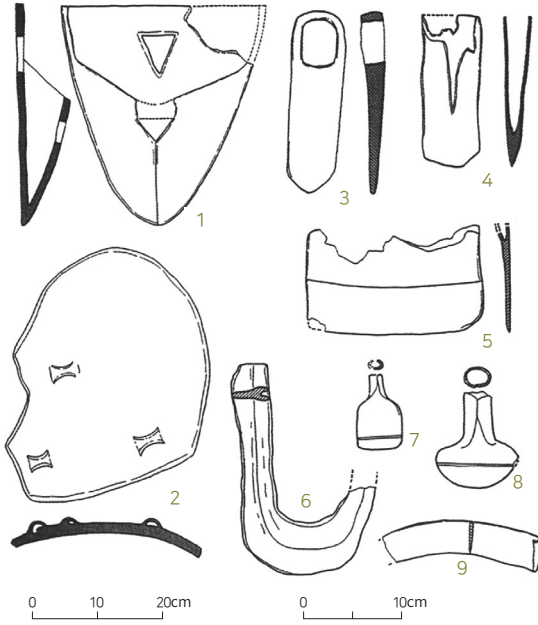


그림8 무순 고이산성 출토  
철제농구

1. 보습
2. 벼
3. 구멍자루괭이
4. 괭이
5. U자형쇠날
6. U자형쇠날
- 7·8. 철서
9. 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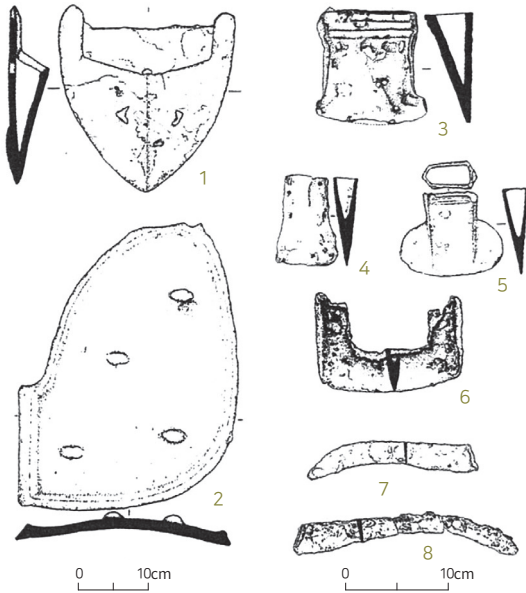


그림9 북표 라마동묘지 출토  
철제농구

1. 보습(M266호)
2. 벼(M266호)
- 3·4·5. 괭이  
(M209호, M328호, M379호)
6. U자형쇠날(M209호)
- 7·8. 낫(M108호, M101호)

영길, 2021). 발해 이전에도 사용되었으며, 주로 당대부터 요대까지 사용된 등자이다. 7세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고이산성 보습은 고구려의 쟁기로 보고 있다(東潮, 2005; 서민수, 2017; 이동건, 2022). 이로 보아 고이산성에서 출토된 보습은 7세기 후반 고구려 보습의 모습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에서도 요하 유역의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벗 달린 보습을 사용한 쟁기 기술이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습의 형태는 윗면 상단에 귀(耳)가 없이 편평하고 윗면 가운데에 삼각형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발해의 보습과 거의 유사하다. 고이산성의 보습은 구의동보루 등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전형적인 삼각형보습보다는 후대인 발해의 보습과 형태상으로 유사성이 더 높다. 이는 발해의 보습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고구려의 전형적인 삼각형보습은 7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윗면 머리 부분이 직선을 이루는 삼각형보습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보습은 발해 보습으로 계승되었다.

고구려의 이른 시기 철제보습은 집안에서 발견된 V자형철관, 삼각형 전철제(全鐵製)철화, 원만한 삼각형쇠보습인데, 이것은 중국 한대 화북지방의 보습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전형적인 삼각형보습은 평양, 한강 유역, 요하 유역 등지에서 발견되어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U자형보습이 신라 지역에서 사용된 보습의 일종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그 지역적인 특성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지역의 삼각형보습은 한강 이북의 발농사 지역에서 사용되었으며, 끝이 둥근 U자형 신라식 보습은 진흙이 많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전형적인 보습은 한대 보습



그림10 | 고구려식 보습(서울 구의동보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11 | 신라통일기의 쟁기(용인 언남리유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에서 발전한 형태이지만, 이후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보습으로 정착하여 최근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구려식 삼각형보습(그림10)은 발해와 신라통일기의 보습(그림11)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재홍, 2013). 전체적으로 삼각형이라는 규격성을 유지하지만 자연환경에 따라 세부적인 변화를 거치게 된다. 북쪽에서는 무순 고이산성의 보습을 거쳐 발해의 삼각형보습으로 전환되고, 남쪽에서는 용인 언남리 등 신라통일기 보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신라통일기의 보습은 세장한 삼각형이고 양 가장자리에 귀가 돌출하며 윗면에 1개, 아랫면에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신라통일기의 보습은 고구려의 보습을 잘 계승하고 있다. 윗면 머리 부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유사성이 높다. 고구려의 보습이 윗면 머리 부분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것에 비해 신라통일기의 보습은 윗면 머리 부분의 가장자리에 귀가 돌출하고 가운데 부분은 직선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8) 나무쟁기

평안북도 염주 주의리 니탄층에서는 나무쟁기 2점이 출토되었다. 평후치로 보고하고 있으나, 굽쟁기인 장상려(長床犁)에 해당한다. L자형으로 구부러진 참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날 부분은 왼쪽이



그림12 | 주의리 나무쟁기  
(『조선유적유물도감』 2)

얇고 두터워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경사져 있어 흙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넘어가는 우반전(右反轉)이다. 후치 날의 중심부와 좌우 측면, 손잡이 부분에는 크고 작은 네모난 구멍이 각각 1개씩 뚫려 있으며, 경사진 날 턱 윗부분에는 둥근 구멍이 2개 뚫려 있다. 나무쟁기는 강이나 하천 유역의 거친 땅을 갈기 위한 농구로 이용되었다. 주의리 쟁기는 청동기시대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형태가 일본 7~8세기 나무쟁기와 유사하여 삼국시대로 소급할 수 있다(김재홍, 2016).

최근 몽촌토성 북문지 집수지 내에서 나무쟁기(그림13)가 발견되었는데, 층위와 출토유물로 보아 이 쟁기는 고구려 나무쟁기일 가능성이 높다(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2022). 이 쟁기는 술·날·손잡이로 이뤄진 일반적인 쟁기 구조에 비녀와 분살이 더해진 형태이다. 날 부분의 형태와 크기로 봤을 때 날에 끼웠던 보습은 서울 구의동보루에서 출토된 보습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날 부분의 볼록 면에는 'V'자형홈이 있어 벗이 'V'자형날개모양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 쟁기의 전체 길이는 165.0~170.0cm, 날 부분은 29.0cm, 너비는 최대 18.0cm로 파악됐다. 기존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런 형태의 쟁기는 함경도와 중국 연변, 연해주 일대에서 쓰이는 쟁기인 일명 '가대기'와 동



그림13 | 몽촌토성 집수지 출토 목제쟁기(한성백제박물관 촬영)

일하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집수지는 자연과학적 연대분석 결과 469~541년에 고구려가 축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어구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어구로는 작살(鮒)이 있다. 작살은 3~4갈래의 가지날이 있으며, 끝부분에 미늘이 있어 세갈래창과 구분된다. 세갈래창(三枝鏑)과 세갈래작살(三枝鮒)의 가장 큰 차이는 가지에 미늘이 달렸는지 여부로서 미늘이 달린 것을 삼지섬으로 분류한다. 세갈래작살은 가지마다 미늘이 하나만 달려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운데 가지에는 양쪽에 미늘이 달려기도 한다. 대부분 고구려 병장기로 언급하는 삼지모 중에서 미늘이 달린 것은 세갈래작살로 볼 수 있다. 끈으

로 연결하는 네갈래작살은 판분령(板盆嶺)에서, 세갈래작살은 유림향(楡林鄉) 지구촌에서 출토되었다(耿鐵華 외, 1993). 또한, 세갈래작살은 오녀산성 4기문화층과 지표 채집에서 출토되었는데, 주 가지에 양옆으로 2개의 미늘이 있으며, 양옆 가지를 주 가지에 소켓으로 끼우게 되어 있다. 양옆 가지의 미늘은 안쪽으로 나 있다. 창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가지날이 붙은 작살이 집안 임강 동나록포자고성에서 화살촉과 함께 출토되었다. 투겁이 달린 작살날에 가지가 양쪽에 달려 있으며, 투겁에 끈을 고정하는 반원형고리가 붙어 작살날이 물고기를 찢러도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두갈래작살은 환인 오녀산성에서 출토되었는데, 가지가 안으로 마주보는 형식이며 나무자루에 고정할 수 있게 축이 아래로 나 있다.

세갈래작살은 가지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끈으로 묶는 I식, 가지 아랫부분만 단접하여 제작하는 II식, 가지를 완전히 단접하여 하나의 자루를 제작하는 III식, 주 가지에 2개의 옆 가지를 붙이는 IV식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14). I식은 김해 대성동2호, 본산리·여래리 II-18호·37호, 부산 미음동24호석곽묘에서 출토되었다. II식은 부산 북천동10호에서, III식은 창녕 계남리1호, 합천 옥전M3호에서, IV식은 환인 오녀산성에서 출토되었다. 남부 지방에서 발견된 II식도 고구려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가 발견되어 고구려계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도 III식인 합천 옥전M3호 출토품은 네갈래작살이다. 사지점은 고구려 지역의 집안 지구촌에서도 발견되었으나 가지를 결합하는 방법이 II식으로 옥전의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야와 고구려 지역의 세갈래작살은 한강 유역의 것과 달리 가지에 미늘이 하나만 형성되어 있어 공통성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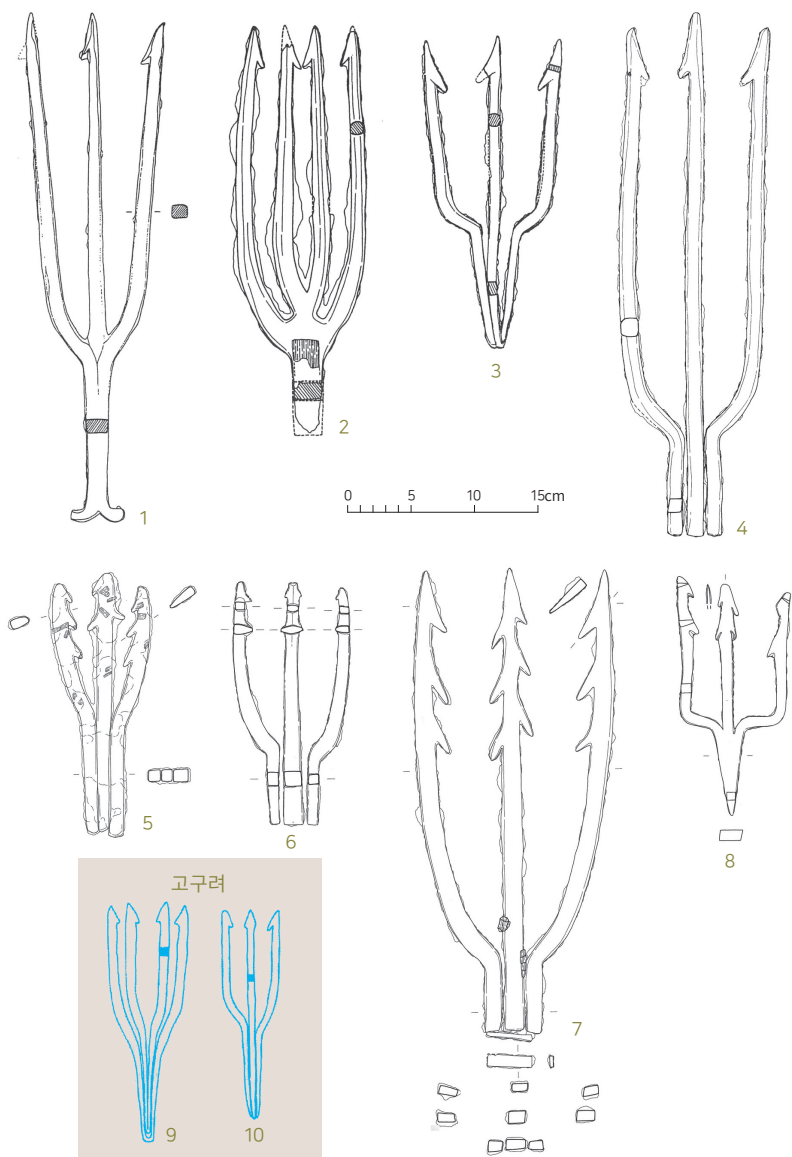


그림14 삼국시대 작살

1. 창녕 계남리1호    2. 합천 옥전M3호    3. 부산 북천동10호
4. 김해 대성동2호    5. 홍천 성산리35호    6. 화천 울천리69호
7. 동해 송정동3호    8. 파주 와동리14호    9. 판분령    10.유림향 지구촌

낙동강 하류 유역에서는 고구려의 것과 형태가 유사한 어구가 출토되고 있다. 세갈래작살 중에서 가지를 끈으로 묶는 방식은 고구려에서도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금관가야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고구려 세갈래작살의 특성은 김해 대성동2호와 부산 복천동10호의 세갈래작살에서 잘 보이고 있다. 따라서 끈으로 묶는 방식의 세갈래작살은 고구려와 관련을 지을 수 있다. 유립향 지구촌 출토품은 전체적 형태나 자루를 고정하는 방식이 부산 복천동10호의 것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듯 신라·가야의 작살은 고구려에 기원을 두고 있다.

### 3) 생업도구로 본 고구려 사회

#### (1) 농구의 발전단계

한반도 북부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경에 주조괭이, 구멍자루괭이, 원시호미, 낫 등의 철제농구가 주조로 제작되었다. 기본적인 농구는 같이-김매기-걷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의 철제농구와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연에서 제작하였거나 그 영향을 받은 농구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화보-세죽리 철기문화는 연의 영역뿐만 아니라 요동 지역과 한반도 북부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가 국가체를 형성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는 철기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압록강 중류 유역에 있는 관전 쌍산자(雙山子), 위원 용연동 등지의 유적은 고구려와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연계 철제농구는 고구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고구려가 국가를 건설하기 이전 단계인 원고구려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농구가 출현하는 것은 기원전 2세기경 한이 요동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진출하는 한사군의 설치 이후부터이다. 한의 철제농구는 보습, 一자형쇠날, U자형쇠날, 단조팽이 등이 있으며(고구려 I기), 연 계통 철제농구와 달리 단조로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유물이 확실한 유구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라 지표에서 수집되어 정확한 연대를 알기는 어려우나 대략 기원전 1세기~3세기 단계에 해당된다. 이 단계의 철제농구는 한대 철제농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대 철제농구와 다른 농구가 나타나는 것은 4세기 이후이다(고구려 II기). 이 시기는 고구려식이라 할 수 있는 U자형쇠날, 쇠스랑, 철서, 보습 등이 사용된 4~7세기경이다. 고구려가 집권국가로 성장한 다음 단계로서 고구려의 독자적인 철제농구체계가 확립된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는 一자형쇠날이 거의 출토되지 않고 U자형쇠날도 한대의 것과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데, 고구려만의 특징이 확인되고 있어 고구려식이라 해도 좋을 정도이다. 이 단계는 고구려가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요동 지역과 한반도로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로서 고구려식 철제농구는 그 세력 확장의 배경이 되었다. 이 시기부터 소가 끄는 쟁기가 보급되었다.

철제농구의 종류별 분석을 통하여 농구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변화의 시기를 잡을 수 있다. 먼저 주조팽이, 구멍자루팽이, 원시호미, 낫 등 연 계통의 철제농구가 사용된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경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므로 원고구려기로 설정할 수 있다. 고구려 I기에는 주조팽이, 단조팽이, 一자형쇠날, U자형쇠날, 낫 등이 사용된 기원전 1세기~3세기경으로

표1 고구려 철제농구의 발전단계

단계	시기	농구 조합상	특성	소유	유적
원고구려기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세기	주조괭이+원시호미+낫	연 계통	집단	생활유적, 무덤
고구려 I기	기원전 1세기~ 3세기	보습+단조괭이+U자형 쇠날+낫	한 계통	?	지표수습
고구려 II기	4~7세기	보습+단조괭이+U자형 쇠날+쇠스랑+철서+낫	고구려식	국가, 개인	생활유적, 무덤

한대의 철제농구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한대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철제농구를 사용한 시기이다. 고구려 II기에는 이전 단계의 농구와 더불어 고구려식이라 할 수 있는 U자형쇠날, 쇠스랑, 철서, 보습 등이 사용된 4~7세기경으로 고구려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한 다음 단계로서 고구려의 독자적인 철제농구체계가 확립된 시기이다.

원고구려기와 고구려 I기의 철제농구는 중국 계통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구려 지형에 맞는 철제농구를 찾아가는 시기였다. 유적의 성격이 분명하고 그 출토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철제농구는 주로 4~7세기 고구려 II기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 단계는 고구려식 U자형 쇠날·쇠스랑·철서·보습 등이 사용된 시기로 고구려가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여 영역을 확장하던 시기였다.

## (2) 출토 유적의 성격

고구려 유적에서는 괭이, 一자형쇠날, U자형쇠날, 쇠스랑, 철서, 낫, 보습과 밧 등 전통시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구 대부분이 출토되고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철제농구가 출토되는 유적은 성격상 둘로 구분되는데, 무덤유적과 생활유적이다. 무덤유적은 적석총과 석실묘로

나눌 수 있는데, 적석총이 시기적으로 일찍 조영되었다. 적석총에서는 팽이, 낫 등의 간단한 농구가 출토되고, 석실묘에서는 보습, 철서, 낫 등이 출토되었다. 무덤유적은 주로 환인·집안·평양 등의 도성에 분포하는 고분으로, 보습 등 대형 농구보다는 팽이, 낫 등 간단한 농구를 부장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고구려 후기인 6세기경에 조영된 상원 소구 절2호 횡혈식석실묘에서는 대형 보습이 출토되었다.

생활유적은 산성·보루 등의 방어유적과 왕궁·관아를 포함한 건물지로 나눌 수 있다. 관방유적은 한반도 남부 지역의 예가 대표적이며, 구의동보루, 흥련봉1·2보루, 용마산2보루, 아차산3·4보루, 시루봉보루, 호로그루, 무등리1보루, 남성골유적 등에서 농구가 출토되었다. 중국 동북 지역의 관방유적인 환도산성, 국내성, 고이산성, 오녀산성, 석대자산성 등에서도 농구가 출토되었다. 산성과 보루에서 철제농구가 출토되는 유구는 주거지나 건물지이므로 성격상 모두 건물로 볼 수 있다. 생활유적으로는 집안 동대자유적, 민주유적 등의 건물지에서 농구가 출토되었다. 백제·신라·가야 지역에서는 주로 무덤에서 철제농구가 출토되는 비율이 높으나, 고구려 지역에서는 무덤보다 건물지·산성과 같은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양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유적은 그 성격상 개인의 무덤이나 가옥이 아니라 국가와 관련이 있는 구조물로 판단된다(김재홍, 2011).

관방유적에서는 철제무기와 함께 철제농구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유적은 주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군대의 주둔지로 적합하였다. 주둔군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군수물자인 군량을 조달하고 성이나 보루에 군량을 비축할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의 최전방에서는 산성과 보루를 단위로 군량을

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의 최전선 방어성에서는 군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한강 유역의 방어성인 보루는 그 규모가 성보다 작은 소규모 군대 주둔 지이지만 다량의 농구를 보유할 정도였다. 요동에 있는 대규모의 성에는 다량의 군량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나 말도 보유하고 있었다. 군대가 전선에 배치된 것만으로는 지역을 방어할 수 없었고 농업생산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지속적인 점령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철제농구가 출토되는 유적은 철령·청원·무순·단동 등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축조한 서북방 변경지역, 환인·집안과 같이 고구려 전기 도성이었던 지역,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 후기 도성이었던 지역, 한강 유역의 남방 변경지역 등에 분포한다. 바로 고구려 전성기의 영역과 겹치고 있다.

### (3) 농업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동은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변화로 설명할 정도로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산력과 관련된 사료는 부족하지만 고고자료로서 철제농구는 1차적으로 생산도구이지만 생산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적어도 철제농구를 통해 당시 농업기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괭이와 一자형쇠날은 주로 간단하게 밭을 갈거나 흙덩어리를 부술 때에 사용하는 농구로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주로 간단하게 경지를 갈 때에 유용하게 이용되었으며, 주로 낮과 함께 농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조괭이는 연의 철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주로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부터 나타나고, 단조괭이와 一자형쇠날은 한대

철기의 영향을 받아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팽이와 一자형쇠날이라는 갈이농구, 쇠낫이라는 걷이농구로 구성된 농구 조합이 농경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U자형쇠날과 쇠스랑의 출현은 다양한 농구의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사기술의 발전을 의미한다. 논 토양은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논농사에 적합한 갈이농구는 땅에 꽂혔을 때 생기는 진공상태의 저항도가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U자형쇠날과 쇠스랑은 가벼우면서도 흙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강인하기 때문에 논농사에서 작업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U자형쇠날과 쇠스랑은 그 형태로 보아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U자형쇠날과 쇠스랑은 걷이농구와 삶기농구로서 농업도구로서 기능하였다. 이전 시기에 팽이가 도끼 등의 공구로도 기능하였던 상황과 구별된다. 또한 이들 선진농구의 도입으로 구릉이나 산간 지대에서는 밭의 개간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밭작물 재배 이외에 맥작이 늘어나 맥류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것이다.

고구려의 철제농구 중에서 철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철서는 호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호미의 ‘중경제초’ 기능보다는 흙을 북돋아주거나 밭의 바닥을 긁어 간단히 김을 내는 기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철서는 논보다는 밭에서 사용한 농구로 판단된다(김재홍, 1997). 고구려 지역에서는 백제, 신라 지역과 달리 논농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살포가 1점도 출토되지 않고 밭농사에 널리 사용되는 호미에 해당하는 철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이로 보아 고구려 지역은 산간의 평지를 이용한 밭농사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소가 끄는 쟁기의 사용이다. 소를 이용함으로써 노동

력이 절감되고 깊이갈이를 할 수 있어 농업생산을 증대시켰다. 고구려의 철제농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쟁기이다. 고구려는 초기에 요동 지역 쟁기의 영향을 받아 한대의 보습을 사용하였으나 4세기 이후에는 고구려식 보습을 쟁기에 사용하였다. 요하 유역의 선비족 문화권에서는 보습과 벼를 가진 쟁기가 사용되었으나 집안 지역과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지역에서는 보습만 달린 무상려가 농경에 사용되었다. 다만, 고구려 영역 내에서도 국경지대인 요하 유역에서는 요서 지역의 영향을 받아 벼 달린 보습을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고구려의 보습만 달린 무상려는 그 형태로 보아 주로 밭농사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 보습은 최근까지 농촌에서 사용한 일명 ‘굽쟁이’라는 술이 없는 쟁기의 보습(박호석, 1993)과 아주 유사한 것이다. 이는 중국, 일본의 술이 있는 쟁기와는 다른 형태이며,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보습으로 판단된다. 고구려식 보습에 맞는 나무쟁기가 몽촌토성 집수지에서 발견되어 보습을 나무쟁기에 장착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우경의 보급이 주로 국가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신라에서도 6세기에 전국적인 규모로 수리시설과 우경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지증왕 4년(503년)에 처음으로 우경의 실시를 전하고 있으나 그 이전부터 실시되어 오던 우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우경을 지방사회에까지 널리 보급하겠다는 신라의 권농책과 관계가 있었다. 고구려에서도 우경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런데 6세기경에는 국가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유력계층의 무덤에서도 보습이 발견되고 있다. 평양시 상원 소구절2호 횡혈식석실묘에서 철제보습이 발견되어 당시 유력계층에까

지 쟁기가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밭농사에 쟁기를 사용한 증거로는 한강 유역에 위치한 미사리유적의 밭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시대의 경작유구가 2개 층에서 발견되었는데, 상층에서 발견된 것은 대략 6세기경에, 하층의 경우 4~5세기나 그 이전에 사용된 경작지로 추정하고 있다. 575년에서 6세기 중엽까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가 미사리의 상층 밭을 경작하였다고 여겨진다. 고구려가 점령한 한강 이남의 몽촌토성에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고구려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고구려가 일정 시기에 몽촌토성을 비롯한 한강 이남 지역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미사리의 하층 밭은 고랑과 이랑의 너비가 일정하고 직선을 이루며 고랑과 이랑을 합한 너비가 150.0cm가량 되고 고랑에는 지름 20.0cm 정도의 작물 재배 구멍이 지그재그로 남아 있다. 하층밭은 고랑이 70.0~80.0cm 정도로 비교적 넓은 것으로 보아 주로 U자형 따비나 쇠스랑 같은 농구로 밭을 갈고 고랑에 작물을 재배했다고 여겨진다. 이에 비해 상층밭은 고랑과 이랑을 합한 너비가 100.0cm 정도이고, 이랑에 비해 고랑이 좁다. 상층밭은 고랑보다는 이랑을 넓게 만들었으며, 고랑의 깊이가 30.0cm 정도인 것으로 보아 축력을 이용하여 밭을 갈았다고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미사리 하층밭 단계에는 휴한농업이 실시되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우경으로 경작한 상층밭은 상경농법으로 전환했다거나 여전히 휴한농법이었다고 하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4) 가야 지역의 생업에 보이는 고구려의 영향

가야 생업을 보여주는 도구 중에서 농구와 어구에서 4세기경에 독특한 형태가 나타난다. 그 형태나 시기로 보아 고구려와 관련지을 수 있는 농구와 어구가 보인다. 4세기 이후 가야 지역에서는 이전 시기와 다른 농구인 철서와 어구인 작살이 나타난다. 철서와 작살은 고구려에서도 4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형태와 유사하여 그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4세기에 새로이 등장하는 밭농사용 농구가 김을 매는 제초구인 철서이다. 발굴조사에서 확인 가능한 김매기농구는 납작한 초기 형태의 호미이지만 출토량이 많지 않다. 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철서가 북천동67호에서 출토되었으며, 고구려의 것과 형태가 유사하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출토된 철서는 부산 북천동67호, 함안 도항리<현>22호에서 출토되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10.0cm 미만의 규격을 가진 대가야의 소형 철제농공구 중에서 철서형을 열거할 수 있다. 대가야의 철제소형농공구는 철부형(도끼나 쟁이 형태), 철서형, 따비형, 낫형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철부형, 따비형, 낫형은 4세기 이전에도 있었던 농공구이지만, 철서형은 4세기 이후에 새로이 나타나는 농구이다. 그 형태로 보아 고구려의 전형적인 철서로 상정된다. 가야의 철서는 그 형태가 고구려 지역의 철서와 유사하다. 철서가 발달한 지역이 고구려의 밭농사 지역이라면, 이 지역에 보이는 이른 시기의 철서는 고구려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고구려의 철서가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실용적인 농구인 것에 비해, 가야의 철서는 대부분 무덤유적에서 발견되어 실용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의례용농구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에서 출토된 철서의 형태는 짧은 굽통과 날이 바깥으로 약간 휘어져 있고 날의 양옆 가장자리가 둥글거나 각진 형태로 처리된 동

일한 모양을 하고 있다. 날의 양 끝이 둥근 형태는 사용한 흔적으로 보인다.

고구려식 철서는 신라통일기에도 계승되어 사용되었는데,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철서는 고구려와 유사한 형태이다. 모두 받에서 간단하게 김을 매는 도구였다. 철서의 형태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 말기에서 신라통일기 초기이다. 역시 월지에서 날 끝이 뾰족한 호미가 발견되어 새로운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신라통일기까지 철서의 일반적인 형태는 고구려식인 날이 네모난 형태였다. 고려시대 이후 철서는 날이 뾰족한 형태인 호미로 변화하여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다.

가야의 어구 중 작살의 형태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알 수 있다. 세갈래작살 중에서 가지를 끈으로 묶는 방식은 고구려에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김해 대성동2호(그림 15)와 부산 북천동10호의 금관가야 세갈래작살에서 잘 보이고 있다. 따라서 끈으로 묶는 방식의 세갈래작살은 고구려와 관련을 지을 수 있다. 끈으로 연결하는 네갈래작살은 판분령에서, 세갈래작살은 집안 지구촌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耿鐵華 외, 1993). 지구촌 출토품은 전체적 형태나 자루를 고정하는 방식이 부산 북천동10호의 것과 아주 유사하다. 이 시기 고구려 문물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은 농구에서도 잘 보인다. 부산 북천동67호 철서는 그 형태가 고구려 발생기의 철서와 유사하다(김재홍, 2011). 철서가 출토된 북천동67호 목곽묘는 4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유적이다. 고구려의 발흥사지역에서 철서가 발달했다면, 이 지역에 보이는 이른 시기의 철서는 고구려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농구와 어구 양면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알 수 있다.

북천동고분군에 보이는 철서와 세갈래작살의 출토 의미는 당시 국



그림 15 | 금관가야의 세갈래작살  
(김해 대성동2호 출토,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제정세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낙랑군이 멸망한 후 4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백제는 낙랑과 대방 고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공방전을 펼쳤다. 낙랑과 대방이 수행하였던 국제교역망을 차지하려는 고구려와 백제 간의 세력다툼이었다. 낙랑이 멸망하면서 발해만-대동강 유역-서남해안-낙동강 하구-일본 열도를 잇는 교역망은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가 주도하는 교역망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서 복천동고분군의 정치체는 고구려로부터 새로운 농구인 철서와 어구인 세갈래작살을 받아들여 생산력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광개토왕의 금관가야 공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외교역망을 확보하여 자체 성장을 꾀하였던 것이다(김재홍, 2015).

## 2. 생활도구

### 1) 조리 및 저장 도구

#### (1) 부뚜막

부뚜막은 양쪽에 돌을 세우고 외면에 점토를 발라 고정시켰으며, 부뚜막 중앙에 뽕족한 돌을 세웠다. 뽕족한 돌은 지각이라 부르며, 부뚜

막 위에 토기를 놓았을 때 안정시키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차츰 취사용토기의 어깨에 전을 달아 부뚜막에 토기를 밀착하게 되면서 지각은 사라지게 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전이 달린 쇠술이 보급되기 시작한다(북천박물관, 2005). 부뚜막은 토제, 철제, 청동제 등이 발견되며, 유구에 시설된 것도 있고 취사용도구로 부장된 것도 있다(오승환, 2008; 신광철, 2010).

원고구려 지역에서 부뚜막이 부속된 온돌이 등장하는 시기는 기원전 4세기~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온돌의 한쪽 면에 불을 때는 부뚜막을 설치하고 솥을 걸어 음식을 조리하였다. 실내에서 온돌시설이 사라지면서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부뚜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동식 부뚜막은 흙이나 쇠로 만든 것으로 생활유적이거나 무덤유적에서 출토되어 실생활용이면서 장례용으로 사용되었다.

고구려에서 부뚜막을 사용하는 모습은 안악3호분 주방 그림에 잘 보인다. 불을 때는 아궁이를 90°로 꺾어 불을 배출하여 굴뚝으로 내보내는 구조로서 고구려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구의동보루에서는 온돌의 부뚜막 아궁이에 쇠술이 붙어있는 채로 발견되어 온돌과 부뚜막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부뚜막은 아궁이와 굴뚝이 일직선으로 나 있어 조리만을 위한 구조로 차이가 있다. 고구려의 부뚜막은 토기나 쇠술을 올리는 확이 하나이지만, 쇠술을 올리는 확이 여러 개인 중국의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구려의 부뚜막은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열로 구들을 데우는 난방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뚜막을 취사용으로 주로 사용한 중국의 예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부뚜막은 이동식 형태로 제작되기도 하였는데, 고구려 고분에서



그림16 | 철제부뚜막  
(운산 용호동1호분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주로 출토되었다. 부뚜막은 주로 토제로 제작되었으나, 특수한 예로 청동제와 철제가 드물게 출토되었다. 토제부뚜막은 집안 삼실총, 장천2호묘, 환인 미창구1호묘 등에서 출토되었다. 삼실총과 장천2호묘의 것은 사유부뚜막이며, 고구려 중기 이후에 제작되었다. 청동제부뚜막은 집안 태왕릉에서 출토되었는데, 청동제로서는 유일한 예이다. 부뚜막 대부분이 토제인 것에 비해 청동제는 태왕릉의 위상을 잘 보여 준다. 철제부뚜막(그림16)은 계단적석총인 운산 용호동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부뚜막 한쪽에는 네모난 아궁이가 있으며, 다른 쪽에 원통형의 굴뚝이 달려 있다. 아궁이 위에는 솔을 올리는 확이 둥글게 뚫려 있고, 아궁이에는 문양이 장식된 아궁이틀이 붙어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토제부뚜막에도 동일한 장식이 부착되어 있어 당시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 보아 부뚜막은 실용적인 도구이자 의례용으로 무덤에 묻힌 것을 알 수 있다. 이 무덤은 평안북도 내륙이 위치한 대형분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이동식 부뚜막은 적석총과 횡혈식석실묘 등 고분에서 출토되며, 이들은 대형 고분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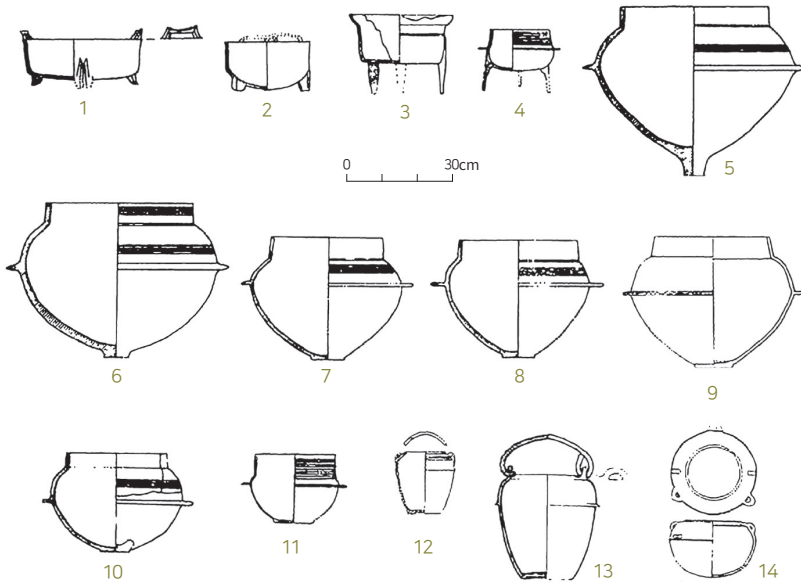


그림 17 고구려의 쇠술(강현숙·양시은·최중택, 2020)

1. 칠성산고분군 2. 환도산성 3. 동대자유적 4. 민주2대 5·6. 승리촌  
 7. 민주촌 8·10. 동대자유적 주변 9·14. 구의동보루 11. 국내성  
 12. 석대자산성 13. 오녀산성

## (2) 쇠술과 청동용기

고구려에서 취사용토기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 대용으로 쇠술이 보급되었다. 구의동보루에서는 쇠술이 출토되었는데, 군사적인 방어 시설에서 출토된 예로 보아 이동성을 가진 군사용으로 사용되었다. 고구려 유적에서 취사용토기가 적게 출토된다는 사실은 쇠술의 보급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쇠술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위에 시루나 분형토기 등과 조합되어 사용했을 것이다. 구의동보루에서는 온돌의 부뚜막 주변에서 쇠술과 시루가 겹친 채 발견되어 세트관계임을 알 수 있다. 쇠술과 시루가 함께 출토되는 것은 4세기 이후이며, 이 시

기부터 쇠술 위에 시루를 얹어 뜨거운 증기로 찌낸 음식이 귀족의 밥상에 자주 오르게 되었다(사공정길, 2014).

고구려의 철제술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뉜다. I유형은 다리가 3개 달린 철제정(鼎)이다. 철제정은 집안 칠성산고분군, 환도산성, 동대자유적, 민주2대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모두 3개의 발이 달렸으며, 동체의 형태는 편평하여 불을 맞는 면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민주2대 출토품은 3개의 다리를 제외하면 III유형의 철제술과 형태가 거의 같다(그림17).

II유형은 동체의 형태가 횡타원형을 그리며 구연부가 직선을 형성하고 있다. 모두 부뚜막에 올려 고정하는 전이 달려 있으며, 어깨와 구연턱에 돌대가 돌아간다. 환인 오녀산성, 집안 승리촌(3점), 민주촌(3점), 동대자유적 주변(2점), 서울 구의동보루, 국내성 등에서 출토되었다. 승리촌 출토품은 3점 모두 동일한 형태이며, 동체 아래 바닥에 돌기가 하나 있어 쇠술의 무게를 바치는 지각 위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승리촌의 쇠술은 대형으로 다른 쇠술에 비해 거의 2배의 규격이다. 승리촌의 것은 경주 천마총 출토품과 형태상 거의 유사하다. 이와 비슷한 형태가 장백 14구도관애에서 출토되었다. 나머지 이 유형은 모두 동체 바닥이 점차 돌기보다는 좀 더 편평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성의 것은 전이 위치한 바로 윗부분에서부터 구연부가 직립으로 길게 뻗어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체적으로 바닥에 돌기가 있는 형태에서 편평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형식의 변화가 보인다. II유형의 쇠술과 동일한 형태의 흙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기능을 하였다고 추정된다.

III유형은 토기의 호 형태와 유사하여 철호(鐵壺)라 부를 수 있으며,

한강 유역의 고구려 보루유적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철호는 전이 달려 있지 않으며, 가운데에 고리 3개가 가로로 달려 있다. 크기는 쇠술의 절반 정도로 작은 형태에 해당한다(사공종길, 2014). 주로 서울 구의동 보루, 아차산3보루(5점), 아차산4보루(8점), 시루봉보루, 흥련봉1보루(3점), 흥련봉2보루(2점), 흥련봉3보루(2점), 용마산2보루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용마산2보루의 철호는 뚜껑이 달려 있는 형식이다. 구의동보루에서는 II유형 쇠술과 III유형 철호가 아궁이에 걸린 채 나란히 배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쇠술과 철호가 실용적인 조리도구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유형은 동체가 동복과 유사한 형태이나 대칭으로 형성된 손잡이를 소뚜레모양의 고리로 연결하여 걸게 되어 있다. 갈고리에 걸어 지면에서 띄어 조리하는 방식이며, 심양 석대자산성, 환인 오녀산성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유형은 II유형이다. II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술의 어깨에 편평한 전을 붙여 만들었다는 점이며, 부뚜막의 개량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을 붙이게 되면 쇠술을 부뚜막에 안정적으로 걸칠 수 있어 지각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전 시기의 것에 비해 훨씬 더 원활한 취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온돌에 부착된 부뚜막에서 전용 부뚜막이 실내 취사시설로 기능하기 시작하였음을 알려 준다. 고구려 유적에서 보이는 토제 및 철제 부뚜막의 출현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전 달린 술이 나타나면서 부뚜막도 아궁이와 쇠술이 놓이는 부분만 개방하여 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쇠술은 열의 전달을 빠르게 하고 물기의 침투를 막아 음식의 조리를 쉽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쇠술의 용도는 고구려 안악3호분 주방

그림에서 부뚜막에 쇠솥을 걸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 요리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쇠솥에 시루가 조합된 양상은 서울 구의동보루에서 실제로 출토되었다.

고구려의 청동용기로는 정(鼎), 세(洗), 초두, 합(盒) 등이 있다. 정은 칠성산96호묘와 우산하68호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중국에서 제작되어 고구려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는 얇은 반형 동체에 짧은 다리가 달린 형태로 손을 씻는 용도로 보고 있으며, 중국에서 제작되어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뚜껑이 달린 합은 두 종류가 출토되었다. 하나는 얇은 굽이 달려있고 뚜껑에 십자모양의 손잡이가 부착된 것으로 칠성산96호묘 2호묘실에서 출토되었다. 다른 하나는 뚜껑에 화관장식을 하고 꽃봉오리모양의 꼭지를 부착한 것으로 국내성에서 채집되었다.

### (3) 저장도구

고구려의 주요 생업은 농경이었으며, 어로와 수렵도 병행하였다. 농사는 처음에 밭농사 위주였으나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논농사의 비중이 늘어났다. 실제로 임진강 유역에 입지한 연천 무등리2보루에서 탄화미와 탄화조가 대량으로 수습되었고, 연천 호로그루 유적에서도 쌀, 조, 콩, 팥 등의 탄화된 곡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탄화 곡물은 지하창고에 보관되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경에 한강과 임진강 유역의 성과 보루에서는 다량의 식량을 저장하는 지하창고가 있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창고와 관련된 그림이 나오고 있다. 덕흥리벽화고분의 널방 서벽 북쪽 위에는 부경(桴京)이라 불리는 다락창고가 그

려져 있으며, 팔청리벽화고분의 널방 동벽에는 머리에 검은 두건을 쓴 남성이 다락창고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 있다. 집안 마선구1호묘의 결방 남벽에는 부경에 해당하는 고상창고가 표현되어 있다. 고구려에서는 고분벽화에 보이는 고상창고에 곡물을 보관하였는데, 습기로부터 곡물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보인다.

고구려에서는 논과 밭에서 수확한 곡물을 항아리에 넣어 고상창고인 부경이나 구덩이를 파고 만든 지하창고에 보관하였다.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커다란 옹이나 항아리는 곡물을 저장하던 용기로 보이며, 곡물을 항아리에 넣어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였던 것이다. 창고에 보관하던 곡물은 조리를 위해 디딜방아로 찧거나 절구에 넣어 뿔았을 것이다. 약수리벽화고분의 앞방 동벽 아래 남쪽에는 디딜방아로 곡식을 찧는 장면과 뿔은 곡물을 키질하는 모습이 한 화면에 그려져 있다(전호태, 2016).

## 2) 장송 및 기타 생활도구

고구려의 적석총과 횡혈식석실묘에서는 장례도구로서 관뿔, 관고리, 꺾쇠, 장막걸이 등이 출토되고 있다. 관뿔은 머리 모양에 따라 원두정과 방두정이 있으며, 일부 뿔머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머리가 없는 것은 뿔 상단을 7자 형태로 꺾어서 사용하였다. 관뿔은 방두정보다 원두정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신부의 단면은 모두 방형이다(리광희, 2005;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관고리는 기본적으로 좌판과 이음쇠고리 및 원형의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좌판은 원형과 화판형이 있으며, 좌판이 없이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 관을 연결하는 장송도구로

꺾쇠가 있으며, ㄷ자형으로 굽혀 목관이나 목곽을 고정하였다. 또한 무덤 내부에 장막을 설치하는 장막걸이쇠도 출토되었다.

고구려의 산성과 보루에서는 철제 차관, 문지도리쇠, 문확쇠 등 성곽 부속구가 발견된다. 철제차관은 수레굴통쇠 또는 수레굴대라고 불리며, 수레바퀴축을 끼워 돌아가도록 하는 도구이다. 기본적으로 수레의 부속구로서 기능하였으나 산성의 문지 부근에서 출토된 예도 많아 일찍부터 문과 관련된 부속구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고구려 유적 중에서 환도산성 2호문지에서는 같은 형태의 대형 차관 내부에 문지도리쇠가 결합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구의동보루에서도 차관과 문지도리쇠가 출토되었다. 차관이 성문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차관은 수레 부속품으로 사용된 경우와 문지도리 부속품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한강 유역의 흥련봉1보루에서는 건물지 입구 쪽 돌확 주변에서 확쇠 2점이 출토되었는데, 문지도리 아래위에 하나씩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마산2보루와 환도산성 궁전지 등 건물지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고리가 출토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대상철기가 출토되었는데, 목제문에 부착하였다고 추정된다.

### 3) 한반도 남부 지역의 생활도구에 보이는 고구려의 영향

5~6세기대 신라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문물은 관과 이식, 대장식과 같은 금공품도 있지만, 청동합, 은합 등과 금속제용기가 주류를 이룬다. 금속제 용기는 황남대총 남분에 다수 부장되기 시작하였으며, 5세기 후반 이후에 조성된 왕릉급 무덤에서도 청동용기는 지

속적으로 발견되었다. 경주 금관총의 청동제사이호, 서봉총의 은합, 호우총의 청동호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호우총에서 출토된 호우에는 광개토왕과 관련된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꽃봉오리모양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서봉총의 은합은 ‘연수(延壽)’라는 연호와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얇은 굽이 달려있고 뚜껑에는 십자모양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호우총의 호우와 서봉총의 은합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용기로서 고구려에서 제작하여 신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산 조영III호분에서도 고구려계 청동합이 출토되었다.

고구려의 쇠술은 5세기 신라 고분에서 많이 발견된다. 신라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쇠술, 청동합, 청동술 등은 고구려제이거나 그 영향을 받은 조리용기이다(국립중앙박물관, 2010). 신라의 쇠술에는 다리를 떼낸 항아리 동체부를 뚜껑으로 사용되었다.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청동술과 더불어 청동시루도 출토되었는데, 청동시루는 원형 구멍에 띠손잡이를 부착한 고구려제이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쇠술은 황남대총, 금관총, 금령총, 식리총, 서봉총, 금관총, 호우총 등 적석목곽묘에서 다수 출토되었으며(김은경, 2015), 뚜껑은 토기 발을 잘라 사용하였다. 신라의 쇠술이 신라만의 독창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고구려의 영향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생활도구는 백제 사비기 생활용기와 취사도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구려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백제 토기는 사비도성 주변이나 익산 왕궁리유적, 부여 정암리가마터에서 확인되는데, 시루나 접시 등 생활용기와 부뚜막, 굴뚝 등 취사도구에서 주로 보인다. 그러나 사비기 토기에는 그릇 표면에 평행타날문이 시문된 것에 비해 고구려 토기는 무문으로 구별된다. 특히 고구려적인 요소는 주로 부뚜막 시설

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강현숙, 2007). 백제 사비기 토제부  
뚜막들은 그 형태나 문양이 운산 용호동1호분 출토 부뚜막들과 유사하  
여 고구려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현숙·양시은·최종택 지음,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구의동보고서간행위원회, 1997,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 - 구의동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도서출판 소화.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동아시아 쟁기 조사』.
- 국립중앙박물관, 1997, 『동원이홍근수집명품선(회화)』.
- \_\_\_\_\_, 2010, 『황남대총』(특별전 도록).
- 국립중앙박물관·호암미술관·간송미술관, 1995, 『단원 김홍도』(특별전 도록).
- 김재홍, 2011, 『한국 고대 농업기술사 연구 - 철제 농구의 고고학 -』, 고고.
- 리광희, 2005, 『고구려유물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북천박물관, 2005, 『선사·고대의 요리』(특별전 도록).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_\_\_\_\_, 2009, 『조선고고학전서 34(고구려 유물)』, 진인진.
- 서울대박물관, 1994, 『미사리』,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 \_\_\_\_\_, 2000, 『아차산 제4보루 -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
- 전호태, 2016, 『고구려 생활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강현숙, 2007, 「고구려와의 문물교류」, 『백제의 문물교류』(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1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김영길, 2021, 「프로이쯔꼬 문화의 마구에 대한 일고찰 - 재갈과 등자를 중심으로 -」, 『고구려발해연구』 70.
- 김은경, 2015, 「신라고분 출토 철부(鐵釜)의 부장과 의의」, 『영남고고학』 71.

- 김재홍, 1997, 「살포와 철서를 통하여 본 4~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 『과기고고연구』 2, 아주대박물관.
- \_\_\_\_\_, 2001, 「신라 중고기 촌제의 성립과 지방사회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5, 「고구려의 철제 농기구와 농업기술의 발전」, 『북방사논총』 8.
- \_\_\_\_\_, 2013, 「한국 고대 쟁기의 규격성과 국가적 성격」, 『고고학탐구』 14.
- \_\_\_\_\_, 2015, 「대성동고분군의 생업 환경과 그 변화」, 『고고학탐구』 18.
- \_\_\_\_\_, 2016, 「남녀의 시각으로 본 목제 농구와 농경의례」, 『목기, 생활의 지혜』, 복천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라명관, 1986, 「평양시 상원군 일대의 고구려무덤조사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86-3.
- 박호석, 1993, 「한국 쟁기의 발달과 역학적 특성」, 『민족문화』 6.
- 사공정길, 2014, 「고구려의 취사용기와 취사방식」, 『고구려발해연구』 49.
- 서민수, 2017, 「겨리의 관점에서 본 고구려의 우경」, 『역사와 현실』 106.
- 신광철, 2010, 「고구려 남부진선 주둔부대의 생활상 - 한강유역의 고구려보루를 통해서 -」, 『고구려발해연구』 38.
- 양익룡, 1953, 「안변룡성리고분발굴보고」, 『문화유산』 1953-4.
- 오승환, 2008, 「우리나라의 이동용부뚜막 연구」, 『한강고고』 2.
- 은희수, 2003, 「쇠스랑 소고」, 『국립공주박물관연구기요』 3.
- 이동건, 2022, 「고구려·발해 철제 농공구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말선, 1994, 「철제농구에 대한 고찰」, 『영남고고학』 15.
-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2022, 「몽촌토성서 '삼국시대 목제 쟁기' 첫 출토」 (보도자료, 2022. 7. 7).
- 홍보식, 2001, 「농기구와 부장유형 - 영남지역 2세기 후반~4세기대 분묘부장품을 대상으로」, 『한국고고학보』 44.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集安縣文物志』.
- 吉林省文物編修委員會, 1984, 『渾江市文物志』.
-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哲里木盟博物館, 1993, 『遼陳國公主墓』, 文物

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2, 『三燕文物精粹』, 遼寧人民出版社.

陳文華 編著, 1994, 『中國農業考古圖錄』, 江西科學技術出版社.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燕下都』, 文物出版社.

耿鐵華, 1989, 「集安高句麗農業考古概述」, 『農業考古』 89-1.

耿鐵華 外, 1993, 「高句麗兵器研究」, 『高句麗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陝西省博物館·文物管理委員會, 1966, 「陝西省發現的漢代鐵鐮和鏟土」, 『文物』 66-1.

孫泓, 2001, 「遼寧地區高句麗遺物綜述」, 『고구려연구』 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北票市文物管理所, 2004, 「遼寧北票喇嘛洞墓地1998年發掘報告」, 『考古學報』 4-2.

東潮, 1999, 「朝鮮三國·加耶時代の鐵製農具」, 『古代東アジアの鐵の倭』, 溪水社.

——, 2005, 「高句麗の漢城支配と營農」, 『川越哲志先生退官記念論文集』.

服部敬史, 2012, 「高句麗の犁」, 『和光大學表現學部紀要』 12.



# 장신구

1. 장신구의 사례와 특징
2. 장신구 제작에 구사된 공예기술



## 6장

# 장신구

이한상 |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전공 교수

『삼국지』나 『신당서』 등 중국 정사 동이전에 묘사된 고구려인의 복식 모습은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즉, “고구려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절풍(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과 같다. 벼슬하는 사람들은 2개의 새깃을 더 꽂았다”라는 기록과 개마총이나 쌍영총, 무용총 벽화 속의 인물 묘사는 잘 부합한다.

그러나 실제 유적에서 고구려의 복식과 관련된 자료가 출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것은 복식의 대부분이 유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북사』에 기록된 것처럼 생진의 애장품을 부장하지 않고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한 풍습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복식 구성의 일부분이었을 금속제장신구만 간간히 출토될 뿐이다.

이 글에서는 그간 알려진 고구려의 금속제장신구(이하 ‘장신구’로 약

칭)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구려인의 장신구문화 내지 복식문화의 일단을 조망하여 보고자 한다.

## 1. 장신구의 사례와 특징

### 1) 관(冠)

고구려인이 어떤 관을 착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삼국지』, 『주서』, 『북사』, 『수서』, 『구당서』, 『신당서』에 간략한 기록이 남아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에 “대가(大加)와 주부(主簿)는 머리에 책(幘)을 쓰는데, 중국의 책과 흡사하지만 뒤로 늘어뜨리는 부분이 없다. 소가(小加)는 절풍을 쓰며 그 모양이 고깔과 같다”라고 하였고, 『주서』 고려전에는 “벼슬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새의 깃을 2개 꽂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하였으며, 『북사』 고려전에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절풍을 쓴다. 그 모양이 고깔과 같은데 벼슬하는 사람(士人)은 2개의 새깃을 더 꽂았다. 귀한 사람들은 그 관을 소골(蘇骨)이라고 하며 대부분 자주 빛 비단으로 만들어 금이나 은으로 장식한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관인들은 비단 관에 새깃 2개를 꽂고 금테나 은테를 섞어 두른다고 하였는데, 새깃을 꽂는 목적은 신분 차이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고분벽화에 묘사된 인물상 가운데 새깃을 꽂은 예는 개마총, 쌍영총, 무용총 등에서 확인된다. 세부 묘사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물로 만든 관에 새깃털모양장식을 끼운 것이다. 이를 조우관(鳥羽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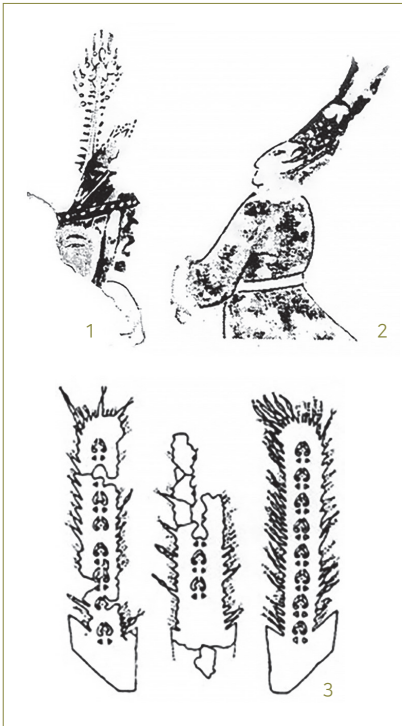


그림1 | 고구려의 관  
1·2. 개마총 벽화 3·5. 집안 4. 태왕릉

이라고 부른다.

이 중 개마총 벽화에 묘사된 관은 전 집안 출토 관식과 매우 유사하다. 가운데에 곧고 길쭉한 입식(立飾)이 있고 옆에 새날개모양장식이 부착된 것처럼 보인다. 중간 입식의 가장자리에는 깃털모양의 표현이 보이며, 맨 꼭대기는 조금 동그란 편이고 투조문양이 있다. 아프리카아브궁전 벽화와 당 이현묘(李賢墓) 벽화에 묘사된 인물상의 경우 국적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노태돈, 2003), 고구려 고분벽화의 인물상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고깔모양관모에 새날개모양장식을 꽂고 있다.

유적에서 실물로 발굴된 유물 가운데 고구려의 관이 있다. 그중 집안 우산하3105호분 출토 관식은 금동제품이며 양 날개부와 중간 입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면에 구멍이 많은 것으로 보면 원래 영락이 달렸던 듯하다. 입식의 가장자리에 깃털모양장식이 표현되어 있다(孫仁杰·遲勇·張雪岩, 199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9).

요령성박물관 소장 집안 출토 금동관식의 경우 중간 입식의 가장자리에 끌로 오려낸 깃털모양장식이 있다. 외형이 장타원형에 가깝고 맨 위에는 삼엽문이 투조로 표현되어 있다. 좌우의 장식은 새날개모양이며 전면에 둥근 달개가 가득 달려 있다. 관식의 일부로 보이는 다각형판도 있다. 이 관의 윗부분은 톱니모양을 띤다(孫仁杰·遲勇·張雪岩, 199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역시 전형적인 고구려 관식이다. 3개의 입식이 있는데 전체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가장자리는 깃털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입식의 중간에 세로로 8개의 삼엽문이 투조로 표현되어 있다. 함께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자형(山字形)장식은 하부가 곡선적이며 내부에는 삼엽문이, 가장자리에는 원문과 삼각형문이 투조로 표현되어 있다(신대근, 1997). 북연 풍소불묘의 오각형장식(黎瑤渤, 1973)에 비견되며, 신라 조익형(鳥翼形)관식의 중간 부위 장식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집안 태왕릉 출토품 가운데에도 금동관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분리되어 출토되었기 때문에 원래 어떤 모습으로 조합될지 분명하지 않다. 고깔모양관모 2점, 새날개모양장식 1점, 관테로 보이는 장식품 여러점이 수습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4). 고구려 유적에서 이갈



그림2 전 집안 출토  
금동관식의 삼엽문  
1. 요령성박물관 소장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 고깔모양장식이 발굴된 것은 유례가 드물고 새날개모양장식도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제 및 은제 관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고구려의 관문화는 신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신라의 5세기 무덤에서는 금속제관이 출토되는데, 그것의 기원을 고구려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 금동관식에서 보이는 여러 특징적인 요소인 조익형관식, 산자형장식, 깃털형장식, 삼엽문 등이 신라 초기 관에서 그대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의성 탑리고분 I곽 출토 금동관은 대륜(臺輪) 위에 3개의 입식이 부착되어 있는데, 입식의 가장자리에 가위로 오려 비틀어 끈 깃털형장식이 있다. 입식의 맨 위에는 집안 출토 관식처럼 둥글게 투조된 부분이 있다.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여러 점의 관 가운데 소위 전액식(前額式)관으로 불리는 은관과 금동관에도 깃털형장식이 있다.

신라의 전형적인 관식은 조익형이다.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므로 조우관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그 조형은 요령성박물관 소장 금동관식처럼 고구려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가운데 입식이 없고 오각형장식이 더 곡선적이며 관모에 끼울 수 있도록 아

랫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관식과 금동관식이다. 고구려의 조우관과 유사한 형태의 관이 포항 흥해 학천리 신라묘에서 출토된 장경호, 경주에서 채집되어 국립중앙 박물관에 소장 중인 장경호편, 황룡사지 출토 인물문 벽돌에 묘사되어 있어 두 나라의 관문화가 유사하였음을 알려준다. 다만 발굴된 유물 가운데 고구려에서 만들어져 신라로 전해진 것을 찾기는 어렵다. 발굴된 유물에는 고구려와 조금 다른 신라적 색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라 양식 관의 전형은 수지형(樹枝形)과 녹각형(鹿角形) 입식을 갖춘 금제대관(帶冠)이다.

이처럼 적석목곽분 축조기의 신라문화에 고구려적인 요소가 풍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계기는 4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와 신라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南征) 이후 두 나라의 우호관계는 5세기 중엽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고구려의 공예품이 경주로 다수 수입되었고 그것을 신라화한 물품 제작이 활발했던 것 같다. 450년의 고구려 변장(邊將) 살해사건을 계기로 두 나라는 약간의 갈등을 겪었지만 곧 회복되었으므로 551년 진흥왕이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가 영유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공격하기 전까지 고구려의 문물이 경주로 많이 전해졌을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의 외교관계에서 보면 고구려 물품이 신라로 전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아직 고구려 유적에서 적석목곽분 축조기의 신라 유물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 남북조시대 유적에서 백제와 신라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외에 평양 청암리토성 부근에서 출토된 금동관 2점은 대륜을 갖춘

것이며 얇은 금동판에 인동초가 중심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입식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인동초가 피어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입식 가운데는 가장자리를 불꽃무늬 대신 가위로 오려낸 다음 비틀어 꼬아 장식한 것도 있다. 대륜에는 인동초뿐만 아니라 연꽃도 장식되어 있다. 맨 아래쪽 좌우에는 마치 옷고름과 비슷한 드리개가 부착되어 있다(황욱, 1958).

이 금동관은 고구려를 대표하는 왕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구려의 왕이나 귀족이 썼던 실용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sup>1</sup> 만든 기법이나 모양이 보통의 관과 다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불상의 머리를 장식 하였던 보관으로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 2) 귀걸이

고구려의 장신구로는 귀걸이의 출토 사례가 가장 많다. 태환이식과 세환이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태환이식의 경우 고구려적 특징을 더 잘 보여준다(東潮, 1988; 三木ますみ, 1996; 유나리, 2015; 전호태, 2016). 전 세계적으로 출토되는 귀걸이 가운데 고구려의 사례처럼 주환-유환(遊環)-중간식-수하식을 모두 갖춘 예는 드물다. 태환이식은 페르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출토되고 있지만 소환구체(小環球體)와 심엽형

1 이 금동관이 발견된 것은 1950년대 후반이다. 당시 북한 청암리토성 주변에 조그마한 길을 내는 과정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뼈가 노출되었고, 그 주변에서 세 무더기의 금속공예품이 발견되었다. 현장에 급파된 박물관 직원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사람 뼈와 유물이 함께 묻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람 역시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출토품으로 높이 4~7.8cm 크기의 조그마한 불상 여러 점과 각종 장식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혹은 추형의 수하식을 갖춘 것은 고구려적인 귀걸이라 부를 만하다. 태환이식과 거의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된 세환이식의 경우 신라 초기 귀걸이와 유사하여 관과 함께 신라 장신구문화의 기원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 석촌동고분군 출토 귀걸이를 보면 백제 귀걸이문화의 개시에 고구려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 태환이식

고구려의 태환이식에 영락이 장식된 예는 없으며 다른 나라 귀걸이보다 더 간소하다. 태환이식은 중간식과 수하식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집안 마선구1호분 출토품(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1964), 집안 칠성산고분군·승리촌 수집품(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0), 청원 상봉리 신고품(박영복·김성명, 1990), 평양 만달산록7호분과 안학궁 출토품(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강서 보림리 대동6호분 출토품, 전 서울 능동 신고품,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품 등은 유환 아래에 매달린 연결고리와 구체, 저울추모양의 수하식이 뿔뿔로 접합되어 있다(문화재연구소, 1985). 이와 유사하지만 수하식의 형태가 심엽형을 띠는 이식으로 진천 회죽리 신고품(박영복·김성명, 1990), 평안남도 대동군(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과 집안 마선구고분군 출토품(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2)이 있다. 이외에 집안 마선구412호분 귀걸이처럼 중간식과 수하식이 뿔뿔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 분리된 것을 판상의 금구로 연결한 예도 있다. 특히 중간식의 형태는 신라 귀걸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환입방체이다.

고구려 귀걸이 가운데 초기형은 집안 마선구1호분, 칠성산고분군



그림3 심엽형 수하식을 갖춘 귀걸이

1. 중도동F구역 삼국시대 고분
2. 마선구고분군
3. 대동군
4. 회죽리



그림4 추형 수하식을 갖춘 귀걸이

1. 중도동C2구역 1호분
2. 승리촌
3. 상봉리
4. 남성골산성

수집품이다. 크기가 작은 편이고, 중간식과 수하식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무덤의 연대는 4세기 후반~5세기 초반이다.

고구려는 평양 천도 후 한반도 중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였다. 그 시기의 귀걸이가 춘천 중도동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중도동C2구역 1호분 귀걸이는 주환, 유환, 연결금구, 중간식, 수하식을 모두 갖추었다. 중간식은 소환구체이고 수하식은 추형이다. 집안 승리촌 수집품과 유사하다. 양자는 주환의 크기와 중간식 및 수하식의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위쪽 연결고리와 소환구체를 연결하는 방식, 소환구체의 형태, 수하식 맨 아래쪽 추형장식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 중도동F구역 삼국시대 고분 귀걸이는 일부 부품이 결실되었지만 집안 마선구고분군, 평안남도 대동군, 진천 회죽리 수집품과 같은 유형이다.



그림5 | 마선구1호분과  
황남대총 북분 귀걸이  
1. 마선구1호분  
2. 황남대총 북분

중도동 귀걸이는 집안 및 평양 주변 출토품과 공통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 평양 천도 직후에 제작된 물품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도동 귀걸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의 자료가 중원 지역 출토품이다. 진천 회죽리와 청주 상봉리 귀걸이는 정식 발굴된 것이 아니라서 고고학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고구려의 중원 진출 시점 이후 반입되었을 공산이 크다. 고구려가 백제의 왕도 한성을 함락시킨 것이 475년이고 그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고구려군이 진천, 청주를 거쳐 금강변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상당 기간 중원 지역은 고구려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고구려 귀걸이가 이 지역으로 전해졌을 것 같다.

서울 능동 출토로 전하는 태환이식은 절정기의 고구려 귀걸이 가운데 가장 화려하다. 이 귀걸이는 주환과 유환, 중간식과 수하식으로 구성된다. 주환과 유환에 중간식과 수하식이 달려 있는데 속 빈 구슬로 만든 중간식과 추모양수하식, 그리고 유환에 연결하는 고리가 모두 뿔으로 접합된 일체형이다. 연결고리와 중간식의 표면에는 금사와 금립을 조밀하게 붙여 표현한 꽃무늬가 있다.

고구려 태환이식 가운데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3쌍의 귀걸이는 주목된다. 이 귀걸이는 신라의 일반적인 귀걸이와는 꽤나 다른 특

징을 보이며 집안 마선구1호분 출토품을 비롯한 고구려 귀걸이와 유사하다. 이 귀걸이의 특징은 중간식과 수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결금구와 중간식, 수하식이 모두 뿔으로 접합되어 있는데 중간식이 공구체인 것과 소환구체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 (2) 세환이식

세환이식은 태환이식보다 다양하지만 신라나 백제 귀걸이에 비하여 간단하다. 이는 중간식과 수하식의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세분된다.

전 영원 출토 귀걸이는 주환에 유환, 연결금구, 소환입방체, 추형수하식이 차례로 연결된 것이다. 집안 칠성산고분군 수집품(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0), 강서 보림리 대동19호분과 용강 후산리 추동8호분, 태성리 저수지내고분군(전주농, 1963), 평양 만달산록7호분 출토품은 주환에 유환, 연결금구, 소환구체, 심엽형 수하식이 차례로 매달려 있다(野守健·樵本杜人, 1938). 강서 약수리벽화분 출토품(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칠성산고분군 수집품은 주환에 금사로 만든 연결금구가 걸려 있고 그 아래에 사슬과 공구체가 차례로 달려 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0). 전 영원 출토품 가운데에는 주환에 금판으로 만든 연결금구가 걸려 있고 그 아래에 소환구체, 사슬, 추형 수하식이 매달린 것이 있다.

마선구412호분 출토품은 주환이 태환과 세환의 중간 정도 굵기이고 중간식은 소환입방체, 수하식은 심엽형이다. 중간식과 수하식 사이에 사슬이 끼워져 있다. 이 귀걸이와 유사한 사례가 서울 석촌동 1호분과 2호분 사이 유물 집중부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 귀걸이는 주환이 공동이고 유환에서 수하식까지는 금이다. 위로부터 소환입방체, 사슬, 공



그림6 |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산 귀걸이  
 1. 석촌동 의례유구  
 2. 능안골32호분  
 3. 아하타오쓰카2호분

구체가 차례로 연결되어 있다(한성백제박물관, 2021). 중국 중원 왕조, 삼연, 신라 유적에서 이와 유사한 귀걸이가 아직까지 출토된 바 없어 백제 한성기 귀걸이에 고구려의 영향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성하고분군 수집품은 중간식이 공구체이고 상하에 세로로 고리 1개씩을 뺨으로 접합한 형태인데, 기본형은 태환이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형의 세환이식은 사비기 백제의 귀걸이와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전형적인 예는 부여 능산리 능안골32호분에서 출토되었다.

그간 부여 능산리 능안골32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귀걸이가 여러 유적에서 발굴된 바 있다. 부여에서는 관북리 연지, 왕흥사지 목탑지, 능산리 능안골 32호분과 49호분, 염창리 옹관묘, 염창리I-2호분, 정암리 수작골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그 밖에 당진 채운리1호분, 홍성 석택리A-2지구 1지점1호분, 보령 구룡리4-14호분, 일본 오카야마현 아하타오쓰카(八幡大塚)2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아하타오쓰카2호분 출토품은 능안골32호분, 왕흥사지 목탑지 출토품과 유사하며 6세기 후반 백제의 왕실공방에서 제작된 것 같다(이한상, 2022).

국내유적에서 출토된 세환이식 가운데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도로 유적 29호분 출토품은 중간식이 소환구체 1개로 구성되어 있는 유일한 예이다. 또한 이 귀걸이의 소환구체는 중간에 2줄의 각목대를 돌리고

있어 일반적인 신라 귀걸이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면 이 귀걸이는 고구려산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동해안이 신라와 고구려 문화의 접점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국립경주 박물관, 2001).

이외에 강동군 순창리의 굴바위 2호분과 5호분 출토 금동제귀걸이의 경우 제작시기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북한 학계에서는 고조선시기(기원전 25세기~기원전 24세기)로 편년하면서 고조선 공예기술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자료라 주장하고 있다(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1996). 그러나 이 귀걸이의 제작기법과 외형은 만달산록7호분 등 고구려 귀걸이와의 유사도가 높으며, 청동기시대의 유사한 귀걸이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구려 귀걸이로 볼 수 있다.

### 3) 팔찌

고구려의 팔찌는 출토 사례가 매우 적다(박희명, 2001). 그 가운데 고식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시중군 심귀리75호분 출토품이고, 가장 전형적인 것이 평양 만달산록15호분(朝鮮總督府, 1938)이나 고성군 봉화리1호분 팔찌이다(백련행, 1967).

고구려의 팔찌 가운데 가장 수량이 많은 예는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이다. 심귀리75호분, 대성산 식물원구역4호분(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급민속학강좌, 1973), 용강군 후산리 내동4호분과 추동9호분 팔찌가 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표면에 장식된 예로는 만달산록15호분(1점), 봉화리1호분(1점), 황북 보산군 천덕동 출토품(2점)이 해당된다(조선유적유물도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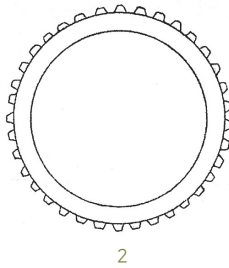


그림7 | 고구려의 팔찌  
1. 만달산록15호분  
2. 봉화리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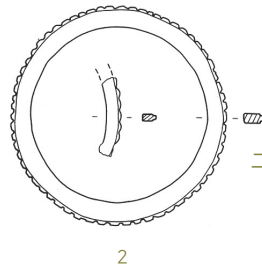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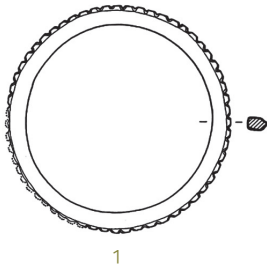


그림8 | 백제와 가야의  
6세기 팔찌  
1. 내산리34호분  
2. 능산리사지

찬위원회, 1989). 이 가운데 앞의 2건은 동제품이고 천덕동 출토품은 은제품이다. 팔찌의 표면에 돌기가 표현된 점이 특징적이다.

이 4점의 팔찌는 삼국시대 팔찌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 6세기적인 특징을 보인다. 신라와 가야의 경우 경주 금령총, 노서리215번지고분 출토품(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고성 내산리34호분 주실 출토품에 비견되며, 백제의 경우는 567년이라는 매납연대를 알 수 있는 능산리사지 목탑지 하부 출토품(국립부여박물관 외, 2000)과 유사하다.

팔찌의 변화는 윤(輪)의 단면에서 잘 관찰된다. 즉, 원형·타원형에서 방형으로, 다시 장방형으로 변화하며 돌기의 형태가 둥근 것에서 사다리꼴로 바뀐다. 그간 출토된 자료 가운데에는 645년의 매납연대를 가진 황룡사지 목탑지 하부 출토품(김정기 외, 1983)이 가장 늦은 요소를 지니고 있다.

#### 4) 허리띠장식

고구려의 허리띠장식(帶金具)은 진(晉)과 삼연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 산성하 152호분(集安縣文物保管所, 198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0)과 159호분, 우산하3560호분 출토품(장설암, 2001)은 진식대금구과 유사도가 매우 높다. 이 가운데 산성하152호분 출토품과 우산하3560호분 출토품은 제작의장이 정교한 편이어서 완제품이 수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산성하159호분 출토품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졌거나 삼연으로부터의 수입품일 가능성도 있다.

칠성산1196-1호분(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 산성하725호분, 우산하151호분, 산성하160호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外, 2010), 산성하330호분 출토품(柳嵐·張雪岩, 1984)처럼 과관에 엽문(葉紋)이 두조로 표현된 것과 칠성산873호분(吉林省文物工作隊·集安文管所, 1984), 우산하3560호분(孫仁杰·遲勇·張雪岩, 1993), 고산리10호분(채희국, 1964), 호남리 사신총 출토품(梅原未治·藤田亮策, 1966)처럼 방형관에 2개의 연결고리로 수하식을 매단 것이 주종을 이룬다. 이외에 우산하 3105호분, 3162호분, 3296호분(孫仁杰·遲勇·張雪岩, 1993; 장설암, 2001)과 환도산성 왕궁지 출토품처럼 타원형관을 엮어 만든 요패도 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4).

이 가운데 칠성산873호분, 우산하3560호분, 고산리10호분 출토품은 진식의 용문투조과관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는 방형과관, 아래에는 말각방형장식을 2개의 경첩식고리로 연결한 것으로 간략화된 용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호남리 사신총 출토품의 경우 다른 예보다 늦은 시기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인데, 방형관의 중앙에 인동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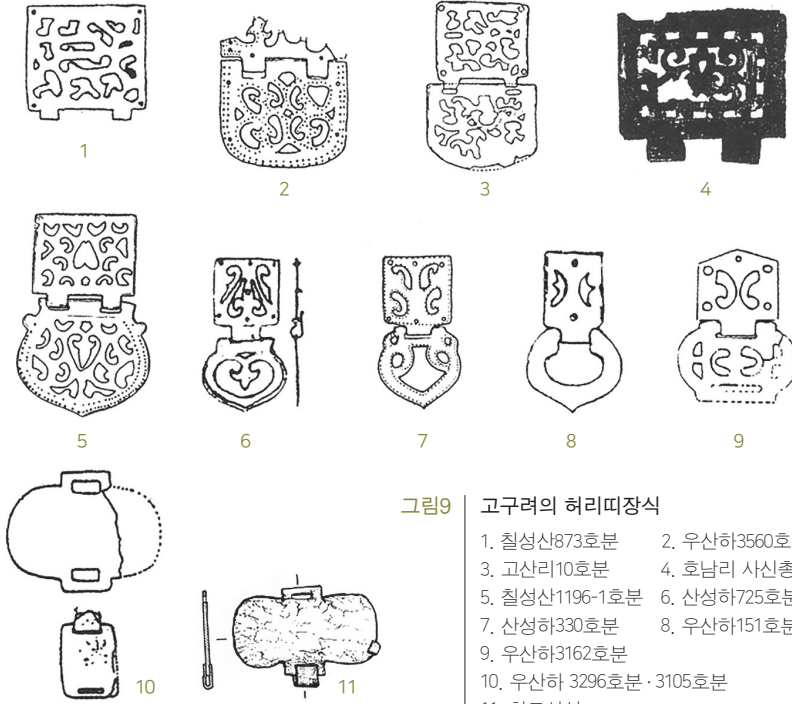


그림9 | 고구려의 허리띠장식

- |                       |              |
|-----------------------|--------------|
| 1. 칠성산873호분           | 2. 우산하3560호분 |
| 3. 고산리10호분            | 4. 호남리 사신총   |
| 5. 칠성산1196-1호분        | 6. 산성하725호분  |
| 7. 산성하330호분           | 8. 우산하151호분  |
| 9. 우산하3162호분          |              |
| 10. 우산하 3296호분·3105호분 |              |
| 11. 환도산성              |              |



그림10 |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신라 허리띠장식(천마총)

표현되어 있다.

이와 달리 칠성산1196-1호분 출토품의 경우 십엽형 수하식이 달려 있다. 표현된 문양은 좌우 대칭이며 특히 십엽형 장식의 표면에 소뿔모양의 이파리장식이 표현되어 있고 내부에 삼엽문이 거꾸로 표현된 점은 북표시 라마동IIM275호분(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2)이나 산성하725호분 출토품에 비견된다.

산성하725호분 출토품은 혁대에 부착되는 방형판의 도안이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과판(小泉顯夫, 1927; 朝鮮總督府博物館, 1933)과 유사하다. 다만 수하식의 좌우 어깨 부위에 엽이 없다는 점, 내부의 이파리가 2엽이 아니라 3엽이라는 점 등은 다르지만 방형판 도안의 유사성은 지적할 수 있다. 재질 또한 신라의 허리띠장식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은제품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진식이나 삼연식 허리띠장식의 경우 요패가 동반된 바 없다. 그간 타원형과 방형의 금속판을 이어서 만든 요패가 출토된 곳은 신라의 중대형 무덤과 백제의 무령왕릉(이한상, 1993) 밖에 없었으나 우산하3296호분과 3105호분, 환도산성 왕궁지에서 출토된 요패는 신라 요패의 기원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자료이다. 이와 아울러 우산하3162호분 출토품은 일반적인 과판과는 형태가 다르며 잔존양상으로 보면 요패가 매달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늦은 시기에 유행하는 허리띠장식은 역십엽형 과판을 부착한 것이다. 그간 고구려의 허리띠장식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역십엽형 과판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리고 역십엽형 과판으로 보고된 자료 가운데에는 허리띠장식이 아닌 화살통장식 부속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림11 | 고구려의 허리띠장식

1. 덕화리3호분 2. 오녀산성 3. 시가묘지M7호분 4. 시가묘지M9호분

고구려의 대표적인 역심엽형 과관으로 대동군 덕화리3호분 출토 은제품(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오녀산성 출토 동제품(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무순 시가묘지 M7호분 은제품 및 M9호분 철제품을 들 수 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7). 덕화리3호분 출토 허리띠장식은 교구나 과관, 대단금구의 형태나 제작기법이 6세기대 신라나 백제의 허리띠장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 가운데 특히 능산리사지 목탑지 출토품과 유사함을 지적할 수 있다. 부여 능산리사지 목탑지 하부 출토품은 공반된 창왕명사리감(昌王銘舍利龕)의 연대로 보면 567년에 매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덕화리3호분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오녀산성과 시가묘지M7호분 출토품은 재질이 다르지만 제작기법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639년에 매납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645년 무렵 매납된 것으로 보이는 경주 황룡사

지 목탑 하부 출토품을 들 수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익산시, 2009).

미륵사지 출토품은 은제품이다. 과관은 표면에 4개의 못이 장식되어 있다. 이면에는  $\cap$ 자형 고리가 있는데, 능사나 왕흥사지 과관과 달리 뿔으로 지판에 직접 부착한 것이다. 은제대단금구는 전체 형태가 규형(圭形)에 가깝다. 띠 연결부의 표면에는 7개의 못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며 박혀 있고 이면에는 연미상(燕尾狀)의 은관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황룡사지 출토품은 띠 연결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약간의 굴곡이 있다. 향후 자료가 더욱 증가되면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자료에서 본다면 고구려의 역십엽형 과관을 부착한 허리띠장식은 같은 시기 신라, 백제의 그것과 유사한 면모를 지녔던 것 같다.

## 5) 금동신발

고구려의 금동신발은 관식과 마찬가지로 출토 사례가 매우 적은 편이다. 전형적인 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 집안 출토품이며, 마선구고분군 수집품(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外, 2010), 마선돼지농장 부근 고분, 우산하3109호분, 우산하고분군 수집품(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外, 2010), 칠성산M1223호분 출토품, 장군총 제대(祭臺) 출토품(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外, 2004)이 알려져 있다.

이 금동신발의 공통점은 신발의 바닥면만 남아 있고 바닥에 금속제 못이 박혀 있다는 점이다. 신발 바닥판의 가장자리를 잘 살펴보면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신발과 접합하기 위한 자그마한 구멍이 촘촘히 뚫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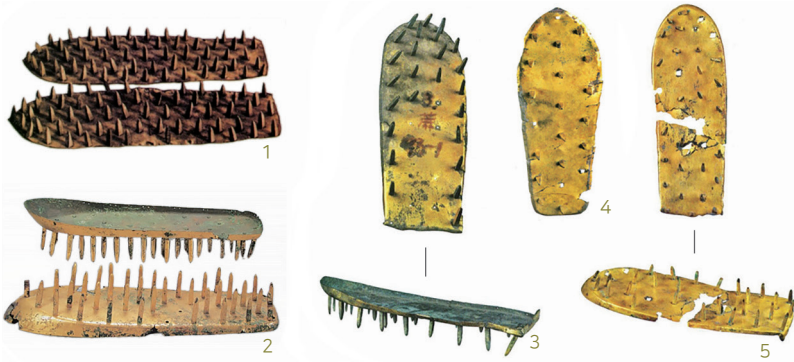


그림12 | 고구려의 금동신발

1. 마선대지농장 부근 고분 2. 전 집안 3·5. 마선구고분군 수집 4. 우산하고분군 수집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크기가 너무 크고 약하게 만들어져 있어 장례용품일 가능성이 있다. 신발의 길이는 30~34cm 정도이며 바닥판에 부착된 금동못의 수는 22~60개로 다양하다.

흉노나 선비족뿐만 아니라 서진과 동진에서 위진남북조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무덤에서 금동신발이 출토되는 경우는 없다. 금동신발의 하부에 금속못이 박힌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왜의 유적에서만 출토되며 그것의 기원지는 고구려일 가능성이 높다.

## 6) 고구려 양식 장신구

고구려의 장신구는 주변 여러 나라 장신구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다. 공통점은 백제와 신라의 장신구에서 일부 보이고, 차이점은 거의 모든 나라의 장신구에서 확인된다. 그만큼 고구려의 장신구는 고구려적 색채가 짙어, 이를 고구려 양식 장신구라 부를 수 있다. 백제, 신라

의 장신구와 공통인 점은 고구려 장신구문화가 영향을 준 부분이다. 따라서 장신구를 통해 고구려문화의 독자성과 탁월성을 엿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일부 발췌하여 고구려 장신구의 특징을 강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우관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머리에 새깃털모양장식을 부가한 사례가 많다. 아프리카시아브궁전 벽화 속 인물이나 당 이현묘 벽화 속 인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도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집안 출토 관식의 경우 새가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이다. 이를 조우관 혹은 조우형관이라 부른다. 이러한 유형의 관은 고구려, 신라, 가야, 백제를 제외한 곳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동이(東夷)라고 인식한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출토되는 독특한 관이다.

둘째, 수식 갖춘 귀걸이다. 전 세계의 귀걸이 가운데 고구려 귀걸이처럼 주환-유환-중간식-수하식을 모두 갖춘 예는 드물다. 특히 태환이식이 더 고구려적이다. 태환이식은 페르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출토되지만 소환구체나 심엽형 혹은 추형 수하식을 갖춘 것은 고구려적인 귀걸이라 부를 만하다. 이러한 고구려 귀걸이를 충실히 수용하여 더욱 발전시킨 것이 신라 귀걸이다. 신라 무덤 속에서는 약 1,000여 점의 귀걸이가 출토되었으며 삼국시대 귀걸이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정교하다.

셋째, 타원형 요패를 갖춘 허리띠장식이다. 고구려 허리띠장식의 특징적 요소 가운데 타원형 요패를 들 수 있다. 원래 요패란 북방 유목민이 말 위에서 생활도구나 약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인데, 고구려 출토품보다 더 오래된 금속제품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귀

걸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구려 양식 허리띠장식은 신라 고분에서 그 절정을 볼 수 있다.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금령총에서 출토된 금제허리띠장식에는 각종 요패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넷째, 금동신발이다. 신발의 바닥판만 금속이고 그것에 수십 개의 금동못이 박힌 것은 고구려산이다. 삼실총 고분벽화에 묘사된 갑옷 입은 장수의 신발에도 못이 박혀 있는데, 이는 철제품이었을 것 같다. 이러한 고구려의 금동신발문화는 신라와 백제로 전파되었다. 물론 세부 형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장송의례용품으로 금동신발을 제작하여 무덤에 매납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아직 같은 시기 중국 여러 왕조에서 금동신발이 발굴된 사례는 없다.

## 2. 장신구 제작에 구사된 공예기술

고구려 장신구의 제작에 쓰인 주요 금속은 금, 은, 동, 철이다. 은과 철은 사례가 적고 금과 동이 중심인데, 동은 표면에 도금한 것도 많다. 고구려에서 금이 장신구의 재료로 선택된 이유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공의 용이성, 내구성, 그리고 아름다운 색채 때문이다. 순금을 만들려면 금광상(金鑛床)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서 순금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노두는 거의 없으므로 채광에서 정련까지의 공정을 유지하려면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서 금을 생산할 수는 없다. 고구려 장신구에 쓰인 금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일까. 고구려에서 금이 산출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금의 채광이나 정련

관련 고고학적 증거도 없다. 따라서 고구려 장신구의 제작에 쓰인 금은 중국 한족 왕조나 삼연 등 주변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고구려와 달리 신라의 경우 황금이 많이 산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년상의 논란은 있으나 『삼국사기』의 “민간에서 금은과 주옥의 사용을 금한다”는 기록<sup>2</sup>과 『일본서기』 기록<sup>3</sup>을 보면 신라에서는 금의 산출이 많았던 것 같다. 다만 어디서 금을 산출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와 같은 신라의 황금을 5세기 무렵 고구려가 수입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은 매우 귀한 소재이므로 장인들은 최소한의 금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시도했을 것이다. 장신구는 토기나 기와처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시제품을 완성할 여유가 없으며 고구려 최고의 장인이 직접 만들거나 제작에 밀접히 관여하였을 것 같다. 무덤에서 출토된 장신구에는 고구려 장인이 구사한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조, 단조, 투조와 색채 대비, 조금(彫金), 누금세공(鏤金細工), 상감, 도금 등 모든 금속공예기술이 망라되어 있다.

장신구의 제작에 흔히 사용된 기술은 단조로, 금속 소재에 압축하중을 부여해 형상을 만든다. 철의 경우 고온으로 달군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나 귀금속의 경우 그대로 두드려도 문제가 없다. 금속 소재를 직접 타격하거나 혹은 모형을 만들어놓고 그것의 표면에 올려 타격한다. 금

2 『삼국사기』 신라본기 일성니사금11년, “又下令 禁民間用金銀珠玉.”

3 『일본서기』 중애친왕8년, “有向津國 眼炎之金銀彩色 多在其國 是謂栲衾新羅國焉”; 『일본서기』 신공황후, “初承神教 將授金銀之國 又號令三軍曰 勿殺自服 今既獲財國 亦人自降服 殺之不祥.”

공에서 단조는 가장 원초적이자 기본적인 기술에 해당한다. 고구려 장신구의 제작에는 단조기술의 구사 비율이 높다.

공방에 기초재료 형태로 비치되었을 금속판과 금속실의 제작에도 일차적으로는 단조기법이 구사되었고 재차 롤러나 인발판 등이 쓰였을 것이다. 단조 가운데 판상으로 가공하는 것을 판금(板金), 뒷면을 두드려 가공하는 것을 타출(打出)이라 부른다. 금속공예문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고구려에는 이미 제철기술이 만개해 있었으므로 단조 역량은 충분했을 것이다.

고구려의 장신구에는 문양이 표현된 사례가 많다. 관이나 허리띠장식에 인동문, 용문 등이 표현되었는데, 그때 사용된 기법이 투조이다. 투조란 금속판에 문양을 표현할 때 가시성을 높이려 바탕의 여백을 뚫어내거나 문양 그 자체를 뚫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통상 금속판 표면에 스케치하듯 밑그림을 그린 다음 망치와 끌을 이용해 차례로 뚫어낸다.

귀금속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색채를 대비시키거나 옥석을 끼워 넣어 장식할 때 화려함이 배가된다. 백제나 신라 장신구에 색채 대비 사례가 많음에 비해 고구려 장신구 가운데 색채 대비가 이루어진 사례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속의 표면에 금립이나 금선을 붙여 문양을 화려하게 꾸미는 기술을 누금세공이라 부른다. 금립을 만드는 공정을 보면 먼저 끌이나 줄을 이용하여 금사를 가늘게 썬 다음 열을 가해 녹이고 그것을 재차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금은 표면장력으로 인해 둥근 형태를 띠게 된다. 누금세공에 앞서 먼저 금립을 준비하게 되는데 선별 과정을 통해 금립을 크기별로 준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요즘은 국부에 열을 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도구가 없었기에

금립을 붙이는 공정이 가장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고급기술이 고구려 장신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서울 능동 출토품으로 전하는 귀걸이가 바로 그것이다. 귀걸이의 중간 장식에 금립을 조밀하게 붙여 표현한 문양이 있다.

도금은 철이나 청동의 표면에 금이나 은을 덧씌워 장식하는 기술이다. 얇은 금속판으로 지판을 감싸기도 하지만 아말감기술도 많이 활용된다. 아말감이란 금이나 은 등의 금속가루를 수은(Hg)에 섞은 상태를 지칭하는데, 이를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의 표면에 바른 다음 열을 가하면 357.73°C에서 수은이 끓으며 증발하고 원하는 색상의 금속만 남게 된다. 소량의 금을 들여 황금장신구 효과를 낼 수 있기에 고구려에서도 이 기술이 많이 구사되었다. 금동관이나 금동제허리띠장식, 금동신발에 이 기법이 구사되어 있다.

금속공예기술 가운데에는 주조나 단조처럼 장신구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있고 투조나 조금처럼 문양을 표현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도 있다. 조금의 경우 끌과 망치를 이용하여 금공품의 표면에 문양을 시문할 때 쓰이는 기술이다. 끌의 형태와 망치로 타격할 때의 각도와 작업방식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이처럼 고구려는 독특한 장신구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새날개 모양관식의 경우 디자인이나 제작기법에서 고구려적인 특징이 현저하다. 이 점은 귀걸이나 허리띠장식, 금동신발에서도 마찬가지로 살펴진다. 한편, 고구려의 장신구문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정치·문화적으로 밀접한 교류관계에 놓여 있던 신라와 백제에 큰 영향을 미쳐 삼국 전체에 황금문화가 유행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경우 6세기 중엽이 되면서 무

덤의 규모가 작아지고 장신구 등 부장유물의 수량이 급감하며 장신구에서 간소화 경향이 뚜렷해진다. 고구려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덕화리3호분이나 오녀산성 출토 허리띠장식이 잘 보여준다.

## 참고문헌

- 국립경주박물관, 2001, 『(특별전) 신라황금』, 씨티파트너.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 국립문화재연구소·익산시, 2009,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미륵사지유물 전시관.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군, 1998, 『능산리 - 부여 능산리 공설운동장신축예정 부지 백제고분 1·2차 긴급발굴조사보고서 -』.
-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및민속학강좌, 1973,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 대학출판사.
- 김정기 외, 1983, 『황룡사』, 문화재연구소.
- 노태돈, 2003,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 당 이현묘 예빈도의 조우관을 쓴 사절에 대하여 -』, 서울대학교출판부.
- 문화재관리국, 1973, 『무령왕릉 발굴조사보고서』.
- 문화재연구소, 1985, 『황남대총북분 발굴조사보고서』.
- 이한상, 2011, 『동아시아 고대 금속제장신구문화』, 고고.
- \_\_\_\_\_, 2022, 『유라시아 거대 무덤 속 황금문화』, 디자인공방.
- 전호태, 2016, 『고구려 생활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1996, 『조선기술발전사 1: 원시, 고대 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4: 고구려』.
- 한림대학교박물관, 1995, 『정비보존을 위한 방동리고분 발굴보고서』.
-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외, 2020, 『제천 교동근린공원 조성부지내 제천 교동 산13면 지 유적』.

- 리일남, 1991, 「고구려 귀걸이의 형태와 기법」, 『조선고고연구』 91-3.
- 박영복·김성명, 1990, 「중부지역 발견 고구려계 귀걸이」, 『창산김정기박사화갑기념논총』.
- 박희명, 2001, 「삼국시대 팔찌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련행, 1967, 「봉화리 무덤떼의 조사보고」, 『고고민속』 1967-1.
- 신대곤, 1997, 「우모부관식의 시말」, 『고고학지』 8.
- 유나리, 2015, 「고구려 금제 이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한상, 1993, 「무령왕릉 출토품 후보(I)」, 『고고학지』 5.
- 장설암, 2001, 「집안시 발굴 고구려 허리띠꾸미개(帶飾) 연구」, 『고구려연구』 12.
- 전주농, 1963, 「강서군 태성저수지 내부지대의 고구려 무덤」, 『고고학자료집3-각 자유적정리보고-』, 과학원출판사.
- 조유전, 1987, 「춘성군 신매리 고구려식 석실분 일례」, 『삼남김원용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 I』.
- 주경미, 1997, 「삼국시대 이식의 연구-경주지역 출토 수하부이식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11.
- 채희국, 1964, 「대성산성 무덤떼」,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 최종택, 2011, 「남한지역 고구려고분의 구조특징과 역사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81.
- 황욱, 1958, 「평양 청암리토성 부근에서 발견된 고구려 금동유물」, 『문화유산』 1958-5.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9, 『吉林集安高句麗墓葬報告集』, 科學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2, 『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科學出版社.
- \_\_\_\_\_, 2004a,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 \_\_\_\_\_, 2004b,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 \_\_\_\_\_, 2010, 『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 『集安縣文物志』.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2, 『三燕文物精粹』, 遼寧人民出版社.
-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6, 『遼河文明展 文物集萃』.
- 吉林省文物工作隊·集安文管所, 1984, 「1976年集安洞溝高句麗墓清理」, 『考古』 1984-1.
-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1964, 「吉林輯安麻線溝1號壁畫墓」, 『考古』 1964-10.
- 孫仁杰·遲勇·張雪岩, 1993,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石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黎瑤渤, 1973,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 『文物』 1973-8.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7, 「遼寧撫順市施家墓地發掘簡報」, 『考古』 2007-10.
- 柳嵐·張雪巖, 1984, 「集安洞溝古墓群高句麗墓葬發掘」, 『考古』 1984-1.
- 集安縣文物保管所, 1983, 「集安高句麗墓葬發掘簡報」, 『考古』 1983-4.
-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 馬場是一郎·小川敬吉, 1927, 『梁山夫婦塚と其遺物』, 朝鮮總督府.
- 梅原末治·藤田亮策, 1966, 『朝鮮古文化綜鑑』, 養德社.
- 朝鮮總督府, 1938, 『昭和十二年度朝鮮古蹟調查報告』, 朝鮮古蹟研究會.
- 朝鮮總督府博物館, 1933, 『博物館陳列品圖鑑五』.
- 東潮, 1988, 「高句麗文物に關する編年學的一考察」,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 10.
- 三木ますみ, 1996, 「朝鮮半島出土の垂飾附耳飾」, 『筑波大學先史學·考古學研究』 7.
- 小泉顯夫, 1927, 「慶州瑞鳳塚の發掘」, 『史學雜誌』 38-1.
- 野守健·樞本杜人, 1938, 「晚達山麓高句麗古墳の調査」,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查報告』, 朝鮮總督府.



# 불교조각

1. 초기 불교미술
2. 평양 천도 이후의 불교미술



## 7장

# 불교조각

최성은 |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고구려에서 불교가 공인된 것은 소수림왕 2년(372년)으로 당시 오호십육국의 하나로 북중국의 거의 전역을 차지했던 전진(前秦)의 왕 부견(苻堅)이 승려 순도(順道)를 사신과 함께 파견하면서 불상과 경전을 고구려로 보내왔다. 그러나 동진(東晉)의 승려 지둔(支遁, 道林, 314~366년)이 고구려 도인(高麗道人)에게 서신을 보낸 기록 등으로 볼 때 불교는 그 이전에 이미 고구려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소수림왕 4년(374년)에는 승려 아도(阿道)가 고구려에 왔고, 그 이듬해 초문사(肖門寺, 省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세워 순도와 아도를 각각 머물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고국양왕은 불법을 숭신(崇信)하여 복을 구하라는 칙령을 내리고, 광개토왕 영락 3년(393년)에는 9개 사찰이 평양에 세워졌다.

화북 지역뿐 아니라 남조로부터 불교문화가 고구려에 전해졌을 가능성은 동진 승려 지둔과 고구려 도인(道人)의 서신 왕래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 ‘도인’이라는 칭호는 남조에서 널리 쓰였던 승려를 가리키는 표현이어서 ‘고구려 도인’은 불교 공전 이전에 동진에서 활약한 고구려 승려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광개토왕 때에 동진의 승려 석담시(釋曇始)가 경률(經律) 수십 부를 가지고 고구려의 요동 지역에 와서 십여 년간 불법을 펴고 교화하다가 돌아갔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고구려 불교문화의 형성에 남조(南朝) 불교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불교가 고구려에 전래되고 사찰이 여러 곳에 세워졌다면 불전(佛殿)과 함께 예배의 대상인 불상과 불화, 의례에 필요한 불교의식구 등이 갖추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시기 불교미술에 대한 자료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현재 전하는 고구려의 불교미술, 특히 예배존상인 불상들은 대부분 평양 천도 이후 6세기에 제작된 소형상에 불과하여 삼국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불교문화를 꽃피웠을 고구려의 불교미술을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영세성 때문에 지금까지 고구려 불교조각 연구는 중국 남북조시대 북조(북위-동위-북제)와의 불교문화 교류를 통한 ‘불상 양식과 도상의 전래와 수용’이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중국 강소성 남경(南京)과 사천성 성도(成都) 일대에서 남조의 남제(南齊)·양(梁) 시기 불상이 출토되면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고구려 불교조각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그동안 삼국의 경계지역에서 수습되었던 고구려계 불상과 새롭게 출토된 고구려계 불상에 대한 검토, 일본 열도에 전해진 삼국시

대 불상 가운데 고구려 작품으로 추정되는 몇몇 불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점차 고구려 불교조각의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1. 초기 불교미술

평양 덕흥리고분(408년)의 목서명에 묘주인 유주자사(幽州刺史) 진(鎭)이 ‘석가문불(釋伽文佛)의 제자’로 기록된 것을 보면, 당시 고구려 왕실과 상류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신앙이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무용총 벽화의 묘주가 승려로 보이는 인물을 맞이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생활도와 쌍영총 벽화에서 승려를 따라 묘주의 부인과 식솔들이 예불을 하러 행진하는 장면, 뒤에서 살펴볼 장천1호묘 벽화에 부처에 예배하는 묘주와 그의 부인이 묘사된 장면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불교미술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유물이 전하지 않고, 고구려에 불상을 전해준 전진(前秦, 351~394년) 시기의 불상도 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시 어떤 형태의 불상이 고구려의 사원에 봉안되고 예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오호십육국시대의 불상 가운데 기년작(紀年作)인 후조(後趙) 건무(建武) 4년 금동여래좌상(338년)과 감숙성 영정(永靖) 병령사(炳靈寺)석굴 169굴의 서진(西秦)시기 벽화와 소조불상들(420년), 북량(北凉) 석탑(397~414년) 표면에 새겨진 불상들, 대하(大夏, 407~431년)에서 제작된 금동여래좌상(429년), 남조 송원가(元嘉) 14년 금동여래좌상(437년) 등에서 볼 수 있는 양어깨를 가리는 인도의 통견식(通肩式)으로 대의(大衣: 부처나 승려가 입는 가사)를



그림1 | 서울 자양동(뚝섬) 출토 금동여래좌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2 | 후조 건무 4년 금동여래좌상(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 소장)

입고 두 손을 마주 포개어 복부에 대고 있는 초기 선정인(禪定印)의 수인을 결(結)한 형식의 여래좌상이 고구려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 초기 불상을 유추해볼 수 있는 상으로 1959년 서울 자양동(뚝섬)에서 발견된 금동여래좌상(국립중앙박물관)을 꼽을 수 있다(그림1). 이 상은 크기가 4.9cm의 소형 불상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불상 가운데 제작시기가 가장 이르다. 광배를 잃었고 얼굴에 손상이 심하지만 양어깨를 가리는 통견식으로 대의가 표현되고 초기 선정인을 결한 모습이나 방형대좌의 좌우에 사자(獅子)가 새겨진 형태는 후조 건무 4년(338년) 금동여래좌상(그림2)과 같은 중국 화북 지방에서 제작된 오호십육국시대 불상과 매우 유사하다.

뚝섬 출토 금동여래좌상의 제작국에 대해서는 국내 제작설과 중국

화북 지역 제작설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매우 작은 소형 금동불이므로 화북 지역의 전법승(傳法僧)을 통해 전래된 상일 가능성이 있다. 한강 유역은 고구려가 진출한 475년까지 백제의 영토였고 551년 무렵부터 신라의 영역이었으므로 삼국 가운데 어느 나라로 가져온 불상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불상이 중국 화북 지역에서 제작된 4세기 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4세기에 전진을 비롯한 오호십육국에서 고구려에 불상이 전래되었다면 이 불상과 유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초기 불상의 형태를 유추해볼 수 있는 확실한 자료는 길림성 집안에 있는 장천1호분의 전실 동쪽 천장고임에 그려져 있는 <예불도>의 여래좌상이다(문명대, 1991; 전호태, 2000). 현존하는 유일한 5세기 중엽 고구려 불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예불도> 여래좌상은 수염이 표현된 온화한 상호(相好), 어깨가 처진 불신(佛身) 위에 통견식으로 입은 대의, 붉은 안료로 화염문이 그려진 거신광배(擧身光背), 방형대좌의 좌우에 백색 안료로 사자가 표현되었는데, 그 형식이 5세기 전반의 중국 불상에서 보이는 특징과 유사하다(그림3). 이 <예불도> 위쪽으로 돌출된 벽면에는 육계(肉髻)가 높은 불상의 머리와 원형 광배, 광배에서 퍼져 나간 광선을 표현한 듯 붉은색으로 칠한 부채꼴의 배경장식이 그려져 있다. 마치 천상세계를 표현한 듯한 이 장면은 석가불의 수기(受記)를 받고 56억 7,000만 년 동안 도솔천에서 설법을 하며 하생을 기다리는 미륵보살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장천1호분 전실 천장고임의 서쪽 측면에 그려진 <보살도>(그림4)는 당당하고 다부진 체구와 천의(天衣) 자락이 좌우로 힘차게 휘날리는 표현이 북량~북위대에 개착된 장액 금탑사(金塔寺)석굴의 보살입



그림3 | 장천1호분 <예불도>의 여래좌상(길림성 집안)



그림4 | 장천1호분 <예불도>의 보살입상  
(길림성 집안)



그림5 | 북위 금동보살입상  
(워싱턴 프리어갤러리 소장)

상이나 5세기 북위 금동보살입상(그림5)과 유사하다(김리나, 1996). 이처럼 북중국을 지배했던 오호십육국이나 북위, 양자강 이남의 남조 지역에서 제작된 불상이 고구려에 전해져 고구려 초기 불상 형성에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평양 천도 이후의 불교미술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동명왕릉의 남쪽에 정릉사(定陵寺)가 창건되었고 대동강을 따라 곳곳에 사찰이 세워졌다(김정기, 1991).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토성리(土城里)사지, 청암리(靑巖里)사지, 평천리(平川里)사지, 상오리(上五里)사지, 원오리(元五里)사지 등 여러 절터에서 고구려 기와, 벽돌(塼), 토기편, 금속장식물과 함께 불상이 출토되었다.

동명왕릉의 능사(陵寺)로 알려진 정릉사지에서 1974년에 출토된 꽃 모양의 금동장식물(그림6)은 잔존높이 23.2cm로 아래쪽 중앙에 축이 붙어있어 불상의 광배(光背)나 천개(天蓋), 또는 금동번(幡)에 달려있던 것으로 생각된다(양은경, 2008). 또한 문자 왕 7년(497년)에 창건된 금강사로 추정되는 청암리사지가 있는 청암리토성 부근에서 1938년에 출토된 금동관(그림7), 금동광배, 금동장식편은 고구려의 뛰어난 금속공예기술을 알려준다



그림6 | 평양 정릉사지 출토 금동 화형장식(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3)



그림7 | 평양 청암리사지 출토 금동관(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小泉顯夫, 1940). 출토된 2점의 금동관은 팔메트(palmette) 넝쿨문과 보주가 투각된 환대(環帶) 위에 9개의 화염장식이 세워져 있고, 관대의 양쪽으로 수식(垂飾)이 늘어져 있는 형태로, 목조보살상의 보관으로 추정하고 있다(양은경, 2011). 한편, 토성리사지에서는 소조불상틀(範: 거푸집)의 파편 3점이 출토되었고, 평천리사지에서는 금동반가사유 보살상을 비롯하여 금동광배, 금동대좌, 금동투조신장상 등이 출토되었다.

## 1) 6세기 전반의 불교조각

현재 전하는 고구려 불상 가운데 명문이 있거나 조형적인 면에서 제작시기가 6세기 전반경이라고 생각되는 불상은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539년)을 비롯해서 평양 원오리사지 출토 소조불·보살상, 전(傳) 황주 출토 석조여래좌상(소재 불명),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보살입상,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평양 평천리 출토 영강7년명금동광배(551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불상은 재료 면에서 금동, 소조, 석조 불상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 (1) 평양 원오리사지 출토 소조여래좌상과 보살입상

평양에서 서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평원군 덕포리의 만덕산 서남쪽 기슭에 위치한 원오리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여래좌상(그림8)과 소조보살입상(그림9)은 고구려에서 소조불상이 유행했음을 알려준다. 1937년 발굴조사 당시 소조여래좌상은 204구, 소조보살입상은 108구가 출토되었는데, 여래좌상은 19.5cm, 보살입상은 17.5cm이다[국립중앙박물관,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도쿄국립박물관, 마사키(正木)미술관, 도쿄대학박물관 소장]. 출토된 소조여래좌상과 소조보살입상의 수량에서 볼 때, 원오리사지 소조불상들은 사찰 불전의 내부 벽면을 장엄하는 천불 또는 삼천불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문명대, 1981; 양은경, 2009). 불전을 천불이나 삼천불로 장엄하였다는 것은 천불사상의 유행을 말해주는데(김영태, 1990), 이와 같은 천불신앙은 뒤에서 살펴볼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그림8)은 두 손을 마주 포개어 배에 대고



그림8 |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9 | 원오리사지  
소조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10 | 송 원가 14년  
금동여래좌상  
(永靑文庫 소장;  
東京國立博物館, 1988)



그림11 | 평양 토성리 출토  
도제불상틀  
(평양중앙력사  
박물관 소장)



그림12 | 평양 토성리 출토  
도제불상틀로 제작한  
석고 모형  
(『昭和十二年度古蹟  
調査報告』, 圖57)



그림13 | 평양 토성리 출토 도제  
불상틀의 복원 모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대불교조각대전』,  
2015)

있는 수인을 결한 모습인데, 오호십육국시대 금동여래좌상(그림2)이나 남조 송 원가 14년 금동여래좌상(그림10)과 같은 초기 선정인 불상 형식을 따르고 있다. U자형 주름이 새겨진 통견식 착의법이나 수인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뚝섬 출토 금동여래좌상이나 장천1호묘〈예불도〉의 여래좌상(그림3)과 크게 다르지 않고 5세기 불상의 도상적 특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보수성이 드러난다. 동그랗고 온화하면서도 여성적인 상호는 남조의 송 원가 14년 금동여래좌상(그림10)의 상호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불교미술의 초기 수용단계에서 받은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그림8)은 평양 토성리(평양시 낙랑구역 토성동)에서 출토된 3점의 소조불상들 가운데 하나로 찍은 것인데, 앞면을 거푸집으로 찍어 성형하고 뒷면은 대나무칼(篋)로 마무리하여 저온에서 소성(燒成)한 뒤에 채색하였다(최성은, 2015). 거푸집에 흙을 밀어 넣어 성형하는 제작기법은 불상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었다. 1931년 평양 토성리에서 출토된 3점의 도제불상들은 두 형태의 불상 앞면을 찍는 편면(片面)의 거푸집이다. 이 가운데 현재 평양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제불상들(그림11)은 원오리사지 불상을 찍은 거푸집으로, 일제강점기에 이 틀로 제작한 석고 모형(그림12)은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과 완전히 일치한다. 또한 원오리사지에서 몇 킬로 떨어진 만덕산 북쪽 기슭 굴리(橘里)의 절터에서도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과 같은 불상틀로 제작된 소조불상들이 출토된 점에서 볼 때 토성리에 있는 공방에서 제작된 동범(同範)의 소조불상들이 평양 일대의 여러 사찰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小泉顯夫, 1938).

토성리에서 출토된 또 다른 불상틀편 2점(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은 하



그림 14 남제 영명 원년 석조  
미륵·무량수여래상  
(사천박물관 소장)

1. 미륵여래좌상
2. 무량수여래입상

나의 불상들이 쪼개진 파편이다(그림13). 복원된 형태를 보면, 두 손을 마주 포개어 배에 붙인 초기 선정인의 수인은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과 동일하지만, 옷주름의 형태가 복잡하고 좌폭(坐幅)은 넓으며 대좌의 절반가량을 치마(裙)으로 덮은 상현좌(裳懸座)가 표현되었다. 상체의 착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대좌를 덮은 하체의 옷주름이 중앙과 좌우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 표현은 남조 불상에서 그 양식적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남조의 송·남제 불상에서 발견된다(최성은, 2015). 사천성 무현 출토 영명(永明) 원년(483년) 석조미륵·무량수여래상의 앞면에 새겨진 미륵여래좌상(그림14-1)을 비롯하여 사천성 성도(成都) 출토 남제 영명 8년(490년) 석조미륵삼존불좌상, 남경(南京) 종산(鐘山) 상정림사지(上定林寺址) 출토 소조여래좌상, 남경 서영촌사지(西營村寺址) 출토 소조여래좌상(그림15) 등과 같은 남조 불상에서 유사한 표현이 발견된다. 특히, 이 가운데 서영촌사지 소조여래좌상은 송대까지 제작시기가 올라가



그림15 | 남경 서영촌사지 출토  
소조여래좌상(龕巨平, 2022)



그림16 | 전 황주 출토 석조여래좌상  
(평양박물관 舊藏; 梅原末治, 1966)

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龕巨平, 2022), 불상을 포함한 고구려 초기 불교문화의 형성에 남조와의 교섭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토성리사지에서 출토된 두 종류의 도제불상들에서 보이는 불상 양식이 혼합되어 또 다른 하나의 불상형으로 나타난 예가 전 황주 출토 석조여래좌상이다(그림16). 이 상은 현재 소장처를 알 수 없고 사진만 전하는데, 두부와 광배 일부를 잃은 높이가 약 12.5cm 정도이고 맞대어 포갠 두 손 아래로는 세로 주름이 새겨진 대의 자락이 중앙과 좌우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흘러내려 방형대좌를 덮고 있다. 중앙 옷자락의 끝단이 긴 U자형을 이루는 점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제불상들 소조여래좌상과 유사하지만 등(等)간격의 옷주름이 세로로 새겨진 것은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의 거푸집인 평양중앙력사박물관 불상들의 여래좌상과 유사하여 전 황주 출토 석조여래좌상에서 두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진홍섭, 1976; 최성은, 2015).

## (2)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수도 평양에서 천불을 주조하는 대규모 불사로 조성되어 고구려 불교계에서 ‘천불신앙’이 유행했음을 알려주는 불상은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이다(그림17). 1963년 경남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 도로변의 돌무지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불상은 독존상으로 현재 높이는 16.2cm, 불신의 높이는 9.1cm, 상부가 훼손된 광배가 온전하다면 전체 크기가 고구려척으로 반 척 정도 되는 작은 불상이다.

천불상의 하나로 조성된 이 불상은 당시 평양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불상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머리의 나발(螺髮)이 줄을 맞춰 촘촘하고 세밀하게 새겨졌고 푸른색으로 채색된 흔적이 있다(박학수, 2014). 남북조시대에 널리 유행했던 ‘수골청상(秀骨清像)’의 가늘고 긴 얼굴에는 차분하고 정적이면서도 단엄한 상호가 표현되었다. 중국식(漢式) 복제로 표현된 대의는 좌우로 힘차게 뻗어 오른쪽으로 치우친 U자형 주름을 이루고, 대의 안에 내의(內衣)가 비스듬히 사선으로 보이며 오른쪽 어깨 위에서 내려온 대의 자락이 왼쪽 손목 위에 올려져 있다.

수인은 왼손의 약지와 소지를 접어 올린 시무외·여원인(通印)을 결하고 있는데, 이런 수인은 고구려 불상을 비롯한 삼국시대 불상에서 널리 나타나는 표현이다. 현존하는 남조 불상 가운데에서는 5세기의 남제 영명 원년 미륵·무량수여래상(그림14)에서 처음 보이고, 남제와 양의 불상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반면 북위 불상에서는 6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남조에서 먼저 유행했던 도상으로 생각된다. 대좌는 단판복련(單瓣覆蓮) 연화좌이며 주형(舟形)광배에는 원에 가까운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진 다양한 형태의 선으로 휘몰아치는 화염문이 새



1



2



3

그림17 |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 앞면 전체 2. 뒷면 명문 3. 얼굴 부분

겨졌다. 불상과 대좌, 광배가 하나의 거푸집으로 주조된 통주식(通鑄式) 주조기법으로 제작되었고, 주조 뒤에는 공구로 광배의 문양을 새긴 뒤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한 것이다. 광배 뒷면에는 4행 47자의 명문이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延嘉七年歲在己未高麗國樂良 / 東寺主敬弟子僧演師徒卅人共 /  
造賢劫千佛流布第廿九回現義 / 佛比丘法類所供養

위 명문은 “연가 7년 기미년에 고구려 평양 동사(東寺)의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제자 승연이 사도 40명과 함께 현겁천불을 만들어 유포하였는데, 그 29번째 인현의불(因現義佛)로 비구 범류가 공양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불상의 명문에 보이는 ‘연가’가 고구려 연호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연가 7년’에 대해서는 419년, 479년, 539년, 599년 설이 제기되었고, 이 가운데 안원왕 대(531~545년)인 539년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원룡, 1964; 윤무병, 1964; 김영태, 1992; 문명대, 1980; 김리나, 1996; 정운용, 1998; 문명대, 1999; 장충식, 2000; 최성은, 2017).

명문에 보이는 ‘인현의불’은 서진 영강(永康) 원년(300년) 무렵에 축법호(竺法護)가 한역한 초기 대승경전인 『현겁경(賢劫經)』에서 현겁천불 가운데 29번째로 등장하는 부처로, ‘현의불(現義佛)’이라고도 한다. 『현겁경』에서 설한 현겁천불 가운데 구류손불(拘留孫佛)부터 석가불까지 네 부처는 이미 세상에 출현한 부처이고 다섯 번째 자씨불(慈氏佛: 미륵불)부터는 아직 성불하지 않은 당래(當來)의 부처인데, 이 경전은 그 29번째 인현의불이 3회의 설법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무수한 제자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미륵의 3회 설법과 비교될 만한데, 『현집경』에서는 천불 각각의 부처가 모두 3회의 법회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 이 경전은 오호십육국시대 이래 불교도의 관불수행(觀佛修行)과 이를 위한 천불 조성의 교리적 기반이 되었는데, 평양 동사의 천불 조성 불사 역시 이와 같은 실천적 대승불교 수행과 신앙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영태, 1990).

### (3) 영강7년명금동광배

1946년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동(구 평양시 평천리)의 절터에서 금동 대좌편, 금동광배와 함께 발견된 영강7년명금동광배는 불상이 결실되었고 주형광배만 전한다(그림18). 광배 하단부가 화재로 손상되어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높이는 약 21cm, 너비 15cm이다.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7행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永康七年歲次辛□……/爲亡母造彌勒尊像(祈)/福願令亡者神昇兜□/  
慈氏三會□□/之初悟无生(念)究竟必昇(菩)/提若有罪右願一時消滅/  
隨喜者等同此願

이 명문은 “영강 7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을 빌고자 미륵존상을 조성하오니, 바라옵건데 돌아가신 분의 신령이 도솔천으로 올라가 자씨(미륵보살)의 3회 설법을 만나서 무생의 법리를 깨닫고 구경을 염하여 반드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며, 만약 죄업이 있다면 일시에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하는 모든 이들도 이 발원을 같이 이루소서”

그림18 | 영강7년명금동광배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1. 앞면 2. 뒷면 명문



그림19 | 남경 신가구 출토 금동광배  
(남경 육조박물관 소장)

라는 내용이다(최연식, 2002). 여기서 ‘영강 7년 신□년’은 551년(양원왕 7)으로 추정되고 있어 현존하는 고구려 6세기 금동불상 가운데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 다음으로 제작시기가 이른 작품이다.

영강7년명금동광배는 정상부가 뾰족하고 좌우 폭이 넓어 안정적인 형태의 주형광배로 연화문 두광(頭光)과 이를 에워싼 넝쿨문대, 두광부의 정상 중앙 5엽 연화좌 위에 놓인 보주(寶珠), 좌우 아래에서 올라오는 연꽃과 봉우리가 달린 연꽃 줄기, 그 바깥쪽에 새겨진 이른바 ‘횡룡문(虺龍文)’이라고 불리는 화염문(火焰紋)으로 구성되어 어느 한 부분 간단하게 생략되거나 빠진 것 없이 주형광배의 기본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이 광배와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의 광배로는 남경 신가구(新街口) 출토 금동광배를 꼽을 수 있다(그림19). 6세기 초 남조 양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금동광배는 주형광배의 여러 요소가 고루 잘 갖추어져 주형거신광배(舟形擧身光背)의 전형을 보여준다.

영강7년명금동광배의 중앙에는 본존불상의 광배축을 끼웠던 방형구멍이 뚫려 있고 협시보살은 광배와 일주식(一鑄式)으로 주조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광배 좌우 하단이 화재로 훼손되어 좌우에 협시보살상이 부착되었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광배의 폭으로 볼 때 본존불상의 좌우에 보살입상이 부착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최성은, 2012).

영강7년명금동광배는 본존불을 잃었고 광배 하단부가 화재로 손상되었으나 섬세하고 수준 높은 제작기법을 보여주고 다른 고구려 불상들의 주형광배에 비해 세부가 충실하게 표현되어 광배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고구려의 미륵신앙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광배의 섬세하고 정직한 제작기법으로 미루어볼 때, 이 미륵불상의 조성 발원지는 고구려 상류층 인물일 것으로 생각된다.

#### (4)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오늘날 전하는 고구려 불상들이 대부분 소형 금속제불상인 가운데 드물게 전하는 큰 규모의 석조상으로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이 있다(그림 20). 이 석조여래삼존상의 제작국에 대해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모두 거론되었으며, 각각의 견해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문명대, 1979; 정영호, 1980; 서영일, 1997; 김춘실, 2016). 이 가운데 6세기 전반 충북 지역의 지정학적인 상황이나 상 자체의 조형적 특징에서 볼 때, 고구려 남진정책의 전략적 거점에 건립된 사찰에 봉안되었던 고구려 불상이라는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김영관, 2006; 장창은, 2014; 김춘실, 2016). 그렇다면 이곳의 사찰은 고구려 남진의 최전선에 주둔했던 고구려군과 그들과 함께 주변에 거주했던 고구려인들의 신앙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1년과 1992년에 이루어진 발굴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찰이 경영되었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으나, 출토된 기와와 토기편은 고려에서 조선 시대에 걸친 것이었고 삼국시대의 기와는 건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재활용된 폐기물로 파악되었다(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1991, 1992).

석조여래삼존상은 폭 2m 정도의 석재에 고부조(高浮彫)로 새겨졌는데, 현재 좌협시보살입상이 결실되었고 본존불좌상도 얼굴과 상체에 큰 손상을 입은 상태이나 원래는 풍만하고 입체적인 불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부가 훼손된 단면을 보면 커다랗고 양감이 풍부한 불두가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왼팔에는 4단의 옷주름이, 오른팔에는 2단의 옷주름이 새겨져 있어 대의는 통견식으로 표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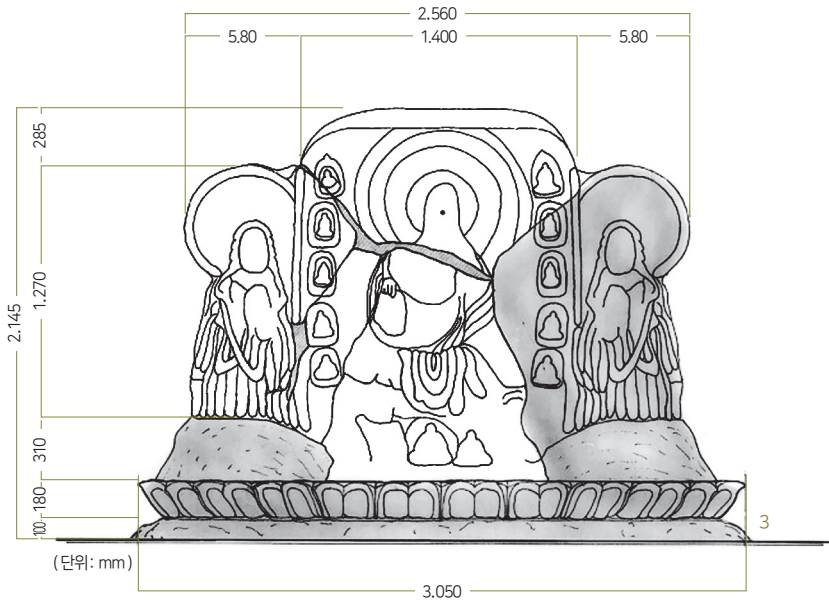


그림 20 청주 비종리 석조여래삼존상

1. 앞면 2. 협시보살입상 3. 실측도면(음영은 결실 부분 복원, 1990년 문화재청)

본존여래좌상의 광배는 특이한 형태인데, 4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두광과 여기에 연결되는 신광(身光)이 표현되었고 그 바깥으로 방형에 가까운 형태의 거신광배가 둘러싸고 있는데, 윗부분이 깨져서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원래는 낙양 용문(龍門)석굴 고양동(古陽洞) 마애삼존불좌상(그림21)의 광배처럼 상부 중앙이 뾰족한 아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광배 향(向) 우측에 화불이 5구 보이고 있어 원래는 한쪽에 5구씩 모두 10구가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불상의 상체는 왼쪽 어깨부터 가슴에 걸쳐 파괴되었으나 오른손을 들어 시무외인을 결하고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수인이 확인된다. 방형대좌 윗부분을 덮은 상현좌의 옷자락은 두꺼운 직물의 중량감이 느껴지는 U자형의 주름 좌우에 굵은 세로 주름이 새겨져 있다.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에서 특이한 점은 본존상과 좌우협시보살상이 하나의 광배를 공유하는 일광삼존 형식이 아니고 각각 별개의 광배를 가진(협시상의 광배 끝부분이 본존상의 광배에 살짝 겹쳐진) 독립적인 구조라는 점이다. 이처럼 본존상과 좌우 보처인 협시상이 하나의 광배를 공유하지 않는 표현은 병령사석굴 169굴 6감의 소조삼존불상을 비롯하여 운강(雲岡)석굴 제7굴 주실의 삼존상들(480년대), 북위 태화(太和) 13년(489년) 금동이불명좌상(根津美術館)의 뒷면 삼존불상, 용문석굴 고양동 상층에 새겨진 삼존불상(그림21) 등 5세기 전반~6세기 초의 여러 삼존불상에서 보이는데, 이들은 일광삼존불상 도상으로 정형화되기 이전의 삼존불상 형식으로 이해된다.

방형대좌 중앙에는 감실(龕室)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 둥근 원형의 광배를 가진 여래좌상과 좌우협시상이 양각되어 있다. 중앙의 조각을 향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청주시, 2020), 불상일 가능성이 크다. 향

좌측의 협시상은 훼손이 심하며, 대좌의 좌우 끝에 측면관으로 새겨진 사자 가운데 오른쪽 사자의 몸통 일부와 꼬리 부분만 희미하게 확인된다. 이처럼 불상의 대좌에 불·보살상을 새기는 것은 인도 쿠산왕조의 간다라불상에서 나타나며 동아시아 불상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표현이다. 중국 남북조시대 불상에서는 방형대좌의 정면 중앙에 향로나 꽃병이 있고 그 좌우에 공양상 또는 사자상이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위 연흥(延興) 2년(472년) 석불좌상(大和文化館)의 방형대좌에 이 불병좌상이 새겨져 있거나, 빅토리아앤드앨버트박물관(V&A)의 금동불좌상 대좌에 삼존불상이 새겨진 것은 매우 드문 예이다. 이 상들은 간다라불상의 도상적 요소가 반영된 5세기의 북위 불상으로 생각되므로 대좌에 불·보살상을 새기는 것이 고식(古式)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우협시보살입상은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나 뺨이 통통하고 입술의 양쪽 끝이 안으로 쪽 들어가 어린 소녀와 같은 이국적인 얼굴에다 보발(寶髮)이 여러 층을 이루며 좌우로 늘어져 두 귀를 덮었으며, 목에 동그란 구슬이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고, 천의는 X자로 흘러내린 주름치마를 입은 모습이다. 삼국시대 보살상에서 흔히 보이는 삼화보관(三花寶冠)이 아니라 치장하여 땅아 올린 듯한 머리가 보관을 대신하여 두부 정상에 표현된 점은 이 보살상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데 단서가 된다. 특히, 머리 모양과 동그랗고 귀여운 얼굴 모습은 북위 문명태후(文明太后) 풍씨(馮氏)의 발원으로 세워진 방산(方山) 사원불사(思遠佛寺)와 사연불도(思燕佛圖, 朝陽北塔)의 목탑지에서 출토된 소조보살상들(479~490년)에서 보이는 표현과 매우 유사하며(그림 23), 남조 양대 일광삼존불상의 협시보살상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협시보살상의 주름 잡힌 치마는 남제 영명 원년 석조미륵여래좌상의 뒷면에 새



그림21 | 용문석굴 고양동 마애삼존불좌상  
(하남성 낙양)



그림22 | 운강석굴 제6굴 석조여래입상  
(하북성 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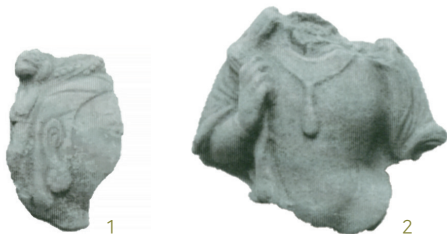


그림23 | 사연불도 목탑지 출토 소조보살상  
1. 측면 2. 상체

겨진 무량수여래입상(그림14-2)뿐 아니라 480년대에 개작된 운강석굴 제6굴 불·보살상(그림22)에서도 보이고 있어, 불·보살상의 복식이 중국화되면서 나타난 표현임을 알 수 있다(文物出版社, 1994; 張焯, 2011).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에는 5세기 후반 남북조 불교조각의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며 제작시기는 6세기 전반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6세기 전반의 고구려 불상에 보이는 여러 표현, 눈가에 웃음이 가득한 부드럽고 온화한 불·보살상의 상호, 상현좌의 옷주름 표현에서 세 부분으로 나뉜 치마 주름, 왼손의 약지와 소지를 접어 올린 시무의·여원인의 수인은 남조 불상에서 남제 이래 꾸준히 나타나는 것이나, 북조에서 이런 형태의 통인(通印)이 유행하는 것은 6세기 1/4분기 말에서 동·서위대 들어와서이다. 고구려 불상에서 나타나는 남조적 요소가 남조에서 직접 전래된 것인지, 북위나 동위를 거쳐 고구려에 전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북위 말~동위대 불상 양식에 나타나는 남조적인 요소는 다소 경직되고 도식화된 부분이 함께 발견되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대북위 교류 상황은 헌문제(獻文帝) 재위기(465~471년)에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문명태후 풍씨가 섭정을 하던 효문제(471~499년 재위)에 와서 활발하였던 점을 상기하면, 북위 불교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기 이전에 고구려 불교계는 남조 송·남제의 귀족적인 불교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것이며, 남조 불상양식의 여러 요소가 고구려 초기 불상 양식의 형성에 기초가 되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북위와의 외교관계가 개선되면서 거의 매년 견사(遣使)가 이루어지던 효문제의 태화 연간(477~499년)에 풍태후의 발원으로

이루어졌던 사연불도나 사원불사 등 복위 황실의 여러 대규모 불사가 고구려 불교미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고구려 불교조각의 복합적인 성격은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을 비롯해서 영강7년명금동광배,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불상 등 6세기 전반 불상을 통해서 확인된다(최성은, 2020).

## 2) 6세기 후반의 불교조각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불상은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황해도 곡산 출토 경4년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평양 평천리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충주 출토 건흥5년명금동광배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의 광배에 삼존불상이 표현되어 일광삼존불 형식을 가진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과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건흥5년명금동광배는 각각 563년, 571년, 596년으로 편년되어 평원왕(559~590년)과 영양왕(590~618년) 대의 작품이다. 현존 고구려 불상 가운데 세 구가 이 시기로 추정되는 명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 안정된 국내상황 속에서 불교문화가 융성하여 금동일광삼존불상 제작이 유행했음을 말해준다.

### (1)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은 소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존여래입상과 협시보살상 2구를 모두 따로 주조하여 광배에 끼우게 제작된 상이다(그림24). 전체 높이는 17.5cm로, 광배 뒷면에 새겨진 2행 17자의 명문을 통해 계미년에 보화라는 인물이 돌아가신 아버지 조씨를 위해 조

성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癸未年十一月一日 / 寶華爲亡父趙□人造

고구려와 남북조시대의 금동불상 명문이 대체로 연호+□년+간지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이 삼존불입상은 간지년+월+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하여 앞으로 검토가 요망된다.

본존여래입상 소발의 머리 위에 표현된 구형의 육계, 통통하고 작은 얼굴은 지금까지 동위 불상의 양식적 특징으로 알려져 왔다(최성은, 2007). 왼손의 약지와 소지를 접어올린 시무외·여원인의 수인, 본존상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은 협시보살입상, 보살상의 보발이 마치 닭 볏같이 위로 뻗은 발계관(髮鷄冠) 형태로 높게 표현된 점, 화염문의 형태로 솟아오른 화염문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양 대통(大通) 원년(527년) 금동삼존불입상(그림25)이나 동위(東魏, 535~550년) 시기의 일광삼존불상과 유사하나, 치맛자락이 좌우로 넓게 퍼진 비사실적인 표현은 양대 초기인 천감(天監) 3년(504년) 석조아미타삼존불상의 본존상(그림26)이나 북위 전기 운강석굴 제6굴 남벽 석불입상(480년대)의 표현과 같이 남북조 불상의 고식 전통이 고구려 조각에 늦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계미명삼존불입상의 주형거신광배는 앞에서 살펴본 영강7년명금동광배(그림18)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두광부의 넝쿨문 조각이 간략하게 단순해졌고, 신광부의 연지문(蓮枝紋)이 얇게 평면적으로 조각되었으며, 두광의 동심원문대와 넝쿨문대, 신광부 연지문대에 어자문(魚子紋)이 가득 새겨진 점, 화염문이 주조 뒤에 끌로 새겨진 점, 두광 정상



그림24 |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25 | 대통 원년 금동삼존불입상  
(남경 육조박물관 소장)



그림26 | 천감 3년 석조아미타삼존불상  
(사천박물관 소장)

부 중앙에 보주가 간략하게 표현된 점 등은 영강7년명금동광배에서 변모한 모습이다. 본존불상의 양감이 커지고 광배에 어자문과 같은 장식적인 요소가 추가되면서 다른 기본적인 요소는 생략적으로 나타나는 조형적인 면을 ‘계미’라는 간지와 함께 고려할 때, 이 삼존불상의 조성 시기는 평원왕 5년(563년)으로 생각된다.

## (2)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1930년 황해북도 곡산군 화촌면 봉산리에서 발견된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은 대좌를 잃었으나 불상과 광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현재 전체 높이는 15.5cm, 광배 폭은 10.1cm이며, 본존상은 광배와 따로 주조되었고 광배와 일주(一鑄)로 주조된 협시보살상 2구는 광배에 붙어 있다(그림27). 광배 뒷면에는 7행의 명문과 여백이 모자라 맨 아래의 공간에 쓴 한 줄까지 합쳐 모두 8행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景四年在辛卯比丘道(須) / 共諸善知識那婁 / 賤奴阿王阿(蹠)五人 /  
 共造无量壽像一軀 / 願亡師父母生生心中常 / 值諸佛善知識等值 /  
 遇彌勒所願如是 / 願共生一處見佛聞法

명문에는 “경4년 신묘에 비구 도수(?)와 여러 선지식인 나루, 천노, 아왕, 아거(?) 5명이 돌아가신 스승과 부모를 위해 무량수불(無量壽佛: 아미타불)을 조성하며 세세생생 마음속에 항상 부처를 만나고 미륵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국사편찬위원회, 1995; 김춘실, 1995; 양은경, 2005). 따라서 이 삼존불입상은 우리나라에 전하는 아미타삼존불상의 가장 이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명문 내용에서 특이한



그림27 |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삼성리유물미술관 소장)  
1. 앞면 2. 뒷면 명문

점은 아미타불을 조성하면서 미륵정토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는 다섯 명의 발원자 가운데 자신을 낮추어 ‘천노(賤奴)’라는 불명(佛名)으로 적은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문 내용은 당시 고구려의 불교 신앙과 문화가 남조 불교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양은경, 2005).

본존여래입상은 둥근 얼굴에 표정이 온화하고 양 뺨은 살이 통통하며, 좁은 어깨에 걸친 대의 깃이 U자형을 이루며 가슴을 넓게 드러내고 있다. 몸에 비해 커다란 두 손은 왼손의 약지와 소지를 접어 올려 시무외·여원인을 결하고 있으며, 치마와 대의는 좌우로 넓게 퍼지지 않

고 비교적 차분히 가라앉은 모습이다. 왼쪽(向右) 협시보살입상은 보관의 중앙과 좌우에 둥근 꽃이 달린 삼화보관을 쓰고 오른쪽(向左) 협시보살입상은 닭 벧 같은 발계관을 쓰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의 협시보살상들에 비해서 양감이 좋아지고 입체적으로 조각되었다. 거신광배의 각 부분은 단순화되고 화염문의 표현도 도식적으로 표현되었으나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화불(化佛)이 3구 표현되어 있다.



그림28 | 남조 양대 금동삼존불입상  
(남경 육조박물관 소장)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은 그동안 남북조시대 북제(北齊) 양식이 반영된 불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남경 신가구(新街口)에서 남조 양대 금동일광삼존불상이 여러 구 출토되면서 이 불상과의 연관성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있다. 특히, 신가구 출토 금동삼존불입상(그림28)은 도상과 양식 면에서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과 매우 유사하여 남조 금동불상의 영향이 확인된다.

다만, 6세기 후반에 제작된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의 광배 문양과 화불이 도식화된 점은 제작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른 고구려 일광삼존불상 및 남북조시대 불상과의 양식적 비교를 통해 이 삼존불상이 조성된 '신묘'년은 평원왕 13년(571년)으로 생각되고 있다.

### (3) 건흥5년명금동광배

충북 충주시 노은면에서 1915년에 발견된 높이 12.4cm의 건흥(建興)5년명금동광배는 광배 뒷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석가불의 광배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29). 광배와 따로 주조되어 네모난 구멍에 끼워져 있던 본존불상은 결실되었고 광배와 함께 일주식으로 주조된 협시보살입상 2구만 남아있다. 광배 뒷면에는 5행 39자의 발원문이 새겨져 있다(황수영, 1976).

建興五年歲在丙辰 / 佛弟子清信女上部 / 兒奄造釋迦文像 /  
願生生世世值佛聞 / 法一切衆生同此願

명문을 해석하면, “건흥 5년 병진에 상부의 청신녀 아엄이 석가모니 불을 조성하여 세세생생 부처를 만나 법을 듣기 바라며 일체중생도 함께 이를 원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고구려의 귀족들은 부명(部名)을 관칭하여 자신들이 지배층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냈다고 하므로 명문에서 ‘상부(上部)’라고 부를 밝힌 아엄은 고구려의 지배층 여성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광배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일광삼존불상의 광배들과 기본형식에서는 동일하지만, 불꽃이 타올라가는 동적인 움직임이 잘 나타나는 화염문의 표현과 보주형 두광을 배경으로 양련좌(仰蓮座)에 앉아있는 세 구의 화불은 앞에서 살펴본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그림27)의 화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양감이 풍부하다. 좌우의 협시보살입상은 향 우측 상이 삼화보관을 쓰고 향 좌측의 상이 발계형의 머리로 표현되었는데, 고부조로 조각되어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광배의 협시보살

상들에 비해 입체감이 느껴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두광부 연화문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닝쿨문대는 동심원문대로 단순하게 바뀌었고 두광부 정상 중앙에 표현되던 보주도 생략되었으며 신광부의 세로선문대 좌우의 연지문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일광삼존불상 주형거신광배의 여러 요소 가운데 생략된 부분이 있으나, 화불이나 화염문, 협시보살상 같은 부분은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최성은,



그림 29 | 건흥5년명금동광배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2012).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건흥 5년 병진은 영양왕 7년(596년)으로 생각된다(곽동석, 1993).

그런데 이 광배에서 특이한 점은 다른 일광삼존불상들의 광배에 비해서 본존불상의 신광부 높이가 낮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불상들에서는 좌우협시보살상이 본존불 두광의 동심원문과 닝쿨문대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건흥5년명금동광배 보살상들의 머리 높이는 본존불상의 두광 중심에 가깝게 올라와 있다. 이처럼 일광삼존불상 형식에서 협시보살상들의 높이가 커지는 것은 지역이나 공방에 따른 차이도 있겠으나 존상들의 입체감이 강조되는 제작시기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된다.



그림30 | 금동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31 | 남제 영명 8년 석조미륵삼존불좌상  
(사천박물관 소장)

#### (4)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의 금동보살입상(그림30)은 높이 15.1cm로 명문은 없으나 오랫동안 고구려 불상으로 생각되어온 작품이다(진홍섭, 1992). 뒷면이 평평한 보살상은 편불(片佛) 형태의 통주식으로 주조되어 광배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살상의 뒷면에 광배에 꽂는 축이 2개 돌출되어 있어 일광삼존불상의 협시보살상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보살상을 협시로 구성된 삼존불상은 3구 모두 별주(別鑄)하여 광배에 꽂고 대좌도 따로 주조하여 삼존불상의 전체 크기는 대략 한 척 정도 되었을 것이다.

보살상은 머리 중앙 원형장식 위로 3개의 입식(立飾)이 있는 특이한

형태의 보관을 쓰고, 눈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가에 미소를 띤 밝은 상호와 왼손의 약지와 무명지를 접은 시무외·여원인을 결한 큼직한 손의 표현은 남제 영명 8년 석조미륵불좌상(그림31)을 연상시킨다. 깊은 불성과 자비로움의 표출로서 나타나는 인간적이고 부드러우며 이지적인 ‘수골청상’의 면모는 고구려 불교조각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일찍이 남경 서선교(西善橋) 전축분 벽화나 동진의 화가 고개지(顧愷之, 344~406년 무렵)의 〈여사잠도(女士箴圖)〉와 같은 동진 이래의 남조 미술에서 유행해왔던 표현인데, 이와 같이 격조 높은 남조 문화가 고구려 불교문화계에 전해져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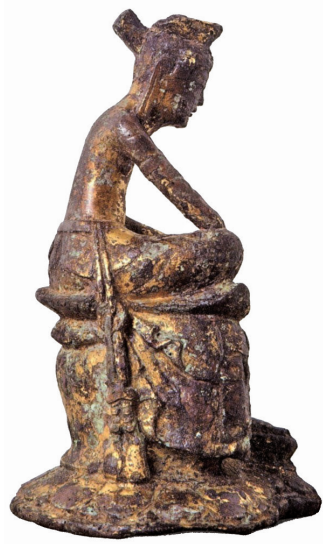
#### (5) 평양 평천리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1940년 평양시 평천리에서 출토된 금동반가사유상은 높이 17.5cm로 오른손과 함께 팔꿈치 아래가 파손되었고 상 전체에 화재로 부식된 흔적이 보이며 군데군데 도금이 남아있다(김양선, 1964). 머리에 삼면관(三面冠)을 쓰고 귀는 어깨에 닿을 듯 길게 늘어졌으며 머리 뒤에는 두광에 꽂았던 광배 축이 붙어 있다. 머리를 앞으로 숙여 깊은 사색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의 부분 뺨과 꼭 다문 입술 아래로 돌출한 턱은 사실적이며 양감이 느껴진다. 이에 비해 상체는 가늘고 긴 나신(裸身)으로 양팔에는 팔찌로 장식하고, 왼손은 오른쪽 다리의 발목 위에 올려놓고, 오른팔은 팔꿈치 아래가 결실되었으나 원래는 손가락을 오른쪽 뺨에 살짝 댄 자세였을 것이다(그림32).

하체에 걸친 치마의 허리 좌우로는 옥환이 꿰어져 있는 요패와 수식을 늘어뜨려 왕자(王者)의 귀족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가사유상이 앉아있는 둥근 의자(墩)를 덮은 치마는 2단의 상현을 이루고 주름



1



2

그림32 | 평양 평천리 출토 금동반가사유상(삼성리움미술관 소장)

1. 앞면 2. 측면



그림33 | 하북성 곡양 수덕사지 출토 석조반가사유상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

끝부분에는 오메가( $\Omega$ ) 형태의 도식적인 주름이 새겨졌으며 의자 아래로는 단판연화문으로 이루어진 연화대좌가 표현되었다.

중국에서 반가사유보살상이 크게 유행하였던 시기는 북위에서 북제 시기였고 시대에 따라 반가사유상의 양식에도 변화가 많았다. 『법원주림(法苑珠林)』이나 『집신주삼보감통록』 등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5세기 초 남조에는 법현(法顯)이 인도에서 가져온 반가상이 봉안되어 있었고 6세기 후반에는 이 반가사유상이 북제의 수도인 업도(鄴都)로 옮겨졌다고 하므로 이 반가상이 남조뿐 아니라 북제의 반가사유상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양은경, 2012). 현존하는 북위와 동위 대의 반가사유상은 상체에 천의를 걸친 예가 많은데, 북제시기가 되면 상체를 나신으로 표현하는 추세여서 평천리 반가사유상의 상체가 나신인 점은 북제 반가사유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체의 치마가 길게 의자를 덮고 2단으로 나뉜 상현의 주름이 세밀하게 표현되는 것은 북위·동위 반가사유상(그림33)의 특징적 요소라고 생각되므로 이른 시기의 양식과 새로운 양식이 절충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그 제작시기는 6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에서 조성된 평천리 출토 금동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의 조형(祖形)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의 좌협시반가사유상이나 신라의 경주 송화산 출토 석조반가사유상,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반가사유상, 국보83호 금동반가사유상 등은 기본적으로 평천리 반가사유상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천리 금동반가사유상은 고구려 불교조각이 백제와 신라 지역에 끼친 영향을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 6세기 전반의 불교조각에는 남북조

시대 남제와 북위 전기 5세기 후반 불상 양식의 전통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양식은 6세기 후반의 불교조각으로 이어지면서 양과 북위 말, 동위 양식이 더해져 다양한 요소가 혼재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건흥5년명금동광배를 보면, 화불과 같은 세부조각에서도 양감이 좋아지고, 불상과 보살상의 크기에 큰 차이를 보였던 위계적 표현도 점차 자연스럽게 변화하여 협시보살상의 비중이 커져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양왕 대의 기년명 불교조각은 본존불상을 잃어버린 건흥5년명금동광배 한 점뿐이므로 이 시기 불상을 이해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삼국의 경계지역에서 출토된 불상들과 일본에 전해오는 불상 자료를 통해서 고구려 후기 불교조각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 3) 6세기 말~7세기의 불교조각

6세기 말에서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고구려 불교조각이 어떤 변화와 발전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시기로 편년되는 재명(在銘) 불상이 없는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세기 중엽에 고구려의 불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한 고구려 승려 혜량(惠亮)이 죽령을 넘어 고구려로 진군하는 거칠부(居柒夫)를 따라 진흥왕 12년(551년) 무렵 신라에 귀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고구려 불교미술까지 쇠퇴 일로를 걸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간 축적된 고구려의 불상 제작기술은 불교의 융성으로 불상 수요가 큰 지역으로 전해지고 고구려의 장인들이 백제와 신라로 건너가 활동하거나 고구려에서 제작된 불상들이 백제와 신라, 나아가 일본 열도의 왜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불교문화의 전래와 수용 문제에 있어서도 6세기 중후반에 여전히 반야(般若), 지황(智晃), 인공(印公) 등 고구려 승려들이 불교문화의 수준이 높고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남조로 유학하였고, 평원왕 18년(576년)에 고구려의 대승상 왕고덕(王高德)이 북제의 업도에 보낸 승려 의연(義淵)은 그곳에서 최전성기를 맞은 북제 불교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다(정선여, 2000). 당시 업도는 불교를 열렬히 신앙했던 북제의 황제들이 사탑을 세우고 대불 조성 불사를 일으키는 등 불교가 극도로 융성하였는데, 의연은 북제의 도통(都統)으로 명성이 드높았던 법상(法上, 495~580년)을 만나 불교의 시말연유(始末緣由)를 묻고 『십지경(十地經)』을 비롯한 경론을 가지고 귀국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황실과 귀족의 발원으로 업도에 세워진 거대한 규모의 사찰들과 남·북 향당산(響堂山) 석굴을 배관(拜觀)하고 그 장엄함과 뛰어난 조형감에 압도되었을 것이다. 또한 수대에 와서는 석파약(釋波若, 562~613년)이 천태지의(天台智顓) 문하에서 수학하고, 인법사(印法師)와 실법사(實法師)는 수에서 삼론(三論)을 강의한 대가였으므로 수대 불교문화의 전래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김영태, 1997).

### (1) 삼국 경계지역의 고구려 불상

진흥왕 대에 이르러 고구려는 중부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경기, 강원 지역에서 출토된 불상 가운데에는 고구려 제작으로 생각되는 불상들이 있다. 이 불상들은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삼국의 경계지역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고 고구려의 장인이 경계지역에서 불상을 제작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1척 이하의 소형 금동불상은 이동이 용이하여 출토지가 제작

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출토지보다는 조형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고구려 불상일 가능성이 제기된 불상 가운데 횡성 출토 금동여래입상과 영월 출토 금동보살입상, 원주 법천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 불상들은 동시대의 다른 지역 불상에 비해 주조기법이 우수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① 횡성 출토 금동여래입상

강원도 횡성 출토 금동여래입상은 높이 29.4cm로 조형적인 면에서 볼 때 7세기 전반 작품으로 추정된다(국립중앙박물관, 1990). 불상은 전체적인 비례가 안정적이고 머리에는 나발이 잘게 새겨져 있으며 반개한 두 눈과 양감이 풍부한 양 뺨이 표현된 얼굴은 사실적이다(그림34). 통견식으로 입은 대의는 U자형으로 가슴이 넓게 파이고 대의 안으로 내의와 내의를 묶은 매듭(紉)이 보인다. 대의와 치마가 가지런히 내려오며 치마 끝단 좌우에 오메가형 옷주름이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뒷면 치맛단에도 보인다.

이 불상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뛰어난 주조기법이다. 실납법으로 주조된 불상의 뒷면에는 직사각형의 주조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의 가장자리에 얇은 턱이 있어 구멍을 막기 위한 덮개를 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7세기 전반의 신라 지역 불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주조기법이다.

### ② 영월 출토 금동보살입상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입상(그림35)은 높이 20.2cm로 머리에 관대(冠帶)의 중앙과 좌우에 화문(花紋)이 3개 달



그림34 | 황성 출토 금동여래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 앞면 2. 뒷면



그림35 | 영월 출토 금동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린 삼화보관을 쓰고 머리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고 몸의 무게 중심을 오른쪽 다리에 두고 왼쪽 다리는 살짝 앞을 내딛은 삼굴(三屈, 三曲)의 자세로 서 있다(국립중앙박물관, 1990). 보살상의 상호는 단아하고 목에는 둥근 원형의 장식에 한 줄의 장식이 늘어진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7세기 보살상에서 유행했던 장신구이다. 어깨에서 늘어진 천의는 2단으로 복부와 무릎으로 흘러내리고 팔뚝에 걸쳐 밑으로 내려오는 천의 가닥은 파손되었으나 연화대좌까지 늘어진 것이 보인다. 뒷면을 보면 머리에 두광과 연결하는 구멍이 뚫려 있고 머리 가닥이 등 뒤 좌우로 늘어져 있다.

### ③ 원주 법천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2003년 원주 법천사지 3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그림36)은 두부와 광배가 결실되었고 잔존높이 16.4cm이다. 통견식으로 착의한 대의 앞가슴이 U자형으로 넓게 파이고 그 안에는 내의가 비스듬히 사선으로 새겨져 있으며 대의 자락이 왼쪽 손목 위에 얹어져 있다. 커다랗고 두툼한 양손으로는 시무외·여원인의 통인을 결하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조각되었고 손바닥에는 손금이 새겨져 있다. 하체에는 발등까지 길게 내려오는 치마를 입었으며 치마에 가려 반쯤 보이는 두 발은 발가락이 선각으로 표현되었다.

뒷면에 광배 축이 위아래에 2개 돌출된 것을 보면 아마도 커다란 주형거신광배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2개의 광배 축 아래에는 작은 방형의 주조 구멍 2개가 단정하게 뚫려 있다. 두부에서 대좌 축까지 일주로 제작되었고 연화대좌와 광배는 따로 주조해서 연결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몸체 부분만 중공(中空)식으로 주조되어 두부가 훼손된 단면이 고르지 않고 막혀 있다. 또한 등 뒤에 뚫려 있는 2개의 작은 주조 구멍은 중공식 주조기법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생각된다.

### (2) 일본에 건너간 고구려 불상

6세기 말부터 7세기의 고구려 불교조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일본 열도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들이다. 고구려에서 왜국으로 첫 공식사절을 파견한 것은 평원왕 12년(570년)이었으나 이후 고구려의 대왜 교섭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결국은 선진 불교문화를 왜의 지배층에 전해주는 방향으로 교섭을 떠나갔



1



2

그림36 | 원주 법천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1. 앞면 2. 뒷면



그림37 | 이시야마데라 금동여래입상(奈良國立博物館, 2002)

던 듯하다(이영식, 2006; 井上直樹, 2008; 이성제, 2012). 그 결과, 왜국의 최초 사찰인 아스카데라(飛鳥寺)의 가람 배치가 고구려 사찰에서 보이는 ‘일탑삼금당식’인 점이나(김정기, 1991), 아스카데라 절터에서 고구려계 기와가 출토된 점, 영양왕이 아스카데라 금당 금동장육불상 조성에 사용할 황금을 보냈다는 기록 등은 아스카데라의 창건에 고구려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당시 소가씨(蘇我氏)의 최고 권력자였던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가 고구려에서 건너온 혜변(惠便)을 스승으로 하여 불교 수행에 정진하였고(『日本書紀』 敏達紀 13年 是歲條; 이영재, 2014), 영양왕 6년(595년)

에는 혜자(惠慈, ?~622년)가 왜국에 파견되어 20년간 쇼토쿠태자(聖德太子)의 스승이 되어 삼론뿐 아니라 법화, 유마, 승만경을 가르쳤으며, 602년에는 승려 승룡(僧隆)과 운충(雲聰)이 왜국에 온 기록이 있다(『日本書紀』推古紀 9年 3月). 불교미술 분야에서는 604년에 야마토(大和)의 여러 사찰에 불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고구려 출신의 화가집단인 기부미노에시(黃書畫師, 黃文畫師)가 설치되었다(『日本書紀』推古紀 12年 秋9月; 전호태, 2011). 이는 이미 고구려의 공인들이 왜국에 초청 또는 파견되었음을 말해주며, 이 시기에 고구려 공인들은 왜국 불교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를 숭상하는 상대국에 불상을 예물로 보내는 것은 고대 동아시아 국가의 외교관계에서 흔히 보이는 일이다. 따라서 외교 차원에서 사신을 통해 예물로 불상을 보내거나 자국을 방문하는 상대국의 사신에게 예물로 불상을 증여하는 것은 고구려와 왜의 외교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에 전해오는 고대 금동불상 가운데는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왜국에 보내졌거나 고구려 불상을 범본으로 왜에서 제작된 불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생각되는 상으로는 시가현(滋賀縣) 오츠시(大津市) 이시아마테라(石山寺) 금동여래입상을 꼽을 수 있다.

이시아마테라 목조관음보살상의 몸속에서 2002년에 발견된 4구의 금동불·보살상 가운데 한 구인 금동여래입상(그림37)은 높이 26.2cm로 광배와 대좌를 잃었고, 두부의 좌우 측면과 뒷면이 파괴되었으며, 오른쪽 어깨 및 좌우 손 끝부분이 크게 손상되었다. 이렇게 손상이 심한 상태이지만 머리 전면과 측면, 뒷면 하부에 촘촘하고 정교하게 새겨진 나발이 확인된다. 가름한 얼굴에는 수평으로 정면을 응시한 두 눈

과 뚜렷한 콧날, 입꼬리를 위로 올려 온화한 미소를 띤 입술 등 부드럽고 자비로운 상호가 드러난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으며, 양손은 시무의·여원인을 결했으나 손끝이 훼손되어 수인의 정확한 모습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약간 아래로 처진 듯한 어깨에 통견식으로 걸친 대의는 긴 U자형으로 넓게 열린 가슴에 내의가 사선으로 표현되었다. 대의 옷자락의 일부는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고 일부는 왼손 손목 위에 올려져, 손목 아래로 늘어진 옷자락이 접혀 옷주름을 이루고 있다.

이시야마테라 금동여래입상은 화재로 인해 현재 불상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전체적인 비례가 좋고, 인간적인 얼굴 표정과 견실한 옷주름 표현에서 조각적으로 우수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아스카시대 불상으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주조기법이나 양식 면에서 볼 때, 호류지(法隆寺) 금당의 금동삼존불상을 제작한 도리파(止利派)가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으며, 남조의 양 또는 산동성 지역의 동위(東魏) 불상이거나 백제의 불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岩田茂樹, 2002).

그러나 밝고 인간적인 상호는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보살입상(그림30)과 매우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를 지녔으며 금동연가 7년명여래입상(그림17)처럼 나발이 정확한 구획으로 촘촘하게 표현된 점, 양식적으로 6세기 후반 북제나 수대 불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이전 시기의 고식 요소를 고수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면에서 고구려 불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납법으로 주조된 이 불상의 X선형광분석에서 99% 이상인 순동(純銅)으로 주조되었음이 밝혀졌는데(岩田茂樹, 2012), 미량의 주석(0.5~1%)만 포함되었을 뿐 납을 사용하지 않은 순동의 주조기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작기술이 아

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6세기 말에 이처럼 우수한 금동불상을 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일찍부터 금속주조기술이 발달했던 고구려를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세기 고구려 불교조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이 시기의 고구려 불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내에 전해오는 삼국시대 불상과 일본에 있는 아스카시대 불상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백제와 신라 지역의 불상과 일본에서 백제 불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불상 가운데 고구려 불상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구려 불상에 대한 미술사적 논의뿐 아니라 성분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삼국의 다른 지역 불교조각과 구별되는 고구려 불상 고유의 특징과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1990, 『삼국시대 불교조각』.  
\_\_\_\_\_, 2015, 『고대불교조각대전』.
- 국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
- 김영태, 1997, 『한국불교사』, 경서원.
- 김원룡·안휘준, 1993, 『한국미술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 문명대, 1980, 『한국조각사』, 열화당.  
\_\_\_\_\_, 2003, 『한국의 불상 조각 1, 삼국시대 불교조각사 연구: 관불과 고졸미』, 예경.
- 문명대·최성은·양은경·류평권, 2007,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동 불상』, 동북아역사재단.
- 박아립, 2015, 『고구려 고분벽화 유라시아 문화를 품다』, 학연문화사.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 양은경, 2010, 『중국 산동성 불상』, 주류성.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 정선여, 2007, 『고구려 불교사 연구』, 서경문화사.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 3(고구려 편 1).  
\_\_\_\_\_,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 4(고구려 편 2).
- 진홍섭, 1976, 『한국의 불상』, 일지사.  
\_\_\_\_\_, 1992, 『금동불』, 대원사.
- 청주시, 2020, 『청주 비종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정밀실측조사보고서』.

- 타무라 엔초·노성환 역, 1997, 『고대 한국과 일본불교』, 울산대학교출판부.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1991, 『청원 북일면 비중리 일광삼존석불 지표조사 및 간이발굴조사보고서』.
- \_\_\_\_\_, 1992, 『청원 북일면 비중리 일광삼존석불 복원조사 및 원 위치탐색조사보고서』.
- 황수영, 1973, 『한국불상의 연구』, 삼화출판사.
- \_\_\_\_\_, 1976,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 강우방, 1990, 「삼국시대불교조각론」, 『삼국시대 불교조각』, 국립중앙박물관.
- 곽동석, 1993, 「금동제일광삼존불의 계보 - 한국과 중국산동지방을 중심으로 -」, 『미술자료』 51.
- \_\_\_\_\_, 2001, 「법륜사 헌납보물 143호 금동일광삼존불고 - 백제조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좌미술사』 16.
- 김리나, 1996, 「고구려 불교조각양식의 전개와 중국 불교조각」,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 김양선, 1964, 「평양 평천리 출토 금동반가사유상의 조성시기에 관하여」, 『고문화』 25.
- 김영관, 2006, 「고구려의 청주지역 진출시기」, 『선사와 고대』 25.
- \_\_\_\_\_, 2008, 「고대 청주지역의 역사적 동향」, 『백산학보』 82.
- 김영태, 1990, 「현겁천불신앙」, 『삼국시대 불교신앙연구』, 불광출판사.
- \_\_\_\_\_, 1992, 「연가칠년명 고구려 불상에 대하여」, 『불교사상사론』, 민족사.
- 김원룡, 1964, 「연가칠년명 금동여래상 명문」, 『고고미술』 5-9(통권 50호).
- 김진순, 2008,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와 그 연원」, 『미술사학연구』 258.
- 김춘실, 1995, 「삼국시대 여래입상 양식의 전개 - 6세기 말~7세기 초를 중심으로 -」, 『미술자료』 55.
- \_\_\_\_\_, 2016, 「청주 비중리사지 석조불상 연구 - 조성국가의 파악과 관련하여 -」, 『미술사학연구』 290·291.
- 노태돈,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외교」, 『동방학지』 44.

- 문명대, 1979, 「고구려조각의 양식변천시론」, 『전해종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 \_\_\_\_\_, 1981, 「원오리사지 소불상의 연구」, 『고고미술』 150.
- \_\_\_\_\_, 1982, 「청원 비중리 삼국시대 석불상의 연구」, 『불교학보』 19.
- \_\_\_\_\_, 1991, 「장천1호묘불상에배도벽화와 불상의 시원문제」, 『선사와 고대』 1.
- \_\_\_\_\_, 1999, 「고구려 재명금동불상의 양식과 도상해석의 과제」, 『영하현성스님 환역기념 논총 현대불교의 향방』, 민족사.
- 박경원, 1964, 「연가칠년명 금동여래상의 출토지」, 『고고미술』 5-6·7(통권 47~48).
- 박학수, 2014,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의 형상과 제작기술」, 『미술자료』 86.
- 서영일, 1997, 「6세기 신라의 북진로와 청원 비중리석불」, 『사학지』 30.
- 성윤길, 2013,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 연구」, 『미술사학연구』 277.
- 양은경, 2005, 「경사년신묘명 금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중국 불상과의 관계」, 『선사와 고대』 23.
- \_\_\_\_\_, 2008, 「대륙과 해양을 품은 고구려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28.
- \_\_\_\_\_, 2009, 「고구려 소조불상과 중국 소조불상과의 관계」, 『동북아역사논총』 24.
- \_\_\_\_\_, 2011, 「고구려 청암리도성 주변출토 금동관의 계보와 용도」, 『동북아역사 논총』 34.
- \_\_\_\_\_, 2011a, 「남경지역 남조 금동불상에 대한 일고찰 - 남경박물관소장 527년 명 불상을 중심으로 -」, 『CHINA 연구』 11.
- \_\_\_\_\_, 2012, 「중국 산동성출토 동위~북제대 반가사유상에 대한 연구」, 『강좌미술사』 38.
- \_\_\_\_\_, 2013, 「남경출토 남조 소조상의 제작기법과 생산체계」, 『백제연구』 58.
- \_\_\_\_\_, 2016, 「남경출토 남조 금동불상의 특징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 『동악미술사학』 20.
- 연민수, 2007, 「6~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6.
- 윤무병, 1964, 「연가칠년명금동여래상의 명문에 대하여」, 『고고미술』 5-10(통권 51).
- 이병로, 2002, 「고구려와 왜의 문화교류 - 일본의 남아있는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 『고구려연구』 14.
- 李憑, 2002, 「고구려와 북조와의 관계」, 『고구려연구』 14.

- 이성재, 2009, 「570년대 고구려의 대외교섭과 그 의미 - 새로운 대외전략의 추진배  
경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 -」, 『한국고대사탐구』 2.
- 이승란, 2005, 「고구려 집안지역 묘주도 의자의 계보와 전개」, 『선사와 고대』 23.
- 이영식, 2006, 「5~6세기 고구려와 왜의 관계」, 『동북아역사논총』 11.
- 이영재, 2014, 「고구려 승려 혜편의 도왜와 비조사」, 『역사와 경계』 91.
- 장충식, 2000, 「연가칠년명 금동불상재고」, 『동악미술사학』 창간호.
- 田中俊明, 2006, 「고구려 사원의 조사와 현상」, 『천태학연구』 9.
- 전호태, 1997, 「고구려 감신총벽화의 서왕모」, 『한국고대사연구』 11.
- \_\_\_\_\_, 2011, 「일본 고승총 키토라 고분벽화와 고구려 문화」, 『역사와 경계』 81.
- 정선여, 2000, 「고구려 승려 의연의 활동과 사상」, 『한국고대사연구』 20.
- \_\_\_\_\_, 2001, 「6세기 고구려 불교신앙」, 『백제연구』 34.
- 정영호, 1980, 「청원 비종리 삼존석불」, 『박물관신문』(1980. 8. 1).
- 정운용, 1998,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연호」, 『한국사학보』 5.
- 정호섭, 2005,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유물의 현황과 과제」, 『북방사논총』 4.
- 진홍섭, 1973, 「신라 북경지역 불상의 고찰」, 『대구사학』 7·8.
- 최성은, 2007, 「고구려 불상과 산동지역의 북위말~동위 불상」, 『고구려 불상과 중  
국 산동불상』,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2, 「프리미미술관 삼국시대 금동광배에 대한 고찰」, 『CHINA연구』 12.
- \_\_\_\_\_, 2013, 「원주 범천사지출토 청동여래입상에 대한 고찰」, 『선사와 고대』 39.
- \_\_\_\_\_, 2015, 「평양 토성리 출토 도제불상범과 고구려 불교조각」, 『미술자료』 88.
- \_\_\_\_\_, 2017, 「중국 남북조시대 불교조각을 통해 본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여래  
입상」, 『선사와 고대』 51.
- \_\_\_\_\_, 2020, 「평원·영양왕대 고구려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 『선사와 고대』 63.
- 최연식, 2002,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내세의식」, 『강좌 한국고대사』 8.
- 황수영, 1963, 「국보 고구려 연가칠년명 금동여래입상」, 『미술자료』 8.
- \_\_\_\_\_, 1964, 「국보 연가칠년명 금동여래입상」, 『고고미술』 5-1(통권 42호).

文物出版社, 1994, 『中國石窟 雲岡石窟 I』.

張焯, 2011, 『中國石窟藝術 雲崗』, 江蘇美術出版社.

- 龔巨平, 2022, 「南京西營村南朝佛寺遺址考古發現與研究」, 『백제와 남조 사원의 새로운 인식』(국제학술대회자료집),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산대학교.
- 霍巍, 2001, 「四川大學博物館所藏的兩尊南朝石刻造像」, 『文物』10.
-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1998, 「成都市西安路南朝石刻造像整理簡報」, 『文物』11.
- 袁曙光, 1992, 「四川茂汶南齊永明造像碑及有關問題」, 『文物』2.
- 張肖馬·雷玉華, 2001, 「成都市商業街南朝石刻造像」, 『文物』10.
- 湖南省文物管理委員會, 1957, 「長沙爛泥沖齊代塹室墓清理簡報」, 『文物』12.
- 東京國立博物館, 1988, 『金銅佛 中國·朝鮮·日本』.
- 梅原末治, 1966, 『朝鮮古文化綜鑑』, 養德社.
- 郭東錫, 2015, 「三國時代の金銅一光三尊佛の原型と系譜」, 『奈良美術研究』16.
- 久野健, 1992, 「平壤博物館の佛像」, 『MUSEUM』490.
- 藤岡穰, 2009, 「中國南朝造像に関する覺書 - 善光寺本尊像の源流を求めて -」, 『佛教藝術』307.
- 小泉顯夫, 1938,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の調査」,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 , 1940, 「平壤靑巖里廢寺址の調査(概報)」,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 岩田茂樹, 2002, 「石山寺の彫像 - 本尊二臂丈六觀音像を中心に -」, 『觀音のみでら石山寺』, 奈良國立博物館.
- , 2012, 「石山寺藏 金銅佛」, 『國華』1407.
- 井上直樹, 2008, 「570年代の高句麗の對倭外交について」, 『年譜 朝鮮學』11.
- 淺野清, 1958, 「飛鳥寺の建築」, 『佛教藝術』33.
- 向井佑介, 2011, 「北魏平城時代の佛教寺院と塑像」, 『佛教藝術』316.



# 기타 금속기

1. 매장시설 출토 기타 금속기
2. 생활유적 출토 기타 금속기
3. 금속기 제작기술



## 8장

# 기타 금속기

장은정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장

금속기 제작 과정은 원료의 확보와 도구의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복잡한 공정을 수반한다. 이 과정은 고도의 기술력뿐 아니라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의 인적·물적 통제를 전제로 관계망을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운영체제를 필요로 한다. 희소한 자원과 기술의 배타적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금속기 제작은 그런 의미에서 고대 국가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과 밀접히 관련 있다.

금속기의 사회적 수요는 위신재인 착장형 장신구에서 시작해 군사력과 생산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실용 무기와 농공구로 확대되고 점차 일상 속 생활용구에 이르며 다변화되었다. 용도와 기능에 맞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체계가 갖춰지고 다품목 생산과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금속기의 일상성도 확대되었다. 당대 최고 기술력이 적용된 금속

기의 보편적 활용 정도는 사회적 생산력과 자원 관리 역량, 국가 운영 체제의 성장단계를 가늠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장은 앞 장의 재질별·용도별 분류 안에 담지 못했으나 고구려 사회에서 다양한 성격의 금속기가 제작되고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을 다룬다. 기타 금속기는 무기, 마구, 농공구, 장신구 등 통상적 대분류에서 일관된 용도나 기종으로 특정해 분류하기 어렵거나 출토 예가 많지 않은 것들이다. 출토 당시 온전한 형태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런 까닭에 당대인의 의식과 행위가 반영된 출토 맥락의 이해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매장시설에서 출토된 것일지라도, 주 무덤 내부와 부속시설 출토품의 의미는 다를 수 있으며, 명기로 부장한 것인지 장례의식 중 공헌물로 매장된 것인지, 생활시설에서 사용 중 폐기된 것인지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타 금속기를 매장시설과 생활유적 출토품으로 구분한 후 성격 추론이 가능한 대표 유물을 택해 그 특징을 개괄하였다. 매장시설 출토품은 다시 부장품과 무덤 장구(葬具), 무덤 부속시설 출토 금속기로 세분하였다. 마지막 절에서는 다양한 금속기 사용을 가능케 하였던 금속기 제작공정과 기술체계, 생산시설과 도구의 성격 등을 관련 유구, 자연과학적 분석, 출토유물 등과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출토품 중 고구려 제작품이 아닌 외래 유입 유물 중 당시 고구려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일부 포함하였다.

## 1. 매장시설 출토 기타 금속기

매장시설에서 확인되는 기타 금속기는 공헌품으로 무덤 내부에 매장된 부장품, 무덤 장구, 무덤 부속시설 출토품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형태와 용도가 비교적 명확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왕릉급 무덤에서 다량 출토되는 금동제장식의 경우 무덤의 높은 위계 뿐 아니라 축조와 매장 과정 중 이루어진 장송 행위와 고구려인의 내세관이 반영된 중요 부장품이다. 그러나 온전한 형태가 아닌 잔편으로 발견되는 이들 대부분은 각종 기물에 부착된 부속구라는 추정 이외에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기초적인 정리나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형태가 비교적 온전하여 용도 추정이 가능하거나 출토 맥락을 고려한 의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부장품

#### (1) 부뚜막형명기

고구려 무덤에 부뚜막형명기를 부장한 사례 중 금속제 부뚜막형명기도 드물게 확인되는데 청동제와 철제가 있다. 태왕릉 남쪽 변 서쪽 두 번째 호분석 아래에서 출토된 부뚜막형명기는 청동제로 금동만가(幔架)와 함께 발견되었다(그림1). 이들은 본래 무덤 내 부장품으로 도굴꾼이 옮겨 임시로 매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 당시 여덟 조각으로 파손된 상태였다. 길이 86cm, 너비 49.5cm, 높이 31.8cm 크기의 장방체로 세로 17cm, 가로 32.5cm 크기의 비교적 큰 사각형 아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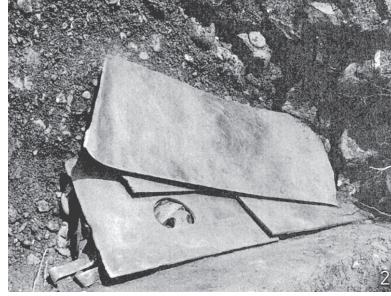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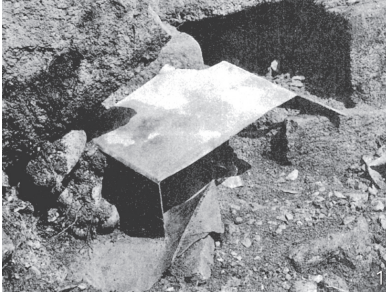


그림1 태왕릉 출토 청동제부뚜막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1·2. 출토 당시 모습  
3. 전체 모습



그림2 운산 옹호동1호분 출토 철제부뚜막(국립중앙박물관)  
1. 출토 당시 모습(朝鮮總督府, 1929)  
2. 전체 모습 3. 아궁이 세부 4. 바닥과 내부 모습

가 긴 측면 한쪽에 치우쳐 뚫려 있는 형태이다. 아궁이 주위로는 낮은 돌기선으로 아궁이틀을 주조하였다. 아궁이 위쪽 면에는 지름 34.2cm의 원형 솔걸이 구멍이 뚫려 있다. 아궁이 반대편 짧은 측면 중앙에 가로 10.8cm, 세로 8.5cm 크기의 생선꼬리형(魚尾形) 연기 구멍이 뚫려 있을 뿐 굴뚝은 별도로 없는 형태다.

평안북도 운산군 용호동1호분에서는 철제부뚜막형명기가 출토되었다(그림2). 대형분 3기로 이루어진 운산 용호동고분군은 고구려 국내도성과 평양도성을 연결하는 내륙교통로상에 조성되었다. 초대형 목실계단적석총인 1호분은 조사 당시 적석분구 상부 3단만 남고 파괴된 상태였고 붕괴된 현실 내부 및 연도 내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철제부뚜막형명기와 금동제봉황형장식 등이 출토되었다.

철제부뚜막형명기의 본체는 길이 67.2cm, 높이 29.1cm의 장방체로 아궁이 부분과 몸체를 십자상으로 4분할하여 주조한 후 본체를 합체하고 별도로 주조한 굴뚝을 본체에 덧붙였다. 바닥면은 뚫린 상태다. 세로 11cm, 가로 10cm 크기의 아궁이가 있는 화구부 전체가 앞쪽으로 돌출된 형태로 아궁이 바깥쪽에는 폭 1.5cm로 돌출된 테두리와 그 사이의 초화문이 주조되었다. 아궁이 위쪽 면에는 지름 13cm 크기의 솔 구멍을 내었다. 화구에서 이어져 불이 지나가는 불길의 길이는 29cm이며 바닥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높이 28cm의 원통형 굴뚝은 위쪽으로 가면서 좁아져 상부 지름이 10.5cm이다. 무덤의 조성시기는 4세기 말경으로 보고 있다(강현숙, 2020).

철제부뚜막형명기는 장방체 몸체의 긴 옆면에 치우쳐 아궁이틀만 들어 아궁이 내 불길이 연기의 흐름과 직교하도록 굴뚝을 배치한 형태이다. 아궁이 위치에 따라 윗면 한쪽에 치우쳐 원형 솔걸이 1개를 둔 것

도 고구려 부뚜막의 특징으로 안악3호분, 약수리벽화분에 그려진 부뚜막 형태도 이와 같다. 봉토석실분인 장천2호분과 삼실층에서 출토된 부뚜막형시유토기도 이와 유사한 구조이며, 시유토기의 아궁이틀에 초화문이 양각된 점도 비교할 만하다. 계단적석총인 만보정1078호분에서도 부뚜막형시유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집안 출토품으로 전하는 일본 교토박물관 소장품도 알려져 있다. 그 밖에 만보정1368호분 출토 석제부뚜막형명기가 있다.

## (2) 금동제상장식

태왕릉의 청동제부뚜막형명기가 매장된 곳으로부터 0.8m 떨어진 위치에서 금동제등자, 띠연결고정금구 등의 마구, 장막걸이쇠 등과 함께 말굽모양다리를 가진 금동제상다리(案足) 10점이 확인되었다. 안쪽으로 향하는 한쪽 면이 편평한 반원형 단면을 가진 형태이다(그림3). 말굽형 바닥 위쪽이 가늘어져 마디를 이루며 바닥면 중앙에는 반원형 구멍이 뚫려 있다. 내부를 채우지 않고 외형만 청동으로 얇게 주조하는 과정에서 내형토를 빼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상판과 연결되는 부위인 다리 위쪽의 장부는 납작한 장방형으로 중앙에 작은 구멍이 있으며 못이 박힌 채 남아 있는 것도 있다. 크기에 따라 대, 중, 소 3종으로 구분되는데, 대형(A형)은 높이 43~45cm에 말굽 너비 10.5cm이고 중형(B형)은 높이 25.5cm 내외로 다리가 짧은 형태다. 잔존높이가 17.7cm인 소형(C형)은 다리 앞쪽 면에 두 줄의 돌선이 주조된 형태다.

한편, 태왕릉에서는 다량의 금동투조장식편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나무로 만든 상의 장식으로 추정되는 금동제용호문투조판이 발견되었다(그림4). 잔존 길이 61.6cm, 폭 12cm, 두께 0.06cm 크기로 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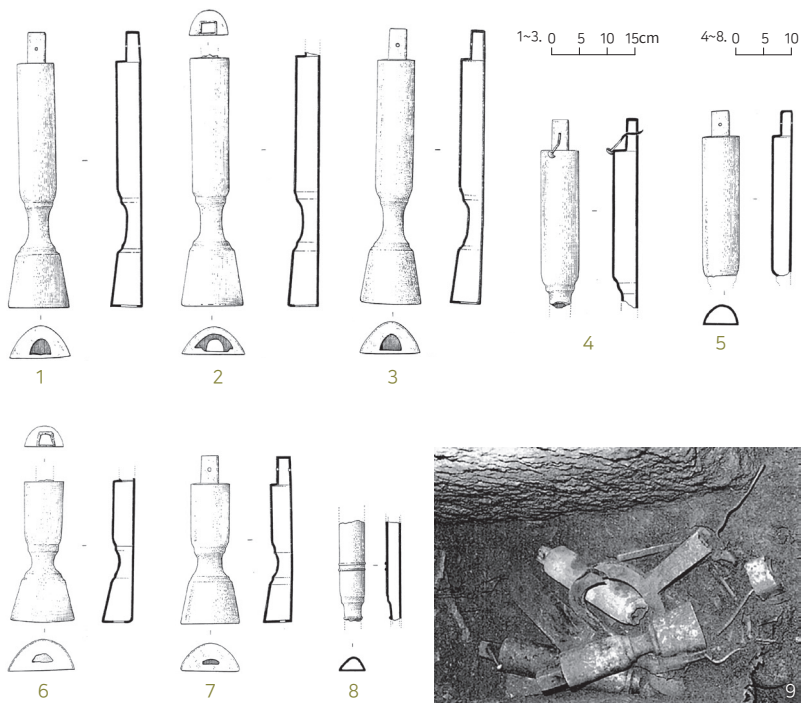


그림3 | 태왕릉 출토 금동제상다리(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1~5. 대형(A형) 6~7. 중형(B형) 8. 소형(C형) 9. 출토 당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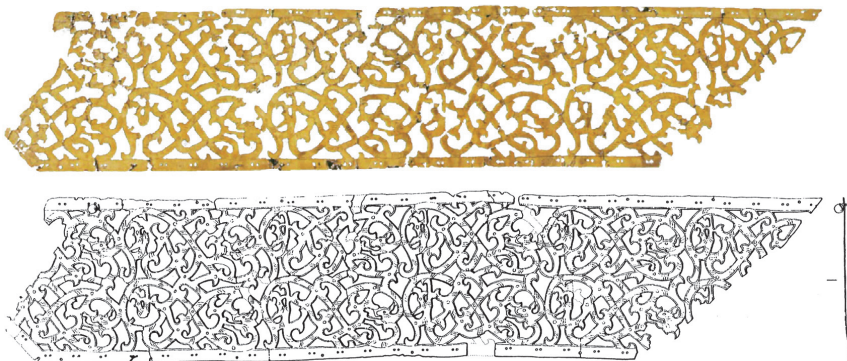


그림4 | 태왕릉 출토 금동제옹호문투조판(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문 사이의 용과 호랑이 형상을 투조로 반복 표현하였다. 끝이 결실되어 형태가 온전하지 않으나 남은 한 변의 잔존형태와 동일하다면 6각형 금동장식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조무늬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쌍을 이룬 구멍이 2cm 간격으로 돌아가고 바깥 모서리에는 못 구멍이 한 개씩 7cm 간격으로 뚫려 있다. 4쌍의 구멍에 동사(銅絲)가 끼워진 상태인데, 뒷단 왼쪽 구멍에는 마노 구슬 한 개가 꿰어져 있다. 이 금동장식판을 목재 기물 표면에 부착해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다수의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도굴되어 태왕릉 남쪽 변에서 출토되어 부장 당시의 맥락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백제의 상제(喪制)가 고구려와 같다”(『수서』 백제전)는 기사로 미루어 볼 때 백제 무령왕릉의 무덤 내 제사는 참고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장례 시 목관 앞, 널길, 널문 앞에 제대가 차려지고 음식을 공헌하는 제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금동제용호문투조판이 금동제상다리와 함께 장례 시 공헌물을 올리는 상의 일부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면 고구려의 장송의례를 복원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 (3) 청동방울

고구려 무덤에서는 금동, 청동, 철 등 금속으로 제작한 방울이 출토된다. 태왕릉에서는 3개의 청동방울이 출토되었는데, 한 점은 아래 끝단이  $\wedge$ 모양으로 오목하고 횡단면이 타원형으로 납작한 형태이나(그림6-2), 다른 두 점은 아래 끝단이 일직선인 원통형이다. 전자는 높이 5cm이고 후자는 높이 5~5.2cm로 상단에 고리가 달린 형태인데 납작한 방울은 고리 달린 윗면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이 중 고리가 탈락한 원통형 청동방울 한 점 표면에 명문 12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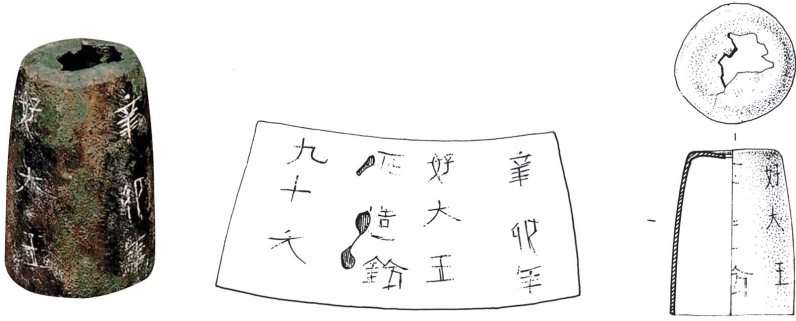


그림5 | 태왕릉 출토 청동방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새겨져 있다. 음각된 명문은 3자씩 4행으로 “辛卯年 好太王 □造鈴 九十六”이다(그림5). 지금까지 이 청동방울의 출토 위치에 대해서는 태왕릉 남쪽 오른쪽 모서리 두 번째 호석 주변 돌 밑에서 청동제부뚜막 등 유물 30여 점과 함께 발견되었다(조법중, 2004)거나 현실 앞쪽 적석분 구상에서 출토되었다(이도학, 2004)는 등의 전언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태왕릉 남쪽 변에서 2.9km 떨어진 SG1 트렌치 중간 서쪽 편에서 출토된 것으로 공식 보고되었다. 그에 따르면 청동제부뚜막형 명기와 금동만가 등은 태왕릉 남쪽 변의 서쪽 두 번째 장대석 아래, 금동제 상다리 및 장막걸이쇠, 등자, 운주 등 청동제 및 금동제 유물 30여 점은 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의 계단석 이음매 틈새 안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은 도굴되어 이곳에 임시 매납된 태왕릉 출토품으로 보고 있다(백승욱, 2005).

이 청동방울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명문 중 ‘신묘년’의 해석에 주목해 태왕릉의 피장자를 비정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신묘년을 391년으로 보아 광개토대왕의 즉위년에 주목한 ‘광개토왕설’과 고국양왕의 흥거년이라는 점을 강조한 ‘고국양왕설’, 고국원왕의 즉위 해인 331년을

신묘년으로 해석한 ‘고국원왕설’ 등의 견해가 제기되었다. 더불어 방울의 명문 ‘□조령(□造鈴)’에 포함된 첫 번째 글자를 ‘무(巫)’로 판독하여 광개토왕 시기의 무당이 왕명에 따라 이를 제작해 사용한 기물이거나 고국양왕의 무당이 왕이 흥거하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글자를 ‘릉(陵, 陵)’으로 판독하여 ‘호태왕릉을 위해 방울 96개를 제조하였다’거나 ‘교(敎)’로 판독하여 왕의 교시로 제작된 것이라 보기도 하였다.

방울의 용도는 실제 사용된 말방울 또는 제의나 의례용 기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서봉총 출토 은합우(銀盃杆), 그리고 호우총 출토 호우(壺杆)명칭동합 명문 조합과 비교해 ‘제작시기, 태왕, 숫자’로 이루어진 조합이 도량형 기물의 명문에서 흔히 확인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이에 따르면 신묘년명 방울의 횡단면 형태가 원형인 점이나 발성 기물로 사용되기에는 얇은 벽면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도 일반적 방울 제작 관행과 다른 점이다. 이런 점에 더해 왕과 관련된 공식 명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 ‘구십육(九十六)’과 같은 숫자 명문이 방울(鈴, 鐸)이 아닌 도량형에서 흔히 확인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기물이 일종의 권형(權衡), 즉 고국양왕 또는 광개토왕 시기 제작 및 반포한 도량형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조우연, 2017).

이 외에도 다양한 청동방울이 출토되었다(그림6), 천추총 매장부 출토 청동방울은 파손되거나 변형된 상태라 명확히 알으나 끝단이 오목하고 횡단면 타원형의 납작한 형태이다. 세 점 중 두 점의 윗면에 고리가 남아 있는데, 윗면 상태가 온전한 한 점은 높이 5.1cm 크기로 고리 앞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점이 태왕릉 출토품(그림6-2)과 유사하다. 횡구식 구조의 계단목실적석총인 산성하195호분에서 출토한 높



그림6 | 고구려 고분 출토 청동방울의 종류와 형태(趙宇然, 2017)

1. A형(산성하195호분) 2. B-I형(태왕릉) 3. B-I형(천추총)
4. B-II형(태왕릉) 5. B-III형(우산하540호분)

이 4.4cm 크기의 방울은 덮개가 있는 형태로 추정되는데(그림6-1), 계단목개석실적석층인 만보정242-1호분 출토 금동방울과 유사하다. 우산하540호분에서 출토된 두 점의 청동방울은 횡단면 육각형에 높이 4.4cm 크기로 상부의 고리에 철제고리를 연결하였다(그림6-5).

#### (4) 철제거울

평탄대지 위 단독으로 자리한 계단목실적석층 마선구2100호분은 매장부가 파괴되고 비교적 이른 시기 도굴이 이루어진 상태로, 무덤 서쪽과 북쪽 편 도굴갱에서 다양한 금제와 금동제 장식편, 각종 철기, 마구 등과 함께 표면에 옷칠을 한 직경 38cm 크기의 대형 철제거울이 출토되었다(그림7).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고 표면 칠도 상당 부분 박락된 상태이나 중앙의 반구형 뉴와 칠이 남아 있는 부분에는 가느다란 비단 흔적이 남아 있다. 뉴 주위에 내원외방(內圓外方) 형태로 두 줄의 음각선이 돌아가고 그 바깥쪽에 4엽문이 있으며 꽃잎 사이 방형 구획 안에 문자가 양각되었다. 이 중 '당(當)'과 '자(子)'자만 희미하게 판독 가능한데 '자손당귀(子孫當貴)'와 같은 길상어로 추측된다. 거울 외연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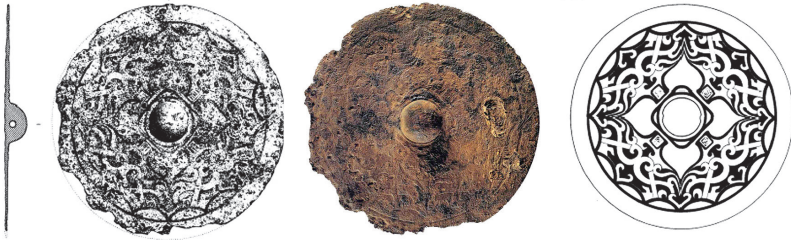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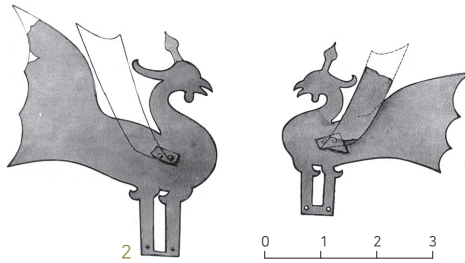
그림7 | 마선구2100호분 출토 철제거울(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는 내향하는 16개의 연호가 돌아가며, 4엽문과 내향연호문 사이에는 간략하고 추상화된 기봉(夔鳳)무늬 4세트를 대칭되게 부조로 표현하였다. 감숙성 무위 경기장 동한묘 출토 금은기봉문철제거울의 문양과 풍격이 유사하고 옷칠한 철제거울이 삼국에서 위진 시기까지 중원 귀족의 표지성 물품이라는 점에서 이 거울이 외래품으로 전래되어 고구려 무덤에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 후한 전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해 후한 말에서 서진대에 걸쳐 철제거울이 북방에서 많이 발견되나 동진 이후에는 북방에서 감소하고 남방에서 증가한다는 점, 북연 풍소불묘에서 철제거울이 출토된다는 점을 들어 마선구2100호분 출토 철제거울의 제작지가 삼연문화와 관련하여서 고구려일 것으로 상정하고 황남대총 북분 출토 철경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이양수, 2010). 시가33호분에서도 철제거울이 출토되었다.

#### (5) 금동제봉황형장식

평안북도 운산군 용호동1호분의 널방 내에서 철제부뚜막형명기, 금동투조금구 잔편, 토기, 유리편, 철제 못과 꺾쇠, 화살촉 등과 함께 금



용호동1호분 출토  
금동제봉황형장식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朝鮮總督府, 1929

동제봉황형장식 4점이 출토되었다(그림8). 얇은 금동판을 오려서 봉황의 옆모습을 만든 것으로 세 점의 크기는 비슷하고 한 점이 크다. 큰 것은 길이 15cm, 높이 19.1cm, 날개 끝부분 길이 8cm이고 작은 것은 길이 12.7cm, 높이 13.1cm, 날개 길이 6cm이다. 표면에 별다른 장식이나 무늬가 없다. 역S자로 흰 몸에 커다란 꼬리깃이 뻗어있는 모습으로 뒤로 젖히고 있는 머리 위에는 펜촉모양장식이 달려 있고 턱 아래에 작은 돌기가 있다. 벼슬은 갈기와 같은 형태로 뒤로 휘날리듯 표현되어 있으며 큼지막한 날개는 위로 치켜 올라가 날아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날개는 별도로 만들어 결합하였지만, 부착했던 흔적만 일부 남아 있다. 일직선으로 뻗은 두 다리의 위쪽에 돌기가 있어 윗다리아래와 아랫다

리를 구분한 듯하며 발은 별도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끝에 각각 하나의 못 구멍이 있어 이를 이용해 어딘가에 부착하였던 부속장식구임을 말해 준다.

철제 관뿔과 꺾쇠, 장막걸이쇠 등이 함께 출토되어 목실 구조가 존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어, 이 장식도 목실이나 다른 기물을 꾸미는 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강현숙, 2020). 마선구2100호분에서는 이보다 작은 크기(잔존높이 약 4cm)의 금동제봉황형장식 두 점이 말모양장식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모두 관(冠)장식으로 보고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우산하992호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장식편이 출토되었으나 용도는 알 수 없다.

## 2) 무덤 장구

### (1) 금동만가(幔架)

태왕릉 서쪽 두 번째 호분석 아래에서 청동제부뚜막형명기와 함께 금동투조장식이 발견되었다. 도굴꾼들이 임시로 이곳에 매납한 상태로 추정된다. 배판, 측판, 앞덧개, 뼈대로 구성된 투조장식은 시체문(柶帶文)이 반복되는 형태의 구조물로 배판 길이 2.42m, 폭 0.35m, 덧개 길이 2.68m 크기이다(그림9-1). 시체문장식은 감꼭지모양으로 투조한 방향 장식으로 4엽의 체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9-2). 이의 부속으로 추정되는 ‘工’자형능형망, 높이 약 13.4cm 말다리모양편, 시체문투조장방형장식판, 시체문관장식덧개편 등도 함께 수습되었다. 각 부위는 청동리벳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금동투조장식판들은 앞이 높고 뒤가 낮은 형태의 복원안(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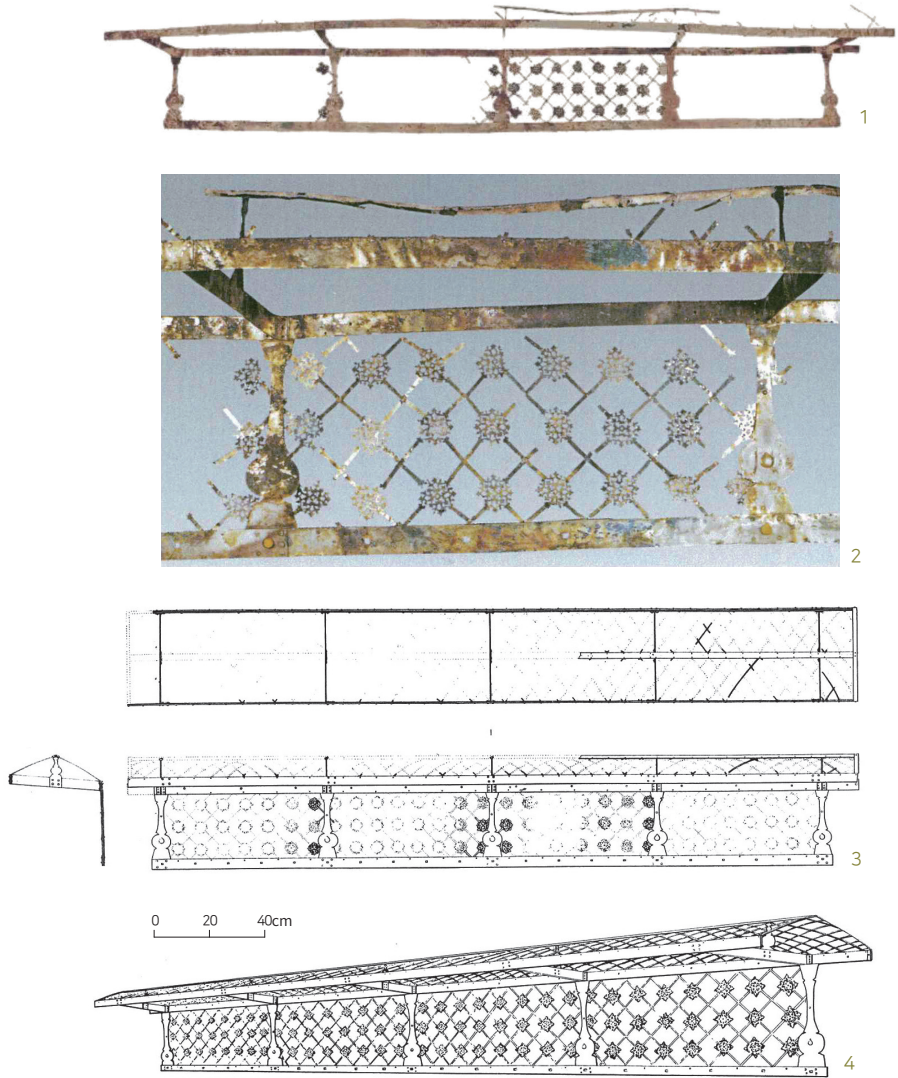


그림9 태왕릉 출토 금동만가(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1. 전체 모습 2. 세부 모습(배판) 3. 실측도 4. 복원도

립9-4)과 함께 휘장덧개라는 뜻의 ‘만가(幔架)’로 보고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반면 ‘만가’라는 기물과 명칭의 용례가 확인되지 않고 유물의 구조상 휘장을 걸었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윤곽선을 따라 못 구멍과 못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시신을 안치한 목관의 외면에 부착한 장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수빈, 2022). 이에 따르면 복원된 앞이 높고 뒤가 낮은 형태는 내벽에 벽화가 그려진 복원 풍소불묘 출토 목관과 비교 가능하다. 관 양쪽 하단에 시체형금첩이 부착되어 있다. 또한 섬서성 법문사 출토 당대 은도금사리관도 이처럼 앞이 높고 뒤가 낮은 형태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만일 이 금동시체문투조관장식이 목관 표면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면 관의 형태 복원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태왕릉에서 출토된 여러 문양의 투조장식편은 금동시체문투조관장식의 일부이거나 또 다른 관장식 부속편으로 추정된다.

## (2) 장막걸이쇠

고구려 무덤 매장부 내부에서는 목관(목곽)이나 목실 부재인 금속제 관못, 관고리, 꺾쇠와 함께 무덤 장구로 사용된 장막걸이쇠가 발견된다(표1). 꺾쇠나 관못이 목관, 목실 등의 안치시설을 복원하는 단서가 된다면, 장막걸이쇠는 현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매장의례를 추론케 하는 단서이다. 장막걸이쇠는 ‘ㄷ’자형으로 굽어 있고 대개 철제이나 태왕릉, 장천2호분 등에서는 금동으로 제작해 장식성을 부여한 경우도 있다(그림10).

고구려 벽화고분 중 만보정1368호분, 마선구1호분, 우산하1041호분, 통구12호분, 산성하332호분, 장천1호분, 장천2호분, 미창구장

표1 장막걸이쇠 출토 무덤 및 공반 무덤 장구

무덤명	무덤 형식	공반 무덤 장구
우산하992호분	계단목실직석총	장막걸이쇠, 청동계 판못, 꺾쇠
우산하2110호분	계단목실직석총	장막걸이쇠, 꺾쇠, 판못
우산하2112호분	계단목실직석총	장막걸이쇠, 판못,
칠성산211호분	계단목실직석총	장막걸이쇠, 청동계 판못, 꺾쇠
칠성산1096호분	계단목실직석총	장막걸이쇠, 철제관고리
서대총	계단목실직석총	장막걸이쇠, 철제 판못, 꺾쇠
마선구2100호분	계단목실직석총	장막걸이쇠, 판못, 꺾쇠
용호동1호분	계단목실직석총	장막걸이쇠, 판못, 꺾쇠
태왕릉	계단석실직석총	금동장막걸이쇠, 못, 꺾쇠
만보정1368호분	봉토석실벽화분	장막걸이쇠
산성하332호분 (왕자묘)	봉토석실벽화분	장막걸이쇠, 청동계관고리, 철제문고리, 못
장천2호분	봉토석실벽화분	금동장막걸이쇠, 못, 화환형판장식, 관고리 판부재



그림10 | 태왕릉 출토 금동장막걸이쇠(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군묘, 호남리사신총, 강서중묘, 강서대묘 등에서 장막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벽에서 확인되었다. 만보정1368호분은 현실(남북 3.2m, 동서 2.4m, 높이 3.2m) 네 벽 상부 못 구멍과 함께 직각으로 굽은 철제장막걸이쇠가 확인되었는데, 북벽에 9개, 서벽에 6개, 남벽에 4개, 동벽에 2개가 남아 있으며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현실 동벽 모서

리 쪽에 돌을 쌓아 만든 장방형 부석이 있고, 남쪽 끝에는 돌로 만든 화덕을 설치하였다. 집안 장천2호분 역시 현실(한 변 길이 3.52~3.6m)의 남벽, 북벽에 각 5개, 동벽에 8개, 서벽에 4개의 구멍이 일정 간격으로 나 있고 동벽 남단과 서벽 북단에서는 금동장막걸이쇠가 확인되었다. 장천1호분은 연화문으로 장식된 주실 벽 위쪽에 일정 간격으로 동벽에 8개, 남벽과 북벽에 각각 7개의 못 구멍이 뚫려 있다. 산성하332호분은 현실의 동·서·북벽 위쪽에 40~50cm 간격으로 벽마다 6개 못이 5cm 깊이로 박혔던 쇠못 구멍이 남아 있다. 칠성산1096호분은 석실 내 주검을 안치한 목실이 놓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장막걸이쇠가 출토되어 목실 안에 유장을 드리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폭의 피륙을 이어 만들어 둘러치는 장막인 휘장이 설치된 거대한 규모의 집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장례의식 중 현실 내부에 장막을 치는 행위는 고구려인의 계세적 내세관을 보여 준다(정호섭, 2009). 벽면 못 구멍과 장막걸이쇠가 확인된 장천2호분 남쪽 관대에서 출토된 유운문(流雲文) 비단편이 벽화의 장식 무늬와 함께 실제 설치되었던 휘장의 흔적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 장식 도안으로 사용된 ‘왕(王)’자 유운문은 고구려에서 제작된 ‘운포금’과 ‘문자금’을 묘사한 것으로 병풍이나 휘장 장식 비단의 무늬가 벽면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보기도 한다(박아림, 2012). 따라서 이들이 무덤 내 제의공간 마련에 쓰인 것이라면, 본래 제사와 관련된 여러 기물과 부장품이 그 주위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 3) 무덤 부속시설 출토 금속기

국내성시기에 조성된 초대형 적석총에서는 여러 부속시설이 확인된다. 우월적 입지의 배타적 점유를 드러내는 동시에 누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왕릉이 관리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무덤 부속시설인 능원은 그중 하나이다(강현숙, 2021). 서대총, 마선구2100호분,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에는 능원의 담장으로 추정되는 석렬도 일부 남아 있다. 무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 평면으로 돌을 돌리고 내부에 작은 돌을 채워 쌓은 높이 1m 정도의 석대시설도 확인되는데, 제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주 무덤에 딸린 별개 무덤으로 축조된 배장묘나 무덤 제사를 위한 건물인 능묘시설도 초대형 적석총의 부속시설에 포함된다. 마선구62호분과 태왕릉, 장군총에서 배장묘가 보고되고 칠성산871호분, 칠성산211호분, 우산하992호분의 제대시설도 배장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무덤 부속시설에서는 무덤 조성과 장례 과정, 나아가 매장 이후까지 정기적 제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편,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과 같은 초대형 계단석실적석총의 분구 상단에는 기와를 지붕에 얹은 묘상건축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연하게 축조된 석실의 거대 천장석은 상부 묘상건축물의 초석이나 기단석으로 활용되었을 수 있다. 실제 초대형 적석총 돌무지 사이에서 적지 않은 양의 압·수기와를 비롯해 막새 등이 출토되는데, 특히 우산하3319호분 출토 권운문와당에는 “정사년 5월에 중랑과 부인을 위하여 무덤을 덮을 기와를 만들고 또 백성 4천… 만세를 누리시리라”는 명문이 있어 기와가 무덤을 덮는 데 이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와를 어떻게 덮었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불에 녹은 돌과 기와가 함께 응결된 채 분구 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분구에서 불을 태운 번소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와 출토가 곧 묘상건축물의 존재를 직접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묘상건축의 성격에 대해서는 향당 또는 제의 관련 건물로 해석하거나, 화장의례 또는 방수시설과 관계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계단적석층층단의 L자상 판상석이나 석실 입구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상황을 주검 안치와 관련된 일회적 묘전의례나 분구의례의 흔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강현숙, 2018).

이처럼 다양한 무덤 부속시설은 그 기능과 매장 정황이 명확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이곳 출토품의 의미 해석에서 주 무덤 내 공헌물과 다른 출토 맥락이 고려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 (1) 묘상건축 난간 연결쇠

장군총 남쪽 호분석 위 흙더미에서 여러 마디로 이루어진 철제사슬이 금동머리장식, 대량의 기와, 와당 등과 함께 발견되었다(그림11-1). 철제사슬은 양 끝에 원형 고리가 있는 철제봉을 연결한 구조로 모두 5단 24마디가 확인되었는데, 13마디 사슬이 남은 것 중 가장 길다. 이 중 두 마디는 고리 부근 철봉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육(□六)”, “□이(□二)”로 판독되며 다른 한 자는 ‘조(條)’자와 유사하다.

한편, 장군총 최상층 7층 계단석 네 면 가장자리에는 직경 약 10cm, 깊이 약 15cm 크기의 구멍이 일정 간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그림11-2) 계단석 위 구멍은 장군총 7층 계단 위 중앙에 세워진 기와를 엮은 목조 묘상건축물과 그 주위 난간을 박았던 흔적이며, 철제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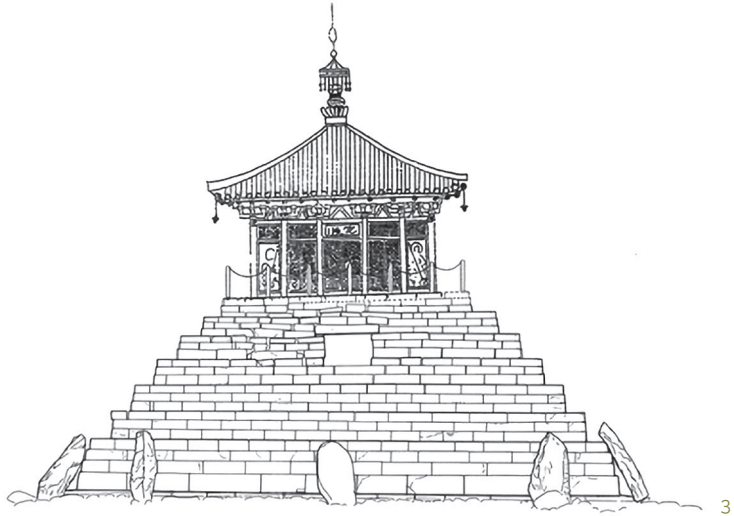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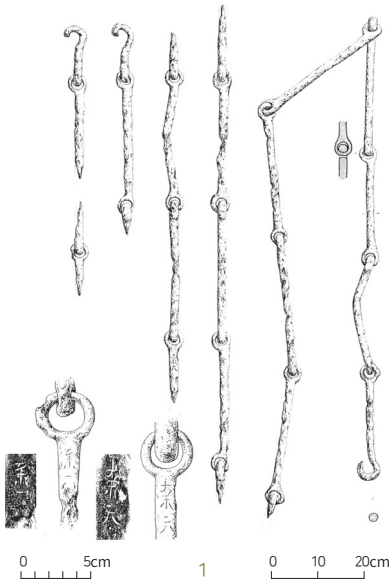


그림 11 | 장군총 묘상건축 난간 연결쇠 관련 출토품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과 추정 능각(강현숙 외, 2020)

1. 철제사슬 2. 최상부 계단석 모서리 구멍 3. 추정 능각

은 난간 연결쇠로 사용된 것이라 추정된다. 이처럼 장군총 외부에서 출토된 철제사슬은 무덤건축에 남아 있는 흔적과 함께 최상위 적석총 묘상건축과 그 부가시설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는 중요 단서이다.

## (2) 수레바퀴비녀장(車轄)

견고하고 탄성 있는 바퀴살로 이루어진 수레바퀴의 제작과 사용은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회분4호묘에 대장장이신과 함께 등장하는 수레바퀴신(그림12-1)의 모습은 고대사회에서 수레바퀴의 제작이 철기 제작과 대등한 가치로 인식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구려에서 수레바퀴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벽화에 등장하는 여러 행렬모습뿐 아니라 부속구인 철제 차관과 비녀장 등에서 확인된다. 비녀장은 수레바퀴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차축 끝에 박는 못이다. 고분벽화 행렬장면 중 수레의 바퀴 축 중앙에 길쭉하게 돌출된 비녀장이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2-2). 초대형 적석총의 부속시설에서도 수레바퀴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된다.

임강총 제대 주변에서 청동제수레바퀴비녀장이 발견되었다(그림13-1). 주 무덤 동측 변 13.5m 떨어진 장방형 제대 표면에서 불에 탄 흔적과 유사한 검은 흙덩이가 확인되었으며, 주위에서 철제허리띠고리, 금동장식편 등과 함께 비녀장이 발견되었다. 길이 17cm의 청동제비녀장은 윗부분이 두 손을 허리에 대고 서 있는 인물 형상을 한 형태로 길이 18.6cm 크기의 우산하2110호분 출토 2점과 유사하다(그림13-2, 3). 제대 추정 시설에서 출토되는 수레바퀴비녀장은 마선구626호분에서도 확인된다(그림13-4). 마선구626호분 출토 비녀장은 길이 14.8cm의 철제품으로 크기도 작고 특별한 장식 없이 상부를 말아 제작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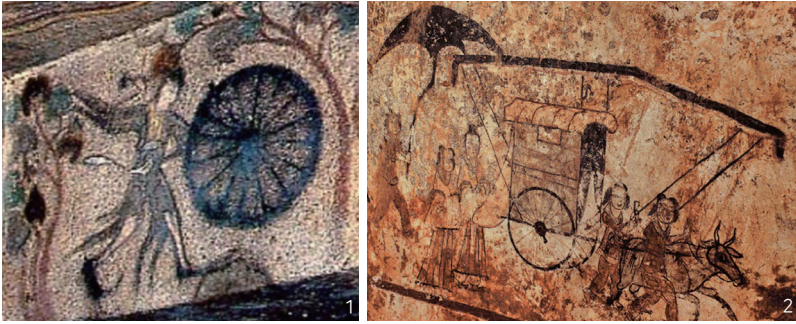


그림12 | 고구려고분벽화 속 수레바퀴  
1. 수레바퀴신(오회분4호묘) 2. 수레(덕흥리고분)



그림13 | 고구려 무덤 출토 수레바퀴비너장(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1. 임강총 2·3. 우산하2110호분 4. 마선구626호분 5. 오녀산성

이다. 무덤 시설은 아니나 오녀산성 철기저장공(JC)에서도 길이 11cm에 특별한 장식 없는 소형 비너장이 출토되었다(그림13-5). 현재로서 제대 출토품과 무덤 내 출토품 간 의미 차이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사회적 가치재로서 상징성을 가진 기물인 수레바퀴 부속구의 출토 맥락을 고려한 의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 (3) 철제편자

전형적 계단석실석총인 장군총은 주 무덤 동북쪽에 2기의 배장묘와 제대가 있고 서남쪽에는 부속된 제사시설 성격의 대형 건축유구가 남아 있어 고구려 왕릉 매장제도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장군총 1호, 2호 배장묘는 축조기술이나 구조적으로 장군총과 유사해 주 무덤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군총 1호배장묘에는 철제말편자 2점이 부장되었다(그림14-1, 2). 말의 발굽이 닳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편자는 U자형 금속에 못을 박기 위한 구멍이 일정 간격으로 나 있는 형태로 구멍에 못이 박힌 채로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철제편자는 고려성자촌 고려성산성, 집안 산성자산성 궁전지, 석대자산성, 구리 아차산3보루 등과 같은 생활유적에서도 출토되나 무덤 내 부장품으로 매장된 점은 고구려에서 말이 차지했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장군총 1호배장묘에 길이 27cm의 집게 1점과 끌 2점, 정 등의 철제단야구가 부장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곳에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높이 20cm의 안장형 철기도 함께 출토되었다.

장군총 2호배장묘에서는 길이 10.8cm 크기의 철제편자 1점 출토되었으며(그림14-3), 임강총 제대에서는 길이 10cm 크기의 철제편자 1점(그림14-4)이 청동제수레바퀴비녀장, 재갈 등을 비롯한 금속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그 밖에 옥도리 동우동 9호분, 10호분 등에 철제편자가 다량 매장되었으며(그림15), 산성하진창145호분에는 못 구멍이 3개인 초승달형소편자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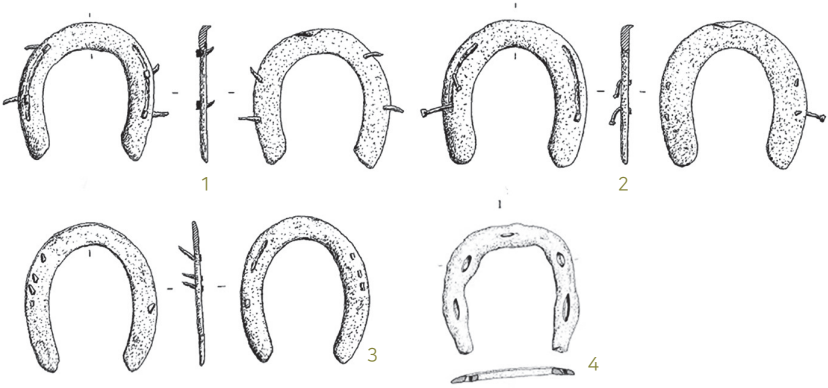


그림 14 | 무덤 부속시설 출토 철제편자(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1·2. 장군총 1호배장묘 3. 장군총 2호배장묘 4. 임강총 제대



0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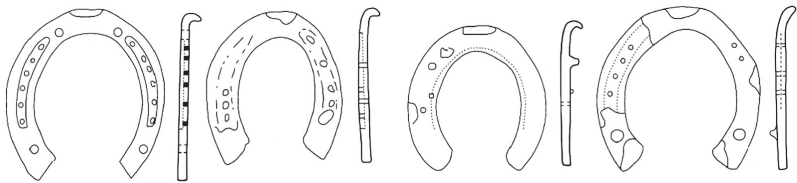


그림 15 | 옥도리 동우동9호분 출토 철제편자와 출토 모습(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 2. 생활유적 출토 기타 금속기

산성이나 관방시설 출토 금속기 다수가 용도 불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대체로 건축물이나 가구의 부속구로 사용된 일상 실용구로 추정된다. 건축기술 발전과 통치체제 고도화에 따른 대형 목조건축 보급 확대와 맞물려 금속 부속구의 수요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건축물의 부재를 연결하거나 보강하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식 효과를 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건물의 문이나 가구의 문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 경첩을 비롯해 문지도리쇠, 문확쇠 등이 여러 산성과 관방 유적에서 확인된다(표2). 내부에 문지도리쇠가 결합된 대형 차관이 환도산성 2호문지에서 출토되었을 뿐 아니라, 구의동보루에서도 차관과 문지도리쇠가 출토되고 있어 차관이 수레의 부속구뿐만 아니라 문지도리 부속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흥련봉1보루 건물지 입구 돌확 주변에서 출토된 확쇠 2점은 문지도리 아래위에 하나씩 장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문고리를 비롯한 고리, 철대 등의 연결구를 비롯해 다양한 철제건축부속구가 확인된다.

오녀산성에서는 자물쇠, 회전고리, 걸쇠 등을 비롯한 각종 철제연결부속구와 함께 목심철판이 출토되었다(그림16-6). 일정 간격을 두고 못으로 연결된 철판 두 개의 측면 모습이 ‘ㄷ’자형으로 남아 있는 목심철판은 본래 목재의 앞뒤 표면에 철판을 대고 양 끝을 못으로 박아 고정시켜 가구나 건축 장식의 부속구로 사용한 것이다. 현재 목재는 남아 있지 않고 철판 내부에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뒤 철판 사이 간격이 사용된 목재의 두께라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목재 표

표2 산성·관방유적 출토 주요 기타 철기

철기	그림	출토유적
자물쇠	16-5	오녀산성
자물쇠 빗장	17-8	영릉남성지
문지도리쇠	17-6	환도산성, 구의동보루
문지도리쇠 결합 차관	17-5	환도산성
문확쇠	17-14	홍련봉1보루, 용마산2보루
경첩	16-2	오녀산성, 환도산성
목심철판	16-6	아차산3보루, 오녀산성 철기저장공 및 주거지, 용마산2보루
깃대형투겁고리	17-7	홍련봉2보루, 환도산성
철제사슬	17-16	국내성, 환도산성
망태형철기	17-15	무등리2보루
부딿쇠	17-12	석대자산성
가위	17-13	석대자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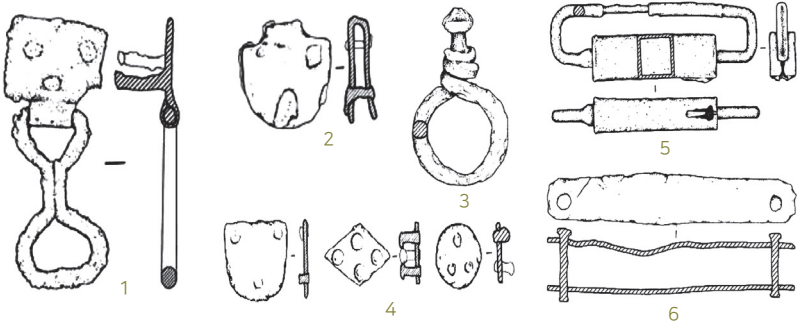


그림16 | 오녀산성 출토 건축·가구 연결 부속구

1. 걸쇠 2. 경첩 3. 회전고리 4. 연결판 5. 자물쇠 6. 목심철판

면에만 금속을 부착해 경제성과 실용성, 견고성을 갖출 수 있었다. 오녀산성 주거지(F54)와 철기저장공(JC)를 비롯해 구리 아차산3보루, 용마산2보루 2호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환도산성에서는 한쪽이 나무에 결합된 갈고리가 연결된 쇠사슬(그

림17-2), 뾰족한 끝을 다른 쪽 대상 철기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한 쇠사슬(그림17-1)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천장이나 벽면에 고정시켜 다른 물건을 걸어두는 용도이거나, 특정 물체를 휘감아 고정시키는 용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흥련봉2보루에서 출토한 한쪽 끝에 투겁이 있는 길이 196cm의 철제깃대도 주목할 만하다(그림17-7). 두 가닥을 이루어 V자모양을 하고 있는 투겁 반대편 끝 두 개의 고리와 투겁 부근의 고리에 깃발 등을 고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다른 형태이나 한 끝에 투겁이 있고 반대편에 고리가 있는 구조의 투겁고리가 환도산성 궁전지에서 출토되어 마찬가지로 깃대와 유사한 기능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그림17-4).

또한 무등리2보루에서 출토된 망태형철기는 말안장 뒷부분에 고정시켜 장식하는 사행상(蛇行狀)철기와 유사한 형태로 착장부, 연결부, 망태부로 이루어져 있다(그림17-15). 착장부는 투겁이 있는 작은 철봉형으로 끝에서부터 중간부에 이르는 부분은 S자형으로 휘어져 있는데 가느다란 철봉을 구부려 만든 끝부분은 고리를 만들어 철대를 엮어 만든 망태부와 연결시켰다.

이처럼 형태와 구조가 복잡한 철기들은 매우 숙련된 단야와 성형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구조를 가진 철기 제작에는 구조용 강(鋼) 중에서도 탄소가 적게 들어간 저탄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능과 형태에 따라 적절한 철 소재를 선별하고 활용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전문 장인집단과 이를 가능케 하는 철기 제작시스템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남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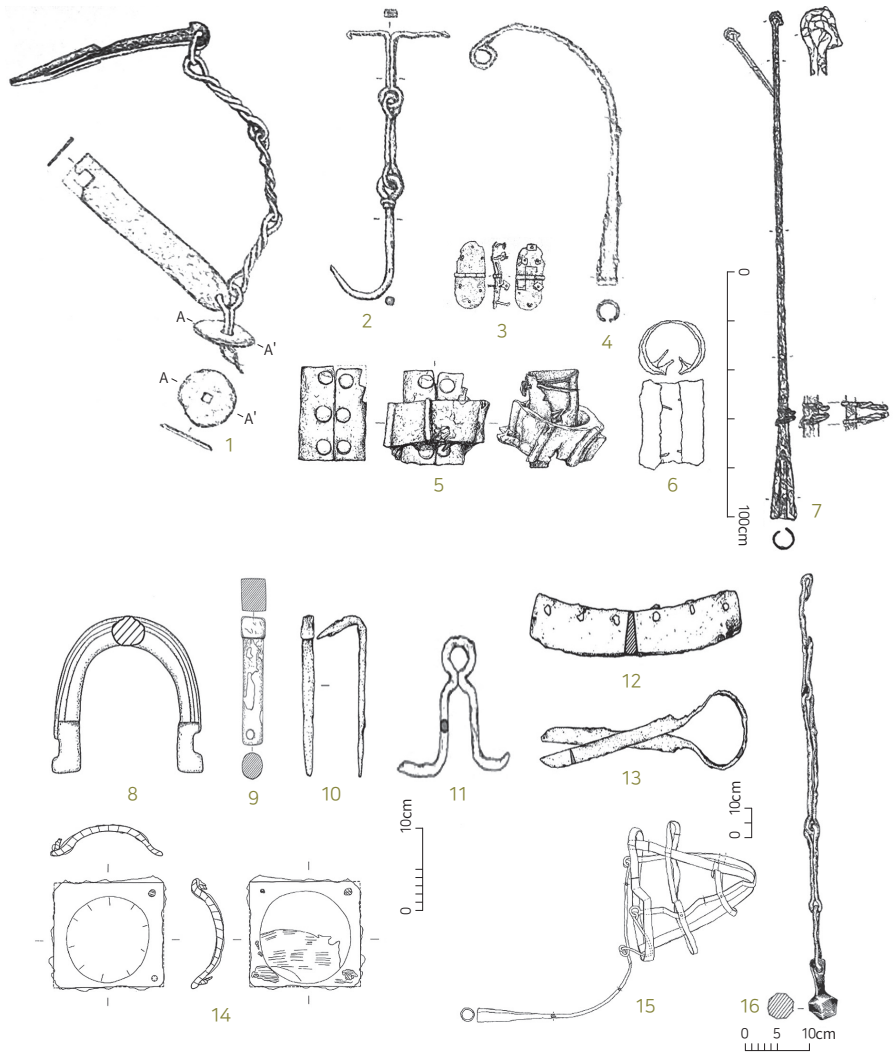


그림17 고구려 산성과 관방 유적 출토 기타 금속기

1. 대상 철기 결합 사슬(환도산성) 2. 갈고리(환도산성) 3. 검침(환도산성)
4. 투겁고리(환도산성) 5. 문지도리와 차관(환도산성) 6. 문지도리(구의동보루)
7. 깃대형투겁고리(홍련봉2보루) 8. 자물쇠 빗장(영릉남성지)
9. 썩기못(영릉남성지) 10. 고리(석대자산성) 11. 배목(석대자산성)
12. 부싯쇠(석대자산성) 13. 가위(석대자산성) 14. 문확쇠(홍련봉1보루)
15. 망태형철기(무등리2보루) 16. 추 달린 철제사슬(국내성)

### 3. 금속기 제작기술

#### 1) 철 생산과정

철은 강인하고 실용적이며 인간의 생활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다 준 소재로 오늘날까지 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인류가 처음으로 철을 사용했다고 알려진 고대 서아시아나 중국에서는 운석에 포함되어 있는 운철, 즉 자연철이 이용되었는데, 이는 니켈 성분이 많아 질이 무르고 양이 적어 실용화시키기 어려웠다. 철기는 청동기보다 손쉽게 원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고온의 화력을 낼 수 있는 기술력과 철광석을 녹여 철을 뽑아내는 제철기술이 발명되면서부터 비로소 이용되기 시작했다. 철기 제작을 본격화한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토기의 출현, 생산력 증대와 군사력 강화 등과 맞물려 사회 변화의 근간이 되었고, 사회 통합과 국가 권력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철기는 철의 생산과 철기의 제작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그림18). 철 생산은 철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철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원료에서 철 광물을 분리해내는 제련과정에서 시작된다. 원료인 철광석 또는 사철을 연료와 함께 생산시설인 노(爐)에 넣어 가열해 철 성분을 추출해 얻는 괴련철(塊鍊鐵)과 선철(銑鐵)은 1차 철 소재에 해당된다. 고구려 영역 내에서 아직 당시의 광산유적이 발견된 예는 없으나 북한 전역 및 중국 동북 지역에 분포한 철광석 산지가 적극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석 결핍지역에서는 사철을 채취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련작업은 철의 원료뿐 아니라 생산 과정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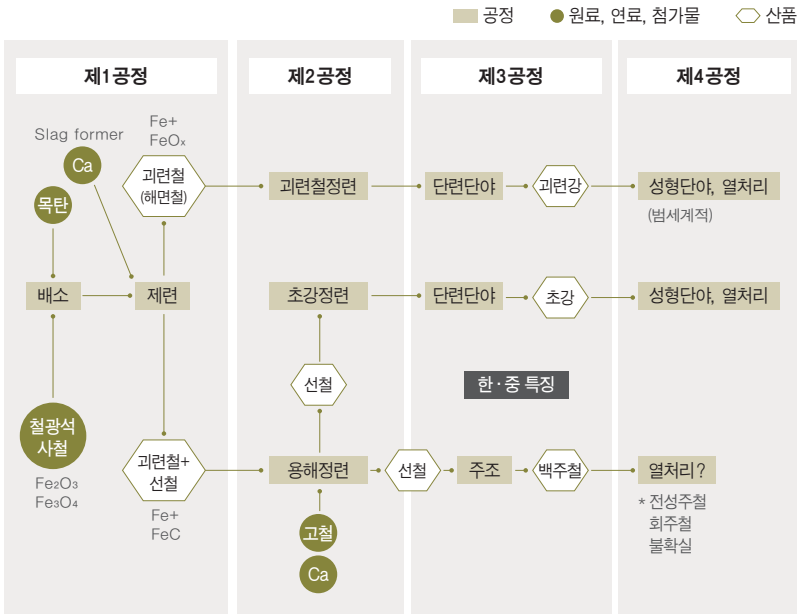


그림18 | 한국 고대의 제철 공정도(이남규, 2019)

투입되는 막대한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지역이 선호되었다. 따라서 통상 원료보다는 연료 산지에 가까운 위치가 제철작업지로 선택된다. 따라서 고구려의 철 제련도 성곽 주변의 삼림이 고갈되어 가면서 점차 산악지대로 이동해 갔을 것으로 생각되나, 고구려 탄요로 볼 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더불어 427년 평양 천도 후에 은율, 재령, 하성 등지의 적철광이나 갈철광 사용이 확대되면서 후기 고구려의 제철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 북한 학계의 입장이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충분치 않다.

도구로서 철의 성능을 좌우하는 특성은 강도와 경도인데, 철의 화학 성분 조성, 무엇보다 탄소 함량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크게 변한다. 일

반적으로 탄소 함량에 따라 순철, 강철, 그리고 주철로 구분한다. 철 소재인 철광석은 철 원자가 주로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물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제련로에서 목탄과 함께 넣어 가열 시 온도 상승과 함께 철광석 내 산소 제거에 필요한 탄소를 목탄으로부터 공급받아 환원 상태, 즉 철 본연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제련 과정에서 생산되는 철 소재는 제련로의 축조방식과 공급되는 목탄의 양, 그리고 목탄과 철광석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과 온도 범위에 따라 탄소 함량이 지극히 낮은 순철이 생산되거나 탄소 함량이 높은 주철이 생산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탄소 함량에서 이들의 중간에 있는 강 소재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고대의 철광석 제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얻기 어려우며, 이미 생산된 순철이나 주철의 탄소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철의 용해(또는 응고) 온도는 순철에서 1539°C에 이르나 탄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낮아져 탄소 함량 4.3%의 주철에서는 1,148°C까지 낮아진다. 탄소 함량이 주철에 비하여 낮은 철 소재는 그 용해온도가 비교적 높아 고대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용해 및 응고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주철을 대상으로 한 용해작업은 상대적으로 일찍 쉽게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이 그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제철에서 1,000°C 정도 온도까지 고체 상태의 철광석을 달궈 반응용 상태로 만든 후 두드려 불순물을 분리해 얻는 철이 괴련철이다. 불순물이 빠져나간 자리가 빈 구멍으로 남은 형태라 해면철이라고도 불린다. 이 경우는 탄소가 0~0.03% 정도 미미하게 포함되어 있어 강도와 경도가 낮은 순철 성분으로 충격에 잘 부서지고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갖는다. 1,200°C 정도 온도에서 녹아 얻어지는 선철은 탄소를 4.3% 내외로 포함한 주철로 경도가 높아 매우 단단한 대신 충

격에 깨지기 쉽다. 반면, 탄소 함량이 0.03~2.1%에 해당하는 강철은 순철이나 주철에 비하여 기계적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두드림이나 열처리로 강도와 연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철 소재 중 가장 쓰임새가 크다. 충격에 강하고 질기며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실용구로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철기 제작기술의 발달은 강철 생산, 즉 제강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기 제작기술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강철 소재를 생산하는 데 어떠한 제강법이 적용되었는가이다. 어떠한 제강법을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대 철기산업의 기본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강 소재는 순철의 탄소 함량을 높이거나 주철의 탄소 함량을 낮춤으로써 생산할 수 있다. 제강 과정에 순철이 응용될 경우 탄소를 투입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주철의 경우는 탄소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침탄제강법으로, 후자는 탈탄제강법으로 불리며, 후자는 다시 고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정과 액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정으로 구분된다. 고대사회에서는 이처럼 피련철과 선철의 성질을 변화시켜 보다 실용성 높은 소재로 만드는 제강공정으로서 탄소량을 높이는 침탄기술과 탄소량을 낮추는 탈탄기술이 고안되었다.

침탄기술은 탄소량이 거의 없고 불순물이 많은 피련철을 소재로 하는 경우 탄소량을 높여주기 위한 공정에 적용된다. 일단 정련로에서 정련작업을 거친 후 목탄 불에 계속 가열하여 철 표면에 탄소를 부착시킨 후 이를 두드리고 접는 과정을 반복하여 침탄시키는 것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두드려 재질을 균일하게 하고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에 비



그림19 | 『천공개물(天工開物)』의 초강 생산(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20)

해 탈탄기술은 탄소량을 줄이는 공정이다. 고체 상태에서 오랜 시간 열처리하여 표면으로부터 탈탄을 유도한 주철탈탄강을 생산하는 기술이 있는 반면, 주철을 가열하여 반액체와 반고체 상태로 만든 후 탈탄제를 첨가해 고루 섞어 탈탄시키는 기술이 초강법이다(그림19).

한편, 철 소재의 조직은 규칙적으로 배열된 철 원자들 사이에 형성된 빈 공간 일부에 탄소 원자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이다. 이들은 응고가 완료되어 고체가 된 후에도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원자 배열의 규칙성, 즉 결정구조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철 소재를 두드리거나 가열 또는 냉각하는 열처리를 거침으로써 기계적 성질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강은 순철이나 주철에 비해 열처리로 성능을 크게 개선하거나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쓰임새가 높다. 열처리에는 담금질, 뜨임, 풀림 등이 있는데, 강철을 가열

하고 물 또는 기름 속에서 급랭해 경도가 매우 큰 조직이 생성되는 담금질은 대표적인 열처리 기법으로 단조철기의 날 부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 2) 철기 생산 유적과 단야공구

고구려의 초기 제철유적은 압록강 중류 유역인 자강도 일원에 분포한다. 자강도 시중군 노남리유적과 중강군 토성리유적에서 제철 관계 유구가 보고되었다. 북한 학계의 보고 초기에는 노남리 제철유구를 쇠물(선철)을 받아내는 제철로, 토성리 유구를 단순 쇠부리터로만 보았으나, 이후 이들이 완전 용융 상태에서 강철을 생산할 수 있는 노라 판단하였다. 이는 선철에 첨가제를 넣어 탈탄시켜 강을 제작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거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제강로에서의 강철 생산’을 강조하면서 광석( $Fe_2O_3$ ,  $Fe_3O_4$ )을 사용한 선철 탈탄공정을 상정하였고, 장수산 일대 고구려 제철로 중 원통형은 제련로, 장방형은 제강로로 이해하였다(표3).

단야로는 아차산3보루에 단야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철재, 단조박편 및 입상재 등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흔적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연천 무등리2보루에서는 남쪽 치의 서벽 바깥쪽 아래(최대 크기 30cm), 북쪽 치의 서벽 바깥쪽과 남쪽 성벽의 바깥쪽 바닥면에서 철재가 노출되었고, 방형 석축 내부의 배수로에는 철재와 노벽편이 다량으로 폐기된 상태였다. 기능과 지형을 고려할 때 치 주변에 제철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남쪽 성벽 안쪽과 방형 석축 배수로 사이에 정련과 단련 단야를 실시하던 제철로가 있었을 것

표3 장수산 일대 고구려 제철로

위치	형태	크기(높이×직경 또는 길이×폭)(m)	벽 두께(m)
1호 쇠부리터(외성)	장방형	2×0.95×1.3	앞 1.5, 뒤 0.85
2호 쇠부리터(외성)	원통형	0.5×0.57	0.4
동문 쇠부리터(외성)	원통형	0.57×0.45	0.25
남문 쇠부리터(외성)	장방형	0.75×0.55×0.7	앞 0.6, 뒤 1.45

표4 고구려의 철기 단야도구 출토 현황

유적	유적 성격	단야구
국내성	산성	모루, 망치
오녀산성	산성	망치, 줄, 끌, 천공기, 정(鑿), 췌기
홍련봉2보루	관방	망치, 집게, 정(鑿), 지석
아차산3보루	관방	정(鑿), 지석
아차산4보루	관방	망치, 정(鑿), 지석
아차산시루봉보루	관방	집게, 정(鑿), 끌, 지석
용마산2보루	관방	망치, 집게, 지석
호로고루	관방	집게, 끌, 망치
장군총 1호배장묘	무덤	집게, 끌, 정(鑿)
태왕릉	무덤	끌, 정(鑿)
마선구M1445호분	무덤	망치
장천2호분	무덤	망치

으로 추정된다.

정련 철재 및 단련단야, 성형단야에 쓰이는 단야공구들이 산성 및 관방 유적, 나아가 무덤의 부장품으로도 확인된다(표4). 마선구1445호분과 장천2호분에 철제망치가, 태왕릉에 철제 끌과 정이, 장군총 1호배장묘에 철제 집게와 끌, 정과 같은 공구류가, 우산하540호분에 철제 끌이 부장되었다. 단야구의 부장은 앞선 시기 낙랑 목곽묘인 평양 정백동62호분과 정백동81호분에서도 이미 확인된다. 창원 다호리17호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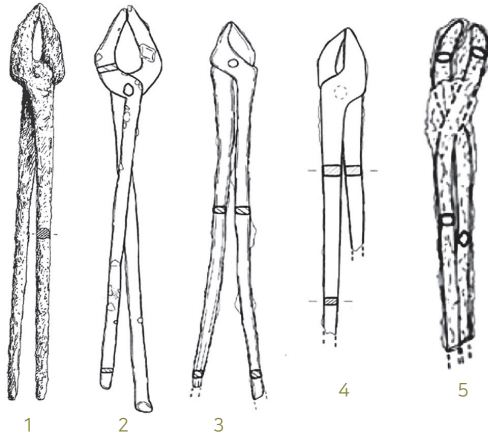


그림20 철제단야공구-집게  
(축척 부동)

1. 장군총 1호배장묘
2. 흥련봉2보루
3. 용마신2보루
4. 시루봉보루
5. 호로고루

관묘에 망치 1점, 64호 목곽묘에 철광석이 부장되었으며, 신라 권역에서는 생활유적보다 고분 부장품으로 대부분 확인된다. 이처럼 무덤에서 단야구가 부장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 공방에서 사용된 단야구는 다시 녹여 재가공하거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지만(차순철, 2003), 대형 무덤 내 단야구의 부장은 고대사회에서 철기 제작기술 보유의 의미와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야구로는 집게(그림20), 망치, 줄, 끌, 정, 모루 등이 남아 있는데, 철기 생산을 반증하는 철정, 철재, 철괴 등이 공반되기도 한다. 이 중 대장간에서 철기를 열처리하거나 단조작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제집게는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대표적 단야구이다. 집게는 단조철물의 크기나 형태, 무게에 따라 집게부와 손잡이부의 길이와 형태가 달라 소형은 성형단야용, 대형은 단련단야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삼국시대 집게부의 형태를 원형과 타원형으로 분류하기도 하

는데, 원형 집게는 옥전M3호분, 임당 조영E1호분 출토품 등 소수만 확인되어 지역적·기능적으로 형태 차이가 존재한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김승옥·이보람, 2011). 다만 원형 집게가 주조작업 시 쇳물을 부을 때 도가니를 집거나 작은 철물을 단단하게 집는 데 유리한 형태라는 기능성에 주목하기도 한다(김은주, 2007).

망치는 철기 가공작업 외에도 못박기나 석공의 작업도구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구이다. 그런 까닭에 망치의 중량과 형태 차이에 따라 못을 박는 용도로 사용된 것과 단조에 사용된 것에 차이가 있으리라는 점(송계현, 1984)과 한쪽 끝부분이 뾰족한 형태는 석공이 작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견해(차순철, 2003)가 있다. 단야작업에서 망치는 철 소재를 두드려 의도하는 철기를 성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단조작업의 핵심 공구이기도 하다. 목탄과 함께 가열해 철 소재를 두드릴수록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여 강철이 되는 점 역시 그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철기 제작의 공정과 세부작업 성격에 따라 사용하는 망치의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다. 1차 가공의 단야작업에는 상대적으로 큰 망치가 필요하지만 정교한 타격이 필요한 철기의 성형이나 큰 망치의 보조 역할 시에는 중소형 망치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흥련봉2보루 출토 소형 망치가 성형단야에 사용된 것이라면 용마산2보루나 아차산4보루 출토 대형 망치는 단련단야의 메질용으로 볼 수 있다.

줄은 단야작업 이후 쇳붙이를 버르거나 이미 제작된 철제품의 날을 세울 때 사용했던 도구로, 좁고 길쭉한 형태의 아래쪽에는 나무손잡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경부가 있다. 철기 표면을 마연 가공하기 위한 미세 눈금 형태의 얇은 줄눈이 앞뒷면에 있다.

끝은 날의 반대편을 망치로 두드려 철판을 자르는 도구이다. 날 부분을 뾰족하게 세운 길쭉한 형태로 가공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날을 가진 끝이 제작, 사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는 철제끝은 날의 반대편이 투갑식으로 제작된 형태가 많다.

철의 단련과 철기의 성형 과정에서 구부리기나 천공(穿孔) 등에 쓰이는 정(鑿)은 일반적인 끝(鑿)보다 굵거나 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을 갖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채석용이나 치석(治石)용으로 쓰였을 것이다.

모루는 단조나 판금 작업 시 철기를 올려 놓는 작업대 역할을 하는 도구로, 석제와 철제가 모두 제작, 사용되었다. 이 중 철제모루는 지하에 몸통의 절반 이상이 묻히는 대형 모루, 지상에 설치되는 소형 모루, 철상의 형태가 세장하여 끝이 뾰족하여 다리 부분을 땅속이나 나무에 박아서 사용하는 부리형모루 등이 있다(吉川金次, 1991).

고구려에서 사용된 단야구는 오희분4호묘의 대장장이신이 그려진 벽화 속에 망치, 집게, 모루가 등장하고 있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21-1). 상투를 튼 남자가 바위처럼 생긴 곳에 앉아 모루 위의 철물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이다. 단야로는 보이지 않으나 왼손에 집게로 철물을 잡고 오른손에 쥔 쇠망치로 이를 세게 내리치려는 장면을 포착했다. 단조작업을 위해 철물을 올려 놓은 모루는 통나무를 잘라 세우고, 그 위에 원통형 철제모루를 고정시킨 것으로 보인다. 소형 망치로 얹은 채 작업하는 모습으로 보아 마지막 성형단야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에 비해 대장간 작업을 그린 조선 후기의 풍속화 속 단야 장면은 조금 다른 제작공정을 담고 있다(그림21-2). 김홍도의 대장간 그림에



그림21 단조철기 제작 모습

1. 오희분4호묘 벽화 속 대장장이신의 성형단야 모습
2. 김홍도 풍속화 속 정련(단련)단야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는 중앙의 가마 주변으로 풀무꾼과 집계를 다루는 사람, 망치잡이, 낫을 갈고 있는 사람 등 모두 5명이 한 조로 작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가마 앞쪽의 방형 단 위에 집계를 낀 사람이 쭈그린 자세로 앉아 있고 모루 반대편에는 2명이 망치를 들고 메질을 하고 있다. 원통형 철제 모루는 통마루 받침대 위에 놓여 있으며, 모루 옆에 있는 구유형물통은 급랭을 통한 담금질 등에 이용된 장비였을 것이다. 모루 위의 철물이 아직 크고 정교한 형태를 갖추지 않아 이를 붙잡고 있는 철제집계나 2명이 교대로 내려치는 망치의 크기도 크다. 따라서 이 작업은 철기 성형을 위한 최종 단야작업이라기보다는 정련이나 단련을 위한 작업 과정으로 보인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루 주변으로는 단타작업으

로 표면이 박리된 철재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

고대사회에서 단야구는 철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특정 장인집단 계층의 존재와 국가경쟁력을 가능케할 수 있는 단서이다. 그런 의미로 대형 무덤에서 출토되는 단야구는 작업의 전문화와 사회적 계층화를 시사하는 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야구가 부장된 대형 무덤의 피장자를 직접 단야작업에 종사한 장인이라 보기보다는 철기 제작기술을 가진 집단의 수장층을 상징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신라 지역의 경우 경주를 비롯한 일부 중심지의 지배층 집단묘역인 대형 고분군에서는 대형 집계 1점만 부장되는 반면, 중소 규모 고분군 내에서는 고루 갖춘 단야구가 부장된 예가 확인된다. 또한 야철기술이 보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장인집단의 사회적 신분이 전대에 비해 낮아지는 현상도 확인된다(차순철, 2003). 이처럼 당시의 사회적 가치 변화와 맞물려 단야구의 부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녀산성에서는 군인들의 막사로 추정되는 주거지와 임시 철기저장시설로 추정되는 교장유구에서 철제 망치, 끌, 췌기, 줄, 천공기 등의 단야공구가 출토되었다(그림22). 이들은 출토 정황상 전문 장인의 본격적 철기 제작 흔적이라기보다는 산성 내부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이 유사시 병기를 제작하거나 간단히 수리하는 데 사용한 공구로 보인다. 대장간 단조작업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단야로가 확인되지 않은 점, 집계가 출토되지 않은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임시 철기보관 시설인 JC 교장유구의 주변 주거지 중 하나인 F35 주거지에서 단조공방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형 판석이 발견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표 아래 30cm 지점에서 확인된 원형 수혈인 JC 교장유구 내부에는 철술(鐵釜) 내부에 철촉 191점을 비롯하여 모두 300여 점의 철기가 담겨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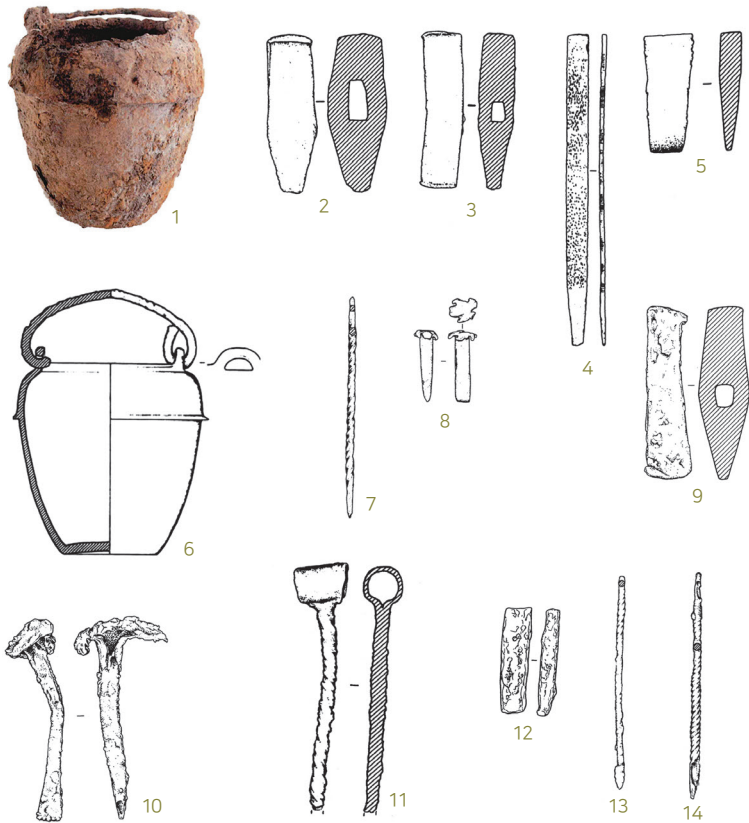


그림22 | 오녀산성 출토 단야공구와 철기 매납 철제술(축척 부동)

- 1·6. 철제술(JC 교장) 2·3. 망치(JC 교장) 4. 줄(JC 교장) 5. 췌기(JC 교장)
- 7. 천공기(JC 교장) 8. 정(釘, JC 교장) 9. 망치(F29호주거지) 10. 끌(F32호주거지)
- 11. 철집(鐵針, J2호 건물지) 12. 망치(유물포함층 T41조사구)
- 13. 천공기(유물포함층 T63조사구) 14. 천공기(유물포함층 T56조사구)

었다. 술의 바닥면과 측면에 찰갑의 소찰편이 덮여 있었는데, 본래 찰갑 한 벌로 술의 윗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술의 외부에서는 말재갈 1점이 출토되었다. 이 유구 출토품에는 망치 2점, 철정, 끌, 줄, 췌기, 천공기 각 1점을 포함해 등자, 재갈, 수레축구, 허리띠장식 등의 마

구, 별목구인 양날도끼와 나무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철검, 철도자 등 다종다양한 철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산성에 주둔한 병사들이 유사시 산성 방어에 필요한 비축품을 수리하고 가공하는 데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작업도구로 추정된다. 이는 고구려에서 전문공인 뿐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 중에도 간단하게 철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존재했음을 말해준다(차순철, 2004). 한강 유역에 분포하는 고구려 관방유적 내에서 단야공구가 출토되고 간이 대장간 추정 시설이 보고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야작업에 사용된 철 소재의 성격은 분명하지 않다. 아차산3보루 출토 정(鋌)으로 보고된 방형 철기 1점이 있기는 하나 소형이라는 점과 아직 다른 유적에서 유사한 출토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다만 연천 무등리2보루에서는 철의 정련 결과 생성된 철재가 출토되어 이곳에 철정(鐵錠)과 같은 철 소재를 제조하던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무등리2보루 남쪽 치의 서벽 바깥쪽 아래(최대 크기 30cm), 북쪽 치의 서벽 바깥쪽과 남쪽 성벽의 바깥쪽 바닥면에서 철재가 확인되었다(그림23). 또한 방형 석축 내부 배수로에는 철재와 노벽편이 다량으로 폐기된 상태였다. 보루에서 노벽편이 많이 보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제철조업이 종료되고 그 시설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며, 제철장의 나머지 부분은 후대 삭평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 주변에서 철재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기능과 지형의 면에서 치 주변에 제철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남쪽 성벽 안쪽과 방형 석축 배수로 사이에 정련과 단련 단야를 실시하던 제철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수습된 철재와 슬래그에 대한 분석 결과 무등리2보루에서 초강 정련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이남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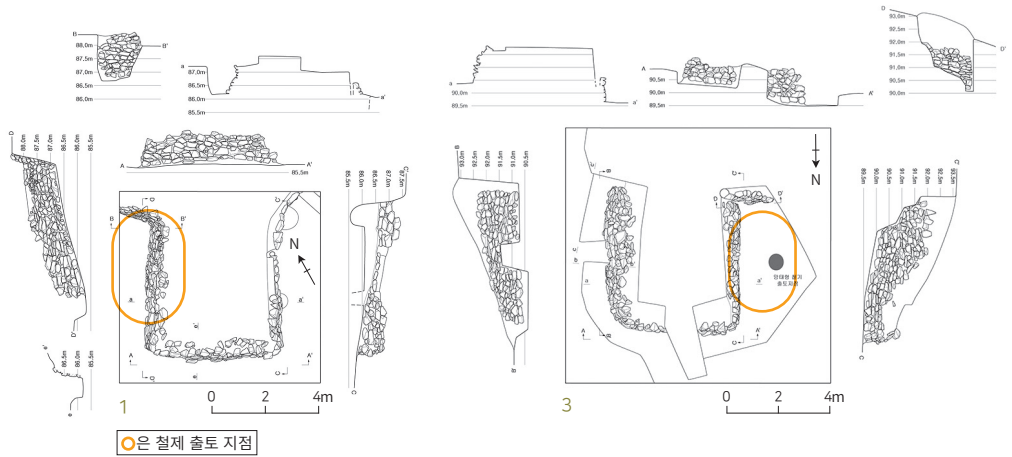


그림23 무등리2보루 제철 흔적(이남규, 2018)  
1. 남쪽 치 2. 북쪽 치 3. 배수로 4. 남쪽 성벽

2018).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무등리2보루는 주변의 고구려 군부대에 철기 내지는 철 소재를 공급하는 일종의 군수기지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최종택·양시은, 2018).

### 3) 고구려의 철기 제작기술

철 소재를 활용해 제작된 철기는 최종 성형방식에 따라 단조품과 주조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철기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소재와 제작공정이 적용되었다. 선철을 거푸집에 주입하여 생산하는 주조철기는 거푸집 제조, 용해작업, 주조작업, 열처리 등의 공정을 거친다. 고구려의 철기 대부분은 단조공정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사용 시 강한 충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철제용기와 같은 기종은 주조공정으로 제작되었다.

주조철기로는 구의동보루에서 시루와 나란히 온돌 아궁이에 걸린 채 출토된 둥근공모양 몸체의 쇠술, 칠성산고분군 채집품과 환도산성 출토품과 같은 세발술, 운산 용호동1호분 출토 철제부뚜막 등이 있다. 또한 쟁기 바닥에 끼워 땅을 갈아 흙덩이를 뒤집는 데 사용된 철제보습 역시 주조로 제작되었으며, 일자형가래날도 주조품이 확인된다.

조선 후기 김준근이 그린 <가마점>에는 철제 술과 쟁기를 제작하고 있는 주조작업 모습이 잘 담겨 있다(그림24). 이 그림은 전통시대 용해공정을 보여주는 매우 드문 자료이다. 크고 둥근 원추형가마는 앞쪽에 쇠물을 받아내는 아궁이가 있고 위쪽에는 배연작업을 위한 구멍이 뚫린 형태다. 가마 뒤편에서는 풀무꾼 4명이 2명씩 마주 보고 풀무질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차양과 2개의 기둥, 그리고 풀무꾼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풀무는 상면만 보여 전신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마 앞쪽에서는 쇠물을 옮기기 위한 도가니가 놓여 있다. 5개 술거푸집과 3개의 쟁기거푸집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으며, 오른쪽 아래에는 쇠물을 받아 옮기는 작업자 2명이 술거푸집에 용해된 쇠물을



그림24 | 김준근 <가마점>(©NRICH/Museum am Rothenbaum (MARKK), Hamburg)

붓고 있다. 갓을 쓰고 붓짐을 진 1명이 8명의 작업자를 지켜보고 있어 작업관리자인 듯하다.

단조철기 제작에는 강도가 서로 다른 강 소재를 합쳐 만드는 합단기 술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내부는 유연한 연강을, 외부는 경강을 사용하여 강도가 높으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도구를 제작하고 필요한 부위에만 강을 사용함으로써 소재를 경제적으로 활용해 실용구를 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단조철기의 날 부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열처리로 담금질을 하거나 너무 강도가 높아지면 재가열하여 풀어주는 풀림기술이 사용되었다. 이때 달궈진 철을 담구는 물이나 기름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였다. 단조작업에는 모루, 집게, 망치가 기본적으로 이용되지만, 갑옷이나 마구 등 형태가 복잡한 철기를 제조할 때에는 끌 등의 절단도구와 정교한 세공도구가 사용되었다. 성형을 마친 철기는 거친숫돌단계와 고운숫돌단계를 거쳐 연마되어 최종 생산품으로 완성되었다.

철기 제작기술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는 소재로서 철의 기계적 성질과 제작원리를 밝힐 수 있으며 금속 내부에 존재하는 비금속개재물의 성분 파악은 제철의 원료와 생산방식 등을 규명하는 데 유용하다. 우리나라에서 철기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는 1960년대 북한의 공학자인 최상준이 세죽리, 범의구석, 운성리, 풍천리, 노남리에서 출토된 철부, 철촉, 철모 등 철기 15점의 화학 조성과 현미경 조직을 분석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순철과 백주철 및 탄소강으로 제작되었고, 은울군 운성리 나무곽읍무덤 출토 ‘수레굴대’가 회주철 조직임을 제시하였다. 이어 정찬영은 고구려 초기 무덤 출토 철기 10점을 분석하여 공구로서 적합한 강철제 단조품 제작기술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이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노남리와 토성리 쇠부리터의 구조와 출토 철광석 및 철재의 성분을 분석하여 이곳이 파철 또는 해면철을 녹이던 노시설이며 여기서 생산된 철을 두드려 강철을 만들었다고 추정하였다.

구의동보루 출토 황공부 1점과 철촉 3점에 대한 CMA(Computer-aided X-ray Micro Analysis)와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sis) 분석에서는 철기 내 비금속개재물의 성분을 파악하여 이들이 초강을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황공부와 같은 공구는 탄소 함량이 0.86%에 달하는 고탄강으로 오늘날 공구강 수준에 맞먹는 강도를 지녔고 철촉은

그보다 탄소량이 적은 강으로 제작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철 제련 원료가 사철이 아닌 철광석이었고, 비금속개재물 내에 칼슘(Ca)이 많은 것은 초강 정련 시 조재제(造滓劑)로 석회 성분을 넣은 결과이며, 곽침단조기술이 구사된 것으로 보았다(윤동석·이남규, 1985).

철기의 미세조직분석은 제작에 사용된 철 소재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생산되었으며 현재 상태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이 응용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형태 변화가 크지 않은 철기의 기능 구현에 반영된 기술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한강 유역 출토 단조철기 14기종 32점에 대한 미세조직분석에서는 괴련철 침탄법과 합단법 등의 제작기술과 담금질과 뜨임 열처리 기술을 밝히고 백주철뿐 아니라 서랭에 의한 회주철 조직 생성 및 주철탈탄강의 존재를 확인하였다(최종택 등, 2001).

이로써 고구려 사회에 다양한 제강기술과 단조철기 제작공정이 존재했으며, 기능과 기종별 적합한 소재 활용과 제작기술을 접목한 철기 제작기술체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장은정, 2002). 또한, 고구려의 철제품 생산에서 제강공정이 앞서 실시되는 제강-성형체계와 반대로 성형 후 제강하는 두 가지 기술체계가 공존했다는 견해도 있다(박장식, 2005). 이처럼 금속학적 연구를 통한 철기 제작기술 연구는 철 소재 유통 및 철기 생산체계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다.

#### 4) 청동용기 제작

고구려의 청동기는 무덤에서 출토되는 청동용기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모두 주조품이다. 칠성산96호분과 우산하68호분에서 출토된 청

동정(鼎)은 편구형 동체부에 비교적 높은 다리가 세 개 부착되었고 어깨에 한 쌍의 파수가 달렸다. 둥근고리모양손잡이가 뚜껑에 부착되어 있는데 우산하68호분 출토품은 뚜껑손잡이 옆에 명문이 있다. 의례 전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청동세(洗)는 얇은 반형 동체에 짧은 다리를 가진 형태로 우산하68호분과 마선구235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외반 구연의 반형 동체에 수각형 다리 세 개가 달린 초두는 칠성산96호분 2호묘실에서 출토된 것이 유일하다. 용머리가 손잡이 끝에 있는 형태로 같은 형태의 초두가 원대자벽화묘에서도 출토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청동용기들은 중국에서 제작되어 고구려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칠성산96호분 2호묘실 출토 유개합은 합신부에 얇은 굽이 달려 있고 뚜껑에는 십자모양의 손잡이가 부착된 형태로 경주 서봉총 출토 연수(延壽)명은합과 유사하다. 또한 국내성에서 채집된 합의 뚜껑에는 화관장식과 보주형꼭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청동유개합이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되었다. 경주 금관총에서는 고구려의 대표적 토기인 사이장경호와 유사한 형태의 청동제사이호가 부장되고 있어 4~5세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청동용기의 제작기술에 대한 연구로는 초보적이거나 호우명청동합의 제작방식에 대한 연구가 있다. 호우총 목관 내부에서 확인된 청동합은 5mm 높이의 낮은 굽이 있는 형태로, 저부 안쪽 바닥면에 4자 4행으로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는 16자 명문이 새겨져 있다(그림25). <광개토왕비문>과 서체가 유사한 이 명문 속 을묘년을 415년으로 보아 5세기 초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신라로 반입되고 100여 년 가량의 전세를 통해



그림25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용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 호우명청동합
2. 호우명청동합 바닥면
3. 이형청동용기

호우총에 매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우명청동합의 명문 중간에는 주물 시 생긴 흔적으로 추정되는 선이 남아 있다. 엑스레이(X-ray) 사진 촬영 결과, 명문을 새기고 형태를 만든 뒤 2개의 외범과 1개의 내범에 가로 9mm, 세로 9mm의 방형 형지 4개를 고정시키고 청동주물을 부어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호우총에서 출토한 호우명청동합과 한쪽 면에 짧은 주입구가 연결된 이형청동용기의 성분을 비파괴 성분 분석한 결과 구리 94% 내외, 주석 10% 내외, 납 5.8% 내외, 그리고 아연과 철이 소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황남대총, 식리총에서 출토된 청동용기의 성분 구

성 비율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두 점의 호우총 출토 청동기는 같은 집단의 장인이 제작한 것이라 추정된 연구도 있다(이주현, 2006).

## 참고문헌

-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국립공주박물관, 2023, 『1500년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고구려의 철기』, 지그래픽.  
\_\_\_\_\_, 2021, 『한중 고고학 용어 비교집』, 예맥.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20, 『제철유적 조사·분석 방법론』.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1, 『고구려 고고-유적 편』(고구려통사 8).  
이선복·양시은·김준규·조기영·이정은, 2015, 『연천 무등리 2보루』, 서울대학교  
박물관.  
최종택·장은정·박장식, 2001, 『삼국시대 철기연구』, 서울대학교박물관.
- 강현숙, 2018, 「고구려 무덤 제사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101.  
\_\_\_\_\_, 2020, 「평북 운산 용호동 고구려 고분군 검토」, 『고고학지』 26.  
김수빈, 2021, 「통구분지 고구려 고분 출토 금동장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2022, 「국내성기 고구려 금공장식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72.  
김승옥·이보람, 2011, 「원삼국~삼국시대 단야구 연구-완주 상운리유적을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9.  
박아림, 2012,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帳錦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박장식, 2004, 「고구려의 철기제작 기술체계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 18.  
\_\_\_\_\_, 2005, 「환도산성 및 한강유역 출토 철기에 나타난 고구려의 철기기술」,  
『고구려발해연구』 20.  
백승옥, 2005, 「辛卯年銘 청동 방울」과 太王陵의 주인공, 『역사와 경계』 56.  
송계현, 1984, 「자료소개 3. 경남진북대평리유적채집철기류」, 『가야통신』, 가야통

신편집부.

양시은, 2013, 「고구려 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영찬, 2008, 「낙랑과 고구려의 象形土器: 부뚜막 明器를 중심으로」, 『丹豪文化研究』 12.

윤동석·이남규, 1985, 「한국 고대철기의 CMA와 EPMA에 의한 연구-구의동 철부·철촉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7·18.

이남규, 2018, 「고구려 제철 문화의 특성-무등리 2보루 유적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62.

\_\_\_\_\_, 2019, 「한국 고대 제철공정의 재검토-중국과의 비교적 시각에서」, 『한국고고학보』 111.

이선복·김준규, 2018, 「남한지역 고구려 보루 유적 편년에 대한 대안적 접근-무등리 보루 편년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62.

이양수, 2010, 「한반도 삼한·삼국시대 동경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주현, 2006, 「호우총·은령총의 출토유물-토기와 청동제품 중심으로-」, 『호우총·은령총 발굴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장은정, 2002, 「5~6세기 고구려 철기제작기법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호섭, 2009,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법중, 2004, 「중국 집안박물관 호태왕명문 방울」, 『한국고대사연구』 33.

조우연, 2017, 「“太王教造”: 4~5세기 고구려 명문 기물 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 57.

차순철, 2003, 「단야구 소유자에 대한 연구」, 『문화재』 36.

\_\_\_\_\_, 2005,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단야구에 대한 검토」, 『북방사논총』 2.

최종택·양시은, 2018, 「연천 무등리 고분군의 가치와 활용방안」, 『고구려발해연구』 6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朝鮮總督府, 1929, 『古蹟調査特別報告 第五冊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 上冊).

## 찾아보기

### ㄱ

- 각궁(角弓) 148  
 간지명 권운문와당 116  
 갈고리창 167, 184  
 감꼭지부늬 95, 107  
 갑옷 146, 153, 156, 167  
 갑주(甲冑) 180, 182, 186  
 갑주기병 186  
 갑주무사 156, 168, 181  
 개마(鎧馬) 181  
 개마무사 165, 166, 181  
 개마총 302, 303  
 거치문(鋸齒文) 27, 57, 81~83  
 거푸집 343, 431  
 건흥5년명금동광배 364, 365, 370  
 검능형(劍稜形) 행엽 245  
 격자문 27, 28, 81, 83  
 ‘경자(庚子)’명토기 129  
 고국양왕 333, 395  
 고리형과수 38  
 고배 200, 201  
 고배이음쇠 201~205  
 고연수 185  
 고유섭 71  
 고이산성 43, 46, 80, 210, 228, 266, 267  
 고혜진 185  
 골제찰갑 167  
 곱새기와 78  
 공귀리유형문화 47  
 공귀리형토기 48  
 공부(罽部) 162  
 관(冠) 302  
 관고리 291, 402  
 관못 291, 402  
 광개토왕 244, 293, 333, 334  
 <광개토왕릉비> 179, 244  
 광봉형(廣鋒形) 철모 163, 165  
 광엽형(廣葉形) 철촉 151, 152  
 팽이 253, 254, 278  
 교동3호분 255  
 『구당서』 고려전 66  
 구의동보루 153, 190, 261, 264, 285, 287, 412, 433

- 구형호 23, 39, 40, 56  
 국내성 43, 120  
 국내성 인민육지지점 67, 93, 114, 117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보살입상 366  
 국립중앙박물관 금동여래좌상 336  
 국보83호 금동반가사유상 369  
 군두(郡頭) 189, 190  
 굴레 200, 214  
 궁수(弓手) 148, 187  
 권운문와당 77, 92, 105, 113, 115,  
     117, 131, 134  
 귀걸이 307  
 귀면문와당 77, 93, 96, 97, 103, 107  
 귀면관 78, 79  
 귀접이(末角) 75, 82, 88  
 귀족연립정권 134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358~360,  
     363  
 금동만가 389, 395, 400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361~363  
 금동신발 319, 320, 322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346, 347, 358  
 금동제봉황형장식 391  
 금동제찰갑 169  
 금동투조신장상 340  
 금속공예기술 325, 339  
 금제대관(帶冠) 306  
 기부미노에시(黃書畫師, 黃文畫師) 376  
 기생 214, 222~224  
 기승마구 198, 199, 245  
 ‘기축’명와당 93  
 기하문와당 103, 104, 112  
 깎기조정 75, 88  
 꺾쇠 291, 400  
 꼭지형과수 55  
 꽃모양장식판 운주 215  
 끝암키와 75, 76  
 ㄴ  
 나무쟁기 270  
 남제 영명 원년 미륵·무량수여래상  
     344, 346  
 남남둔유형 20, 47  
 낫 167, 253, 262  
 내림마루 77  
 내면승문 87  
 네갈래작살 272, 283  
 노남리 421, 433  
 노남리집자리 43  
 노남리형토기 20, 47  
 노하심고분군 50  
 노하심 중층 3호무덤 201, 202  
 노하심 중층 11호무덤 203  
 노하심 중층 56호무덤 203  
 누초(婁肖) 189, 190  
 능산리 능안골32호분 312  
 능산리사지 318  
 능형(菱形) 150

능형문 81, 83

능형 철촉 151, 152

니질태토 25, 57

ㄷ

단궁(短弓) 148, 180

단면 조정 89

단봉(短鋒) 162

단야구 423, 427

단조괘이 254, 255, 275, 278

단창(短槍) 162

단판연화문와당 94, 95, 99, 107

당주(幢主) 189

당초문 81, 83

대당주(大幢主) 189

대모달(大模達) 189

대상파수 20, 27, 29, 32, 35, 47,  
48, 55

대성동2호 283

대성산고분군 44

‘대세□□년조와구(大歲□□年造瓦  
九)’명와당 115

대순자유형 20, 47

대형(大兄) 189

덕화리3호분 318, 326

덕흥리고분(-벽화고분, -벽화무덤,  
-벽화분) 148, 150, 154, 168, 174,  
175, 180, 181, 186, 225, 226,  
231, 290, 335, 409

도검(刀劍) 155

도교 104, 105, 133, 134

도끼날형(斧形) 철촉 151, 152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70

도제불상틀 342, 343, 345

도항리<현>22호 282

돌각담무덤 67

돌대흔 26

동경성 45

동나록포자고성 272

동대자유적 81, 94~96, 107, 256,  
261, 287, 288

동리묘(修利墓) 148

동명신화 123, 125

동심원문 28, 54, 365

동이(大鉢)류 30, 45, 46

등자 207, 209, 210, 237, 242

띠연결고정구 219, 220, 221, 237

띠연결고정금구 215, 241, 242, 392

띠장식구 214

ㄹ

라마동묘지 265, 267

라마동M209호 258

라마동IIM275호분 317

ㅁ

마갑주(馬甲冑) 174, 233

마구(馬具) 197~199

마루기와 77  
 마음쇠(蕤藜) 176  
 마선구1호분(묘) 36, 213, 216, 291, 310  
 마선구412호분(묘) 308, 311  
 마선구626호분(묘) 228, 408  
 마선구1445호분(묘) 422  
 마선구2100호분(묘) 234, 398, 400,  
 405  
 마선구2351호분(묘) 435  
 마선구2378호분(묘) 67, 80, 84  
 마선구2381호분(묘) 67, 80  
 마연토기 54  
 마포흔 86  
 막새기와 76  
 만달산록7호분 308, 313  
 만달산록15호분 313, 314  
 만보정242호분(묘) 41, 42  
 만보정242-1호분(묘) 179, 203, 221,  
 397  
 만보정1078호분(묘) 204, 209, 213,  
 216, 219, 237, 244, 392  
 만보정1368호분(묘) 392, 403  
 만초문와당 103, 104  
 말각방형장식 315  
 말갈관(靺鞨罐) 23  
 말갑옷 198, 233, 234  
 말객(末客) 189, 190  
 말압(抹壓) 113  
 말투구 233, 234  
 망강루고분군 48~50  
 망강루1호분(묘) 203, 236  
 망강루4호분(묘) 203, 236  
 맞배지붕 74  
 맥궁(貊弓) 148, 178  
 명광개(明光鎧) 185  
 명적(鳴鑼) 150  
 모(矛) 160  
 모골 86, 87  
 모용선비 23, 245  
 모인(摸印) 113  
 목궁(木弓) 148  
 목병도 156  
 목병철도(木柄鐵刀) 182  
 목심금동판피(木芯金銅板被) 윤등  
 208, 209  
 목심등자 206, 237, 244  
 목제칼집 159  
 몽고발형주(蒙古鉢形冑) 172  
 몽촌토성 41, 46, 270, 281  
 몽촌토성 88-2호주거지 256, 257  
 묘상건축 80, 406  
 묘후산유형문화 47  
 무관연미형 철모 183  
 무관직기형(無關直基形) 162  
 무등리2보루 170, 171, 290, 414,  
 421, 429, 430  
 무문(無文) 82, 85  
 무문자 권운문와당 94, 116

'무술년(戊戌年)'명와당 114  
 무용총 150, 302  
 무용총 벽화 150, 335  
 무용총 수렵도 148, 150  
 무환두도(無環頭刀) 156, 159  
 문자기와 113  
 문지도리쇠 292  
 물레 27  
 미구기와 76  
 미륵불상 351  
 미륵사지 319  
 미륵신앙 351  
 미륵존상 349  
 미사리 281  
 미송리형토기 48  
 미창구장군묘 254, 261  
 민주유적 120

**ㅂ**

박공마루 77  
 『박물지(博物志)』 70  
 박자(拍子) 85  
 반부철모(盤附鐵鉢) 166, 180  
 반원와당 77  
 발걸이 206  
 방울 221~223  
 배장묘 405, 410  
 백두(百頭) 189, 190  
 벼 266, 280

보상화문와당 103  
 보습(鐵犁) 253, 262, 264, 266,  
 268, 275, 276, 280  
 복발(覆鉢) 172, 173  
 복선연화문와당 94, 95, 97, 98,  
 106~108, 131  
 복천동고분군 283, 284  
 복천동10호 274, 283  
 복천동67호 282, 283  
 복합문 84  
 복합연화문 109  
 복합연화문와당 101, 102, 109  
 부경(桴京) 290  
 부뚜막 284, 285, 286, 288, 289  
 부뚜막형명기 389  
 부월수(斧鉞手) 160, 180, 187  
 부형토기 44, 56

**ㅅ**

사가와 가계노부(酒匂景信) 70  
 사겁(四劫) 129  
 사격자문(斜格子文) 28, 82  
 『사기(史記)』 70  
 사두형(蛇頭形) 철촉 151~153  
 사선문 28, 83  
 사이옹류 32, 34, 55  
 사이장경용 16~18, 32, 34, 35, 57  
 사이장경호 32, 34  
 사행상(蛇行狀) 기꽃이 214, 222, 223

사행상기생 214, 222, 223  
 삭(稍) 160, 166  
 산성자산성 263, 264  
 산성하교분군 312  
 산성하332호분(묘) 34, 218, 404  
 산성하725호분(묘) 231, 317  
 산성하진창145호분(묘) 232  
 산자형(山字形)장식 304  
 삼각형쇠보습 253, 268  
 『삼국사기』 65, 67, 323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 66, 148,  
 178  
 삼실총 34, 53, 157, 166, 168, 181,  
 234, 286, 322, 392  
 삼연(三燕) 176, 315  
 삼연 토기 23, 24  
 삼엽문(三葉文) 156, 304  
 삼엽문 환두도 156  
 삼익형(三翼形) 철촉 150~153  
 상오리(上五里)사지 339  
 상원하방형 칼편 174  
 상인부(上刃斧) 160  
 상현좌(裳懸座) 344, 354  
 상활룡촌2호분(묘) 43  
 새날개모양장식 304, 305  
 새무늬 94, 106  
 샤드(shard) 90  
 서대총(묘) 91, 113, 215, 405  
 서봉총 293, 396  
 서선교(西善橋) 전축분 벽화 367  
 서영촌사지 출토 소조여래좌상 345  
 서차구고분군 50  
 석가모니불 364  
 석담시(釋曇始) 334  
 석대자산성 185, 227, 289, 413  
 석대자산성 서문지 203  
 석문(扉文) 81, 82, 83  
 선문 81, 83  
 설형(舌形)기와 78  
 세(洗) 290  
 세갈래작살(三枝銛) 271, 272, 274,  
 283, 284  
 세갈래창(三枝鎗) 271  
 세장경축 183  
 세정격자문 83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71  
 세환이식 307, 311, 312  
 소골(蘇骨) 302  
 소구절2호 횡혈식석실묘 265, 277  
 소조불상틀 340, 343  
 소지(素地) 91  
 소찰(小札) 167, 169, 173, 174  
 소찰주(小札冑) 172, 181  
 소환구체(小環球體) 307  
 소환두도(素環頭刀) 156  
 송 원가 14년 금동여래좌상 343  
 송화산 출토 석조반가사유상 369  
 쇠뇌(弩) 153, 154, 184, 185

쇠술 287~289  
 쇠스랑 253, 259, 260, 275, 276, 279  
 수레바퀴축 224, 226~228  
 수레바퀴축 끝장식 226  
 수막새 110, 111  
 수목문 81  
 수키와 69, 76, 85, 120  
 순도(順道) 333  
 승배 178, 180  
 승리유적 256~258  
 승문(繩文) 27, 81, 82  
 시루류 42, 43, 56  
 시루봉보루 46, 151, 164  
 시유기법 52  
 시유부뚜막 286  
 시유토기 24, 51~53  
 시체연화문와당 95, 96, 107, 108  
 『신당서(新唐書)』 190  
 신묘년 395~396  
 심발 23, 25, 36, 37, 48  
 심엽형 수하식 309, 311, 317  
 ‘십곡민조(十谷民造)’명와당 115  
 『십지경(十地經)』 371  
 쌍영총 224, 302  
 쌍영총 벽화 165, 166, 235, 335  
  
 ○  
 아도(阿道) 333  
 아스카데라(飛鳥寺) 375  
 아양리토성 1호건물지 266  
 아오에 슈(靑江秀) 70  
 아차산보루 28, 31  
 아차산보루군 153, 166  
 아차산3보루 410, 413, 421, 429  
 아차산4보루 26, 46, 190, 205, 206,  
 210, 261  
 아프리카시아브궁전 벽화 303, 321  
 안교(鞍橋) 211, 212, 237  
 안악3호분 41, 285, 392  
 안악3호분 행렬도 148, 163  
 안장(鞍裝) 211  
 암문(暗文) 28  
 암키와 69, 75, 87, 120  
 압날뿔 27  
 아하타오쓰카(八幡大塚)2호분 312  
 약수리고분(-벽화고분, -벽화무덤,  
 -벽화분) 160, 168, 291  
 양이심발 36~38  
 양인부(兩刃斧) 160  
 어골문 27, 57, 81, 83, 84  
 X선회절분석 72, 90  
 연미형 철모 163, 166, 180  
 연속고리문 28  
 연수(延壽) 293  
 연접식적석총 39  
 연화문와당 77, 92, 106, 128  
 연화보-세죽리 철기문화 254, 274  
 연화화생(蓮華化生) 129

엄비(閻毗) 154  
 영강7년명금동광배 349~351, 358  
 영월 출토 금동보살입상 372, 373  
 ‘영화9년(永和九年)’명벽돌 148  
 예새 27, 55  
 오녀산성 38, 205, 206, 228, 230,  
 255, 272, 289, 326, 412, 427  
 오녀산성 3기문화층 48, 49  
 오녀산성 4기문화층 210, 233  
 오회분4호분(묘) 408, 425  
 와운문와당 103, 104  
 와통 86  
 『완당집(阮堂集)』 70  
 凹자형쇠날 258  
 요코이 다다나오(横井忠直) 70  
 욕살(褥薩) 189  
 용마산2보루 14, 292, 413  
 용문투조과관 315  
 용수산성 119  
 용호동1호분 294, 391, 398, 403  
 우경 280  
 우산하41호분(묘) 36  
 우산하68호분(묘) 434  
 우산하540호분(묘) 221, 231, 422  
 우산하992호분(묘) 215, 233  
 우산하1041호분(묘) 217, 221  
 우산하1493호분(묘) 44  
 우산하2110호분(묘) 228, 229, 408  
 우산하2891호분(묘) 218  
 우산하3013호분(묘) 46  
 우산하3105호분(묘) 44, 231, 304  
 우산하3319호분(묘) 118, 405  
 우산하3501호분(묘) 44  
 우진각지붕 74  
 운주 215, 216, 240  
 운평리2지구 35호분 67  
 운평리4지구 6호분 67  
 원대자벽화분(묘) 39, 204, 242, 435  
 원오리(元五里)사지 339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 343  
 원주 법천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372, 374  
 월(鉞) 184  
 월성로가-13호분 204, 243  
 월형부(月形斧) 160  
 위두대형(位頭大兄) 189  
 『위략』 178  
 유가촌(劉家村) 255  
 유경식(有莖式) 152  
 유관연미형(有關燕尾形) 162  
 유관직기형(有關直基形) 162  
 유관직기형 철모 163  
 유문자 권운문와당 113  
 U자형보습 268  
 U자형쇠날 253, 255~258, 260,  
 275, 276, 279  
 윤등(輪鏡) 206, 210  
 윤부 208, 209

- '을묘년(乙卯年)'명와당 114  
 의연(義淵) 371  
 이련식재갈쇠 205  
 이불란사(伊弗蘭寺) 333  
 이시아마테라(石山寺) 금동여래입상  
     376, 377  
 인각(印刻) 113  
 인각명문와 116  
 인동문와당 77, 96, 103, 107  
 인동초 307  
 인장(印章) 113  
 인현의불(因現義佛) 348  
 『일본서기』 323  
 일산대꼭지 226, 230, 231  
 일산대꼭지장식 230, 231  
 一자형쇠날 253, 255, 256, 275,  
     278  
 임강총(묘) 75, 228, 232, 408, 410  
  
**즈**  
 자양동(뚝섬) 출토 금동여래좌상 336  
 작살(鋸) 271, 273, 282, 283  
 장경옹류 34  
 장경호류 32  
 장군총 75, 232, 405, 406, 410  
 장궁 185  
 장동호류 26, 27  
 장막걸이쇠 292, 400, 402  
 장봉(長鋒) 162  
 장신구 323  
 장창(長槍) 162  
 장창기병(長槍騎兵) 182  
 장천1호분(묘) 150, 335, 337, 343,  
     402, 404  
 장천1호분(묘)〈예불도〉 337, 338  
 장천2호분(묘) 36, 392, 422  
 장천4호분(묘) 209, 214, 218  
 재갈 179, 200, 205, 237  
 재갈멈치 200, 202~205, 241  
 재갈쇠 203, 204  
 쟁기 279  
 적새 77, 78  
 전돌 121  
 전연(前燕) 174, 175  
 전지문와당 103, 104  
 전 황주 출토 석조여래좌상 345  
 절풍(折風) 301, 302  
 짐렬문 27, 57  
 짐문 81, 83, 84  
 짐토질테토 25  
 정(鼎) 290  
 정격자문(正格子文) 82  
 정릉사 134  
 정릉사지 122, 339  
 '정사(丁巳)'명와당 94, 115  
 조우관(鳥羽冠) 302, 305, 306, 321  
 조익형(鳥翼形)관식 304  
 조합연화문와당 99, 101, 108

족쇄 232, 233  
 중방향연결법(縱方向連結法) 87  
 중선문(縱線文) 82  
 중선문+X자문 82  
 중장판주(縱長板冑) 172, 181  
 주몽(朱夢) 147  
 주월리유적 41  
 구조팽이 253~255, 275, 278  
 주형기신광배 374  
 중공식 구조기법 374  
 중도동C2구역 1호분 309  
 중성자방사화분석(NAA) 21  
 중장기병 165, 175, 180, 182, 183,  
     185, 186, 188, 245  
 중장보병 186  
 중호문 28, 57  
 즈와(葺瓦) 113  
 지경동1호분 43, 45, 204  
 지구촌(地溝村) 263  
 『지봉유설(芝峯類說)』 70  
 지증왕 280  
 직구용류 41  
 직구호류 41, 42  
 직기형 철모 166, 178  
 집모양토기 74  
  
 ㄷ  
 차관 292  
 차륜문와당 103, 104, 112  
  
 차마구 198  
 차축(車軸) 199, 228  
 차축두(車軸頭) 200, 225~227  
 차할(車轄) 199, 203, 226, 228~230  
 착고 77, 78  
 착두형 철촉 151~153  
 찰갑(札甲) 150, 157, 167, 169  
 창(槍) 160  
 창고달(鐵鎗) 160  
 창끝(鐵鉞) 160  
 책(幟) 302  
 처마기와 75  
 천마총 224, 244, 288  
 천추총 75, 78, 119, 126, 215, 223,  
     234, 396, 405  
 철기(鐵騎) 175, 181  
 철모(鐵鉢) 163  
 철서(鐵鋤) 253, 260, 261, 275, 276,  
     279, 282  
 철정리(鐵釘履) 181  
 철제갑주 159, 165, 178, 183  
 철제단도 178  
 철제도끼 159  
 철제등자 206  
 철제정(鼎) 288  
 철제차관 292  
 철제찰갑 168, 180  
 철제초구금구(靱口金具) 159  
 철촉 150, 153, 178, 180

철호 289  
 청암리(靑巖里)사지 339  
 청암리토성 306  
 전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352, 357  
 초두 290  
 초문사(肖門寺, 省門寺) 333  
 초승달형 편자 232  
 초화문 81  
 추녀마루 77  
 추형(錐形) 동축 154  
 추형 수하식 309  
 추형 철축 154  
 축법호(竺法護) 348  
 치미 78  
 칠성산고분군 288, 311, 431  
 칠성산96호분(묘) 290, 434, 435  
 칠성산1096호분(묘) 204~208, 213,  
 217, 219, 237, 244, 403, 404  
**ㅌ**  
 타출(打出) 113, 324  
 ‘태녕4년(太寧四年)’명와당 93, 114,  
 115  
 ‘태녕□년(太寧□年)’명와당 114, 116  
 태사격자문 83  
 태왕릉 75, 126, 207, 208, 216, 219,  
 220, 223, 232, 242, 244, 263,  
 265, 304, 389, 392, 405, 422  
 태정격자문 83

『태평어람(太平御覽)』 148  
 태환이식 307, 308, 310~312  
 토성리(土城里) 421, 433  
 토성리사지 339, 340  
 토수기와 76  
 토탑신앙 90  
 토포리대묘 36  
 통구12호분(묘) 67, 106, 156, 157,  
 168, 172, 224, 402  
 투겁창(鉞) 162  
 투구 172  
 투부(鬪斧) 159

**ㅍ**

파르티안 샷(parthian shot) 148  
 파상문 28, 57  
 판갑(板甲) 167  
 판금(板金) 324  
 판비(板轡) 201, 205  
 팔찌 313, 314  
 팔청리벽화고분 291  
 폐왕조산성 217  
 편자 232, 233  
 평기와 82  
 평양역전 이실분 148, 180  
 평양 천도 309  
 평천리(平川里)사지 339, 340  
 평천리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358,  
 367~369

평행타날문 293

표비(鑣轡) 201~203, 205

풍소블묘 304, 398, 402

ㅎ

하활룡촌8호분(묘) 38

한사군 74

〈한와당(漢瓦當)〉 70

『한원(翰苑)』 189

합(盒) 290

합성궁(合成弓) 148

행엽 217, 218, 237, 242

행인형와당 77

허리띠장식 315~318, 321

『현겁경(賢劫經)』 348, 349

현겁천불 348

혈구(血溝) 165

협봉형(狹鋒形) 162

혜량(惠亮) 370

혜자(惠慈) 376

호등(壺鐘) 206, 210

호로고루 119, 126, 128

호미 283

호우총 396, 435~437

홍련봉1보루 80, 129, 412

화뢰문(花蕾文) 81, 83, 84

화살 150

화살촉 147

화살통(盛矢具) 150

화염문 81, 83, 84

환도산성 117, 123~126, 413, 431

환도산성 궁전지 78, 292

환도산성 2호문지 292

환도수 187

환두대도 157, 178

환두도(環頭刀) 156, 159, 182

환비(環轡) 201

활(弓) 147

황남대총 남분 244, 292, 305, 306

황남대총 북분 244, 310

횡공부(橫鋸斧) 159, 160

횡선문(橫線文) 82

형성 출토 금동여래입상 372

횡판연화문와당 95, 102, 107, 108

후조 건무 4년 금동여래좌상 335, 336

훼기와당(毀棄瓦當) 126, 129, 133

훼기연화문와당 132

흑색 마연단경호 128



고구려통사 9

## 고구려 고고

- 유물 편

초판 1쇄 인쇄 2023년 11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23년 11월 30일

역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지은이 최종택, 백종오, 양시은, 강현숙, 김재홍, 이한상, 최성은, 장은정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http://www.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BN 979-11-7161-019-8 94910

978-89-6187-595-0 (세트)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